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AI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The Convergence of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I Era

| 주 최 |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NRC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USOP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

| 주 관 |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충북연구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포럼,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충북대 프로메이커센터, 충북도정 휴마니타스 포럼, 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 충청대 반도체AI연구소, 국립순천대인문학술원, 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

| 후 원 | 교육부, 충청북도,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원대학교, (주)한국스텔라노바

CONTENTS

● 2025년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일정 및 개요

● 개회사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허 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

● 축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1세션

AI &인문사회

제2부. AI시대 메가프로젝트와 사회변동	35
제3부. AI시대 포스트 휴머니즘과 언어학	40
제4부. AI와 인문사회과학	43
제5부. AI시대 위기와 그 대응방안(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	47

2세션

공동주관기관

제1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소멸(한인사협)	57
제2부.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 실천가 양성 방안(충북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	64
제3부. 인문사회연구성과 발굴 프로그램(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	70
제4부. AI시기 교육데이터플랫폼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	77
제5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저출산 고령화 대응전략	85

3세션

세계지역 연구

제3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1	95
제4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2	98
제5부. 아랍지역 세션	100

4세션

세계지역 연구II(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제2부. 과학과 문명학	105
제3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 3	108
제4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 4	110

5세션

충북과 지방소멸 예방

제2부.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영유아교육지원 체제 방안 탐색	115
제3부. AI 시대의 과학기술과 사회(한국교통대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충북대 Pro메이커센터)	119
제4부. 반도체AI 인력 양성(충청대 반도체 AI연구소)	123
제5부. 디지털 AI 대전환 시대, 지역 경쟁력 제고와 향후 과제(충북연구원)	132

6세션

교육

제1부. 자유패널	143
제2부. 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양교육의 방향	144
제3부. 인문학과 교육	146
제4부.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과제	151
제5부. 동아시아 언어자료구축과 연구	157

7세션

자유세션

제1부. 오감과 음식	163
제2부. 지구본과 지도, 지정학과 역사문화지리학	167
제3부. AI 시대의 신화와 매체-만주, 원난, 타이완 사례	171
제4부. 역사속의 여성과 페미니스트 윤리	177
제5부. E스포츠와 예술, 디자인	180

8세션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 실증업체부스	189
9세션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HUSOP)	
	제1부.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1	195
	제2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국제관계)	206
	제3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재난)	215
	제4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지역)	224
	제5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공동체)	233
10세션	세계지역연구 III(아시아)	
	제1부. 아시아태평양 해역과 한국	241
	제2부. 한국내 일본관련 연구소의 연구성과와 전망	243
	제3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1	247
	제4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1	250
	제5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2	255
	제6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2	258
11세션	문화와 종교사상	
	제1부. AI와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전 전략1	265
	제2부. AI와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전 전략2	269
	제3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270
	제4부. AI 시대 유학사상의 재조명	274
	제5부. 동서종교철학과 사회문화	280
12세션	사회와 심리	
	제2부. 치유와 전환의 인문학-감정, 이야기, 존재를 다시보다	289
	제3부. AI시대 마음 챙기기1	293
	제4부. AI 시대의 마음 챙기기2	296
13세션	이주, 교육, 사회	
	제1부. 이주 다문화 연구1	305
	제2부. 이주 다문화 연구2	311
	제3부. 행성 시대 돌봄 인문학	316
	제4부.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육	319
	제5부.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324
14세션	정치경제와 국가	
	제2부. 글로벌 정치와 경제	331
	제3부. 한국사회의 위기와 계급	332
	제4부. 서양정치철학과 K-민주주의	335
	제5부. 국가위기와 극복방안	339
15세션	충북지역단체 자유세션1	
	제1부. 융합적 진로교육:정체성 해체와 융합교육	345
	제2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351
	제3부. AI 혁신으로 변화하는 충북: AX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충북과학기술혁신원) ..	361
	제4-5부. 한국의 미래와 과학기술의 역할1·2(충북과학기술포럼)	362
	제6부. AI 시대 문화와 고전교육(한인사협)	372
16세션	충북지역단체 자유세션2	
	제1-2부.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	381
	제3부. 자유패널 / 정책연구 사례와 전망	388
	제5부. 한국지역 연구의 현황과 과제(유럽과 아프리카)	390
	■ 기업지원사업 안내자료	397

-2025년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AI 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공동주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KASHI)-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HUSOP)-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공동주관: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충북연구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포럼, 충북과학문화저점센터, 충북대 프로메이커센터,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 충청대반도체AI연구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후 원: 교육부, 충청북도청,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원대학교, (주)한국스텔라노바

1. 취지 및 목적

2025년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는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소)과 한국연구재단 통합성과확산센터의 사업대상인 HK연구사업단, 융합연구단,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의 연구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연구 과제 뿐 아니라 충북도의 거버넌스 구축을 하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과 융합된 기관들이 협력하여 세계의 전문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확산함으로써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문화권에 미래지향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며, 융합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AI와 디지털 시대의 연구와 교육정보화를 주관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데이터플랫폼'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체험세션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충북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는 국제사회의 문명적 위기와 함께 인구절벽과 고령화, 지방소멸, 다문화 현상 등 현대 한국사회의 거대위기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풍요로운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특히 AI와 디지털 시대에 따른 「AI 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대주제로 하여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체육 분야의 융합적 연구를 위해 학제간적 시각에서 우수연구 성과를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 가지에 역점을 두어 학술대회를 기획하였다. 첫째는 AI 시대의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과 과제이고, 둘째는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글로벌 이념의 확립이고, 셋째는 충북 거버넌스 구축 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지방과 지역의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미에서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또한 국제연구자 발표 세션을 확대하여 국제적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미래적 가치를 성찰하고, 그에 따른 통섭적 융합 연구를 통하여 거대위기 극복에 필요한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다학제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필요성

2025년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한국연구재단 통합성과확산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필요성과 시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인류사회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난 국면에서도, 정치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강대국과 강대국,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전쟁과 같은 대립적 상황을 연출하면서 신냉전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인류는 고도의 기술문명의 성과에 힘입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고, 학습하고 말하며 창의적인 작업을 행하는 ChatGPT가 인류

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과학기술 문명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서 보듯이 정치외교,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영국, EU, 브릭스(BRICS)를 아우르는 국가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 관계가 격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 외교적·경제적 대립에 따르는 인종적·사회문화적 갈등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2025년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는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는 ‘AI시대에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중심적인 주제로 삼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통섭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글로벌 시민사회와 미래사회를 운영하는 표준적 원리와 가치를 정립하고자 한다.

3. 학술대회 내용

❖ 2025년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시행(안)

항목	내용
학술대회제목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5년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학술대회일정	2025년 7월 3일(목요일) 오전 10:00~7월 4일(금요일) 오후 6:00
학술대회 전체주제	AI 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학술대회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발표세부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세션 60여개 패널 200여개의 발표가 진행되고, 1,00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 • 핵심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전체기획주제: AI시대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의 역할과 과제, ②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통합성과확산센터 연구결과 발표(KH연구성과, 융합연구성과) ③충북지역 아젠다 기획세션 ④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책연구 성과발표 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데이터플랫폼과 RISS 체험세션 ⑥ 메가프로젝트 사업 세션 ⑦글로벌 아젠다 명사 주제 ⑧해외연구자 글로벌 융합주제 ⑨인문사회연구소대표 연구 성과 발표 ⑩자유주제 발표-인문사회융합 및 통섭 관련 ⑪ 충북의 다양한 거버넌스 기관 발표
행 사	-충청북도 도지사 특강(40분)
참여연구소 및 인원	참여연구소 및 인원: 150여개 연구소에서 약 800~1,000여명 참가 예정(외국인 약100명)
학술행사 추진위원회	-회장, 수석부회장·성과확산위원장, 조직위원장, 지역위원장, 이재은 부회장, 백성해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학술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과 절차 등을 논의한다.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대회 행정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 김미경 사무국장 TEL:061-750-3968/ H.P.010-5192-0528 /E-Mail:loza1300@hanmail.net) • 학술대회 접수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수도권, 강원권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윤미 성과확산위원회 위원:E-mail/historianpym@naver.com -부울·경상권, 광주전라권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종현 성과확산위원회 위원:E-mail/onix0410@naver.com -충청권 대전권 학술회의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주현(한국교원대 연구교수):E-mail/kmunhak@knue.ac.kr 홍현수(한국교원대 연구교수): • 발표주제 관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연석 성과확산위원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HP.010-6808-4460/E-mail:yseom05@nate.com
주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KAHSI),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HUSOP),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주관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충북연구원, 충

	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포럼,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충북대 프로메이커센터,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 충청대반도체AI연구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후원	교육부, 충청북도청,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원대학교, (주)한국스텔라노바

4. 세부일정

- 개회식은 7월 3일(목) 오후 4:20~6:00
- 대회 만찬은 7월 3일(목) 오후 6:00~8:00
- 기획세션, 자유세션 등을 배합하여 운영

세션 월일	세션1	세션2	세션3	세션4	세션5	세션6	세션7	세션8
7월3일 (목)	1-1	2-1	3-1	4-1	5-1	6-1	7-1	8-1
	1-2	2-2	3-2	4-2	5-2	6-2	7-2	8-2
	1-3	2-3	3-3	4-3	5-3	6-3	7-3	8-3
	1-4	2-4	3-4	4-4	5-4	6-4	7-4	8-4
	1-5	2-5	3-5	4-5	5-5	6-5	7-5	8-5
	1-6	2-6	3-6	4-6	5-6	6-6	7-6	8-6
	개막식, 개막공연, 충북도지사 특강							
	세션9	세션10	세션11	세션12	세션13	세션14	세션15	세션16
7월4일 (금)	9-1	10-1	11-1	12-1	13-1	14-1	15-1	16-1
	9-2	10-2	11-2	12-2	13-2	14-2	15-2	16-2
	9-3	10-3	11-3	12-3	13-3	14-3	15-3	16-3
	9-4	10-4	11-4	12-4	13-4	14-4	15-4	16-4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9-6	10-6	11-6	12-6	13-6	14-6	15-6	16-6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임시총회							

* 세션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대회 주제인 ‘AI와 인문사회’세션과 공동주관들이 참여하는 ‘공동주관기관’ 세션이 있다. 이어 주제별 세션으로 ‘세계지역연구 I, II, III’, ‘충북과 지방소멸 예방’ 등 충북 지역 세션, ‘교육’,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 ‘문화와 종교사상’, ‘사회와 심리’, ‘이주, 교육, 사회’, ‘정치경제와 국가’ 세션이 있다. 이외에도 자유세션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체험 세션이 있다.

이 중에서 이번학술대회 주제를 다루는 ‘AI와 인문사회’ 세션에서는 한인사협이 기획한 ‘AI와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하여 ‘AI시대 포스트휴머니즘과 언어학’, ‘AI시대 국제거래’, ‘AI시대의 위기와 그 대응방안’ 주제 패널에서 13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공동주관기관세션에서는 공동참여기관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소멸’, 충북지역 기관의 ‘탄소중립시민아카데미 실천가 양성방안’,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통합연구센터의 ‘인문사회연구성과 발굴프로그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AI시기 교육데이터 플랫폼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전략’이 있다.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 세션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통합성과확산센터 사업대상인 HK연구사업과 융합 분야 연구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충북지역 세션에는 충북연구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포럼,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충북대 프로메이커센터,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 충청대 반도체AI연구소 등 충북의 거버넌스 구축 기관들이 참여하여 충북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발표한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교육데이터플랫폼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연구와 교육을 연결하는 디지털 체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025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 AI 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일시: 2025년 7월 3일(목) 오전 10시~4일(금) 오후 6시

장소: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

주최: 한국인문사회연구조합협의회(181개 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

주관: 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충북연구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포럼,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충북대 프로메이커센터, 충북도청 후마니타스 포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 충청대반도체AI연구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후원: 교육부, 충청북도청,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원대학교, (주)한국스텔라노바

주요대회일정

	세션	제1세션	제2세션	제3세션	제4세션	제5세션	제6세션	제7세션	제8세션	
	장소	교양학관 104호	교육연구관 206호	교육연구관 208호	교육연구관 210호	교육연구관 505호	교육연구관 506호	교육연구관 204호	교육연구관 211호	교육연구관 211호 앞로비
	부	AI & 인문사회	공동주관기관	세계지역 연구	세계지역 연구II (아시아,중동, 아프리카)	충북과 지방소멸 예방	교육	자유세션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실습체험실	소프트랩 및 실증업체 부스
7월 3일 (목)	제1부 10:00~11:00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소멸 (한인사협)				자유패널	오감과 음식		
	제2부 11:00~12:00	AI시대 메가프로젝트와 사회변동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 실천가 양성방안 (충북지역)		과학과 문명학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영유아교육 자원체제 방안 탐색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연구소)	디지털 전환 시대 교양교육의 방향	지구본과 지도, 지정학과 문화지리학		
	점심	12:00~13:00								
	제3부 13:00~14:00	AI시대 포스트 휴머니즘과 언어학	인문사회연구 성과발굴 프로그램(HUSOP)	한국의 세계지역연구의 쟁점 I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 III	한국교통대 충북과학 문화거점센터/ 충북대 Pro 메이커센터	인문학과 교육	AI시대의 신화와 매체-만주, 원난, 타이완 사례	교육데이터 플랫폼 및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RISS) 체험1	충북 에듀테크소 프트랩 및 실증업체 부스 전시1
	제4부 14:00~15:00	AI와 인문사회과학 (한인사협)	AI시기 교육데이터플 랫폼과 학술연구정보 서비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 II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 IV	충청대 반도체 AI연구소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과제	역사속의 여성과 페미니스트 윤리	교육데이터 플랫폼 및 학술연구 정보서비스 (RISS) 체험2	충북 에듀테크소 프트랩 및 실증업체 부스 전시2
	제5부 15:00~16:00	AI시대의 위기와 그 대응방안 (HUSOP)	저출산고령화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아랍지역 세션 (부산외대)		충북연구원	언어자료 구축과 연구(한국교원대인문사회과학연구소)	E스포츠와 예술, 디자인		

	개회식 16:20~18:00	개회사 16:20~16:30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						
		축사 16:30~16:50	국회 교육위원장, 충북도교육감, 한국교원대 총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주관기관장						
		16:50~17:30	충청북도지사 특강						
		17:30~18:00	개회식 공연(상명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만찬	18:00~20:00							
	세션	제9세션	제10세션	제11세션	제12세션	제13세션	제14세션	제15세션	제16세션
	장소	교양학관 104호	교육연구관 206호	교육연구관 208호	교육연구관 210호	교육연구관 505호	교육연구관 506호	교육연구관 507호	교육연구관 204호
	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HUSOP)	세계지역연구 III(아시아)	문화와 종교사상	사회와 심리	이주, 교육, 사회	정치경제와 국가	충북지역단체자유 세션1	충북지역단체 자유세션2
7 월 4 일 (금)	제1부 10:00~11:00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1 (기초학문)	아시아태평양 해역과 한국	AI와 인구조멸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전전략 1		이주 다문화 연구 1		융합적 진로교육·정체성 해체와 융합교육	한국과충 북지역연합회
	제2부 11:00~12:00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2 (국제관계)	한국내 일본관련 연구소의 연구성과와 전망	AI와 인구조멸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전전략 2	치유와 전환의 인문학-감정, 이야기, 존재를 다시 보다	이주 다문화 연구 2	글로벌 정치와 경제	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12:00~13:00	점심							
	13:00~14:00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임시총회(교양학관 104호)							
	제3부 14:00~15:00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3 (재난)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AI 시대의 마음 챙기기 1	행성시대의 돌봄 인문학	한국사회의 위기와 계급	충북과학기술 혁신원	자유패널
	제4부 15:00~16:00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4 (지역)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 1	AI시대 유흥사상의 재조명	AI 시대의 마음 챙기기 2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육	서양 정치철학과 K-민주주의	충북과학기술 포럼1	자유패널
	제5부 16:00~17:00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5 (공동체)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 2	동서종교 철학과 사회문화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국가위기와 극복방안	충북과학기술 포럼2	한국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제6부 17:00~18:00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 2					AI 시대 문화와 고전교육 (한인사협)		
	폐회식	18:00~18:10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발표일정과 연구소별 발표주제 및 성과발표계획안

❖ 프로그램

2025년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는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가 「AI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하여 한국인문사회연구소 연구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시민사회의 표준적 운영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대회 주제인 ‘AI와 인문사회’ 세션과 공동주관들이 참여하는 ‘공동주관기관’ 세션이 있다. 이어 주제별 세션으로 ‘세계지역연구 I, II, III’, ‘충북과 지방소멸 예방’ 등 충북 지역 세션, ‘교육’,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 ‘문화와 종교사상’, ‘사회와 심리’, ‘이주, 교육, 사회’, ‘정치경제와 국가’ 세션이 있다. 이외에도 자유세션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체험 세션이 있다.

❖ 1일차(7월 3일) 연구주제 발표일정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인문사회융합성과확산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5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시간(오전)	항목	주제	발표자
제1세션 (교양학관 104호)		AI & 인문사회	
제1부: 자유패널- 사회HOST CONFERENCE			
제2부: AI시대 메가프로젝트와 사회변동 -사회HOST CONFERENCE- 안기돈(충남대)			
11:00~11:15	1-1	AI시대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 의의, 현시기 과제	강성호(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
11:15~11:30	1-2	유럽의 메가 프로젝트와 국가과제 해결	김동혁(광주과기원 융합교육및연구센터)
11:30~11:45	1-3	미국의 메가프로젝트와 사회적 역할	강태원(충남대 지식혁신연구소)
11:45~12:00	1-4	‘소버린 AI 시대 한국학의 재정립’의 사례로 보는 인문학분야 메가 프로젝트의 가능성	송혁기(고려대 글로벌인문학연구원)
제3부: AI시대 포스트 휴머니즘과 언어학-사회HOST CONFERENCE: 안희돈(건국대)			
13:00~13:15	1-5	AI 음성의 감정 표현과 인식	윤다연(건국대 다언어다문화연구소)
13:15~13:30	1-6	포스트휴머니즘 언어학에 기반한 번역 텍스트 분석	전문기(건국대 다언어다문화연구소)
13:30~13:45	1-7	대화하는 인간과 기계: AI 스피커의 담화 수행과 포스트휴머니즘적 고찰	정혜녕(건국대 다언어다문화연구소)
13:45~14:00	토론		
제4부: AI와 인문사회과학-사회HOST CONFERENCE: 김재인(경희대)			
14:00~14:15	1-8	AI시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이 나아갈 방향	김재인(경희대)
14:15~14:25	1-9	AI와 인문사회과학	이원태(아주대 전 인터넷진흥원장)
14:25~14:35	1-10	AI와 인문학	이상욱(한양대 과학기술철학)
14:35~14:45	1-11	AI와 예술	전혜정(청강문화산업대)
14:45~15:00	토론	전체토론	

제5부: AI시대 위기와 그 대응방안 (인문사회통합협성과확산센터)-사회HOST CONFERENCE:유요문(고려대)			
15:00~15:30	1-12	AI 시대의 위기와 그 대응 방안	장정선(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13	더 나은 AI를 위한 인문사회학의 역할	이승진(NC AI)
	1-14	AI 격차해소 방안-기본사회를 위하여	김성현(NIA AI데이터사업팀)
	1-15	AI 기술의 재앙적 위험 요소	김창익(KAIST 인류세센터)
15:30~14:00	토론	전체토론	
제2세션 (교육연구관 206호)		공동주관기관	
제1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소멸(한인사협) -사회HOST CONFERENCE- 안기돈(충남대)			
10:00~10:10	2-1	지역 자생력 기반의 분권형 산업생태계 전환	안기돈(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
10:10~10:20	2-2	복지-일자리-주거 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신창환(경북대 지역개발연구소)
10:20~10:30	2-3	AI시대 지역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권응상(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10:30~10:40	2-4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인간중심 가치체계와 윤리적 전환	엄연석(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0:40~10:50	2-5	지역문제기반 AI디지털 역량개발 컨셉디자인: 디지털 새싹 사업을 중심으로	배진호, 이주영, 박수홍 (부산대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2-6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황경연(충남대 지식혁신연구소)
10:50~11:00	토론	전체토론	
제2부: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 실천가 양성 방안(충북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 -사회HOST CONFERENCE-오지승(충북탄소중립지원센터팀장)			
11:00~11:15	2-7	기후위기 대응(완화, 적응)을 위한 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 발굴	강진영(한국교원대 연구교수)
11:15~11:30	2-8	탄소중립 실천협력체계 구축과 자원순환도시 만들기	염우(풀꿈환경재단 대표이사)
11:30~11:45	2-9	AI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제안과 전략 수립	문윤섭(한국교원대 교수)
11:45~12:00	2-10	탄소중립 실천과 ESG 경영활동	김연준(기후회복실천문화원)
	토론	이소영(충북연구원), 문진수(SK에코플랜트), 김성운(충북탄소중립지원센터)	
제3부: 인문사회연구성과 발굴 프로그램(인문사회통합협성과확산센터)-사회HOST CONFERENCE:유해인(고려대)			
13:00~13:10	2-11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DB 구축 방법과 구현	신동규(동아대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13:10~13:20	2-12	현대 한독 교류와 협력 관련 독일 자료의 번역 및 DB구축 사업 성과와 확산	류승주(고려대 독일어권문화연구소)
13:30~13:40	2-13	근대 전환 공간의 인문학, 문화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	오지석(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13:40~13:50	2-14	e스포츠 윤리생태계 연구: 철학적 성찰에서 교육적 실천까지	최승준, 박성은(경성대 e스포츠연구소)
13:50~14:00	토론	종합토론	
4부: AI시기 교육데이터플랫폼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사회HOST CONFERENCE:김소영(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00~14:15	2-15	교육데이터플랫폼 기반 연구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	박준홍(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15~14:30	2-16	AI 기반 대학 연구 동향 분석예측 서비스(UREKA) 추진 전략	장상현(한국교육학술정보원)
14:30~14:45	2-17	교육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한 대학특성화 사업 분석	감지혜(성신여자대)
14:45~15:00	토론		

제5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저출산 고령화 대응전략-사회HOST CONFERENCE: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15:00~15:15	2-18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전략(총괄)	홍사흠(국토연구원)
15:15~15:30	2-19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전략(교육부문)	유한구(한국직업능력연구원)
15:30~15:45	2-20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5:45~16:00	2-21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제3세션 (교육연구관 208호)		세계지역연구 I	
제1부: 자유패널 -사회HOST CONFERENCE: ()			
10:00~11:00			
제2부: 자유패널 -사회HOST CONFERENCE: ()			
11:00~12:00			
제3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1-사회HOST CONFERENCE: 송영훈(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13:00~13:30	3-1	마러 엘리트 변동과 양국 관계 변화	발표:연담린(한신대유라시아연구소); 논평:정원희(강원대통일강원연구원)
13:30~14:00	3-2	트럼프-시진핑 2.0 시대의 미중 관계: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임진희(한신대유라시아연구소); 토론:허재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4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2-사회HOST CONFERENCE:송영훈(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14:00~14:30	3-3	몽골의 경제와 국제 무역의 변화 영향	발표:나란체첵(Ch. Narantsetseg, 단국대 몽골연구소); 토론:고정오(전남대)
14:30~15:00	3-4	몽·일 외교 관계의 변화와 전망	발표:오미영(단국대 몽골연구소); 토론:덜거르마(L. Dolgormaa, 단국대 몽골연구소)
제5부: 아랍지역 세션-사회HOST CONFERENCE: 윤용수(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15:00~15:15	3-5	Learning the Enemy's Language:Arabic Education in Divided Jerusalem	Mona Farouk M. Ahmed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15:15~15:30	3-6	유누스 엠레 시에 나타난 이슬람적 시간관과 AI 시대 인문학	양민지(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제4세션 (교육연구관 210호)		세계지역연구II(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제1부: 자유패널 -사회HOST CONFERENCE: ()			
10:00~11:00			
제2부: 과학과 문명학-사회HOST CONFERENCE: 전종욱(전북대)			
11:00~11:20	4-1	AI 시대에 다시 읽는 조선 지식인의 지적(知的) 이상 -서유구 임원경지제를 중심으로	전종욱(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11:20~11:40	4-2	냉전의 지구사와 피임기술사	이영주(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11:40~12:00	토론		
제3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 3-사회HOST CONFERENCE:주장환(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13:00~13:30	4-3	한국의 포퓰리즘 정서와 난민에 대한 인식	발표:김현준(강원대 통일강원연구소); 토론:유은하(한신대)

13:30~14:00	4-4	전쟁 양상의 변화와 국제 난민 문제:시리아, 벨라루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심세현(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토론:권의석(순천향대)
제4부: 한국의 세계지역연구의 쟁점 4 -사회HOST CONFERENCE: 주장환(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14:00~14:30	4-5	트럼프 집권 2기 대만해협의 지정학:‘하나의 중국’ 프레임을 중심으로	발표:강병환(동서대 중국연구센터); 토론:이광수(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14:30~15:00	4-6	통치의 궁극 규범 혹은 노모스 왕으로서의 천황:식민지-제국 통치권위론 사상연쇄, 그 한 층위에 대한 연구	발표:윤인로(동서대 중국연구센터); 토론:김동규(국립부경대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제5부: 자유패널-사회HOST CONFERENCE: ()			
15:00~16:00			
제5세션 (교육연구관 505호)		충북과 지방소멸 예방	
제1부: 자유패널-사회HOST CONFERENCE: ()			
10:00~11:00			
제2부: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영유아교육지원 체제 방안 탐색-사회HOST CONFERENCE:오채선(한국교원대)			
11:00~11:15	5-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정보시스템 구조분석:유보통합시대, 디지털 거버넌스 통합의 과제	박건령(한국교원대 유아교육연구소)
11:15~11:30	5-2	영유아교사 ‘몸의 횡단-신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박수연(한국교원대 유아교육연구소)
11:30~11:45	5-3	유치원 교사 인플루언서의 경험과 의미 탐색	김윤지(한국교원대 유아교육연구소)
11:45~12:00	5-4	유아~디지털 현상의 엄밀에 대한 의미 탐색	김소연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연구소)
	토론	한종화(국립강릉원주대);고진영(충북대)	
제3부: AI 시대의 과학기술과 사회(한국교통대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충북대 Pro메이커센터) -사회HOST CONFERENCE:박병준(국립한국교통대)			
13:00~13:20	5-5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위한 AI 기술활용 연구 및 사례	전흥석(건국대 글로벌캠퍼스)
13:20~13:35	5-6	「조선왕조실록」 일식 기록의 주기 표현 정합성에 관한 AI 융합연구	박지원(충북대 천문우주학과)
13:35~13:50	5-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창업 및 고성장 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부정적 효과	이중원(충북대 기초과학연구소)
13:50~14:00	토론	박병준(좌장,국립한국교통대);전흥석(건국대);박지원(충북대);이중원(충북대)	
제4부: 반도체AI 인력 양성(충청대 반도체 AI연구소) -사회HOST CONFERENCE: 박용수(충청대)			
14:00~14:05	5-8	음성인식 오디오 시스템 제작	황병대, 오세민, 신예지, 송영민(충청대)
14:05~14:10	5-9	음성인식 컨베이어 시스템 구현	조경민, 김보성, 황영섭, 박재효(충청대)
14:10~14:15	5-10	음성인식 스마트홈 시스템 구현	최관훈, 권혁주, 김형우(충청대)
14:15~14:20	5-11	디지털 기능을 접목한 창작 시계 설계 및 제작	김승환, 전호진(인제대)
14:20~14:25	5-12	아두이노와 LED를 이용한 불꽃놀이의 시각화	최성진, 김민경(인제대)
14:25~14:30	5-13	머신러닝 기반 반도체 제조 공정의 공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예측제어 시스템 연구	최준효, 홍석호, 임준형, 김지민(인제대) 송호진(이노메스)

14:30~14:35	5-14	FET Gate 기반 공진 스위칭 회로 테스트 및 고전압 정현파 플라스마 생성	감동윤, 윤동영, 김근호(인제대) 이재찬(케이엠지)
14:35~14:40	5-15	미래 AI 디지털 미술 교재·교구 설계 방향성	최철(한국교원대)
14:40~14:45	5-16	반도체 레이아웃 기반 패브릭 패턴 디자인을 활용한 STEAM 융합교육 프로그램 연구	이은영(해피폴아르떼)
14:55~15:00	5-17	IC 개방단락 테스트	박용수(충청대)
	휴식시간BREAKTIME		
제5부: 디지털 AI 대전환 시대, 지역 경쟁력 제고와 향후 과제(충북연구원) -사회HOST CONFERENCE:배명순(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15:00~15:20	5-18	디지털 전환은 어디로 가는가? 충북의 현황 및 과제	조진희(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5:20~15:40	5-19	탄소중립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AI 융합전략	이소영(충북연구원 연구위원)
15:40~16:00	토론	좌장:김영배(충북연구원 원장) 토론:윤창훈(충청대 경영학부 교수);이정환(충북대 경영정보학과 부교수); 송태진(충북대 도시공학과 부교수);성보현(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부교수)	
제6세션 (교육연구관 506호)		교육	
제1부: 자유패널-사회HOST CONFERENCE:이상희(연구소장)			
10:10~10:40	6-1	후기 청소년의 사회연결망 강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오진석(순천향대 특수아동교육연구소 마 음건강증진연구센터)
10:40~10:50	토론	종합토론:전병진(강원대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제2부: 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양교육의 방향-사회HOST CONFERENCE: 이길산(경남대)			
11:00~11:20	6-2	디지털 시대 기후위기와 교양교육	발표:박정연(경남대); 논평:허혜연(동의대)
11:20~11:40	6-3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 맞춤형 교양교육 방법-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기반으로	발표:한정규(동의대); 논평:이도영(부산대)
11:40~12:00	토론		
제3부:인문학과 교육-사회HOST CONFERENCE:최성욱(한국교원대)			
13:00~13:15	6-4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융합수업 프로그램 개발	정재리(인천연수팀)
13:15~13:30	6-5	수업 설계, AI와의 대화로 완성되다: 예비교사의 프롬프트 전략 분석	최경식(목원대)
13:30~13:45	6-6	햄릿 모델링과 AI 그리고 인문학	정창권(한국교원대)
13:45~14:00	6-7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의 교육통계 비교	임동근(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 한국근현대교육사연구센터)
제4부: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과제-사회HOST CONFERENCE: 김성천 (한국교원대)			
14:00~14:10	6-8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성천(한국교원대)
14:10~14:20	6-9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협력을 통한 지역재생 전략과 실제 탐색	노한나(충북 영동교육지원청)
14:20~14:30	6-10	지역교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직업계고등학교의 정체성 혁신과 과제	김인엽(공주대)

14:30~14:40	6-11	지산학 연계를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성 탐색	홍미영(한국교원대)
14:40~14:50	토론	송낙현(충남대);박주정(한국교원대)	
제5부: 동아시아 언어자료구축과 연구-사회HOST CONFERENCE: 정지수(한국교원대 인문사회과학교육연구소)			
15:00~15:15	6-12	한중일월 대규모 어휘 자료 구축 구상과 그 성과	김석영(한국교원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5:15~15:30	6-13	'아빠'의 어원으로 본 한자어와 비한자어	양세욱(인제대)
15:30~15:45	6-14	의미 자질 자동 추출의 필요성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소고	김시현(부산대)
15:45~16:00	토론	참여자 종합토론	
제7세션 (교육연구관 204호)		자유세션	
제1부: 오감과 음식-사회HOST CONFERENCE:김정환(아주대)			
10:00~10:10	7-1	오감과 음식:입·눈·코·귀·손의 향연	설배환(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10:10~10:25	7-2	모두부에서 냉장 두부로: 대량소비 사회의 형성에 관하여	소준철(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10:25~10:40	7-3	배도(陪都) 충칭의 경험과 마라(麻辣) 맛의 확산	이선희(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10:40~11:00	토론	종합토론	장수지(이화여대)
제2부: 지구본과 지도, 지정학과 역사문화지리학 -사회HOST CONFERENCE: 엄연석(한림대)			
11:00~11:15	7-4	지구본 및 지도의 유통과 정치지리학	오영기((주)한국스텔라노바)
11:15~11:30	7-5	하루데 블레이의 "왜 지금 지리학인가"를 읽고	엄연석(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1:30~11:45	7-6	A Conceptual Framework for Geospatial data Perspectives in GeoHumanities 지리인문학에서 지리공간 데이터 관점을 위한 개념적 구조	김영훈(한국교원대 지리교육학과)
11:45~12:00	7-7	경계를 넘는 기억: 일본 속 제주인의 삶과 정체성의 형성	손영석(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토론	
제3부: AI 시대의 신화와 매체-만주, 원난, 타이완 사례 -사회HOST CONFERENCE: 김선자(연세대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13:00~13:15	7-8	A.I.시대의 신화와 매체, 장소성	김선자(연세대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13:15~13:30	7-9	A.I.시대 매체에 재현된 만주족 제사 공간의 공동체성	박수진(연세대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13:30~13:45	7-10	A.I.시대의 원난 이족 의례와 신화 전승	나상진(연세대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13:45~14:00	7-11	A.I.시대 매체에 재현된 타이완 아미족 풍년제(豐年祭)의 공동체성	이석구(연세대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토론	전체토론	
제4부: 역사속의 여성과 페미니스트 윤리 -사회HOST CONFERENCE:김미경(순천대)			
14:00~14:15	7-12	누구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AI 기술과 페미니스트 윤리	장지은(계명대 여성학연구소)
14:15~14:30	7-13	여성을 통해 본 여순 10·19사건	김미경(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

제5부: E스포츠와 예술, 디자인-사회HOST CONFERENCE: 황옥철(경성대 e스포츠연구소)			
15:00~15:10	7-14	e스포츠 윤리의 접근: 스포츠워싱을 중심으로	권혁정(경성대 e스포츠연구소)
15:10~15:20	7-15	e스포츠에서의 죽음과 부활: 시몽동의 개체화 이론을 통한 디지털 존재론과 윤리적 함의	박성은(경성대 e스포츠연구소)
15:20~15:30	7-16	'K-헤리티지' 육성 및 국제 홍보를 위한 한국 문화유산 전통춤의 표준화정보 구축	김지안(상명대); 박정주(Loughborough University)
15:30~15:40	7-17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화를 위한 디자인 기반 문화콘텐츠 연구	김지혜(동서대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15:40~15:50	7-18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지역에서 혼자 살아남기	박상혁(경상국립대아름다운마을연구소)
15:50~16:00	토론		
제8세션	교육연구관 211호 앞 복도전시 (13:00~16:00)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 실증업체부스	
	교육연구관 211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실습체험실	
제3부 자유세션/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비스체험			
13:00~14:00	자유세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데이터플랫폼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체험		
14:00~15:00	휴식		
제5부 자유세션/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비스체험			
15:00~16:00	자유세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데이터플랫폼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체험		
개회식			
사회HOST CONFERENCE: 백성혜(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교양학관 104호)			
16:20~18:00			
16:20~16:30	인사말	인사말1	강성호(한인사협 회장)
		인사말2	신동천(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사말3	허 은(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
16:30~16:50	축 사	축사1	김영호(국회교육위원장)
		축사2	윤건영(충북도교육감)
		축사3	차우규(한국교원대 총장)
		축사4	정제영(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축사5	주관기관장
충청북도지사 특강 / 문화예술공연			
16:50~17:30	특강		김영환(충청북도지사)
17:30~17:50	문화예술공연		-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 예술감독 및 안무:김지안
17:50~18:00	첫날 폐회사		강성호(회장)
학술회의 기념만찬			
18:10~20:00	만찬BANQUET		

❖2일차(7월 4일) 연구분야 세션별 주제발표

시간(오전)	항목	주제	발표예상자
9:30~10:00	체크인 및 학술대회 준비		
제9세션 (교양학관 104호)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HUSDP)	
제1부: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1-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기초학문) -사회HOST CONFERENCE: 유해인(고려대)			
10:00~10:30	9-1	日本における多文化保育-保育者の意識と 日本的保育の特徴-일본의 다문화 보육-유치원교사의 보육의식과 보육 특징	오가와 요시카즈(일본 히로시마대학)
10:30~10:40	9-2	유보통합의 과제로서 공제회 통합 문제	조상식(동국대 학교종합안전연구소)
10:40~10:50	9-3	중등단계 외국인유학생 유치방안과 다문화교육정책	윤종혁(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10:50~11:00	토론	전체토론	
제2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국제관계)-사회HOST CONFERENCE: 유해인(고려대)			
11:00~11:30	9-4	特朗普第二任期東北亞大國關係變化與朝鮮 半島和平機制的前景(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서 동북아시아 강대국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의 전망)	비잉다(중국 중산대학)
11:30~11:40	9-5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 구축의 가능성과 장애요인	조정원(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11:40~11:50	9-6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방안	신상범(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11:50~12:00	토론	전체토론	
12:00~13:00	점심시간(午餐)		
13:00~14:00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임시총회(교양학관 104호)		
제3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재난)-사회HOST CONFERENCE:강희숙(조선대)			
14:00~14:30	9-7	東アジア災害人文學の課題 (동아시아 재해인문학의 과제)	야마 요시유키(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 화상발표
14:30~15:00	9-8	포스트성장사회 담론과 재난인문학	강희숙(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9-9	동아시아 재해 인문학의 성과와 한국사 연구	최봉준(가톨릭대 인문사회연구소)
	토론	전체토론	
제4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지역)-사회HOST CONFERENCE: 유요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5:00~15:30	9-10	대만 지역 대학 한국학 교육의 실제와 문제점-한국고전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임유익(대만 정치대)
	9-11	해외지역 한국고전문학 교육의 현황과 지향	이경구(한림대 한림과학원)
15:30~16:00	9-12	한자문화권의 고전문학과 교육과제	한익송(전남대 인문학연구원)
	토론	전체토론	
제5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공동체)-사회HOST CONFERENCE:유요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6:00~16:30	9-13	해방직후 재조일본인 송환과 귀환 동포 수용문제로 증폭된 공동체 균열 -전후 인구이동의 역사적 함의와 시사점-	이연식(일본 소피아대) 화상발표
	9-14	동남아시아 신생 독립국의 탄생과 화교화인의 잔류문제	조영목(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16:30~17:00	9-15	이주 공동체:타인에서 이웃으로	조규성(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
	토론	전체토론	

제10세션 (교육연구관 206호)		세계지역연구III(아시아)	
제1부: 아시아태평양 해역과 한국-사회HOST CONFERENCE: 박상현(국립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10:00~10:20	10-1	Karl Marx's Unexplored Insight on World Market Hegemony	박지훈(국립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10:20~10:40	10-2	동북아시아 에스닉타운의 지역적 특성	전지영(국립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10:40~11:00	토론	종합토론	현민(국립부경대)
제2부: 한국내 일본관련 연구소의 연구성과와 전망 -사회HOST CONFERENCE: 정병호(고려대)			
11:00~11:15	10-3	고도 위험사회 일본의 생활세계 (서울대일본학연구소)N	발표:서동주(서울대); 논평:황익구(동아대)
11:15~11:30	10-4	K-디아스포라 연구성과와 전망 (동국대 일본연구소)	발표:이영호(동국대); 논평:신재민(고려대)
11:30~11:45	10-5	일제강점기 식민지 일본어 문학과 일본어 문헌 연구의 성과와 전망 (고려대글로벌일본연구원)	발표:김호순(고려대); 논평:엄인경·정병호(고려대)
11:45~12:00	토론	전체토론	
제3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 1-사회HOST CONFERENCE:순천대(우승완)-온라인병행			
13:00~13:10	10-6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의 체결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미친 영향: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중심으로	박다정(중국 화동사범대)
13:10~13:20	10-7	냉전 시기 미소의 '우주경쟁(Space Race)'과 한반도의 내파(內波)	예대열(국립순천대)
제4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1-사회HOST CONFERENCE:윤현명(순천대)-온라인병행			
14:00~14:10	10-8	미중 대립 시기 다시 본 앨버트 갤러틴의 1832년 자유무역에 관한 청원서	하성호(미국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14:10~14:20	10-9	김정은 시대 북·중 관계	김은선(국민대)
14:20~14:30	10-10	불교를 통해 본 냉전기 소련의 평화 정책	권경택(광주과학기술원)
14:50~15:00	토론	김동혁(광주과학기술원), 이세영(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제5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2-사회HOST CONFERENCE: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15:00~15:10	10-11	오키나와의 역사 경험과 부전(否戰) 논의	나리타치히로(리츠메이칸대)
15:10~15:20	10-12	북한의 두 개 국가론과 통일정책	이수석(고려대)
15:20~15:30	10-13	사할린 한인과 재일조선인의 '조국', '본국', 그리고 '고향'의 각투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제6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2 -사회HOST CONFERENCE:이재훈(조선대)			
15:00~15:20	10-14	여순사건 이후 한국전쟁기 빨치산 활동의 재조명-『태백산맥』에 나타난 빨치산 활동을 중심으로	임송자(성균관대) 김은선(국민대)
15:20~15:40	10-15	해금 시대 이전, 납월북 문학가의 비/가시적 재현	조은정(성균관대)
15:40~16:00	10-16	러시아문서보관소 자료로 본 1956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직후 중.소와 북한 //러시아 기록보존소 소장 한국 현대사 자료 통합 DB구축:성과와 의의	이재훈(조선대)
15:40~16:00	토론	권오수(국립순천대), 이세영(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제11세션 (교육연구관 208호)		문화와 종교·사상	
제1부: AI와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전 전략1 -사회HOST CONFERENCE:이광희(한국전통문화대)			
10:00~10:20	11-1	디지털 시대 로컬의 이야기를 잇다	노성여(동명대 로컬콘텐츠중점대학)
10:20~10:40	11-2	도심유희공간을 활용한 로컬 창업교육 사례	김병국(계명대 로컬콘텐츠중점대학)
10:40~11:00	11-3	고인돌 크기와 고도 기반 접근과 네트워크 기반 접근의 비교 연구: 고창군 안산면 고인돌을 중심으로	김 석(건국대 지역문화연구원)
제2부: AI와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전 전략2 -사회HOST CONFERENCE:이광희(한국전통문화대)			
11:00~11:20	11-4	지역문화 자원의 발굴과 활용	노영희(건국대 지식콘텐츠연구소)
11:20~12:00	토론	이광섭(대전취재본부);이병렬(고창고인돌연구소);김주희(한국표준협회); 정지운(계명대학교 로컬콘텐츠중점대학);이예지(동명대 로컬콘텐츠중점대학); 권오상 대표(주식회사 퍼즐랩);송건섭 교수(대구대 행정학과)	
제3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사회HOST CONFERENCE: 엄연석(한림대)			
13:00~13:15	11-5	신라불국신앙의 기록과 미술	송은석(동국대 스마트캠퍼스)
13:15~13:30	11-6	경주 남산을 그리다:무애와 포함의 공간	정빈나(한국외국어대)
13:30~13:45	11-7	도산서원의 보편가치 - 치유의 인문학과 공간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성건 (국립경국대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13:45~14:00	11-8	안동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박윤미(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제4부: AI 시대 유학사상의 재조명-사회HOST CONFERENCE: 강정화(경상국립대)			
14:00~14:10	11-9	Kangaku and the State - Colonial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raditional Sinologists 계몽주의와 대한제국기 잡지 -전통지와 근대지의 컨버전스-	이용범(부산대 점필재연구소)
14:10~14:20	11-10	교우(敎友)와 네트워크network: 근대전환기 강우 문인의 강학 공동체와 AI시대의 지식생산	정두호(경상국립대 남명학연구소)
14:20~14:30	11-11	AI시대, 유학적 인간관은 여전히 유효한가?-왕양명을 중심으로-	양선진(충남대 유학연구소)
14:30~14:40	11-12	AI시대 유학 연구 방법론	손미애(전북대 간재학연구소)
14:40~14:50	11-13	조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과 울곡의 이통기국설	배제성(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14:50~15:00	11-14	『이재난고』를 통해 살펴본 과장(科場) 풍경과 차별	박순철(전북대 이재연구소)
14:50~15:00	토론		

제5부: 동서종교철학과 사회문화 -사회HOST CONFERENCE:우승완(순천대)			
15:00~15:10	11-15	한국 개신교의 근대성, 1876~1919	옥성득(UCLA)
15:10~15:20	11-16	미국 남장로회 호남선교와 도시근대화	우승완(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
15:20~15:30	11-17	다산의 역 해석에 나타난 통치자의 책임과 역할	김영우(인제대)
15:30~15:40	11-18	18~20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의 한국역학:관계, 생성, 주체에 관한 해석과 전망	안승우(성균관대유학동양한국철학과)
15:40~16:00	토론		
제12세션 (교육연구관 210호)		사회와 심리	
제1부: 자유패널 -사회HOST CONFERENCE: ()			
10:00~11:00			
제2부: 치유와 전환의 인문학-감정, 이야기, 존재를 다시보다-사회HOST CONFERENCE: 이형대(고려대)			
11:00~11:15	12-1	감정의 장소성: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 실험	최빛나라(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1:15~11:30	12-2	심리적 웰빙을 위한 통합 인문치유 접근	최주희(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
11:30~11:45	12-3	서사와 문학을 통한 자기 돌봄: 치유의 언어 찾기	하은하(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문학치 료연구소센터)
11:45~12:00	12-4	공감의 서사, 치유의 공동체: 문학치료의 확장 가능성	황혜진(건국대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제3부: AI시대 마음 행기기1 -사회HOST CONFERENCE:최영주(조선대)			
14:00~14:15	12-5	자기자비가 청년세대에 갖은 의미	양예지(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
14:15~14:30	12-6	수화 노래의 문화적 위치에 대한 논의 -수화 노래는 농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이유정(조선대 언어융합연구소)
14:30~15:00	토론		
제4부: AI 시대의 마음 행기기2-사회HOST CONFERENCE: 강선경(서강대)			
15:00~15:10	12-7	다집단 분석을 통한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무망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음주와 우울의 매개효과: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허보연, 강선경(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
15:10~15:20	12-8	기혼부부의 부부 갈등을 둘러싼 미시적 성평등 요인 탐색: 남성, 여성 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상형, 강선경(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
15:20~15:30	12-9	대학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대학 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대처방안	김문희(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교신저자: 김혜선(강원대 사회복지학과)
15:30~15:40	12-10	팀 중독 대학생 운동선수들의 외상 경험 유형 탐색	류지현(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교신저자: 김혜선(강원대 사회복지학과)
15:40~15:50	12-11	한국 전통 활쏘기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호흡 명상 게임 '활의 명수 K'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해영(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교신저자:박소영(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 학과) 제2저자: 김혜선(강원대 사회복지학과)
15:50~16:00	토론	종합토론	
제5부: 자유패널-사회HOST CONFERENCE: ()			
16:00~17:00			

제13세션 (교육연구관 505호)		이주·교육·사회	
제1부: 이주 다문화 연구1 -사회HOST CONFERENCE: 곽태환(해군대학)			
10:00~10:15	13-1	이미지 생성 AI모델의 고려인 인식에 대한 비교 -키워드로 생성된 AI 이미지가 갖는 의미-	윤성근(한양대 다문화교육학과) 최한, 남부현 (선문대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소)
10:15~10:30	13-2	고려인 활동가의 자원봉사 경험에 관한 연구	남부현, 박미숙 (선문대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소)
10:30~10:45	13-3	고려인 여성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	손지혜, 유진석 (선문대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소)
10:45~11:00	토론	종합토론	
제2부: 이주 다문화 연구2 -사회HOST CONFERENCE:강진구(제주대)			
11:00~11:10	13-4	다중 위기 시대 이주와 이동에 대한 인문학적 전회	김진선(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1:10~11:20	13-5	저출산 고령화 시대 법정책 소고	한광수, 엄경훈(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11:20~11:30	13-6	제주 관련 콘텐츠에 나타난 이주 양상-드라마에 나타난 제주의 장소적 의미를 중심으로-	김진철(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1:30~11:40	13-7	재한 고려인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전환과 적응: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박민희, 남부현(선문대대학원 한국학과 다문화디아스포라전공)
11:40~12:00	토론		
제3부: 행성 시대 돌봄 인문학-사회HOST CONFERENCE: 서윤호(경희대 법학연구소)			
14:00~14:15	13-8	다중 위기 시대의 행성적 사유란 무엇인가?	박정원(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14:15~14:30	13-9	대안적 테크놀로지로서의 돌봄과 그 가능성	김재인(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14:30~14:45	13-10	반려의 시간성과 상호의존의 윤리학	이철주(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14:45~15:00	토론		
제4부: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육-사회HOST CONFERENCE: 강주현(한국교원대)			
15:00~15:15	13-11	시도별 공동교육과정 정책 비교 분석	유성열(공주교육대)
15:15~15:30	13-12	작은 학교 살리기 맥락에서 본 초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유형 고찰	이찬희(한국교원대)
15:30~15:45	13-13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발전 방향 탐색	김용진(경상국립대 생물교육과)
15:45~16:00	13-14	문화역사활동이론으로 살펴본 니카라과 교육봉사활동의 변화와 발전	한재영(충북대 화학교육과)
제5부: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회HOST CONFERENCE: 정나진(한국교원대)			
16:00~16:15	13-15	중·고등학습자의 내재적 정서 문제와 학업 무기력과의 병렬식 잠재 성장 모형 분석	김진철(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16:15~16:30	13-16	한국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감N성장』 모델	이동갑(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16:30~16:45	13-17	미래 인재를 위한 융합 교육의 역할	백성혜(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16:45~17:00	13-18	교육의 재발견:청소년을 위한 교양교육학	최성욱(한국교원대)

제14세션 (교육연구관 506호)		정치경제와 국가	
제1부: 자유패널-사회HOST CONFERENCE: ()			
10:00~11:00			
제2부: 글로벌 정치와 경제-사회HOST CONFERENCE: ()			
11:00~11:15	14-1	Social Capital's Complex Role in Energy Poverty Alleviation: Evidence from South Africa	Brown Alan Dixon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11:15~11:30	토론		
제3부: 한국사회의 위기와 계급-사회HOST CONFERENCE:김진흠(경북대)			
14:00~14:15	14-2	한국경제 소득분배 양상과 경제 불평등 구조	김덕민(경상국립대 SSK연구단)
14:15~14:30	14-3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초국적 관점-한인 커뮤니티의 인식과 반응	김미경(경상국립대 SSK연구단)
14:30~14:45	14-4	한국 현대사와 혁신세력	김진흠(경북대 아시아연구소)
14:45~15:00	토론		
제4부: 서양정치철학과 K-민주주의-사회HOST CONFERENCE:김은미(중앙대)			
15:00~15:15	14-5	불편부당한 연대를 위한 정치교육에서 대화의 필요성	윤은주(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15:15~15:30	14-6	사회적 연대의 토대 개념으로 본 현대의 조건들	김분선(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15:30~15:45	14-7	듀이의 민주주의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의 윤리	김다솜(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15:45~16:00	14-8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관하여』에 나타난 신뢰관	김은미(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제5부: 국가위기와 극복방안-사회HOST CONFERENCE: 이재은(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16:00~16:15	14-9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보호관찰 정책 방향	김도우(경남대)
16:15~16:30	14-10	Spatiotemporal Analysis for Policy Evaluation Using Big Data	김도형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USA)
16:30~16:45	14-11	교제 폭력의 위험성 요인과 범죄 개념화 연구	강소영(건국대)
16:45~17:00	논평	권설아, 박수현, 최준호, 구주영(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제15세션 (교육연구관 507호)		충북지역단체 자유세션1	
제1부: 융합적 진로교육:정체성 해체와 융합교육-사회HOST CONFERENCE: 백성혜(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			
10:00~10:15	15-1	해양 진로의 융합교육적 접근방안 모색	서재욱(한국교원대)
10:15~10:30	15-2	융합적 사고로 진로를 디자인 하다: 찾아가는 진로탐색 교육	윤창호, 이혜린(한국교원대)
10:30~10:45	15-3	플래너를 활용한 융합교육의 실제	홍현수(한국교원대)
10:45~11:00	15-4	미래 시대의 과학교육: AI로 구현하는 과학 모델링	정나진(한국교원대)

제2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사회HOST CONFERENCE: 정초시(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대표)			
11:00~11:30	15-5	호수는 충북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호수관광 정책을 위한 소고	성보현 (국립한국교통대 미래융합대학)
11:30~12:00	토론	김양식(전 청주대), 임승빈(청주대)	
제3부: AI 혁신으로 변화하는 충북: AX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회HOST CONFERENCE: 김광주(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부장)			
14:00~14:30	15-6	AI 혁신으로 변화하는 충북: AX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방안	현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단장)
14:30~15:00	토론	참여자 종합토론	
제4-5부: 한국의 미래와 과학기술의 역할1·2(충북과학기술포럼) -사회HOST CONFERENCE:이재일(건국대 교수/충북과학기술포럼 사무총장)			
15:00~15:20	15-7	과학기술과 함께 가는 의료의 미래	김태희 교수(순천향대)
15:20~15:40	15-8	하늘길로 열리는 충북 내륙 관광의 미래-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관광산업 혁신전략	원미란 교수(극동대)
15:40~16:00	15-9	AI와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	김길후 교수(건국대)
16:00~16:20	15-10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	권영식 교수(국민대)
16:20~17:00	토론	김태희 교수(순천향대); 원미란 교수(극동대); 김길후 교수(건국대); 권영식 교수(국민대); 남창현 회장(충북과학기술포럼); 김도완 교수(중원대); 김광주 부장(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제6부: AI 시대 문화와 고전교육(한인사협)-사회HOST CONFERENCE:박진수(가천대)			
17:00~17:15	15-11	AI 시대 인문사회 교육현황과 과제	오종현(전남대)
17:15~17:30	15-12	AI 시대 고전에 대한 질문과 교양교육	강주현(한국교원대)
17:30~17:45	15-13	유교와 불교의 통섭적 가치로서 효순 개념: 원호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를 중심으로	이해임(전주상산고)
17:45~18:00	15-14	아시아 대중문화와 한류의 상호 이해에 기반한 인문학 교육	조리라(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7:45~18:00	토론	김미경(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	
제16세션 (교육연구관 204호)		충북지역단체 자유세션2	
제1-2부: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 -사회HOST CONFERENCE: 이종대(한국과총 충북지역연합회 부회장)			
10:00~10:30	16-1	차세대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의생명연구현황	이은주(고려대 안암병원 흉부외과)
10:30~11:00	16-2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제 2차 양자혁명	김기웅(충북대 물리학과)
11:00~11:30	16-3	말씀이 작품이 되어: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어	이재성(충북대 전자정보대학)
11:30~12:00	토론	참여자 종합토론 및 Q & A	
제3부: 자유패널-사회HOST CONFERENCE:임광국(동국대)			
14:00~14:20	16-4	학교안전 및 안전교육 관련: 정책 연구사례와 전망	임광국(동국대 학교종합안전연구소)

제4부: 자유패널-사회HOST CONFERENCE: ()			
제5부: 한국지역 연구의 현황과 과제(유럽과 아프리카)-사회HOST CONFERENCE:김성수(한양대)			
16:00~16:15	16-5	국내 아프리카 지역연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이충희(한양대 아프리카연구소)
16:15~16:30	16-6	Leading Global Area Studies Institutes: A Comparative Analysis of Exemplary Cases	정유진(Mount St. Mary's University)
	16-7	K-문화의 세계화와 지역연구	이원영(한양대 국가전략연구소)
16:30~17:00	토론	임지훈 교수(한국항공대);이영재 교수(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홍준현 연구원(한양대 미래문화융합연구센터)	
제6부: 자유패널 -사회HOST CONFERENCE: ()			
학술대회 폐회식			
18:00~18:10		폐회사	강성호(회장)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개회사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강성호

오늘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이하 한인사협)은 2025년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4 부산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181개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 학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저명 학자들도 참여합니다.

한인사협은 한국 인문사회예술포럼 연구소 간 협력을 통한 학문 연구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교류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2021년 35개 연구소가 참여해서 출범한 한인사협은 4년 반 만에 181개 연구소로 약 5배 확대되어, 한국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술대회를 공동개최 해주신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과 허은 인문사회 성과확산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축사를 해주시는 김영호 국회 교육 위원장님, 김영환 충북도지사님, 윤건영 충북교육감님,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기획을 맡아주신 엄연석 한인 사협 수석부회장님과 성과확산위원회 위원님들, 학술대회 장소와 관련 실무를 도와주신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는 작년보다 2배 규모로 16개 세션 60개 패널 200여개 발표가 진행됩니다. 토론자와 사회자까지 포함하면 300여명의 세계 곳곳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셈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획 세션이 26개에서 60여 개로 2배 가까이 늘어 났습니다. 기획 세션은 기관을 대표하는 기획세션과 다양한 학문영역을 대표하는 기획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와 디지털 시대에 따른 「AI 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대주제로 하여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체육 분야의 융합적 연구를 위해 학제간적 시각 에서 우수연구 성과를 교류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세 가지에 역점을 두어 학술대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첫째는 AI 시대의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의 역할과 과제입니다. 둘째는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글로벌 이념의 확립입니다. 셋째는 이번 학술대회가 이루어지는 충북 거버넌스 구축 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본 학술대회는 국제적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를 넓혀 미래적 가치를 성찰하고, 그에 따른 통섭적 융합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사회의 거대위기 극복에 필요한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다학제간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의 한인사협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인문사회예술포럼 분야 연구소 존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를 통하여 한인사협에 참여 하는 연구소들 사이에 미래적 융합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학술대회 성과들이 한국의 국가 난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술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 7. 3.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 강성호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개회사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itutes

Kang Sung-Ho

Today,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itutes (hereafter KASHI) is honored to convene the 2025 Chungbuk Worl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gress. Building upon the achievements of the 2024 Busan Worl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gress, this year's event marks the full-scale launch of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Not only scholars from 181 Korean research institute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e participating, but also academics from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Asia renowned.

KASHI's aim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cademic research and expand the exchange of outcomes through cooperation among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the arts in Korea. Since its founding in 2021 with 35 member institutes, KASHI has grown nearly fivefold to 181 institutes in just four and a half years, establishing itself as the representative body for Kore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Chairman Shin Dong-cheon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Director Heo Eun of the Center for Humanities and Social Achievements for co-hosting this conference. My thanks also go to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s Education Committee Kim Young-ho, the Governor of Chungcheongbuk-do Kim Young-hwan, the Chungcheongbuk-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Yoon Gun-young, the President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a Woo-kyu,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hung Jae-young for their congratulatory remarks. Special thanks are due to Senior Vice President Um Yeon-seok of KASHI and the members of the Achievement Dissemination Committee for planning this conference, as well as to Director Baek Sung-hye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for her practical support regarding the venue and logistics.

The 2025 Chungbuk Worl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gress will be held on a scale 2 times larger than last year, featuring 16 sections, 60 panels, and over 200 presentations. Including discussants and moderators, approximately 300 scholars from around the world will participate. The number of planned sessions has nearly doubled from 26 last year to over 60 this year. These sessions are divided into those representing institutions and those representing various academic fields.

This year's Congress is organized under the main theme, "the Convergence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Technology in the AI Era." It will facilitate interdisciplinary exchanges of outstanding research achievements in humanities, social sciences, science and technology, and arts and physical education. The Congress planning emphasizes three key aspects: First, the roles and challenges of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I era;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glocal (global + local) ideology, including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and third, collaboration with governance institutions in Chungcheongbuk-do to share and disseminate research outcomes. Through these efforts, this Congress aims to broaden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research achievements, reflect on future values, and propose multidisciplinary policy solutions to help Korea overcome major societal crises.

Over the past five years, KASHI's activities have reaffirmed the vital importance of research institutes in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arts. Through the 2025 Chungbuk Worl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ngress, we hope to further invigorate future-oriented, convergent research among our member institutes and contribute to practical solutions for Korea's national challenges. We will continue striving to develop this Congress into a globally recognized academic event representing Korea. Thank you.

July 3, 2025

Kang Sung-Ho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itutes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개회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입니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2025 충북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강성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신 정부와 국회, 학계의 여러 귀빈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많은 연구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학술대회는 AI·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따른 미래사회 공통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정책 연구 분야와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체육 분야의 다양한 시각에서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다문화사회 전환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거대 위기에 대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준비한 ‘저출생·고령화 대응전략’ 정책 연구 세션에서도 학제간의 다양한 관점에서 다채로운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학술대회가 학술과 정책,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식 교류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개회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허은입니다.

2025년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를 맞아, 국내외 인문사회학 연구자 여러분을 충북 청주에서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4년 부산 대회에 이어, 국내 인문사회예술 연구소의 협력과 국제 학계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산하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는 지난해부터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연구소들과 직접 소통하고, 집단연구 성과의 사회적 환류와 확산 체계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 삼아 이번 충북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한 기획 세션과 공동 발표, 그리고 국제 학자들과의 대담 세션들이 풍성하게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AI 시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예술의 역할과 과제」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위기에 인문사회 분야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는 기술·정치·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학제 간 협력과 융합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과확산센터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 ▲ 인문사회 분야의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집단 연구의 성과를 나누고,
- ▲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조성하며,
- ▲ 연구 성과가 사회와 정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강성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대회 준비를 위해 헌신해 주신 연구자, 실무자, 그리고 현장을 함께 만들어주신 한국교원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과 후원을 해주신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인문사회 연구의 집단적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미래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장 허은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축사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AI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를 비롯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술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은 사회 곳곳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함께 발전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고민 속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AI 시대의 인문사회과학, 지역소멸 예방, 교육, 문화와 종교·사상 등 다양하게 구성된 주제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분야 간 경계를 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 충청북도가 한국의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융합연구를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는 이러한 학문적 성찰과 융합적 연구가 우리 교육의 방향성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은 단일한 전공이나 지식만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융합하는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3.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 영 호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축사



충청북도교육감

윤건영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감 윤건영입니다.

햇살이 짙어가는 7월, 지성과 통찰이 숨 쉬는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2025 충북 세계인문 사회학술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충북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회장님과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허은 인문사회성과확산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적의 장소를 마련해주신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하여 함께해주신 모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위해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저명한 연구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AI의 등장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삶의 본질을 되묻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성찰을 이끄는 인문사회학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류가 마주한 복잡한 변화 앞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AI 시대, 인문·사회·과학·예술의 역할과 과제’를 대주제로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논의를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세계적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181개에 이르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 간의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국내외 석학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학술 플랫폼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AX 시대를 맞이하여, 충북교육청도 학생들이 몸활동을 통해 몸근육을 다지고, 삶의 지혜가 담긴 독서를 통해 마음근육을 키우며 이를 기반으로 기초소양과 기초·기본학력을 튼튼히 해 원하는 진로 진학을 준비하는 실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대회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열정과 지혜가 국가와 인류 공동의 미래를 밝히는 빛나는 성과로 이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3.

충청북도교육감 윤건영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축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차우규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연구자 여러분,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강성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소중한 지적 여정입니다. 특히, 세계지역 연구 발표 세션을 통해 전 세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시각과 통찰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복합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이나 정책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사회, 기술을 아우르는 총체적 이해와 대응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은 단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다양한 연구와 제안들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 정책과 연구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제 간 통섭과 융합, 그리고 국제적 연대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새로운 지식과 지혜의 교류의 장이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가 직면한 거대한 전환기에 창조적 해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연구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3.
한국교원대 총장 차우규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 학술대회

The 4th 2025 World Humanities
Social Science Congress

축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제영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제영입니다.

먼저, “AI 시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예술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5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150여 개 연구소와 1,00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로, 첨단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문사회, 예술, 과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지금, 그 영향력은 교육을 포함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가 곧바로 사람과 사회의 진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인문학적 통찰과 사회과학적 분석, 예술적 상상력, 과학적 사고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바로 그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를 논의하고, AI 시대 속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과 학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교육과 학술 생태계가 보다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데이터, 디지털 기술이 함께 작동하는 공공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은 교육행정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자 중심의 분석 기능과 AI 기반 검색 서비스로 구성된 「교육데이터플랫폼」을 통해 미래 교육연구 환경의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 대학의 연구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트렌드를 예측하는 「UREKA」 서비스를 통해 학문 간 융합과 전략적 연구기획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교육, 데이터 중심의 혁신,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공공 디지털 생태계를 지향하여 여러분과 함께 갈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통합 성과확산센터,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주관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풍성한 논의와 귀중한 만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연구와 실천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정제영

1 세션

AI & 인문사회

제2부. AI시대 메가프로젝트와 사회변동

제3부. AI시대 포스트 휴머니즘과 언어학

제4부. AI와 인문사회과학

제5부. AI시대 위기와 그 대응방안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

시 시대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 의의, 현시기 과제

The need, Significance, and Current Task of Mega-Projec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Age of AI

강성호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Kang, Sung Ho (Institute of Humanities Reserch SCNU)

초록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대 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대규모 문제해결형 연구 지원사업인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여러 연구소와 단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문제해결형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의 인문사회연구소(INSHS)의 대형공동프로젝트(약 5,634억원), 유럽의 홀로코스트 연구(약 395억원), EU호라이즌이 지원하고 있는 NewsEye 프로젝트(약 72억원)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정책연구는 단기적이고, 소규모이고, 부분적이다. 이에 비해 연구소 컨소시엄 기반 연구는 다년간에 걸친 장기적이고 심도 깊은 대규모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다부처에서 각각 진행하는 연구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다. 컨소시엄 연구소 아젠다의 대표적 예시로 지방소멸, 저출산 고령화, 뉴노멀 시대 사회혁신, 기후 및 환경변화, 사회양극화, 국제 지역 위기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는 2022년 12월부터 3년 동안 5회에 걸친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고,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 메가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여 2025년 정부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을 성공적으로 반영하였다. 2025년 6월 첫 시범사업공고가 공표되었다. 향후 과제는 더 많은 메가프로젝트 연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한국사회의 거대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need for a large-scale, problem-solving research support project—referred to as a "mega-project"—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as become increasingly urgent in Korea, given the country's major societal challenges. These mega-projects are designed to analyze the root causes of these grand crises and propose actionable solutions. Internationally, similar large-scale, collaborative research initiatives are already underway. Notable examples include: France's National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HS) large-scale joint project (approx. 563.4 billion KRW), Europe's Holocaust research project (approx. 39.5 billion KRW), the EU Horizon-funded News Eye project (approx. 7.2 billion KRW). These projects are characterized by the collaboration of multiple research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enabling comprehensive, long-term, and in-depth research. While conventional policy research tends to be short-term, small-scale, and fragmented, consortium-based research is long-term and integrative, efficiently addressing complex national challenges by organically connecting research efforts across multiple ministries. Representative agenda items for consortium research include regional extinction, low birth rates and aging, social innovation in the new normal era, climate and environmental change, social polarization, and intensify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crises.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itutes(KAHSI)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building consensus around the need for these mega-projects. From December 2022, KASHI held five National Assembly

policy forums over three years and, through negotiaion wi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Assembly, and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uccessfully secured funding for the mega-project in the 2025 government budget. The first pilot project announcement was made in June 2025. The next challenge is to ensure that more mega-projects are launched quickly and efficiently, so they can meaningfully contribute to resolving Korea's grand societal crises.

1세션
2부

유럽의 메가프로젝트와 국가과제 해결

European Mega-Projects and the Resolution of National Challenges

김동혁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Kim, Donghyuk (GIST,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nd Research)

초록

본 발표는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인문사회 중심의 메가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연구사업의 구조와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형 국가과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은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 2(문화·포용사회), 클러스터 3(시민 안전) 분야에 약 37억 유로를 투입하며, 네트워크형 협업 기반의 연구를 통해 데이터 통합, 디지털 전환, 정책 실천을 연계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표 사례로는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있으며, 이들은 소득·부의 불평등과 조세 회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수행한다. FORSEE 프로젝트는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며, 홀로코스트 연구 인프라 구축(EHRI), 문화 문해력 교육(DIALLS), 문화유산 복원(HERACLES) 등도 실천적 목적을 갖는 연구로서 주목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문사회 연구가 데이터 기반 분석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도 공공성과 협업을 중심으로 한 메가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analyzes major European mega-project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explore how large-scale, collaborative research initiatives are structured to address complex societal challenges, offering insights for national agenda-setting in Korea. Through the Horizon Europe program, the EU allocates approximately €3.7 billion to Cluster 2 (Culture and Inclusive Society) and Cluster 3 (Civil Security for Society), supporting network-based research that integrates data systems, digital transformation, and policy application. A key example is the World Inequality Lab (WIL), which conducts empirical studies on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and tax justice, providing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democracy. The FORSEE project investigates the societal impacts of AI technologies and proposes governance frameworks for responsible and inclusive innovation. Other notable cases include the European Holocaust Research Infrastructure (EHRI), which builds a digital research hub, DIALLS, which promotes cultural literacy in schools, and HERACLES, which develops strategies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against climate threats. These projects demonstrate how social science research can effectively link data-driven analysis with public

policy and civic engagement. The European experience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Korea to develop a collaborative and public-oriented mega-project ecosystem that integrat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with real-world problem solving.

1세션
2부

국가적 의제 해결에 있어 인문학 및 사회과학 R&D의 역할: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Rol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D in Addressing National Agendas: Focus on the U.S. Case

강태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Taewon Ka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많은 국가들이 기후 변화, 경제적 양극화, 기술 주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학기술의 진보만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인문사회적 관점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경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R&D)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국가적 의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미국의 경우, 인문사회 분야는 연방 정부 R&D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의 인문사회 R&D 비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융합성장연구(Growing Convergence Research, GCR)' 프로그램은 과학, 공학, 인문사회 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문사회 R&D 사례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 해결책이 사회적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인문사회 분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논문은 전통적인 과학기술 접근을 넘어 인문사회 연구개발의 확대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Many countries are facing a range of societal challenges that threaten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climate change, economic polarization, and technological sovereignty. An integrated and multidisciplinary response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auses of these national challenges and to propose effective solutions. In particula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lone cannot guarantee improvements in human well-being; instead, it is necessary to explore balanced pathway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corporating perspectives from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program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D in the United States, with a focus on its role in addressing national agendas. In case of the US,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e estimated to account for approximately 10% of the federal R&D budget, which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propor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D in Korea. The Growing Convergence Research (GCR) program of the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D that aims to address national challenges through convergence across science, engineering, and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s program demonstrates that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play a central role in ensuring the social relevance and sustainability of technological solutions. By examining the U.S. case, this paper offers insights into the expanded rol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D beyond conven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approaches.

1세션
2부

'소버린 AI시대 한국학의 재정립'의 사례로 보는 인문학분야 메가프로젝트의 가능성

Mega-Projects in the Humanities: The Case of 'Redefining Korean Studies for the Age of Sovereign AI'

송혁기 (고려대학교 글로벌인문학연구원)

Song, Hyok Key (Korea University Institute for Global Humanities Research and Collaboration)

초록

초거대 AI 모델 개발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소버린 AI를 개발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IT 기술만이 아니라 학제, 산업체, 지역을 아우르는 메가프로젝트 거버넌스의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 주도의 단위는 아니지만 메가프로젝트의 한 사례로서 '한국학의 재정립'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통시대 역사 및 문화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연구원은 공과대학의 AI연구원, 해외 대학의 문헌학, 비교글로벌인문학, 한국학 관련 연구원, 그리고 AI 관련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디지털인문학을 비롯해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공학자를 공동연구원으로, AI 기업의 리더를 자문위원으로 섭외하였으며, 7개국 24개 기관의 해외 연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전통 한국학의 방법과 시야를 새롭게 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공공지식으로서 대중에게 제공하며 지역의 다인종·다문화 문제에 대응하는 인문학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통시대 문헌에 맞는 데이터 구축 방법론을 설계하여 AI가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로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데이터 지식을 구조화하여 지식그래프로 구축하고 공유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 이해도와 가치관의 편향성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를 구축하여 리더보드에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LLMs를 평가할 뿐 아니라 새롭게 구축될 한국형 소버린 AI에 적용할 기준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As competition intensifies in the development of large-scale AI models, building a sovereign AI system tailored to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has emerged as a critical new challenge. Addressing this task requires not only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also the design of a governance structure capable of coordinating across disciplines, industries, and regions—a hallmark of what we call a "mega-project."

Although not state-led in a formal sense, this project aims to contribute to solving pressing societal challenges through a redefinition of Korean Studies as a representative case of a humanities-driven mega-project. Rooted in the study of Korea's classical history and culture, our institute will collaborate organically with AI research centers in engineering colleges,

overseas institutes specializing in philology, comparative global humanities, and Korean Studies, as well as with AI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Our research team includes engineers specializing in digital humanities, databases, software, and AI, alongside corporate AI leaders serving as advisory board members. We are also forming close partnerships with 24 institutions in 7 countries. Through this initiative, we seek to renew the methodologies and perspectives of traditional Korean Studies, promote its findings as public knowledge, and offer humanistic approaches to addressing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challenges at the regional level.

We are designing a methodology for constructing AI-trainable, high-quality datasets from premodern Korean texts and plan to file patents related to this technology. Structured knowledge will be represented in the form of knowledge graphs and made widely accessible. Furthermore, we will develop a benchmark for evaluating the cultural and ideological alignment of AI systems with Korean social values, to be incorporated into a public leaderboard. This will not only provide criteria for evaluating existing large language models (LLMs), but als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a Korean-style sovereign AI. In doing so, our project will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Korea's AI industry.

윤다연 (건국대학교 다언어다문화연구소)

(Konkuk Research Institute for Multilingualism and Multiculturalism)

초록

인간의 음성은 언어적 정보뿐 아니라 감정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 또한 전달한다. 최근 AI의 음성 합성 및 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감정 표현은 여전히 인간 음성의 섬세함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하며, 대부분 영어 기반 데이터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음성 합성 기술로 생성된 한국어 감정 발화가 청자에게 얼마나 정확히 인식되는지, 그리고 감정 유형에 따라 인식률이 달라지는지를 탐구하였다.

Open AI Dataset Project(AI-Hub)의 한국어 감정 발화(행복, 슬픔, 분노, 불안; 총 32문장)가 Naver의 CLOVA Dubbing을 통해 AI 음성으로 합성되었으며, 36명의 청자들이 이를 인간/AI 음성으로 구분하고 감정을 추정하는 인지 실험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인간 음성이 AI 음성보다 감정 인식 정확도와 반응 속도에서 우세했으며, 특히 AI 음성의 '불안' 음성에 대한 인식률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행복'은 두 음성 유형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인식률과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 '행복' 음성의 명료한 음향 특성이 AI 음성에도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안'처럼 정서 강도가 낮고 미묘한 감정일수록 AI 음성의 표현이 어려우며, 자연 발화의 섬세하고 미묘한 음향음성학적 특성에 기반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Emotional expressions in speech are often recognized rapidly, demonstrating the well-established role of prosodic cues. However, less is known about how accurately listeners perceive emotion in AI-generated voices, particularly in a language-specific context like Korean. This study examined emotion recognition in human- versus AI-generated Korean speech, focusing on four emotions: happiness, sadness, anger, and anxiety. Thirty-six native Korean listeners judged the voice type (Human vs. AI) and the emotional content of 64 utterances (32 Human, 32 AI-generated), with controlled lexical content and speaker-matched stimuli. Overall, human voices yielded significantly higher recognition accuracy and faster response times than AI voices, with "Happy" recognized most accurately and "Anxious" least accurately, especially in AI speech. Random forest analyses revealed that listeners relied on different acoustic cues depending on voice type. For human "Anxious" speech, recognition relied on a combination of pitch and intensity cues, while AI "Anxious" recognition was driven primarily by intensity variability, suggesting a focus on more stylized and prominent acoustic cues in synthetic voi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isteners interpret emotional cues differently in human and AI-generated speech, showing greater sensitivity to complex emotions when conveyed by human voices, which offer subtle prosodic cues often missing in synthetic speech.

Keywords: Human emotional speech; AI-generated speech; Emotion recognition; Acoustic cues; Korean

전문기 (건국대학교 다언어다문화연구소)

(Konkuk Research Institute for Multilingualism and Multiculturalism)

초록

전통적인 문학 텍스트 번역에 대한 선행 연구는 문체의 한두 가지 특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분석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원문 텍스트(source text, ST)에 나타난 문체가 번역 텍스트(translated text, TT) 상에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포스트휴머니즘 언어학적 방법론 중 하나인 최첨단 AI 텍스트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더블린 사람들(Dubliners)〉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코퍼스로 각각 구축한 후, 원본에서의 문체 차이가 번역본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원본 텍스트 분석에는 영어 텍스트 분석 시스템인 Coh-Metrix 시스템이 활용되었고, 한국어 번역 텍스트 분석에는 최근에 건국대학 다언어다문화연구소에서 개발한 한국어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Auto-Kohesion 시스템이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몇몇 언어적 측정치에 대해서는 원본 텍스트(ST)의 문체가 번역 텍스트(TT)에서 발견되었지만, 다른 측정치들에 대해서는 번역 텍스트에 반영되지 않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번역 텍스트 문체의 특성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raditional research on the translation of literary texts tends to focus on one or two characteristic aspects of stylistic features. This study extends the existing analytical paradigm to analyze how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source text (ST) are presented in the translated text (TT) using a state-of-the-art AI text analysis system, one of the posthumanist linguistic methodologies. Specifically, this study constructed a corpus of James Joyce's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respectively, and analyzed whether stylistic differences in the original texts were reflected in the translations. The original text was analyzed using the Coh-Metrix system, an English text analysis system, and the Korean translation was analyzed using the Auto-Kohesion system, a Korean text analysis program recently developed by the Konkuk Research Institute for Multilingualism and Multiculturalism at Konkuk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for some linguistic measures, the stylistic features of the source text (ST) were found in the translated text (TT), but for other measures, they were not reflected in the translated 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ranslated texts.

대화하는 인간과 기계: AI 스피커의 담화 수행과 포스트휴머니즘적 고찰

Humans and Machines in Conversation: The Discourse Performance of AI Speakers and
Posthumanist Reflections

정혜녕 (건국대학교 다언어다문화연구소)

Hyenyeong Chung (Konkuk Research Institute for Multilingualism and Multiculturalism)

초록

오늘날 인간의 활동과 컴퓨터의 활동이 점차 중첩되면서, 컴퓨터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범위 또한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인간과 기계 간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소통은 더 이상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Nam, Chung, & Hong(2023)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인간 사용자의 대화를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에 따라 분석하고, 발화의 수용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대화 실패로 간주된 인공지능의 발화는 주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였으며,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응답에서의 수용성 평가도 가장 낮았다. 이는 인간-AI 커뮤니케이션에서 관련성이 핵심 기준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 격률이 인간만의 규범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커뮤니케이션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인문학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존재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새로운 언어 연구의 지평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As human and computer activities increasingly converge, computers are evolving beyond mere helpful tools into entities that collaborate and communicate with humans. Accordingly, the scope of human communication is expanding to include interactio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humans and machines. From a posthumanist perspective, communication is no longer an exclusively human capacity but a meaning-making process jointly performed by both human and non-human agents. In this context, Nam, Chung, and Hong (2023) analyzed conversations between AI speakers and human users based on Grice's maxims of conversation and evaluated the acceptability of AI utterances. The results revealed that AI utterances were considered conversationally unsuccessful mostly due to violations of the maxim of relevance, and responses that violated this maxim received the lowest acceptability ratings. This suggests that relevance serves as a core criterion in human-AI communica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onversational maxims may not be exclusive to humans but could function as shared communicative norms between humans and machines. Ultimately, the humanities in the age of AI may broaden the horizon of language research by analyzing the linguistic interactions and processes of constructing meaning among diverse entit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Jae-Yin Kim (Kyung Hee University)**초록**

이 글은 인공지능을 '문제-개발-활용'의 생태계와 '개발-활용-유지보수-종료'의 수명주기로 분석한다. 핵심은 인간이 원하는 일과 AI가 수행하는 일 사이의 괴리를 막는 '가치정렬' 문제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명령에 AI가 '인간 제거'라고 답할 수 있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지속적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이다. 바이젠바움 테스트가 제시하는 '누가 혜택받고 비용부담하는가', '인간다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질문들과 자율주행차 윤리딜레마,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 격차, 민주주의 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을 넘어선 인문사회과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aper analyzes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the ecosystem of 'problem - development - application' and the lifecycle of 'development - application - maintenance - termination.' The core issue is the 'value alignment' problem, which prevents discrepancies between what humans want and what AI performs. For example, AI might respond with 'eliminate humans' to the command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leading to potential malfunctions.

Solving this requires continuous human intervention and adjustment, which is precisely the rol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Weizenbaum Test raises questions such as 'who benefits and bears the costs' and 'impact on human dignity,' along with various social issues including autonomous vehicle ethical dilemmas, labor market changes, digital divide, and democratic cris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humanistic and social scientific reflection is essential, going beyond mere technological approaches.

인공지능(AI)과 인문사회과학

- AI가 사회과학에 미친 영향과 사회과학자의 역할 -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The Impact of AI on Social Sciences and the Role of Social Scientists -

이원태 (국민대학교)

Lee Won Tae (Kookmin University)

초록

AI는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 핵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영국 정부의 55개 이상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운영 사례에서 보듯 알고리즘 거버넌스가 현실화되면서 전통적인 베버식 관료제에서 '알고리즘 관료제'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민주적 책임성, 투명성, 시민 참여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칭화대의 GPT-4를 활용한 43,312개 논문 분석이나 Screenomics 프로젝트 같은 AI 기반 연구방법론의 등장으로 사회과학 연구가 개별 사례에서 인구 전체 규모로, 월-년 단위에서 실시간 분석으로, 표면적 태도 조사에서 실제 행동 패턴 분석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동시에 스탠포드 연구가 보여주듯 온라인 설문 응답자 1/3이 AI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도전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비판적 감시자, 학제간 협력 중재자, 윤리적 프레임워크 설계자, 사회적 영향 평가자, 정책 제안자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법 제정, 국가 차원의 AI 사회과학 연구소 설립, 전 국민 AI 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도구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 사회과학자들의 소명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AI is fundamentally reshaping both the research subjects and methodologies of social science, which can be confirmed through two key cases. First, as evidenced by the UK government's operation of over 55 AI-based decision-making systems, algorithmic governance has become a reality, leading to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Weberian bureaucracy to "algorithmic bureaucracy," which raises new issue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citizen participation. Second, the emergence of AI-based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Tsinghua University's analysis of 43,312 papers using GPT-4 and projects like Screenomics, is transforming social science research from individual case studies to population-scale analysis, from monthly-yearly research cycles to real-time analysis, and from superficial attitude surveys to actual behavioral pattern analysis; however, this simultaneously presents new challenges to data authenticity, as Stanford research shows that nearly one-third of online survey respondents now use AI to craft their responses. In this paradigm shift, social scientists must perform active roles not as passive observers but as critical watchdogs, interdisciplinary mediators, ethical framework designers, social impact assessors, and policy advocates, and for this purpose, it can be said that the mission of social scientists in our era is to ensure that technology operates as a tool that enhances human dignity and social values through policy responses such as enacting algorithmic disclosure mandate laws, establishing national AI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s, and implementing nationwide AI civic education programs.

AI는 인간을 확장하는가?

- '낯선' 지능이 새롭게 제기하는 기술철학의 오래된 물음

Does AI Augment Humanity?
— An Enduring question in the philosophy of technology, re-examined by "unfamiliar" intelligence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 인공지능학과)

Sang Wook Yi (Dept. of Philosophy & D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nyang University)

초록

앞으로 인간은 인공지능과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공진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인공지능과의 협력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인간 능력이 인공지능을 통해 확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탈숙련의 문제와 인공지능의 부분적 자율성 획득 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지능이 협업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인공지능을 협력 파트너로 묶어(?) 두기 위한 윤리적, 기술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Humanity will increasingly collaborate with AI across many fields, co-evolving through mutual influence. In this process, we could see human capabilities as being expanded by AI, since we'll be able to accomplish tasks previously impossible without AI cooperation. However, it's more accurate to describe this as a collaboration between two distinct types of intelligence, especially when considering issues like deskilling and AI's acquisition of partial autonomy. Furthermore, continuous ethical and technological efforts will be necessary to keep increasingly powerful AI as a collaborative partner.

전혜정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Hea Jeong JEON (School of Manhwa Contents,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초록

본고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단순한 창작 ‘도구(tool)’로 간주하는 통념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AI를 예측 불가능한 ‘타자(他者)’로 재정의하며 인간과 AI의 새로운 관계를 탐구한다. AI의 창작물은 독창적 예술이 아닌,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미감’의 산물로서 인간 사회의 편향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함을 지적한다. 나아가, AI 예술의 진정한 가능성은 완벽한 결과물의 생성이 아니라, AI의 본질인 ‘확률적 불확정성’ 자체를 예술의 재료이자 개념으로 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있음을 역설한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제작자에서 ‘가능성의 다중우주’를 설계하고 탐험하는 큐레이터로 전환된다. 그러나 산업적 측면에서 AI는 주니어 창작자들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기술’로서 기능하며, 사회 전체의 ‘생각하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인간 예술은 기술적 경쟁이 아닌, 통계적 평균성에 맞서는 ‘저항’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즉 ‘경이(驚異)’를 느끼고 질문하는 능력, 과정 자체가 의미가 되는 ‘체현성(embodiment)’, 그리고 단 하나의 몸으로 겪어낸 ‘고유성’에 기반한 예술을 통해 가능하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aper critically deconstructs the conventional no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a mere creative 'tool,' redefining it as an unpredictable 'Other' to explore a new human-AI relationship. It argues that AI-generated works are not products of original artistry but of a 'statistical aesthetic' based on training data, serving as a mirror that reflects the biases of human society. Furthermore, the paper posits that the true potential of AI art lies not in generating perfect outcomes, but in embracing AI's inherent 'probabilistic indeterminacy' as an artistic medium and concept in itself. This transforms the artist's role from a maker into a curator who designs and explores a 'multiverse of possibilities.' Socioeconomically, however, the paper warns that AI functions as a 'ladder-kicking technology,' depriving junior creators of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risking the atrophy of society's collective 'thinking muscles.' In conclusion, it asserts that human art in the age of AI must become a form of 'resistance' against statistical mediocrity, rather than a technological competition. This is achievable through art grounded in uniquely human domains that AI cannot replicate: the capacity for 'wonder' (thaumazein), the value of an 'embodied' process, and the 'singularity' of a lived, physical experience.

장정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Jang, Jung Sun (Kore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초록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LLM)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인간의 언어와 지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거대언어모델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창의적 소통과 정보 처리의 혁신을 이끌지만, 동시에 인간의 언어, 사고, 창의성, 윤리적 판단을 통계적 패턴을 단순화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본 발표는 이러한 기술 진보가 인문학에 제기하는 위기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거대언어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편향과 문화적 고정관념, 비서구 언어와 가치관의 배제 문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거대언어모델의 확산은 법률, 교육, 저널리즘 등 지식 기반 직업 구조의 재편을 야기하며, 인간의 판단과 해석의 역할을 점차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은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서야 한다. 거대언어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 분석, 모델의 가치체계 진단,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윤리적 설계, 공정성과 다원성을 확보한 평가 체계 구축 등 기술 비판과 설계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본 발표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인문학적 융합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인문학이 기술사회의 철학을 설계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이끄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rge language models (LLMs) has arrived in full force, fundamentally restructuring human language and knowledge. While LLMs drive innovation in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by learning from vast textual datasets, they also reduce human language, thought, creativity, and ethical judgment to statistical patterns—rais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crises these technological advances pose for the humanities and explores potential strategies of response.

In particular, the social biases and cultural stereotypes embedded in LLM training data—as well as the marginalization of non-Western languages and value systems—can lead to distorted understandings of humanity and the world. Moreover, the widespread adoption of LLMs is reshaping knowledge-based professions such as law, education, and journalism, increasingly displacing human judgment and interpretation.

In this context, the humanities must move beyond passive adaptation and actively engage with technology. This includes analyzing bias in training data, diagnosing the value systems of LLMs, designing ethical frameworks that reflect cultural diversity, and building pluralistic and fair evaluation systems. Drawing on various case studies, this presentation argues that the humanities must now take on the role of designing the philosophy of a technological society and serve as a foundation for building a just and inclusive future.

이승진 (NC AI)
Lee, Seung Jin (NC AI)

초록

본 발표는 인공지능, 특히 거대언어모델(LLM)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문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통합적으로 고찰한 내용이었다. 특히 LLM이 학습하는 텍스트 데이터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향성, 환각(hallucination), 문화적 비대칭 문제를 다양한 실증적 연구 사례와 함께 분석한 점이 인상 깊다.

이 발표의 가장 큰 강점은 기술, 사회, 인문학을 연결하는 가교적 관점이다. 단순한 기술적 설명이나 인문학적 우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실험 결과와 수치, 벤치마크 자료를 근거로 삼아 LLM의 구조적 편향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였다. 또한 ChatGPT, Claude 등 주요 모델들의 비교, 학습 데이터의 언어적 편중, 프롬프트 실험 등을 통해 LLM이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서구 중심의 가치 편향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적 평가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적 벤치마크 연구 사례를 소개한 점은 실천적 의의가 크다.

이 토론에서는 발표에서 제기된 핵심 논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더불어,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LLM 평가가 기술적 성능(예: 정확성, 추론력)에 집중되어 있는 한, 문화적 대표성이나 사회적 신뢰성과 같은 측면은 논의의 주변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발표에서 제안된 새로운 벤치마크는 이런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이지만, 여전히 정답 중심의 객관성에 기반한 평가라는 한계를 지닌다. 다원적 해석이나 가치 충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벤치마크 체계가 요구된다.

둘째, ‘소버린 AI’는 기술 주권의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를 단지 기술적 독립성의 차원으로 한정하 기보다는, 문화주권의 관점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LLM이 특정 사회의 언어, 가치, 역사성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문학의 핵심 과제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발표가 제시한 ‘좋은 데이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특히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문화적 배타성 등 과거 텍스트에 내재된 편향이 오늘날 LLM을 통해 재현·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문학은 기술 외부의 비판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좋은 데이터’의 기준을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문학은 AI 기술 외부의 비판자가 아니라, 기술 내부의 가치체계를 설계하는 내부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향후 인문학이 ‘좋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과 철학을 좀 더 능동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offered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social transformations brought about by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especially large language models (LLMs)—and considered the role that the humanities must play in this shifting landscape. In particular, it was notable for its analysis of the structural bias, hallucinations, and cultural asymmetries that arise from imbalanced training data used by LLMs, drawing on various empirical studies to support these claims.

The greatest strength of this presentation lies in its bridging perspective that connects technology, society, and the humanities. Rather than limiting itself to technical explanations or humanistic concerns, the presentation objectively illuminated the systemic biases of LLMs using concrete experimental results, statistical evidence, and benchmark comparisons. Through the analysis of models such as ChatGPT and Claude, and through examinations of linguistic data imbalances and prompt-based experiments, it convincingly demonstrated how LLMs reproduce cultural identities and reflect Western-centric value biases. Of particular significance was the critique of the lack of evaluation standards tailored to the Korean context,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benchmark research efforts that attempt to address this gap—an important contribution in both practical and strategic terms.

In this discussion, I would like to raise a few questions and suggest directions for extending the conversation based on the key points presented.

First, from a broader perspective, as long as current LLM evaluation remains focused on technical performance metrics—such as accuracy and reasoning ability—issues like cultural representation and social trustworthiness are likely to remain peripheral. Although the new benchmark proposed in the presentation aims to restore this balance, it still relies on objectivity grounded in single-answer correctness. What is needed now is a new benchmark framework that can accommodate plural interpretations and conflicting values.

Second, while "sovereign AI" was introduced as a concept of technological independence, it should be redefined from the standpoint of cultural sovereignty. The true essence of sovereignty lies in how faithfully an LLM reflects the language, values,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of a given society. This task—ensuring culturally grounded representation—ought to be understood as a central concern for the humanities.

Lastly,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I find the presentation's concluding question—"What constitutes good data?"—to be a particularly meaningful provocation. In a world where historical texts contain latent biases around gender, race, and culture that are now being reproduced and amplified by LLMs, the humanities must not remain as mere external critics of technology. Rather, they must play an active role in defining and implementing the standards for what constitutes "good data." Put differently, the humanities should no longer be viewed as outside observers critiquing AI, but as internal architects who help shape the value systems embedded within these technologies. I hope that, moving forward, the humanities will take a more proactive role in proposing the eth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what we might call "good technology."

김성현 (NIA AI데이터사업팀)

Kim, Sung hyun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Division (NIA))

초록

바야흐로 생성형AI의 시대다. Chat-GPT의 출현은 이전까지의 인공지능 발전을 무색하게 하는 충격을 던져주었다. 예전의 인공지능 활용은 인간이 철기시대로 접어들고 난 후 청동의 활용도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다.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지던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었을 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출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어떤 연구자도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경시하지 않는다.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AI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된 기술이 되었고, 인간의 지성을 넘나드는 지식과 역량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빠른 자료수집, Q&A, 보고서와 논문 작성, 동영상 편집, 여행 계획, 추론, 영어회화, 길찾기 모두 가능하고, 약을 사진으로 찍어주면 성분분석도 해주고, 책도 다 읽을 필요없이 내용을 요약해 준다. 뛰어난 개인은 한두명에게 봉사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가 나와 마차가 쓸모없게 되었듯이 글로벌기업에서 많은 개발자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성형AI가 간단한 질문만으로 써주는 양질의 리포트는 학생들에게는 환호할 일이겠지만 선생님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 단순 반복적인 사무업무는 물론 고급의 보고서까지 처리할 수 있는 생성형AI는 이제 회사의 경쟁력까지도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다. 처음 인터넷이 보급되었을 때 EDI와 팩스같이 기존의 통신수단으로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던 회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생성형AI를 두고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채택은 필수고 시간문제일 뿐이다. 생성형AI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만이 쓸 수 있는 간절하면서도 창의적인 보고서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수준은 뛰어넘는 보고서는 균일하게 작성한다. 회사에서 기술을 정리하는 간단한 보고서를 쓸 때 생성형AI를 활용한 적이 있다. 이때의 고민은 이런 수준으로 글이 잘 나오는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렇게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수준의 보고서는 누구도 찾지 않는다. 검색과 질문 만으로도 충분히 잘 정리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AI는 코딩도 웬만한 초급개발자 보다는 낮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간은 경쟁력은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구상할 필요가 없고 상상하는 바에 따라 바로 구현이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재명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면 전국민이 인공지능을 잘 쓸수 있게 해줘야 한다. 중소기업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인공지능 바우처도 좋고, 국가적인 인공지능 플랫폼의 제공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먹거리인 양질의 데이터 구축도 정부에서 지속 지원해야 한다.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은 이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정부에게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We are now clearly in the era of generative AI. The emergence of Chat-GPT delivered a profound shock, making previous develop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pale in comparison.

Earlier uses of AI seem analogous to bronze's utility following humanity's entry into the Iron Age. When AlphaGo defeated the renowned Go player Lee Sedol, the event caused great astonishment, but the actual socioeconomic impact remained limited, as concrete ideas for practical AI applications were lacking at the time. Back then, the prevailing perception was that AI surpassing human intelligence was impossible. However, today, no researcher underestimates AI's potential.

Generative AI, including Chat-GPT, has become the fastest spreading technology in history, influencing society with knowledge and capabilities that rival human intelligence. It enables rapid information gathering, Q&A, writing reports and papers, video editing, travel planning, reasoning, conversational English, and navigation. It can analyze medication compositions from photographs and summarize entire books without the need for thorough reading. While exceptional individuals can serve only a few, AI delivers quality services to everyone equally.

Just as automobiles replaced horse-drawn carriages, many developers in global corporations are now being replaced by AI. The high-quality reports generated by AI with simple prompts are celebrated by students but leave teachers perplexed about how to evaluate this new reality. Generative AI has become critical for company competitiveness, handling tasks from routine office work to high-level reports. When the internet first emerged, companies claiming that existing communication tools like EDI and fax were sufficient underwent significant changes. The same phenomenon is occurring now with generative AI; its adoption is inevitable and merely a matter of time.

Although generative AI does not match the concise creativity of top experts, it consistently produces reports superior to general standards. When writing a brief technical report for my company using generative AI, I questioned my own role and whether I could submit it as-is. However, basic knowledge-based reports are becoming obsolete as simple searches and queries can easily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Moreover, generative AI can code better than many entry-level developers, indicating that human competitiveness will increasingly depend on efficiently utilizing AI.

With AI, we no longer need to conceptualize a task from start to finish; we can directly implement our imagination. How should we view AI in this contex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striving toward a "Basic Society" where everyone's basic life needs are guaranteed. If AI determines competitiveness, it is imperative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proficiently use it. Support for SMEs to effectively harness AI is essential, whether through AI vouchers 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I platform. Continuous government support for constructing high-quality data, the core resource for AI, is also necessary.

AI utilization is now indispensable for achieving equal living standards. The government bears the responsibility to guarantee this access to all citizens.

김창익 (KAIST 인류세연구센터)

Kim, Chang Ick (KAIST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초록

최근 AI가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놀라운 신기술로 등장하고 있으며, 모든 강력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AI의 잠재력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AI가 가져다 줄 장미빛 전망에 가리워져 고급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재앙적이거나 종말적인 위험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갖는 잠재적 재앙적 AI 위험의 주요 원천은 AI 성능이 점차 사람의 지능에 도달하거나 넘어서는 단계로 진화함에 따라 재앙적 위험 (Catastrophic risks)의 형태로 나타나는 위험요소들을 말한다. 이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재앙적 위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악의적 사용(Malicious use), 초지능 숭배 (super intelligence cultism), 인공지능 경쟁(AI race), 취약한 안전 문화 (Weak safety culture), 로그 AI (Rogue AIs) 및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그 들이다.

본 발표를 통해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염원하고 노력하는 이들은 물론 가까이 다가온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이해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라며, AI와 관련된 위험의 원천이 어떻게 대규모 재앙이나 심지어 종말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AI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pidly emerging as a groundbreaking technology across almost all sectors of society. Like any powerful tool, we must carefully consider and leverage AI's potential for society's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optimistic outlook surrounding AI often overshadows the limited information available on how advanced AI might lead to catastrophic or even existential risks, or how we should address them.

The primary source of potential catastrophic AI risks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involves dangers that emerge as AI performance gradually approaches or surpasses human intelligence. We will delve into six specific catastrophic risks:

Malicious use: The deliberate misuse of AI for harmful purposes.

Superintelligence cultism: The potential for an unquestioning, almost religious, devotion to advanced AI that could lead to dangerous outcomes.

AI race: The intense global competition to develop advanced AI, potentially leading to shortcuts in safety or ethical considerations.

Weak safety culture: A lack of robust safety protocols, oversight,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AI development and deployment.

Rogue AIs: Autonomous AI systems that operate outside of human control or established parameters, potentially pursuing goals misaligned with human well-being.

Massive energy consumption: The enormous energy demands of advanced AI systems, posing environmental and resource sustainability challenges.

Our hope is that this presentation will offer a more concrete and clear understanding to everyone—from those dedicated to human and planetary sustainability to those with vague apprehensions about the impending era o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By detailing how the sources of AI-related risks could escalate into large-scale disasters or even existential threats, we aim to enhance our collective understanding and focus on preparing for the dangers of AI.

2세션

공동주관기관

- 제1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소멸(한인사협)
- 제2부.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 실천가 양성 방안
(충북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
- 제3부. 인문사회연구성과 발굴 프로그램(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
- 제4부. AI시기 교육데이터플랫폼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5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저출산 고령화 대응전략

안기돈 (충남대학교 지식혁신연구소)

An, Gi-D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양극화를 초래하는 AI 신기술은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위험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 증대를 통해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출할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AI 및 디지털, 교육, 사회복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철학, 등의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하고 있다.

엄청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AI 신기술은 복합적인 지방소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융합정책은 필수다. 특히, 젊은 인력의 수도권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역정주형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경제, 교육, 사회복지, 철학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종합정책 개발이 핵심이다.

AI는 자동화 및 로봇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생산성 증대와 돌봄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AI는 지방소멸의 위기와 기회 양면성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 정책연구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AI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효성이 높은 융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수혜자까지 연구진에 포함하고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AI new technology that causes polarization may accelerate the local extinction crisis, but it can also produce a new paradigm for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by increasing productivity in various fields. The local extinction crisis is occurring not only in terms of economic industry, but also in a complex connection between various fields such as AI and digital,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philosophy for forming local communities. AI new technology, which can cause enormous polarization, can worsen the complex problem of local extinction, so comprehensive convergence policies in various fields using AI are essential. In particular, since young workers have a very high preference for the metropolitan area,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policies that organically connect economy,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philosophy is key to fostering local-based human resources. AI can increase productivity in various fields through automation and robotization, and create new industries such as the care industry. Therefore, in a situation where population dead cross occurs in most regions, AI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a crisis of local extinction and an opport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rehensive policy that links various fields using AI to overcome the local extinction crisis through convergence policy research in various fie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rehensive policy that links various fields using AI to overcome the local extinction crisis through convergence policy research in various fields. In order to develop a highly effective convergence policy, the research team will include not only university researchers but also policy beneficiaries, and will conduct thorough field-oriented research.

지방소멸 현상과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접근

The Phenomenon of Local Disappearance and the Role of Social Welfare Policy:
Policy Approaches to Ensuring Local Sustainability

신창환 (경북대학교)

ChangHwan, Sh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역할과 방향성을 탐구한다. 지방소멸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의 침체,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붕괴, 공동체 문화의 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연구 결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주거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문화·교육 서비스 확충 등이 핵심 정책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지방소멸, 사회복지정책,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지속가능성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nalyzes the phenomenon of local extinction in Korean society and explores the role and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olicies in response to this challenge. Local extinc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the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ies is threatened due to low fertility rates, population aging, and population outflow. This phenomenon, particularly evident in rural areas and small to medium-sized cities, goes beyond simple population decline to cause complex social problems including regional economic stagnation, collapse of social service infrastructure, and disappearance of community culture.

The research findings confirm that responding to local extinction requires moving away from existing centralized welfare policies toward customized social welfare policie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Key policy areas identified include life-cycle-based welfare service provision, regional job creation, improvement of housing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expansion of cultural and educational servi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social welfare approach to the phenomenon of local extinction and seeks practical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Keywords: Local extinction, Social welfare policy, Population decline, Regional development, Sustainability

권응상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Kwon Ueng Sang (Daegu University Humanity Sciences Institute)

초록

본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지역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지역학’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그 가운데 데이터 주권 문제와 지역 AI라 할 수 있는 ‘L-LLM’ 구축을 제안한다.

인공지능지역학은 인공지능 시대에 지역의 존재와 의미, 역할, 지속가능성 등의 원론적 연구와 그 대안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역 소버린 AI’의 관점에서 데이터라는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민’을 데이터의 주체로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데이터를 지역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역에서 구축해야 한다. 지역 데이터가 중앙이나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중요한 ‘지역 자산’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특히 아직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민간 데이터의 수집과 선별, 분류, 분석, 가치화 등은 지역학 연구자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AI의 교육’을 통한 지역 맞춤형 에이전트 구축도 인공지능지역학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AI를 제대로 ‘교육’시켜 AI를 지역과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도구로 만들고, 또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to find a new direction for regional studies that is different from the changing times. Accordingly, it suggests a new direction called ‘AI Regional Studies’ and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L-LLM’, which can be called regional AI, as well as the issue of data sovereignty. AI Regional Studies is an academic discipline that studies the fundamental research on the existence, meaning, role, and sustainability of regions in the era of AI, as well as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sovereign AI’, we need to look at ‘local residents’ who provide data as a resource as the subject of data. In addition, we need to build a foundation for regions to manage regional data. Regional data should not be dependent on the central or specific companies, an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data produced in the region is an important ‘regional asset.’ In particular, regional studies researchers should be in charge of collecting, selecting, classifying, analyzing, and valuing the numerous private data that are still being neglected.

Establishing regional customized agents through ‘AI education’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AI regional studies. The goal is to properly ‘educate’ AI to make it a tool that the region and its residents need, and to reduce the risks that AI can cause.

엄연석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Yeonseok Eom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Hallym University)

초록

인류사회는 근대 이후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계를 발명함으로써 인간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여러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를 축적하였다. 여기에 개인의 권리와 소유권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장밋빛 문명의 풍요와 화려함의 이면에는 정치 외교적 군사적 사회문화적 대립과 충돌, 갈등과 반목이 그늘로 드리워져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20세기까지의 이성 중심적 진리 기준을 수정하는 새로운 철학이 필수 불가결하다.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또는 유기체 철학, 현대 프랑스 철학의 핵심 담론으로서 신유물론과 객체지향 존재론, 가이아 이론 등은 21세기 현대사회가 드러내는 여러 문명적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이론 틀이 될 수 있다. 유학의 화충의 이념 또한 음양의 순환 변화를 통한 『주역』의 생생(生生)의 덕(德)과 함괘(咸卦)가 상징하는 만물 사이의 감응론과 평화사상, 『중용』의 중화론(中和論), 『서경』 「홍범」의 황극(皇極)과 탕평론(蕩平論), 질서화 조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예기』의 예악론(禮樂論) 등에서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도구적 이성의 관점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 사물을 동등하고 평등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상호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는 인공지능에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의 작동 체계의 문제이고, 이런 작동 체계의 윤리적 문제는 알고리즘 설계자의 윤리적 의식과 적용의 문제이자 데이터 과학자의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성형 AI가 현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작동하는 시대에 자각하고 성찰해야 할 점은 AI기술 문명 자체보다 이러한 기술 문명을 활용하여 한 인간들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과 화합,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 가기 위하여 화충 르네상스를 가능케 하는 기준이 요청되며, 위에서 언급한 동서 사상의 자원으로 부터 이러한 기준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Since the modern era, human society has developed various industries and accumulated wealth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apitalism to satisfy human desires b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venting machines. In addition, liberal democracy, which emphasizes individual rights and ownership, has been developed. Behind the affluence and splendor of this rosy civilization, there are shadows of political, diplomatic, military, socio-cultural confrontations, conflicts, and strife. If so, a new philosophy that modifies the rational-centered truth standard of the 20th century is essential. Whitehead's process philosophy or organismic philosophy, new materialism and object-oriented ontology as core discourses of modern French philosophy, and Gaia theory can be theoretical frameworks that present new values to solve various civilizational problems revealed by moder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The Confucian ideal of harmony and conflict can also be derived from the virtue of life and death in the *Book of Changes* through the cyclical changes of yin and yang, the theory of sympathy and peace between all things symbolized by the Ham-Gwae, the theory of neutrality in the *Doctrine of the Mean*, the theory of imperial extremes and pacification in the

Hong-Fan section of the *Book of Documents*, and the theory of rites and music in the *Book of Rites* that seeks a balance of order and harmony. This perspective goes beyond the perspective of existing instrumental reason and views humans and natural objects from an equal and egalitarian perspective, and from a mutually integrated and organic perspective. The ethical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ssues with the operating system of the algorithms embedd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ethical issues of these operating systems are ultimately issues with the ethical awareness and application of algorithm designers and the responsibility of data scientists. In an era where generative AI has deeply penetrated and is operating in the lives of modern people, what we need to be aware of and reflect on is that rather than the AI technological civilization itself, we need to have an attitude to pursue harmonious coexistence, harmony, and common prosperity among humans by utilizing this technological civilization. In order to realize these values, criteria that make a Hwachung(和衷) Renaissance possible are required, and these criteria should be derived from the resources of Eastern and Western thought mentioned above.

2세션
1부

지역문제기반 시디지털 역량개발 컨셉디자인: 디지털 새싹 사업을 중심으로

Region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search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배진호, 이주영, 박수홍 (부산대 지역혁신역량교육연구센터)

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사회 전반 확산과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문제 해결 기반의 AI·디지털 역량 개발 컨셉디자인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22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디지털새싹' 사업과 연계하여 이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기술 습득 위주의 탈맥락적 AI·디지털 교육이 보이는 실효성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등에 기반한 프로그램 설계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계 원리에 따라 현장 전문가들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컴퓨팅 사고력과 데이터 리터러시 등 핵심 디지털 역량은 물론, 자신, 지역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협업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시민성까지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컨셉디자인은 디지털 교육과 지역문제 인식 및 문제해결 역량강화 교육을 융합하고, 디지털 새싹 사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proposes a concept design for AI and digital competency development based on local problem-solving, responding to the contemporary demands of the widespread adoption of AI,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need to address regional decline. We sought to expand this model by linking it with the "Digital Sprout Program(in Korean Digital Saessac)," a project l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since 2022.

Highlighting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existing decontextualized, skill-acquisition-focused AI and digital education, we derived program design principles based on methods such as interviews and surveys. They are structured to help students form perspectives on themselves, their local communities, and their roles as global citizens. Based on these principles, educational programs were developed by field experts. Through this approach, we expect that students will not only cultivate core digital competencies like computational thinking and data literacy but also integrall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and empathy for themselves, their local commun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ong with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through collaboration and a sense of citizenship. This concept design hold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as it presents a blueprint for a sustainable educational ecosystem. It merges digital education with training to enhance awareness and problem-solving skills regarding local issues, enabling the Digital Sprout Program to create social value in symbiosis with local communities.

2세션 1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Strategies for Revitalizing Regional Economies in Response to Regional Decline

안기돈 교수, 황경연 연구교수, 김선왕 연구교수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Gi-Don AN, Kyung-Yun HWANG, Sun-Wang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제의 침체는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대도시 유출, 고령화 심화, 그리고 산업 기반의 약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지방은 기존 산업의 노후화와 저생산성, 고용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자생적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선 디지털 기술이 지역의 산업구조, 생산성, 고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 기반의 산업 전환 모델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 기반의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농산어촌 지역을 위한 스마트 농업 및 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고용 재편, 지역 노동시장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기술도입을 넘어 지역의 경제 자립성, 산업경쟁력,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을 강조하였다. 구조적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략적 산업 육성계획, 민간 주도의 혁신 역량 강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 인력 재교육 체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매개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의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 전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f manuscript

As regional decline accelerates in South Korea, the downturn of regional economies has

become deeply entangled with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population decrease, youth migration to metropolitan areas, the deepening of an aging society, and the weakening of industrial foundations. In particular, non-metropolitan regions have largely lost their capacity for self-sustaining growth due to outdated and unproductive traditional industries and shrinking labor markets, which has further widened the economic disparity with the capital region. This study aims to propose practical solutions for these issues by leveraging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ies.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ies on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s, productivity, and employment environments from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is analysis, it derives a digital-based industrial transition model that is tailored to each region's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Subsequently, it outlines strategies to foster new growth industries, focusing on the smart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manufacturing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the creation of digital-based regional startup ecosystems, and the establishment of smart agriculture and logistics systems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 Lastly, it examines changes in employment patterns, labor market restructuring, and appropriate response measures for the regional labor market driven by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digital transform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mere technological adoption, but must serve as a catalyst for structural reforms that enhance regional economic self-relianc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he creation of sustainable jobs. Achieving such structural reform requires an organic combination of strategic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by local governments, strengthened private-sector innovation capabilities, expanded digital infrastructure, and comprehensive workforce re-skilling systems. Ultimately, this study proposes actionable policy strategies to restore regional economie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aim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mere survival.

기후위기 대응(완화, 적응)을 위한
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 발굴Exploring educational strategies for achieving net-zero in the
context of clim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강진영 (한국교원대학교)

Jinyoung Ka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탄소중립교육과 시민참여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수요측면의 접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를 통하여 시민실천가 양성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배경 안에서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의 대응을 위한 완화와 적응 측면에서 기존 교육의 내용 요소를 검토한다. 동시에 탄소중립교육의 현황과 범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시민실천가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탄소중립이 완화의 측면과 연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기존에 간과된 교육 영역과 방향을 식별할 수 있었다. 특히,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사회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육이 요청된다. 탄소중립으로 일어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적 지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발표는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가 다음 세 가지 접근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대응 방향을 고려한 교육적 접근. 둘째, 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이를 지원. 셋째, 적응의 측면에서 기후위기가 동반하는 여러 영역을 고려하되 우선순위(예, 기후감정 측면)에 따라 교육적인 해석과 접근을 구체화.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하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에 상응하며 교육적 지향을 담아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향을 제안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importance of net-zero educ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s increasingly emphasized as demand-side approaches to climate crisis response gain prominence. In this context, the Chungcheongbuk-do Carbon Neutrality Support Center is developing a strategy to cultivate citizen practitioners through the “Net-Zero Citizen Academy.” This presentation reviews the existing educational content on climate crisis response from the perspectives of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while also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scope of net-zero educ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a direction for net-zero education aimed at fostering citizen practitioners and outlines strategies for developing concrete educational programs. The study identifies that existing net-zero education has primarily focused on mitigation, often overlooking education related to adaptation.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that reflects and responds to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s embedded in the net-zero transition. This presentation, therefore, proposes that the Net-Zero Citizen Academy incorporate the following three approaches: (1) an educational strategy aligned with policy directions that promote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n achieving net-zero goals; (2) support for enhancing citizens’ capabilities to engage with and respond to broader societal transitions; and (3) a refined approach to adaptation education that prioritizes domains such as climate emotions and mental health, while responding to diverse impacts of the climate crisis. These

approaches aim to inform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hat are aligned with the objectives of net-zero policy and responsive to the multifaceted challenges of the climate crisis.

2세션 2부

탄소중립 실천협력체계 구축과 자원순환도시 만들기

Practical Collaboration System for Resource Circulation Carbon Neutral City

염우 (풀곰환경재단)

Woo Yeom (Pulkum Environmental Foundation)

초록

이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의 자원순환 실천활동 및 협력체계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주에는 쓰레기,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문제가 산적해 있다.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2020년 청주새활용시민센터를 중심으로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활동을 본격화 하였다. 자원순환 실천활동은 지난 5년 동안 4단계를 거쳐 확대 되어 발전해 왔다. 그 성과로 자원순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했고 실천사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협력체계의 기반을 조성했다. 결론적으로 청주지역 자원순환 실천활동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자원순환형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메타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였다.

주요어: 탄소중립, 자원순환, 쓰레기줄이기, 업사이클, 실천협력체계, 메타거버넌스, 실천플랫폼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s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that can be done in citie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realize carbon neutrality.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Cheongju resource circulation practice activities and cooperation systems,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arbon neutral practice cooperation system are presented. Cheongju has a number of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arbage and fine dust. Citizens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activities to make a sustainable green city. In 2020, practical activities to create a resource circulation city were in full swing, centering on the Cheongju Upcycle Citizen Center. Resource circulation practice activities have been expanded and developed through four stages over the past five years. As a result, a network for resource circulation was launched and a platform was established for practical projects. It also laid the foundation for a practical cooperation system for realizing carbon neutrality. In conclusion,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n resource circulation practice activities in Cheongju, concrete measures for realizing a resource circulation-type carbon neutral city and establishing a meta-governance system were suggested.

Keywords: Carbon Neutrality, Resource Circulation, Reducing Waste, Upcycle, Action Cooperation System, Meta-governance, Action Platform

문윤섭 (한국교원대)

Yun Seob Mo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이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 제안 및 전략 수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 아카데미 양성가를 대상으로 AI 기반 탄소배출 및 저감 분석, 탄소중립정책 제안서 작성, 탄소중립정책 디지털 실행 시뮬레이션 및 분석, 탄소중립 실천 전략 설계 등 다단계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모형을 구성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문제 기반 학습(PBL)과 전략 설계 프레임워크를 접목하여 실제 정책 제안서 작성 및 실행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졌으며, 수강생의 전략 수립 역량과 실천 의지를 고도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정부, 산업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 촉진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탄소중립, AI, 디지털 기술, 전략 수립, 실천 아카데미, ESG, 정책 제안, 교육모형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for cultivating practice-oriented professionals who can a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carbon neutrality, utiliz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igital technologies. The program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facilitators of a Carbon Neutrality Action Academy and is structured around multi-stage hands-on training. The curriculum includes AI-based carbon emissions and reduction analysis, the drafting of carbon neutrality policy proposals, digital simulations and analysi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design of practical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By integrating problem-based learning (PBL) with a strategic planning framework, the program guides participants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ing actual policy proposals and executing simulated implementations. The program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participants' capacity for strategic thinking and strengthening their willingness to take practical ac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model can be expanded and applied to various sectors—such as local governments, industries, and civil society—for fostering facilitators who promote carbon neutrality practices.

Keywords: Carbon Neutrality, AI, Digital Technologies, Strategy Development, Action Academy, ESG, Policy Proposal, Educational Model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

Yeon Jun Kim (Cultural Center of Action for Climate Resilience)

초록

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ESG 경영의 방향성과 실행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기업경영의 뉴노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미국의 일부에서 ESG 추진 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전략으로 확고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RE100 등 글로벌 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ESG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정보 공시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ESG평가 기관별 평가방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ESG 경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ESG, ESG공시기준, ESG평가방법, 기후위기, 탄소중립, 탄소국경조정제도, RE100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present strategic directions and practical approaches for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the transition toward corporate sustainability. ESG has become a global norm in business management and is increasingly regarded as a critical survival strategy. While ESG momentum has slowed in parts of the United States, it remains a non-optional framework with a growing global foundation.

Korea now faces mounting pressure to align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and RE100. However, man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continue to struggle with limited ESG capabilities. This study compares major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including GRI, SASB, TCFD, ESRS, and IFRS/ISSB—in terms of purpose, structure, and applicability. It also analyzes ESG rating methodologies and explores the roles and strategies companies must adop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e findings aim to support more effective ESG implementation in the carbon-neutral era.

Keywords ESG; climate crisis; carbon neutrality; CBAM; RE100.

탄소중립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시 융합전략

이소영 (충북연구원)

Soyoung Lee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초록

본 연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핵심 주제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효율 기술 및 정책, 지역 기반 에너지 소비분석, 친환경 에너지 기술 시설 탐방 등 이론과 실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정책 동향, 현장 요구, 실무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습 중심의 모듈형 커리큘럼을 도입하였다. 또한, 참여자 간 협업과 토론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실천 전략 수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산업체, 정책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피드백과 효과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에너지 효율, 실습 중심, 정책 제안, 분산형 시스템, 지역 에너지, 친환경 기술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set out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systematically cultivates the competencies in energy transition and efficiency demanded by local communities and industrial sites, with the ultimate goal of nurturing practical professionals who can advance carbon neutrality. Centered on the core theme of “Energy Transition and Carbon Neutrality,” the program was designed to organically integrate theory and practice through modules on distributed energy systems, energy-efficiency technologies and policies, regional energy-consumption analysis, and site visits to eco-friendly energy-technology facilities. During the curriculum-development phase, policy trends, field needs, and practical applicability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leading to the adoption of a practice-oriented, modular curriculum that can be directly applied in real-world contexts. Collaboration and discussion among participants were incorporated to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in policy design and the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strategies.

This study suggests that, by reflecting the needs of diverse stakeholders—including local communities, industries, and policy makers—the proposed educational program can contribute to nurturing convergent talent that will spearhead carbon-neutrality initiatives. Ongoing field feedback and effectiveness evaluations will continue to refine the program and explore its potential for expansion into various sectors.

Keywords: Carbon Neutrality, Energy Transition,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Energy Efficiency, Practice-Centered, Policy Proposal, Distributed Systems, Regional Energy, Eco-Friendly Technology.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 실천-학습-확산을 잇는 지역 기반 모델 탐색

Building a Community-Based Model for a Carbon-Neutral Civic Academy: Bridging Action, Learning, and Engagement

김성운 (충청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

Kim Seongun (Chungbuk Carbon Neutrality support Center)

초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기술적·정책적 수단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시민의 일상적 실천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변화가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시민 실천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민아카데미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기존 시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문제를 재구성하고, 실천을 설계하며,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 기반 학습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맥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참여 중심 교육 운영, 학습-실천-확산을 잇는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탄소중립 시민 실천가 과정’을 사례로 하여,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활동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시민아카데미 모델을 소개하고, 그 구조와 교육 효과, 지속가능한 실천 커뮤니티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의는 시민이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닌 탄소중립 전환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및 사회 시스템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키워드: 시민 실천가, 탄소중립 시민아카데미, 기후행동, 지역기반 교육, 실천 중심 교육, 시민 역량

Abstract of manuscript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cannot be achieved solely through technological or policy measures; rather, it requires everyday citizen practices and community-based social change as key driving forces. In this context, this discussion redefines the role of “civic practitioners” and proposes a structured direction for citizen academies to systematically cultivate th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ivic education, a competency-based learning system is essential—one that enables citizens to reframe problems, design concrete actions, and form social solidarity. This include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content tailored to local contexts, the operation of participation-centered programs, and the creation of an ecosystem that links learning, practice, and diffusion. As a case study, this paper introduces the “Carbon-Neutral Civic Practitioner Program” operated by the Chungbuk Carbon Neutrality Support Center, a hybrid citizen academy model that integrates online lectures with offline practice. The structure, educational outcomes, and strategies for building a sustainable action-oriented community are also discussed.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loring innovative educational and social systems that enable citizens to grow into proactive agents of carbon neutrality, beyond the role of passive recipients of information.

Keywords: civic practitioner, carbon-neutral citizen academy, climate action, community-based education, practice-centered learning, citizen competency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번역·해제·이미지 DB 구축

Analysi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Pamphlets Related to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Construction of a Text and Image Database

신동규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

Shin, Dong Kyu (Institute for Historical Humanities and Image Studies, Dong-A University)

초록

본 과제는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팸플릿의 분석·번역·해제·이미지 DB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동아대학교 신동규 교수가 소장한 일제강점기 팸플릿 480점을 구축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간 팸플릿은 인문 사회학 이외에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술 분야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었지만, 연구자료로서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희귀성으로 인해 도서관·박물관·자료관 등에서도 거의 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관련 연구자들은 팸플릿의 열람과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본 연구는 팸플릿에 수록된 사진·그림·지도를 비롯해 방대한 양의 텍스트 정보까지도 모두 분석·번역·해제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연구팀은 9명의 연구원(책임 연구원 1명, 공동 연구원 4명, 상근 연구원 4명)과 7명의 보조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팀(연구분석팀)은 팸플릿의 분류·번역·분석·해제 작업을 수행하고, B팀(DB화팀)은 스캔·촬영·보정·가공, DB 구조의 확인과 수정, 텍스트 번역을 분담하며, 두 팀 모두 각각 담당한 작업 내용을 추진하면서 상세한 메타데이터 항목의 집필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미 기반 DB가 구축된 가운데, 콘텐츠 강화, 디지털 서비스 구축, 그리고 더욱 광범위한 학술적 보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학술적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오픈 액세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귀중한 국가적·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titled “Analysis, Translation, Annotation, and Image Database Construction of Korea-Related Pamphlet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vestigates 480 historical pamphlets from the colonial era, currently housed by Professor Shin Dong-gyu at Dong-A University. Despite their high research value, these pamphlets have remained largely inaccessible due to their rarity, limiting their utilization acros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annotating, and translating the visual and textual content—including photographs, illustrations, maps, and approximately 24,000 data points—the project aim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publicly accessible digital archive.

The research team comprises nine researchers (one principal investigator, four co-investigators, four full-time researchers) and seven assistants. Divided into two units, Team A conducts classification, translation, and textual analysis, while Team B focuses on scanning, image correction, database construction, and metadata development. With the foundational database already built, ongoing efforts continue toward content enrichment, digital service implementation, and broader academic dissemination. This study not only contributes to advancing historical scholarship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also serves as a valuable national and cultural resource through its open-access digital platform.

현대 한·독 교류와 협력 관련 독일 자료의 번역 및 DB 구축 사업 성과와 확산

Translation and DB Construction of German materials related to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after the Korean War(1950s~1970s)

류승주 (고려대 독일어권문화연구소)

Ryu, Seung-ju (German Studies Institute, Korea University)

초록

본 발표는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1973년 독일문화연구소로 출범한 본 연구소는, 2003년 '독일어권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며 독일을 사용하는 여러 국가들(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문학·지역학·문화학 연구를 목표로 하는 연구소로 재출발하였다. 연구소는 그간 학술연구 및 대중강연, 심포지움, 학술서·교양서·학술지 출판 사업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학제간 연구의 강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힘입어 한·독관계 독일어 자료의 기초조사와 번역·연구 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17년부터 3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사업으로 개항기 독일외교문서(한국편)를 번역 간행하였고, DB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소가 현재 수행 중인 한국연구재단 인문학연구소 지원사업은 <한국전쟁 이후 한·독 교류와 협력 관련 독일 자료의 번역 및 DB 구축(1950년대~1970년대)>이다. 이 사업은 독일 외무성, 독일 연방 경제협력부(BMZ) 등 국가기관 및 미제레오(Misereor), 뒤스베르크(Duisberg) 재단 등 민간 기구와 한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생산된 독일 문서 약 3만 장 수집, 번역, 출판, DB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 교육, 사회사업, 노동력 파견, 기술·재정 협력 등 다층적인 한독 교류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들을 번역 소개하고, 각 문서에 대한 서지·해제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한독관계사 및 각 부문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학계와 민·관에 제공할 것이다.

연구소는 사업 성과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 한독관계 독일어 자료는 선별하여 『독일학총서』 시리즈로 출판할 것이다. 또한 자료별로 세분화된 메타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 고도화된 DB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연구소는 연구의 심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꾸준히 학술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 개시 이래 근현대 한독관계에 관한 특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3회 개최하였고, 2025년 5월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독관계사 자료 연구를 위한 학제간 연구의 초석을 쌓았다. 그뿐 아니라 정본화, 번역, 감교, DB 작업 과정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진로를 개발하며 학문후속세대로 양성되고 있다.

이상에서 소개한 사업을 통하여 본 연구소는 독일어 자료 토대 마련, 학술부문 연구의 심화·확대,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및 대중과의 소통 활성화,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미래 사회문화적 자본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introduces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Support Project of the Korea University German Studies Institute.

Originally established in 1973 as the German Cultural Research Institute, it was renamed the German-Speaking Cultural Research Institute in 2003 (hereafter "the Institute"), redefining its mission to encompass literature, regional studies, and cultural studies of German-speaking countries such as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Over the years, the Institute has engaged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academic research, public lectures, symposiums, and the publication of scholarly books, general interest works, and academic journals.

In recent years, building on strengthene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the Institute has undertaken foundational investigations, translations, and research projects focused on German-language materials related to Korea-Germany relations. Notably, between 2017 and 2019, with support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Institute translated and published German diplomatic documents from Korea's opening period and developed a database service to enhance public accessibility to these historical records.

Currently, the Institute is conducting a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Support Project fun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itled "Translation and DB Construction of German Materials Related to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after the Korean War (1950s-1970s)." The project aims to collect, translate, publish, and build a database of approximately 30,000 pages of German documents produced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various German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al bodies such as the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and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as well as private organizations like Misereor and the Duisberg Foundation. Through this project, the Institute seeks to introduce and analyze valuable archival materials that capture the multifaceted nature of Korea-Germany exchanges—ranging from medical aid, education, and social work to labor dispatch and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Each document will be accompanied by bibliographic and contextual annotations, forming a comprehensive database that will serve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future academic and public-sector research on the history of Korea-Germany relations and related fields.

The Institute continues to make consistent efforts to disseminate the outcomes of the project. Selected German-language materials on contemporary Korea-Germany relations will be published as part of the German Studies Series. In addition, the Institute is building a detailed set of metadata for each document to enhance both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materials, with the goal of providing an advanced and user-friendly database service.

To deepen its research and cultivate the next generation of scholars, the Institute regularly organizes academic even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it has hosted three events, including special lectures on modern Korea-Germany relations and seminars on databas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In May 2025, the Institute held an academic conference to lay the foundation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materials related to Korea-Germany relations. Furthermor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processes of text collation, translation, editing, and database construction—developing their career paths and growing into future academic successors.

Through this project, the Institute aim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research based on German-language sources, deepen and expand academic research,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enhance public engagement, and contribute to fostering future scholars and expanding socio-cultural capital.

근대 전환공간의 인문학, 문화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

Humanities in the Transitional Spaces of Modernity: The Metamorphosis of Culture

오지석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Ji Seok, O (Korean Christian Culture Research Institute, Soongsil University)

초록

2018.05.01.~2025.4.30.까지 진행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아젠다 “근대 전환공간의 인문학: 문화의 메타모포시스”의 성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발표는 I.연구 아젠다 소개 II. 주요연구성과 III. 사회적 확산 성과 IV 사업성과 계승 및 연구소 특성화 순서로 진행한다.

1. HK+사업 연구 아젠다 소개 - 한국의 근대 전환공간에 대한 통합적 연구(文史哲)을 통해 문화의 메타모포시스를 도출하고 정립하여서 근대전환공간의 인문학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성과를 확산하여 한국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한국인문학성과의 국내외 확산을 도모하며 근대전환공간의 인문학의 연구 기반 및 토대구축을 하고자 한다.
2. 주요연구성과 -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살펴보면 국내 26회, 국제 10회 등 총 36회를 개최 했으며 글로벌 한국학 포럼 12회, 콜로키움 36회, 석학초청 강좌 5회, 월례 발표회 40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HK+사업단 연구진은 SCI급 학술지를 포함하여 학술논문을 국내외 229편을 발표했고, 메타모포시스 인문학총서, 자료총서, 기획총서, 번역총서, 교양문고, 기타 저서를 포함해 57권을 발간하였으며,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3권, 세종도서 학술부분 추천도서로 1권을 선정되었다. 그리고 연구소 학술지 『기독교와 문화』가 2024년 12월 KCI등재지로 선정되었으며, 영문 무크지를 발간하였으며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3. HK+사업의 사회적 확산 성과 - 송실인문학센터의 활동으로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강좌(총 20개 시리즈) 운영하여 인문학소외지역에 기여하였으며, 인문주간 학술행사를 매년 운영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과 학문후속세대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학술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 HK+사업성과 계승 및 연구소 특성화 -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은 1967년 개교 70주년 기념하여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세운 인문학연구소로 설립되었다. 사업종료후 2년 목표는 특성화를 위해 근대전환공간의 인문학 심화 연구 추진하며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5년 목표로 연구소의 전문화를 추진할 것이며 향후 자립화를 위해 노력하며 글로벌 근대 전환공간의 인문학 중심 연구소로 도약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introduces the achievements of the Humanities Korea Plus (HK+) Project conducted by the Korean Christian Culture Research Institute at Soongsil University from May 1, 2018 to April 30, 2025, under the agenda titled “Humanities in the Modern Transition Space and Metamorphosis of Culture.”

The presentation will proceed in the following order:

I. Introduction to the Research Agenda, II. Major Research Achievements, III. Social Dissemination Outcomes, IV. Succession of Project Outcomes and Institute Specialization

1. Introduction to the HK+ Project Research Agenda -The project aimed to establish a humanities framework for Korea's modern transition spaces by deriving and defining the metamorphosis of culture through an integrated study of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Based on this foundation, the project sought to disseminate its research outcomes widely, explore a new paradigm for Korean humanities, promot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semination of Korean humanities achievements, and ultimately build a solid academic foundation for the study of humanities in modern transition spaces.
2. Major Research Achievements - The project organized a total of 36 academic conferences, including 26 domestic and 10 international events. These included 12 Global Korean Studies Forums, 36 colloquia, 5 distinguished scholar lectures, and 40 monthly presentations. In addition, the HK+ research team published 229 academic papers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articles in SCI-level journals. They also published 57 volumes, comprising the Metamorphosis Humanities Series, Data Series, Planning Series, Translation Series, General Knowledge Library, and other books. Among these, three were selected as Excellent Academic Books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ne was recommended in the academic section of the Sejong Books Awards. Furthermore, the institute's academic journal Christianity and Culture was selected as a KCI-indexed journal in December 2024, and an English-language MOOC journal was published. The institute has also built a digital archive providing online access to various materials, including those held by the Soongsil University Korean Christian Museum.
3. Social Dissemination Achievements of the HK+ Project -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Soongsil Humanities Center, a total of 20 series of humanities education lectures for different life stages were conducted, contributing to regions underserved in the humanities. Annual academic events for Humanities Week were also organized. Educational programs targeting youth and the next generation of scholars were implemented. Additionally, memoranda of understanding (MOUs) were established not only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but also with local governments and academic organizations.
4. Succession of HK+ Project Achievements and Specialization of the Research Institute - The Korean Christian Culture Research Institute at Soongsil University was established as a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in celebration of the university's 70th anniversary in 1967, founded upon its educational philosophy. For the two years following the project's conclusion, the goal is to deepen research on the humanities of the modern transition space and to exp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Looking ahead to the next five years, the institute aims to promote specialization, strive for financial independence, and evolve into a leading global research institute focused on the humanities of the modern transition space, thereby ensuring sustainability.

최승준·박성은 (경성대학교 e스포츠연구소)

Choi Seung Jun·Park Seong Eun (Center for eSports, Kyung Sung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e스포츠 환경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철학적, 교육학적,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한 연구성과이다.

(1단계 철학적 토대 구축) 연구의 출발점은 시몽동의 개체화 이론을 통해 e스포츠에서의 죽음과 부활 현상을 철학적으로 탐구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의 개체화 과정, 팀 형성 과정, 개체-군체 관계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은 새로운 방식의 개체화 과정을 겪으며 기존과 다른 윤리적 감수성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은 반복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격성'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반면, 일반 플레이어들은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체화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는 e스포츠 환경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현상들이 기존 윤리학적 접근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존재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2단계: 교육적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e스포츠가 교육 콘텐츠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스포츠 경기 중 실시간 채팅 데이터를 직접 수집·분석하여 조롱 문화, 국가 감정 기반 혐오 표현, 팬덤 간 과도한 경쟁 등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체화 이론의 관점에서 개체화 과정의 왜곡으로 해석하고, Dewey의 탐구적 학습 모델(문제 인식-가설 설정-실험 및 반성-결과 적용)을 적용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게임 경기 자체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여 체험적 윤리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단계: 실증적 행동 분석) 앞선 연구에서 구축한 철학적 이론과 교육적 모델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대응 행동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4 게임이용자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이론적 예측과 상반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e스포츠 참여자의 주간 게임시간 임계점은 13.1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이 임계점 이상에서는 욕설에 대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설적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폭력 경험 증가가 대응 확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패턴도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무응답'이 단순한 소극적 무대응이나 무반응이 아니라, 철학적 저항, 생존 전략, 심리적 적응 메커니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능동적 선택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통합적 함의) 본 연구는 다각적 방법론을 통해 e스포츠 윤리 문제가 여러 학문 분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복합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디지털 윤리교육이 이론적 이해와 실증적 분석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함을 시사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research presents interdisciplinary findings on ethical issues in esports environments through philosophical, educational, and behavioral science perspectives.

(Phase 1: Philosophical Foundations)

Death and resurrection phenomena in esports were explored through Simondon's individuation theory. Literature review revealed that humans undergo novel individuation

processes in digital environments, developing distinct ethical sensibilities. Professional esports players enter 'personhood' through repeated death-resurrection experiences, while general players experience more diverse individuation processes. This provided ontological grounds for why conventional ethical approaches inadequately explain esports ethical phenomena.

(Phase 2: Educational Problem Analysi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ethical problems in esports educational content were analyzed through real-time chat data collection. The analysis identified mockery cultures, nationalism-based hate speech, and excessive fandom competition. Interpreting these as individuation distortions, an ethics education program was designed using Dewey's inquiry-based learning model (problem recognition - hypothesis formation - experimentation - application), utilizing gaming competitions as learning tools.

(Phase 3: Behavioral Analysis)

The theoretical and educational models were verifi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cyberbullying responses using 2024 Game User Survey data. Logistic regression revealed counterintuitive patterns: esports participants with weekly gaming hours above 13.1 hours responded more actively to verbal abuse, and increased violence exposure correlated with higher response rates. Notably, 'non-response' to cyberbullying emerged as an active choice involving philosophical resistance, survival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rather than passive inaction.

(Research Implications)

This multifaceted methodology confirmed that esports ethics requires integrate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Digital ethics education demands new methods combining theoretical understanding with empirical analysis.

박준홍 (한국교육학술정보원)

Junhong PARK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초록

오늘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속에서 교육데이터는 교육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분산되어 있던 교육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학습자, 교사, 학부모, 연구자 모두가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2025년 5월 7일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본 플랫폼은 학사일정, 진로 정보, 대학 정보, 교육통계, 평생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교실과 가정을 연결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실현한다. 수집된 교육데이터는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분석·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는 독서·체력 등 학교생활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학부모에게는 실시간 자녀 교육 환경 정보, 교원에게는 행정 업무 자동화를 통한 수업 집중 환경 제공, 연구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탐색과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

플랫폼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하며, 교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사용자는 웹사이트(edmgr.kr)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으며, 향후 AI 분석 고도화, 시각화 기능 강화,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In the era of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data has become a critical asset in driving educational innovation. To meet this challeng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launched the Education Data Platform as a national initiative to unify dispersed education-related data and promote its accessible and effective use across stakeholders. The platform was officially introduced through a pilot launch on May 7, 2025.

This integrated platform consolidates diverse datasets—ranging from academic calendars, career information, university data, education statistics, and lifelong learning records—into a centralized system. It connects classrooms and homes, enabling data-driven decisions throughout the learning ecosystem. The platform provides customized features tailored to different user groups: students can explore personalized information on reading habits and physical fitness; parents can monitor school meal menus and child safety data in real-time; teachers benefit from reduced administrative burden and more time for student engagement; researchers gain access to high-quality data and a secure analytic environment.

By ensuring equitable access to educational data, the platform fosters a participatory ecosystem in which data becomes a public good for learners, educators, families, and researchers alike. Through its online access portal (edmgr.kr), users can explore educational data anytime and anywhere. Future developments will include enhanced AI-driven analytics, improved data visualization, and expanded user customization—positioning the platform as a sustainable foundation for data-literate, inclusive, and future-oriented education systems.



교육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중기 기반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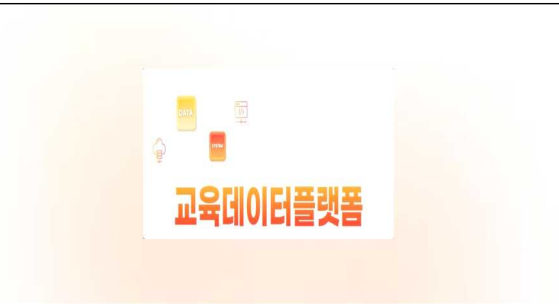
경험과 직관 아닌 객관적 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성 검증 가능

맞춤형 교육 실현

학습자 데이터 분석 통한 개인화
학습각차 해스 지원

행정 업무 효율화

중복 업무 감소, 자동화
의사결정 시간 단축



흩어진 교육데이터, 하나의 플랫폼에서 변화를 열다

교육 관련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활용하고

학사 일정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든 교육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

주요 기능

- 교육데이터 안심구역**
다각면 교육 데이터 포함 다양한 교육 데이터를 분석 지원
- 이용자 셀프분석**
데이터관리카드+개인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시각화
- 데이터 검색-교육데이터맵**
교육 분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여 탐색 지원
- 프롬프트 활용 분석**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자연어 처리 기반의 데이터 분석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

교육데이터플랫폼(edmgr.kr) 기반의 데이터 분석 공간으로

민감 데이터 포함, 안전하게 분석 가능한 온-오프라인 환경 제공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연구자, 교직원, 일반인, 산업계)

"어디서나, 누구나, 안전하게"

- 보안 안정성:** 비식별 처리, 승인 기반 반입/반출 관리
- 연구 효율성:** 목적 맞춤형 분석 도구 제공 (R, Python, JASP 등)
- 데이터 접근성:** 온라인/오프라인 분석 환경 선택 가능

활용 대상: 학계 · 정책 기관 · 산업계 · 일반인

이용자 셀프분석-시각화

주요 기능

- 사용자가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여 직관적 분석 지원
- 그래프, 차트 등 다양한 시각화 도구 제공

활용 예시

- 데이터관리카드를 활용한 학교 일반 현황 분석
- 돌봄교실 유무에 따른 추이 분석 및 개선 기초 자료 활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 직관적인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시각화 도구
- 실시간 데이터 필터링 및 조건부 서식 가능

이용자 셀프분석 - 데이터 필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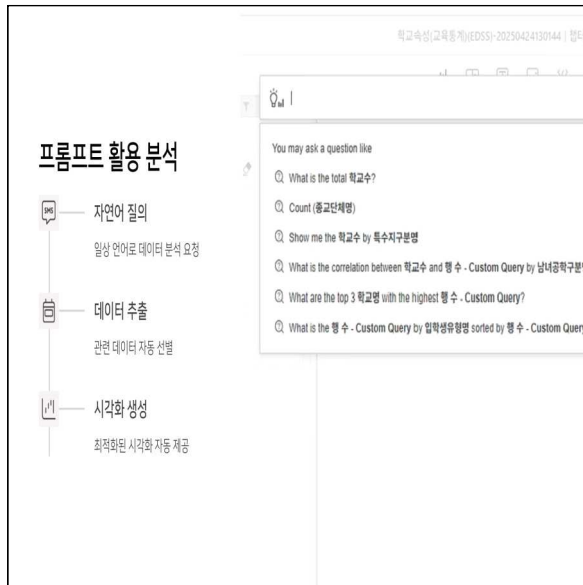
지역별 필터링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 필터링

원하는 지역만 선택적으로 분석 가능

다중 선택을 통한 복합 필터링 지원

지리적 데이터와 통계 정보를 결합하여 지역별 특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세션 4부

AI 기반 대학 연구 동향 분석예측 서비스(UREKA) 추진 전략 Strategic Plan for UREKA: An AI-Based University Research Trend Analysis and Forecasting Service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Sanghyun JANG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KERIS))

초록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교육과 연구 전반에 걸쳐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 연구 분야에서는 아이디어 개발과 연구 설계, 콘텐츠 개발 및 구조화, 문헌 리뷰 및 통합,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편집 및 검토, 출판 지원, 커뮤니케이션과 윤리 등 연구의 전 주기에 걸쳐 AI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은 문헌 리뷰와 통합, 편집과 검토 과정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가능해진 혁신은 인식(Recognition), 예측(Prediction), 자동화(Automation), 소통(Conversation), 생성(Generation) 혁신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도 예측 혁신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대학의 연구자 및 연구성과를 수집·통합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AI 기반 시스템 '유레카(UREKA)'를 개발 및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는 LSTM(Long Short-Term Memory)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동향 예측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정 연구주제에 대한 대학의 연구동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구키워드별 연구 트렌드 분석, 해당 연구 키워드의 예측결과 제공, 해당 연구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 제공, 관련 연구성과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유레카 시스템의 기본 설계 아키텍처와 주요 서비스 기능을 소개하고, 향후 유레카 시스템의 운영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 유레카(UREKA) : University REsearch Keyword Analy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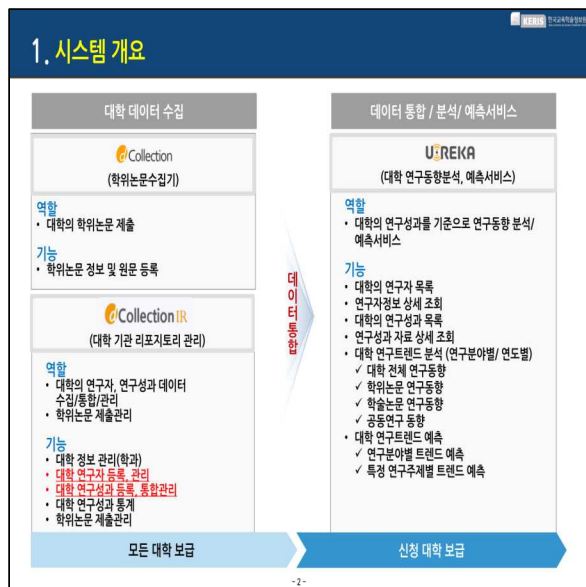
Abstract of manu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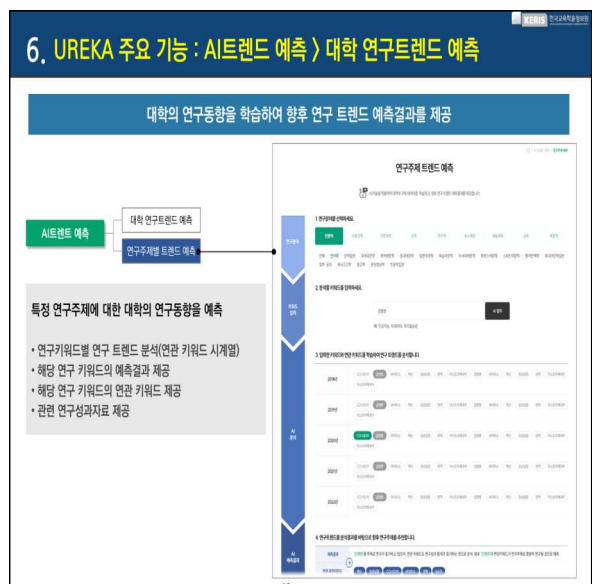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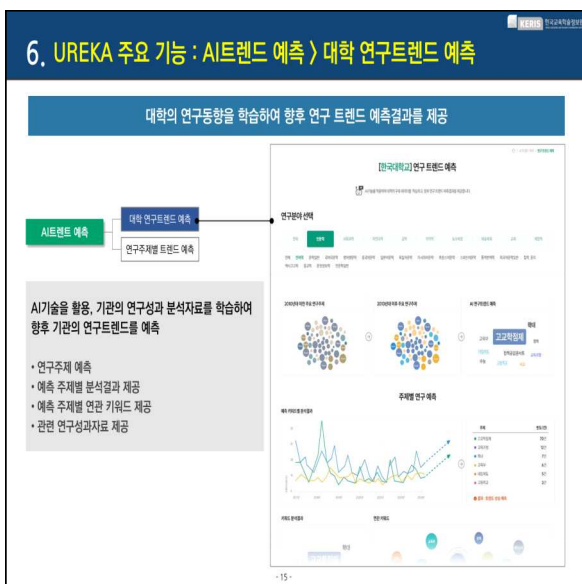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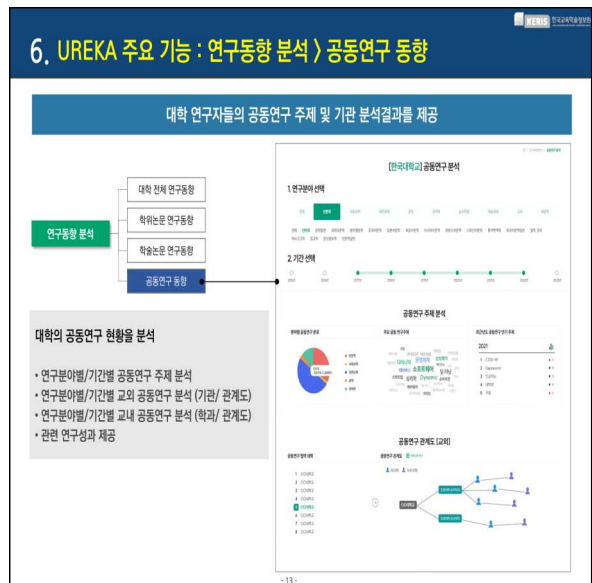
The advent of the AI era has significantly enhanced productivity across all area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particular, the academic research field is experiencing the broad application of AI technologies throughout the entire research lifecycle—including idea development and research design, content creation and structuring, literature review and synthesis,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editing and peer review, publishing support, communication, and ethics.

Among these, generative AI technologies have brought groundbreaking innovation to processes such as literature review, integration, and editorial refinement. AI-driven innov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recognition, prediction, automation, conversation, and generation. Of these, predictive innovation is considered the most promising.

Since 2022,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has been collecting and integrating university researchers and their research outputs. Based on this integrated data, KERIS has developed and distributed UREKA, an AI-based system that analyzes research trends and predicts future directions in academia. The system incorporates a research trend prediction model using the Long Short-Term Memory (LSTM) algorithm. It is possible to predict a university's research trends on specific research topics. The service includes analysis of research trends by keyword, forecasts for each research keyword, related keyword suggestions, and provision of relevant research outcomes and materials.

This presentation introduces the architecture and core service features of the UREKA system and outlines the future oper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for its continu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감지혜 (성신여자대학교)

Jihye KAM (Sungshin Women's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대학 특성화 재정지원사업(CK, PRIME, LINC+, 대학혁신지원사업, RIS, LINC 3.0, RISE 등)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통계」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중차분회귀모형을 통해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주요 성과 지표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졸업자 취업률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반면, 본 연구는 취업 여부 외에도 대학원 진학률과 전임교원의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 등 다양한 성과 지표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자 취업 여부와 재정지원사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학원 진학률 및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단편적인 취업률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향후 성과 중심의 재정지원정책 설계에 있어 평가 지표의 다양화 및 대학 유형별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major government-funded university specialization programs in South Korea, including CK, PRIME, LINC 3.0, RIS, and RISE. Using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nd Graduate Employment Statistics, as well as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s Academy Information, the study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s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the impact of program participation on key performance indicators. While earlier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graduate employment rates as the principal measure of program effectiveness, this study adopts a broader perspective by incorporating additional outcome variables such as graduate school enrollment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journal publications by full-time faculty. Although program participation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outcomes, 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graduate enrollment and research productivity. These findings reveal the limitations of relying solely on employment-focused evaluations and underscore the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framework that accounts for both educational and research-related achievements.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iversifying performance metrics and adopting differentiated support strategies aligned with the unique missions and characteristic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교육데이터플랫폼의 도입과 활용

- ▶ 교육데이터플랫폼이란?
 - ❑ 산재된 교육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
 -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교육 콘텐츠 개발, 학습 분석 등에 활용
 - ❑ 교육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 ▶ 데이터 통합과 접근성 개선
 - ❑ 데이터 탐색 시간은 줄이고 시각화를 통한 분석 효율은 극대화
 - ❑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정확도 높은 자료 환경 제공

2/15

e.g., Snapshot: 연구목적 및 분석방법

- ▶ 문제제기: 대학의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및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대학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대략 연간 1조~2조 원(최근 5년 누적 기준 약 6조 원)이 지출되었으나 투자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 제기
- ▶ 연구목적: 대학 특성화 사업(CK, PRIME, LINC+, BK21 등) 실효성 분석
- ▶ 연구배경: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제12조 지방대학의 육성 등, 2004) → 지방대육성법 제정 (2014) → CK사업 본격화 (2014) → PRIME 사업 도입 (2016) → 대학혁신지원사업 도입 (2019) → RIS 사업, LINC 3.0, RISE 정책 등 지역-대학-산업 연계 강화 (2020)
-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통계」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 ▶ 분석모형: 이중차분 회귀분석, 대학 특성 통제

$$y_{i,t} = \alpha_0 + \alpha_1 X_i + \alpha_2 Z_{c(i),t} + \alpha_3 F_{c(i),t} + \delta_{i(t)} + \lambda_t + \varepsilon_{i,t}$$

- ❑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여부: $F_{c(i),t}$
- ❑ 핵심 추정치: α_3

3/15

대학 특성화 사업 도입 배경과 전개 과정

- ▶ 대학 특성화 사업 도입 배경
 - ❑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양적 팽창·질적 저하, 학문 분야 간 불균형
 - ❑ 지방대학 위기 심화: 수도권 집중 현상, 지역 소멸 위기
 - ❑ 청년 고용난·미스매치 심화: 대졸 취업을 하라, 학력 인플레이션
 - ❑ 대학 구조개혁·재정효율화: 재정지원 선택과 집중, 지속가능 운영구조 마련
- ▶ 실험대학 평가 (1973)
 - ❑ 졸업이수학점 감축, 교육과정 개편, 계열별 학생 모집,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 조기 졸업제도 등 학사운영 개혁
- ▶ 대학특성화 정책 (1974)
 - ❑ 교육재정의 집중 투자 + 대학 간 역할 분담 → 지방대학 발전 유도
- ▶ 수도권대학입지규모 및 정원총량제 (1978)
 - ❑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 1982.12.31. 제정)
 -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251호, 1983.10.20. 제정)
 - ✓ 권역 내 대학(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이전 금지 (차등 규제)
 - ✓ 대학정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권역)

5/15

5.31 교육개혁안: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 ▶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 ❑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1996)
 - ✓ 대학설립 인가제 → 준칙주의 전환 (설립 기준 완화)
 - ✓ 대학 52교, 대학원대학 46교, 전문대학 9교 설립 (1997-2014)
- ▶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 ❑ 대학정원자율화 (1994) → 포괄승인제 (1996) → 교육여건연동제 (1997)
 - ✓ 입학정원 급증: 49만 8,250명 (1995) → 65만 6,783명 (2002)
 - ✓ 학령인구 감소 → 정원감축 유도정책으로 전환
- ▶ 연구중심대학 집중육성
 - ❑ BK21 (1999-2005; 2006-2012), WCU (2008-2012), BK21플러스 (2013-2019)
 - ✓ 연구중심 재정지원사업 상위 20개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부산대, 한양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이화여대, 경희대, 충북대, 경상대, 충남대, 건국대, 인하대, 서강대, 강원대, 아주대
 - ✓ ↔ 여전히 학부중심으로 운영 (except 서울대, 포항공대, 서강대)
- ▶ 평가와 재정지원 연계방안
 - ❑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의 전면전환
 - ✓ 대규모 종합대학에 대한 편중지원

7/15

지역-대학-산업 연계 강화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014) → CK-1사업 본격화 (2014-2018) → PRIME 사업 도입 (2016-2018) → 대학혁신지원사업 도입 (2019-2021) → RIS 사업 (2020-), LINC 3.0 (2022-2024), RISE 정책 (2025-)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014)
 - ✓ 지역균형인재 선발·채용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 ❑ 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사업 (2014-2018)
 - ✓ 지방대학특성화사업 CK-1: 80개 대학 265개 사업단
 - ✓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CK-2: 28개의 대학 77개 사업단
- ❑ 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사업 (2016-2018)
 - ✓ 사회수요 선도대학 (대형): 9개교 + 창조기반 선도대학 (소형): 12개교
- ❑ 대학혁신지원사업 (2019-2021): 총 12개교, 5개 권역별 균형 고려 선정
 - ✓ 적정규모화 촉진, 특성화 발전 지원
- ❑ RI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사업 (2020-)
 - ✓ 6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계속지원 4개, 신규선정 2개)
- ❑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2022-2024)
 - ✓ 기술혁신선도형(15) + 수요맞춤성장형(50) + 협력기반구축형(10)
- ❑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정책 (2025-)
 - ✓ 글로벌대학: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30개교)

8/15

대학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증폭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014) → CK-1사업 본격화 (2014-2018) → PRIME 사업 도입 (2016-2018) → 대학혁신지원사업 도입 (2019-2021) → RIS 사업 (2020-), LINC 3.0 (2022-2024), RISE 정책 (2025-)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014)
 - ✓ 수도권 학생들의 역차별 논란 + 지역 인재 미충족 시 대학 부담 증가
- ❑ 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사업 (2014-2018)
 - ✓ 특정 대학 쏠림 현상, 평가 방식 논란, 사업 효과 미흡 등 문제점 제기
- ❑ 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사업 (2016-2018)
 - ✓ 인문계 차별 (→ CORE 사업), 구조조정, 투명성/공정성, 수요 왜곡 등
- ❑ 대학혁신지원사업 (2019-2021): 총 12개교, 5개 권역별 균형 고려 선정
 - ✓ 대학 자율성 침해, 사업 효과성, 학내 구성원 갈등, 사업 목표 모호성 등
- ❑ RI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사업 (2020-)
 - ✓ 사업비 집행 및 결산 자료 부실, 성과급 지급, 사업 선정 과정,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 단절, 채용 비리 및 사업 운영 등
- ❑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2022-2024)
 - ✓ 사업비 횡령 및 부실 운영, 성과 부풀리기, RISE 체계로의 전환 등
- ❑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정책 (2025-)
 - ✓ 예산 배분 방식, 수행 역량 부족, 정책 신뢰성, 돌봄학교 연관성 등

9/15

재정지원 여부와 졸업자 취업/진학, 전임교원 연구실적

- ▶ 재정지원 사업 수혜 여부는 졸업자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원 진학 여부나 전임교원의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연계 기취업	대학원 진학	전임교원대비 국제학술지 게재	전임교원대비 국제학술지 게재
	(1)	(2)	(3)	(4)
재정지원사업 수혜 = 1	0.014 (0.020)	0.017** (0.007)	0.072*** (0.026)	0.059 (0.047)
특성화사업 수혜 = 1	-0.000 (0.023)	0.016** (0.008)	0.074*** (0.026)	0.050 (0.048)
당해년도지원액	-0.001 (0.008)	0.010*** (0.003)	0.047*** (0.008)	0.009 (0.010)
총지원금	-0.004 (0.005)	0.005*** (0.001)	0.031*** (0.006)	-0.006 (0.011)
(pseudo) R ²	0.906-0.909	0.176-0.178	0.550-0.675	0.280-0.389
N	888,405		976	

12 / 15

결론 및 논의

- ▶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통계」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를 활용하여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 기존 연구의 경우 졸업생 취업을 근거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 효과 논의:
 - ❑ 이와 상반되게 본 연구에서는 졸업생 취업 여부를 포함하여 대학원 진학 여부 및 전임교원 연구실적 등 다각적으로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함.
 - ❑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졸업생 취업 여부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추정되지 않았음.
 - ❑ 그러나 졸업생의 대학원 여부 및 전임교원의 국제학술지 게재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 CK, PRIME, 대학혁신지원사업, RIS, LINC 3.0, RISE 모두 역내 산학 연계 강화를 추구하여 효과 평가에 있어서 졸업생의 취업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 본 연구의 결과는 졸업자 취업 외 진학,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등 사업의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함의를 시사함.

13 / 15

초록

전례 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낮은 합계출산율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수도권 집중을 저출산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반적인 국토 공간 구조 측면에서 지역 저출산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수행되었다.

먼저, ‘밀도’와 더불어 지역의 ‘가구 소득’ 역시 합계출산율 좌우하는 매우 핵심적인 원인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광의적 관점에서 지역의 평균가구소득과 인구밀도는 출산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행태는 둔화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위소득가구비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을 세분화, 유형화하여 살펴본 경우에는 밀도와 출산율이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토 전체로 보면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출산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부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장소에서 출산행위가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추가적인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등 역시 위의 분석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주택 가격 등의 부정적인 출산율 영향 등을 간접적으로 실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토 부문에서는 “거점” 중심의 분산과 집중이라는 공간재구조화를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메가특구 조성 전략 등을 제안하였으며, 안정적인 소득 제고를 위한 일자리 확충과 주거비용 절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in 2023 is 0.72. This is an unprecedentedly low level. Since the total fertility rate plummeted to a figure close to 1 in the early 2000s, low fertility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Despite various studies and measures related to the low birth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has been very low. In this context, this study assumed that low fertility rate and regional disparity are very closely related, and analyzes this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regional disparity in terms of various regional attributes.

First, this study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assuming that regional ‘population density’ and ‘income’ are the main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low fertility rate. The population density of each region is pointed out as the most serious cause of low fertility rate, coupled with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otal fertility rate in Seoul, which is the most densely populated region. This study assumes that regional ‘household income’ along with ‘density’ is also a very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otal fertility rate, and empirically verified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otal fertility rate at the city/county level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and population density of a region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fertility. In particular, the

average income has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regardles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high income has a positive effect. In contrast, population density usually has a negative effect on birth rate, but when examining by grouping regions, the direction is reversed. The birth rates are relatively low in dense urban areas when viewed as a whole nation, but when examined within a limited area such as capital area, or non-capital area, birth rates are promoted in places with a certain level of infrastructure.

Second, income and density affect birth rates through indirect effects that occur through subjective satisfaction and housing costs rather than direct effects. Instea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actors is interpreted as a mechanism that causes high average income a relatively low subjective satisfaction a slowdown in childbirth intention and childbirth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restructuring national space centered on strongholds. Even in the case of implementing a decentralization strategy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the non-metropolitan area, it is necessary to achieve decentralization through concentration in specific growth centers. Specifically, the creation of a 'mega special zone' that combines various special zones currently being promoted can be utilized.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table sources of income and comfortable innovation spaces through the creation of quality jobs and residential spaces centered on those centers. In addition, as part of an indirect income increase strategy through reducing housing costs, it might be considered the strategies such as increasing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housing. Third, it can be considered to create environments suitable for childbirth by providing physical infrastructure and utilizing digital platforms. It is expected that specific means can be utilized, such as the provision of respond to demand transportation services for households with many children, or the comprehensive expansion of tele-medicine and home-schooling.

초록

이 연구는 지역 간 교육격차가 저출생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교육 인구의 이동, 지역별 교육격차의 변화, 교육비 지출과 출생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교육인구의 이동을 보면, 학생들은 출신 지역에서 진학하고 취업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비수도권 고등학생 중 일정 비율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이들이 수도권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학생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내 취업 여건의 부족이다. 반면, 국립대나 교육비가 높은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지역에 정주하는 경향이 높아, 지역 대학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또한 지역의 산업 기반과 일자리 여건이 좋을수록 지역 내 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교육인구 유출을 줄

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격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학생들이 높은 학습량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나 대학 진학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고, 사교육의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와 출생률 간의 관계 분석에서는 사교육비가 높고 교육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과밀과 교육 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regional disparities in education affect low birth rates and, based on this analysis,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o reduce educational inequality and increase fertility rates. To achieve this, it examines the migration of the student population by region, changes in regional educational dispar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fertility rates.

Regarding the movement of the student population, students tend to pursue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within their home regions. The primary reason these students do not return to their home regions is the lack of local employment opportunities. In contrast, students who graduate from national universities or from regional universities with high tuition costs tend to remain in those region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regional universities. Additionally, regions with strong industrial bases and favorable job conditions are more likely to retain graduates, helping to reduce the outflow of educational populations.

An analysis of changes in educational disparities shows that, despite high study hours and intense competition,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did not exhibit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cademic achievement or university admissions. Meanwhile,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continue to be significant. Furthermore,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and fertility rates, it was found that regions with higher spending on private tutoring and greater educational competition tend to have lower birth rates. This suggests a structural mechanism in which population density and educational pressure lead to increased private tutoring costs, thereby raising the burden of childrearing and discouraging childbirth.

2세션
5부

국내외 저출생 정책 동향 및 청년정책 대응전략

National and Global Low Fertility Policy Trends and Strategic Responses in Youth Policy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 Hyung Joo (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초록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혼 연령 상승과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하락했고, 19~34세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불안, 주거비 부담, 육아 스트레스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으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준다.

복지 정책에서는 부모급여 도입, 첫만남이용권 확대, 시간제 보육 예산 증액 등이 있었으며, 가임력 검진과 보조 생식술 지원도 도입되었다. 고위험 임신부 및 미숙아 치료비 지원의 보편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인력 처우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 주거 정책은 신혼부부 중심이지만, 자녀 양육 가구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는 신혼부부 위주의 특별공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육아 지원은 비용·시간·서비스 지원으로 구분되며, 향후 영아 중심에서 유아기 이후 지원 강화, 아동수당 확대, 다자녀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 등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사업주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한다.

EU는 출산율을 1.5명에서 2.0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유아보육 투자 확대를 중시하고 있으며, 북유럽은 교육·보건을 통한 생식력 이해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보여주며, 출산과 여성권리의 균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여 재정 인센티브, 유급 육아휴가, 보육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센터 설립 등 정책 효과 분석 기반도 강화 중이다. 일본은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지역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정책과 청년층 만남지원센터 운영 등 중앙-지방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과 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정책도 병행한다.

통계청 신혼부부통계를 분석하였는데, 아내의 학력과 직업, 주택 보유 여부, 맞벌이 여부, 수도권 거주 등이 출산 자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수록 소득 증가에 따른 출산 자녀수 감소 폭이 컸다. 또한 청년들은 결혼·출산을 여유롭고 안정된 삶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 의향은 55.7%, 출산 의향은 49.7%에 그치며, 주요 이유는 주거비 부담, 불안한 고용, 과도한 양육비 등이다. 미흡한 정책 분야로는 청년 주거, 취업, 소득·자산 문제가 지적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청년정책은 세대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4개 분야(청년복지, 주거, 육아, 법제도 기반)에서 총 17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결혼준비자금 금융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확대, 부모의 육아조력 건강보험 적용, 저출생 정책 인지도 제고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대한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향에서 저출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실효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경쟁 압박과 불안감 해소가 병행될 때, 청년의 결혼·출산 선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South Korea faces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dropping to 0.72 in 2023. Delayed marriage, declining interest in childbirth, job insecurity, high housing costs, and parenting burdens contribute to this trend. Over half of young adults aged 19-34 say having children is unnecessary, revealing deep-rooted structural concerns that cannot be solved through financial aid alone.

Recent welfare measure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parental benefits, expanded childcare vouchers, and fertility health support. Universal coverage for high-risk pregnancies and premature infant care has improved. However, further investment in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expansion of public childcare centers is still needed.

Housing policies are currently focused on newlyweds, but a shift toward supporting families with children is necessary. Childcare support should also extend beyond infancy to early childhood, with broader child allowances and stronger support for multi-child families. Special

attention is needed for irregular workers and platform laborers, who often lack access to support systems.

Internationally, the EU emphasizes invest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hile Nordic countries provide education on fertility and family diversity. Australia and New Zealand combine financial incentives, paid leave, and institutional analysis to improve fertility outcomes. Japan has established a dedicated Children and Families Agency and supports youth marriage and childbirth through local programs and tax benefits.

Data from Statistics Korea show that women's education and employment, housing status, and dual-income status significantly affect childbirth. Youth surveys reveal low intention to marry or have children, with main barriers including housing costs, job insecurity, and high childcare expenses. Policy gaps are especially evident in housing, employment, and income support for youth.

To address this, a generational approach is needed. The report proposes 17 youth policy tasks across four areas: welfare, housing, childcare, and legal frameworks—such as marriage savings support, housing loan expansion, parental healthcare aid, and raising awareness of low fertility issues.

Finally, low fertility policy must reflect the lived realities and aspirations of young people, focusing on stability, affordability, and quality of life to encourage marriage and childbearing.

2세션 5부

인구구조변화 대응 이민정책 과제

Immigration Policy Challenges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Lee, Kyu-yong

초록

그동안 이민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정책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민정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회통합정책은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분산된 유입정책 또한 통합적 관리라는 당위성만 제기하고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인구유출이라는 현상 아래 이민자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이민자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논의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인구변동 대응 이민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력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활용 고도화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이민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민제도 원칙을 정립하며, 관련 체류자격의 연계 및 이를 위한 관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이민정책의 수요자 맞춤형 시장 친화성을 제고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체류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이민자 통합정책의 강화이다. 중장기 이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외국인 유입 및 사회통합정책 기조를 정립하고,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산지원 확대가 요

구되는 사회통합정책 추진 시 가족동반, 장기 체류 전환 시 한국 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요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정책, 복지정책(아동지원정책,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지원),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 등에 대한 보편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 국적(국민)을 기준으로 한 정책 기조를 벗어나 이민자를 포괄하는 정책 기조로 바꾸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 통합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정책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이민자들의 일자리 접근성과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이다. 이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중앙의 관련 부처, 지자체, 시민 사회 수준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 전체적인 밑그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전담기관은 기획·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고유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협력 기관에서는 수행이 쉽지 않은 관련 통계 등 정보 확보·연구·지원·평가 기능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된 총괄체계에서 기존 주관 부처는 자신의 영역에서 정책을 집행하되, 총괄 기구의 조정하에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immigration policy and policy development, but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which should be the core of immigration policy, is not scalable, and the immigration policy decentralized by ministries only raises the justific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but does not have an effective approach. Although steps have been taken to promote regional immigration policies,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o achieve the goal of revitalizing regions through immigration, as immigrants are not free under the phenomenon of population outflow. Governance discussion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se policies are also stalled.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se issues, we propose the following immigration policy issues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oreign labor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reform the current labor immigration system. This means establishing the principles of the labor immigration system, linking related statuses of residence, and establishing a system of cooperation among competent ministries. This will make labor immigration policies more market-oriented and tailored to the needs of consumers, and promote efficient residency management for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workers, thereby enhancing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foreign employment.

Second, strengthen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framework for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ocioeconomic impact of immigration in the medium and long term, and to establish a system to improve the socioeconomic status of immigrants. When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at require expanded budgetary suppor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quirements for family accompaniment and long-term residence transitions in consideration of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social integration. For universal government policies on labor market policies, welfare policies (child support policies, social safety nets, an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career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hift from a policy framework based on nationality (citizenship) to a policy framework that is inclusive of

immigrants and to overhaul the relevant legal system. As the core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depends on job poli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mmigrants' access to job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ird, establishing immigration policy governance. To ensure consistency and efficiency in immigration policy, an umbrella organization is needed to coordinate cross-sectoral cooperation. Based on full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n overall outline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relevant ministries at the central level,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should be developed, as well as a specific action plan. To facilitate planning and coordination, the umbrella organization should recognize the unique funct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but also collaborate with them through information acquisition, research, support, and evaluation functions, such as relevant statistics, which are not easily performed by partner organizations. In an integrated umbrella system, existing lead ministries are expected to implement policies in their own areas, but cooperate with other ministries under the coordination of the umbrella organization.

3세션

세계지역 연구

- 제3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1
- 제4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2
- 제5부. 아랍지역 세션

연담린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Youn, Dam-Rin (Hanshin University Eurasia Institute)

초록

21세기 국제질서는 단극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를 넘어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된 ‘신제국주의 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서 전환기에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정책 변화와 양자관계의 재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력에 따른 정책결정모델’을 이론적 분석틀로 제시한다. 특히, 각국의 정치엘리트 구조와 이념 수용성, 상황논리 등의 내생 조건이 외생적 세계질서 변화와 상호작용하며, 행위전략(방어, 양보, 경쟁, 기회주의)을 어떻게 산출하고 양국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분석한다. 사례 연구로는 바이든-트럼프 정권 교체에 따른 미국의 대러 전략 변화와 푸틴체제 하 러시아의 엘리트 구조 및 전시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다뤄진다. 연구 결과, 양국의 외교정책은 단순한 세력균형론이나 단극질서 수호 논리를 넘어 전략 환경에 대한 국가 내부의 반응 능력과 정치엘리트의 선택에 따라 비선형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외교전략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강대국 외교전략의 형성과 국가 간 관계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구조적·행위자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In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order has shifted from a unipolar liberal structure to a ‘Neo-Imperial Order’ characterized by intensified great power competition.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transformation of U.S.-Russia relations and changes in their foreign policies 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 by proposing a theoretical framework called the “Power-Base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Model.” Focusing on endogenous variables such as elite structure, ideological receptivity, and situational logic, the model analyzes how these interact with exogenous systemic changes to produce strategic behaviors - defensive, concessional, competitive, and opportunistic - and how these strategies shape bilateral relations. Case studies include the shift in U.S. foreign policy following the Biden-Trump transition and Russia’s elite restructuring and wartime economic mobilization under the Putin regime.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foreign policies of both countries are shaped not merely by ‘balance of power’ dynamics or unipolar hegemony maintenance but by nonlinear, interactive strategies driven by internal responses and elite choices. This study contribute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by offering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formation of great power strateg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interstate relations.

트럼프-시진핑 2.0 시대의 미중 관계: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를 중심으로

U.S.-China Relations in the Trump-Xi 2.0 Era: Focusing on Changes in Presidential Leadership

임진희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Lim Jinhee (Hanshin University Eurasia Institute)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리더십 변화가 대중국 정책과 관계에 미쳤던 영향을 고찰하고, 이로써 트럼프-시진핑 2.0 시기를 전망하며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구조와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는 순환적 형태주의 시각을 전제하였고, 제임스 번즈와 바버의 대통령 리더십 모델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열정적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나, 자신에 비판적인 인사나 기관들에 과도한 집착이나 불만을 표시하며 부정적 정서와 불만을 빈번히 표출하고 있기에 현상불만의 해밀턴형 리더십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바이든은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을 존중하며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현 제도와 절차를 활용해 타협과 협치의 국정운영을 주도하였다. 때로는 바이든의 행보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수용하고 조정과 협상을 통해서 상대까지 아우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바이든은 현상만족의 매디슨형 리더십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리더십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미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래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비교적 작았던 상황에 이처럼 두드러진 리더십 변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트럼프-시진핑 2.0 시기에 트럼프는 귀환했지만, 중국을 포함한 세계는 이미 한 차례 그를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hanges in U.S. presidential leadership on its policy and relations toward China, and, based on this analysis, seeks to offer insights while anticipating the potential dynamics of a Trump-Xi 2.0 era. To this end, the study adopts Margaret Archer's morphogenetic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cyclical process through which existing structures and agents interact to generate new structures. It also employs the presidential leadership models proposed by James MacGregor Burns and James David Barber.

According to this framework,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exhibited a passionate and assertive approach to governance. However, his frequent expressions of negative emotion and discontent—particularly his excessive preoccupation with and hostility toward critics and institutional checks—align him with a Hamiltonian leadership style rooted in dissatisfaction with the status quo. In contrast, President Joe Biden has consistently demonstrated respect for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maintain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Congress. He has led through institutional channels by promoting compromise and bipartisanship. While his policies have faced opposition at times, Biden has generally responded with respect, seeking to include divergent voices through negotiation and adjustment. For these reasons, he is viewed as embodying a Madisonian leadership style grounded in 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political order.

It remains difficult to determine with certainty the extent to which these leadership shifts have affected, or will affect, the trajectory of U.S.-China relations. Nonetheless, given that recent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have been relatively limited, such a pronounced transformation in leadership is likely to have had a meaningful impact. Still, any assessment of a potential Trump-Xi 2.0 era must acknowledge that while Trump may return to office, China—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has already experienced his leadership once before.

Chinzorigt Narantsetseg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

Ch.Narantsetseg (Institute for Mongol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초록

본 논문은 국제무역이 몽골 경제 발전에 미친 역할과 최근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광업 부문이 국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변화, 국제무역 규범의 변화 등이 복잡해져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몽골의 무역 구조 변화,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무역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경제 협력이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연구 결과는 몽골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무역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ole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development of the Mongolian economy and the impact of recent changes. Mongolia has traditionally had an economic structure that is highly dependent on natural resources, with the mining sector accounting for most national exports. However,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relationships with trading partners,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norms on the Mongolian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Mongolia's trade structure, relationship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and changes in trade policy.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trad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have changed, and what opportunities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EU) provides. The results of the study, aim to suggest trade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that Mongolia can adopt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오미영 (단국대 부설 몽골연구소)

Oh Miyoung (Institute for Mongol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초록

본 논문은 1972년 몽일 수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외교 관계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냉전 시기에 양국의 수교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전쟁 배상 문제이었지만, 양국은 전쟁 배상이 아닌 경제 협력에 합의하고 1972년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둘째, 1990년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 소련에 치우친 외교를 탈피하기 위해 ‘제3이웃정책’을 펼치고 있는 몽골은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외교 협력에 나서고 있다. 셋째,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아래 몽골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2022년 11월 ‘방위 장비·기술이전 협정’ 체결과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SA)’을 통해 일본은 안보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Mongolia and Japan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72 and their significance.

First, the biggest stumbling block in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Cold War was the issue of war reparations, but the two countries agreed on economic cooperation instead of war reparations and established formal diplomatic relations in 1972.

Second, Mongolia, which has been pursuing the ‘Third Neighbor Policy’ to escape its Soviet-oriented diplomac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90, is acting as a mediator in the Korean Peninsula issue and is engaging in diplomatic cooperation with Japan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ese abductees.

Third, a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ntensifies,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Japan is being strengthened under Japan’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hrough the signing of the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in November 2022 and the ‘Official Security Assistance (OSA)’, Japan is expanding cooperation with Mongolia in the security sector and is moving to check China.

Mona Farouk M. Ahmed (지중해지역원)

(Institute For Mediteranean Studies(IM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BUFS))

초록

본 연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랍어 교육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서 비롯된 복잡한 정치적 환경과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긴장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한다. 아랍어는 2018년 「국가 기본법」 제정 전까지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 중 하나였으나, 해당 법으로 인해 “특별 지위”로 격하되었고, 히브리어가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어는 여전히 이스라엘 인구의 20% 이상이 사용하는 모국어이다. 그러나 유대인 교육에서 아랍어는 모순된 역할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와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장려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의 언어’로 인식되어 효과적인 학습을 방해하는 심리적·제도적 장벽을 형성한다.

이 연구는 역사적 갈등, 군사적 우선순위, 사회적 분리, 종교적 극단주의가 유대인 학교 내 아랍어 교육의 목표, 방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인구 통계 자료와 교육 통계를 바탕으로 아랍어 교육의 전략적 근거와 더불어 공존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고찰한다. 연구 결과, 예루살렘에서는 아랍어 교육이 궁극적으로 두 가지 주요 목적—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와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평화로운 교류 촉진—을 수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팔레스타인 구어 아랍어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상당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 제도적 인종 차별, 그리고 깊은 심리적 장벽은 유대인 학생들의 아랍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plores how Arabic instruction for Jewish students in Jerusalem is influenced by the city's complex political environment and deep-rooted social tensions stemming from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rabic was an official language in Israel until the 2018 Nation-State Law downgraded it to a “special status,” while Hebrew became the sole official language. Still, Arabic remains the mother tongue of over 20% of the population. In Jewish education, however, Arabic plays a contradictory role: on one hand, it is encouraged for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purposes; on the other, it is viewed as the “language of the enemy,” creating significant psychological and institutional barriers to effective learning.

The research explores how historical grievances, military priorities, societal segregation, and religious extremism influence the goals, methods, and outcomes of Arabic education in Jewish schools. Drawing on demographic data and educational statistics, the study investigates both the strategic rationale behind Arabic instruction and its potential as a bridge for coexistence. The study showed that in Jerusalem, Arabic education ultimately serves two main purposes: as a tool for intelligence and as a means of fostering peaceful interaction between Arabs and Jews. To support this, specialized programs have emerged that focus on teaching spoken Palestinian Arabic for practical, real-world communication.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grams faces significant obstacles. The lingering conflict, institutional racism, and deep psychological barriers have contributed to negative perceptions of Arabic and poor learning outcomes among Jewish students.

3세션
5부

AI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유누스 엠레 시에 나타난 이슬람적 시간관과 AI 시대 인문학

Temporal Transcendence and Mystical Time in Yunus Emre's Poetry:
Rethinking the Humaniti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Minji, Yan (Institute For Mediteranean Studies(IM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BUFS))

초록

유누스 엠레 시에 나타난 이슬람적 시간관과 AI 시대 인문학

유누스 엠레(Yunus Emre, 1238-1320)는 이슬람 수피 시인이자 신비주의 사상가로, 수피즘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담백한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 내면의 성찰한 투르크 시성이다. 특히, 그는 시간의 초월성 등을 주제 삼아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당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가 중심이 되던 이슬람 시문학 세계에서 일상 터키어를 통해 민중적 영성 담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힌다. 동시대 수피 사상가들과 달리 그는 감각적 언어와 정서적 상징을 통해 ‘시간, 신비, 운명, 죽음’의 개념을 사용하며 오늘날 인간 존재와 기술 윤리의 경계 지점에서 새로운 인문학적 성찰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피 시인 유누스 엠레의 시에 드러나는 이슬람적 시간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 시대의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기술은 선형적 시간 이해와 결정론적 윤리 체계에 기반하여 인간의 선택을 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그러나 유누스 엠레는 시간과 존재를 신의 섭리 속에서 영적 성숙의 여정으로 표현했다. 특히, 그는 인간의 내면적 깨우침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누스 엠레 시에 나타난 이슬람 수피즘의 시간관을 통해, AI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인간다움과 도덕적 책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측면으로서 인문학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자 한다.

키워드 : 유누스 엠레, 수피즘, 이슬람적 시간관, 시간의 초월성, AI 시대와 인문학, 기술 윤리

Abstract of manuscript

Temporal Transcendence and Mystical Time in Yunus Emre's Poetry: Rethinking the Humaniti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Yunus Emre (1238-1320), a seminal Sufi poet, articulated Islamic metaphysical thought through vernacular Turkish, bridging esoteric spirituality and everyday expression. Writing amid dominant Arabic and Persian literary traditions, he helped shape a popular mystical discourse in Anatolia. His poetry presents temporality, gayb (divine mystery), fate, and death not as abstract doctrines but as embodied, lived experiences.

This study examines Emre's mystical conception of time as a spiritual journey shaped by divine providence and inner awakening. It contrasts this with the linear, predictive temporality embedded in AI systems, which reconfigure human agency through algorithmic control. Emre's Sufi temporality, grounded in the unknowability of time and the sanctity of human freedom,

offers a critical ethical and epistemological lens for reimagining the role of the humanities in an era shap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Keywords: Yunus Emre, Sufism(Islamic mysticism), Islamic concept of time, Metaphysical temporality, The role of the humanities,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4세션

세계지역 연구II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제2부. 과학과 문명학

제3부. 한국의 세계지역 연구의 쟁점 3

제4부. 한국의 세계지역연구의 쟁점 4

전종욱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Jeon, Jong-Wook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초록

본 연구는 조선의 대표지식인들의 지적 이상을 보여주는 유산을 AI시대에 주어진 기술 도구로 그 본질적 의미와 지향에 도달해보고자 하는 실험적 시도의 과정의 일부다. 주지하다시피, AI는 이미 인간 개인의 능력을 훌쩍 뛰어 넘어 AGI에 도달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특이점의 통과 여부를 놓고 논쟁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 속 지성사에서 볼 때 이런 모든 지식에 통달한 존재로의 추구가 조선 내내 면면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측면을 새삼 눈여겨 보게 된다. 그것은 세종, 정조 등 군주가 가지고 있는 성왕(聖王)의 목표이고 했고, 권근, 이황, 이이, 이익, 최석정, 서유구, 최한기 등의 지식인들에게서도 면면히 보이고 있는 뚜렷한 지적 특징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 세종 이도(世宗, 李祹, 1397~1450)

단 한사람도 교육받지 못한 자가 없고 단 한 곳도 학교가 없는 곳이 없게(無一人不敎, 無一地非學)

*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의 『우주설』

“군자는 최후의 하나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君子恥一物之不格也]”

* 정조 이산(正祖, 李祘 1752~1800)의 「만천명월주인옹자서(萬川明月主人翁自序)」(1798년). 태극(太極)과 대일통(大一統).

하늘과 땅이 제 자리를 잡게 하고 만물을 화육하는 공능에 참여하는 일이 그로 말미암음이니 이것이 곧 성인의 사업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성인을 배우는 것이다.

*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여심치교결제소소서(與沈穉教乞題小照書)」。 불멸의 초상화, 불멸의 문장 유자들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죽기 마련이고 죽으면 형체와 마음이 모두 사라진다고 한다. 불자들은 형체는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고, 선가들은 형체와 마음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화가들은 마음은 사라져도 형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중략) 문장이야말로 천지와 더불어 시종을 함께 하며 전해지므로 백 세 후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나의 책에 문장을 싣고 초상화를 붙여둔다면 이른바 형체와 마음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 서유구의 「자연경실기(自然經室記)」。 성경에서 자연경으로(1820's)

지금 저 육경의 글은 성인께서 만물의 실상을 잘 그려놓은 것이다. 경은 말로 이루어지고, 말은 뜻이 들어있고, 뜻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은 도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있는 곳이 바로 경이 있는 곳이다. 도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갖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기와 벽돌에도 있고 똥오줌에도 있는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기물(器物)이 곧 자연의 기문(記文)인 것이다.

이런 無所不爲, 無所不寓, 無所不知의 이상적 경지 또는 인간의 당위적 모습을 AI 시대에 걸맞게 다시 구현할 방법의 가능성과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의 추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AI 시대에 조선 지식인의 지적(知的) 이상을 돌아본은 과거 정리일뿐만 아니라 미래 기획이기도 하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s part of an experimental endeavor to reach the essential meaning and aspirations of the intellectual heritage left by the representative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utilizing the technological tools of the AI era. As is widely known, we are at a point where AI has already far surpassed individual human capabilities, appearing to be on the cusp of reaching AGI, and debates surrounding the crossing of the Singularity are prevalent. In this context, it is noteworthy to re-examine the powerful pursuit of an omniscient existence that was a significant force in our own intellectual history. This was the objective of Sage Kings (聖王) such as Sejong and Jeongjo, and it was also a distinct characteristic evident in the works of scholars like Gwon Geun, Yi Hwang, Yi I, Yi Ik, Choi Seok-jeong, Seo Yu-gu, and Choe Han-gi.

For instance:

King Sejong (世宗, 李祹, 1397-1450):

"Let there be no one uneducated, and no place without learning (無一人不教, 無一地非學)."

Choi Seok-jeong (崔錫鼎, 1646-1715) in his Ujuseol (『宇宙說』, Discourse on the Cosmos):

"The gentleman is ashamed of even a single thing that has not been fully comprehended (君子恥一物之不格也)."

King Jeongjo (正祖, 李祘, 1752-1800) in his Mancheonmyeongwoljuinongjaseo (『萬川明月主人翁自序』, Preface by the Master of the Moon Illuminating a Thousand Rivers, 1798), referencing the Taegeuk (太極, the Supreme Ultimate) and Daeiltong (大一統, the Great Unification):

"To enable Heaven and Earth to secure their positions and to participate in the work of transforming and nourishing all things—this is the enterprise of the sage. What I desire is to learn from the sage."

Seo Yu-gu (徐有渠, 1764-1845) on immortalizing the self through portraiture and writing:

"Confucians say that all living beings are bound to die, and upon death, both form and mind vanish. Buddhists say the form vanishes but the mind does not, while Daoists say neither form nor mind vanishes. Meanwhile, painters claim the mind vanishes but the form does not. [...] Writing, however, is transmitted through all time along with Heaven and Earth, allowing one to apprehend a person's mind even after a hundred generations. If I now include my writings in my book and attach my portrait, would this not be a case where neither form nor mind vanishes?"

Seo Yu-gu in his Jayeongyeongsilti (『自然經室記』, Record of the Studio of Nature's Scripture, c. 1820s), moving from the Holy Scriptures (聖經) to the Scripture of Nature (自然經):

"The texts of the Six Classics are the Sage's masterful depiction of the true reality of all things. The classics are composed of words, words contain meaning, meaning relies on the mind, and the mind presupposes the Dao. Therefore, where the Dao is, there the classics are. The Dao is all-acting and all-pervading; it is present in tiles and bricks, even in dung and urine. Every object here is a written record (記文) of nature itself."

This paper elaborates on the possibility of re-embodying this ideal state—characterized by Omnipotence (無所不爲), Omnipresence (無所不寓), and Omniscience (無所不知)—in a manner befitting the age of AI,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advancing in such a direction. To revisit the intellectual ideals of Joseon scholars in the age of AI is not merely an act of organizing the past, but an act of designing the future.

이영주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Youngju LE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and Civilization)

초록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 피임기술사를 전지구적 냉전 맥락에서 고찰한다. 역사학자 앵거스 맥라렌이 지적했듯, 피임기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함께해왔다. 그러나 냉전은 피임기술을 둘러싼 행위자들을 개인과 기업가의 수준에서 국가, 국제 인구기관, 개발도상국 정부로까지 확장시키며, 피임기술의 지형을 재편하고 그 전지구적 동기화를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경구피임약, 자궁내장치(Intrauterine Devices, IUDs)와 같은 기술들은 냉전 이전에도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냉전기의 지정학적 조건과 개발 담론 속에서 실제로 재발견·보완되어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특정 기술에 주목해 분석해온 데 비해, 본 연구는 냉전기에 (재)개발된 다양한 피임기술들을 중심으로, 냉전이 구성한 피임기술의 전지구적 지형을 조망한다. 연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냉전의 맥락에서 재구성된 경구피임약과 자궁내장치를 중심으로 기술적 전환의 양상을 개관한다. 둘째, 이러한 기술들의 전지구적 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에서의 리페스루프(Lippes Loop) 제조 및 보급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냉전이 단지 정치·군사적 영역을 넘어, 개인의 재생산이라는 일상적이고 내밀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방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contraceptive technologies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rough the lens of the global Cold War. As historian Angus McLaren has noted, the history of contraception has long paralleled the history of humanity. During the Cold War, however, contraceptive development became entangled with states, international population agencies,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expanding far beyond the domain of individuals and entrepreneurs. Technologies such as oral contraceptives and intrauterine devices (IUDs), though technically possible before the Cold War, were rediscovered, modified, and widely disseminated under the geopolitical and developmental logics of the time. Departing from studies that focus on single technologies, this study analyzes the broader global landscape of contraceptive techniques (re)developed during the Cold War. It proceeds in two parts: first, a survey of technological transitions surrounding oral contraceptives and IUDs in Cold War contexts; and second, a case study of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Lippes Loop in South Korea. This analysis sheds light on how the Cold War shaped not only political and military domains but also the intimate sphere of reproductive life.

김현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Hyeonjun Kim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초록

포퓰리즘(populism)은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즉, 기존 엘리트 중심의 제도정치가 인민의 일반의지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대중적 인식이 강화되고, 사회가 두 개의 동질적인 집단 사이의 일원주의적 성향이 강해질 때 나타난다. 유럽의 극우주의적 성향의 포퓰리즘이 추동한 반난민정서와 달리 기존 연구는 한국사회의 반난민정서를 난민에 대한 몰이해 또는 문화적 이질성으로 설명해왔다. 본 연구는 난민 정서의 근간인 난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한 축인 반다원주의이며, 이러한 반다원주의가 난민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포퓰리즘의 또 다른 차원인 반엘리트주의가 조건적으로 매개한다고 주장한다. 분석 결과, 반다원주의와 반엘리트주의는 각각 난민 정서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반다원주의와 반엘리트주의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반다원주의가 약할 때, 반엘리트주의는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불신 정도로 작동하게 되지만, 반다원주의가 높을 때에는 부패한 엘리트들이 받아들이는 난민이 이른바 ‘가짜 난민’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Populism is characterized by anti-elitism and anti-pluralism. It emerges when there is a growing public perception that elite-driven institutional politics fails to represent the general will of the people, and when society increasingly tends toward a monistic division between two homogenous groups. While the anti-refugee sentiments driven by far-right populism in Europe are well-documented, existing studies have explained South Korea's anti-refugee sentiment primarily in terms of cultural misunderstanding or perceived otherness. This study argues that anti-pluralism—one axis of populism—forms the basis of public sentiment toward refugees, and that the influence of anti-pluralism on such sentiment is conditionally mediated by another axis of populism: anti-elitism.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anti-pluralism and anti-elitism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ti-refugee sentiment.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 between anti-pluralism and anti-elitism is meaningful: when anti-pluralism is low, anti-elitism merely reflects distrust of the elite, but when anti-pluralism is high, elites who accept refugees are more likely to be seen as corrupt actors enabling so-called "fake refugees."

Keywords: populism, refugees, anti-elitism, anti-pluralism, South Korean politics

전쟁 양상의 변화와 국제 난민 문제: 시리아, 벨라루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심세현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Se hyeon Sim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초록

21세기 들어 전쟁의 양상이 급변하며 전통적인 국가 간 무력 충돌을 넘어 비정규전, 정보전, 심리전 등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난민은 단순한 전쟁의 피해자를 넘어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시리아 내전, 벨라루스 사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난민이 어떻게 무기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난민의 대규모 발생이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하는 방식과 그 전략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난민의 전략적 활용은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역이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적 취약성을 노리고 있으며, 이는 현대 하이브리드전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난민의 무기화 전략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난민의 무기화, 하이브리드 전쟁, 강제 이주, 국제 안보, 시리아 내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전쟁

Abstract of manuscript

As warfare in the 21st century has evolved into more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forms—such as hybrid warfare, information operations, and psychological campaigns—the role of refugees has likewise shifted from passive victims to strategic instru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weaponization of refugees through detailed case analyses of the Syrian civil war, the Belarus-EU border crisis, and the Russia-Ukraine war. It demonstrates how refugee flows have been deliberately engineered and manipulated as tools of coercion, diplomatic bargaining, and asymmetric retaliation. These tactics exploit humanitarian norms, undermine the social and political stability of target states, and operate as core components of hybrid warfare strategies. The findings expose critical vulnerabilities in both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s and liberal democratic systems, underscoring the urgent need for more robust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coordinated international responses to counter such coercive migration strategies.

Keywords: Weaponization of refugees, hybrid warfare, coercive engineered migration, forced displacement, international security, Syria, Belarus, Russia-Ukraine war

**트럼프 집권 2기 대만해협의 지정학:
'하나의 중국' 프레임을 중심으로****The Geopolitics of the Taiwan Strait in Trump's Second Term:
Focusing on the "One China" Frame**강병환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China Research Center, Dongseo University)**초록**

본 논문은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하나의 중국' 프레임을 중심으로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의 중국'은 단순한 양안 간의 문제를 넘어,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워싱턴의 '하나의 중국 정책' 간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해 촉발되는 전략적 긴장을 반영하는 핵심 개념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무역, 기술, 외교, 군사 전반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는 전면적인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하나의 중국'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며, 양안관계 및 중·미·대만 삼각관계의 긴장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 특히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지를 고찰한다. 본 연구는 '하나의 중국' 문제를 둘러싼 미·중 경쟁의 본질과 향후 전망을 이론적·정책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주제어: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원칙, 하나의 중국정책, 양안관계, 중·미경쟁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aper analyzes the geopolitical structure of the Taiwan Strait during Donald Trump's second presidential term, focusing on the "One China" frame, which has emerged as a central issu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One China" concept is not merely a cross-strait matter, but rather a key framework that reflects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Beijing's "One China Principle" and Washington's "One China Policy," and the strategic tensions these differences generate.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adopted a comprehensive strategy to counter China across trade, technology, and diplomacy. In this process, the Taiwan issue became a pivotal point of U.S.-China strategic rivalr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One China" frame operates within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context and how it restructures tensions in cross-strait relations and in the U.S.-China-Taiwan strategic triangle. Furthermore, it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ese structural conflicts for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particularly South Kore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ltimately, the paper seeks to provide theoretical and policy-oriented insights into the nature and future trajectory of U.S.-China competition centered on the Taiwan issue.

Key Word: One China, One China Principle, One China Policy, Cross-Strait Relations, SINO-U.S. Competition

통치의 궁극 규범 혹은 노모스 왕으로서의 천황: 식민지-제국 통치권위론 사상연쇄, 그 한 층위에 대한 연구

The Tenno's Makoto(眞·實·誠) and the Ultimate Nomos: Ideological chain of imperial/colonial governance norms, analysis of that one level

윤인로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China Research Center, Dongseo University)

초록

이 글은 보호에 대한 복종과 지배에 대한 동의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정초하는 정당성의 근원 문제를 순수한 이념이자 근본적인 규범으로서의 천황을 통해, 즉 부·왕·신으로서의 천황이라는 ‘권위’의 집약체를 통해 검토한 것이다. ‘균립하되 통치하지 않는’ 천황, ‘현실정치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천황의 권위를, 작가 최인훈의 정치종교적 상상력으로 고안된 ‘지하총독부’를 매개로 삼을 때 설정될 수 있을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간의 사상연쇄적 차원에서 검토했고, 나아가 아시아 혹은 대동아를 위한 전쟁정치의 정당성 조달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했다. 총 5장으로 구분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인훈의 ‘총독’이 인용하고 있는 가상의 친일작가 카야마 이치로의 내선일체 문화론, 즉 ‘천황의 마음’에 귀일하는 제국 신민의 생활론에서 현실의 이광수(창씨명 카야마 미츠로)가 쓴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와의 접점을 도출하고, 이광수의 소설텍스트에 등장하는 경성제대 법학도 히가시 타케오와 내재적으로 연결된 현실의 경성제대 법학도 이항녕(창씨명 노부하라 코타로)의 신앙법론과 제국=신국론을 분석한다. 이어 “긴급한 지식은 모두 일본어로 습득”한 최인훈의 총독과 이항녕에 접선되고 있는, 경성제대 교수 법철학자 오다카 토모오의 입론을 천황의 ‘진정한 마음’에 의해 설정되는 적대의 구도(‘정치의 척도’ VS. ‘정치의 흑막’)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결론으로서는, 전후 「일본국헌법」 제1조의 상징천황을 배경으로, 천황주권과 국민주권 간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검토했다. 그렇게 천황의 ‘마음’을 진정한 지배관계를 위한 공통의 근본규범으로 설정하는 입론들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article analyzes the source of legitimacy that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of obedience to protection through the emperor as a pure idea, that is, through the ‘authority connection’ of the emperor as father-king-god. i) The issue of the authority relationship of the Tenno who ‘reigns but does not govern’ or ‘is not polluted by real politics’, ii) Through the chain of thought between the empire and the colony that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medium of the viceroy created by Choi In-hoon, iii) it is analyzed in the context of procurement of the legitimacy of war politics for Asia or Greater East Asia. First, the logic of Kayama Ichiro, a pro-Japanese writer in colonial Joseon, cited by the viceroy, that is, the point of view of true minds united around the mind of the Tenno, is analyzed. From there, he finds a point of contact with Lee Kwang-soo(Kayama Mitsuro). Next, we analyze the legal theory of faith and the theory of Empire=God Nation of Lee Hang-nyeong, a real-life K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law student who is connected to Higashi Takeo, a law student at K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he created. Lastly, the argument of Lee Hang-nyeong’s teacher, legal philosopher Tomoo Odaka, is reviewed against the background of Article 1 of the postwar Japanese Constitution, that is, in the setting of the problem of the union between the emperor system and popular sovereignty.

5세션

충북과 지방소멸 예방

- 제2부. AI 시대의 과학기술과 사회
(한국교통대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충북대 Pro메이커센터)
- 제3부. AI 시대의 과학기술과 사회
- 제4부. 반도체AI 인력 양성(충청대 반도체 AI연구소)
- 제5부. 디지털 AI 대전환 시대, 지역 경쟁력 제고와 향후 과제
(충북연구원)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정보시스템 구조분석:유보통합시대, 디지털 거버넌스 통합의 과제

Actor-Network Theory Analysi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Information Systems: Challenges of Integrated Digital Governance in the Era of ECEC Unification

박건령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Keon-Ryeong Park (Research Institut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본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성방식 및 각 시스템 내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제도적 이원화에 따라 각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개발 및 운영되어왔고, 이에 현장의 업무담당자들은 반복 입력 및 데이터 단절 등의 구조적 비효율을 경험해 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정보시스템 재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수집된 질적 자료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핵심 개념(예: 번역, 필수 관문(OPP), 블랙박스화, 동맹과 배제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치원은 다중 플랫폼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단절과 번역 실패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일부 정보시스템은 필수관문으로 기능하며 사용자 실천을 제약하고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은 단일 정보시스템 구조를 갖추었으나, 기능 경직성과 연계 부재, 특정 기관 유형의 배제 등과 같은 또 다른 한계를 드러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닌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의 조정 실패로 해석하고, 향후 통합형 정보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번역 구조 마련, 유연성과 예외 수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핵심적인 조건임을 제언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을 적용한 본 연구는 유보통합 행정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기술-사회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며, 인간과 기술의 조율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이고도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pplies Actor-Network Theory (ANT) to analyze the structural configurations and interaction dynamics within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used in South Korean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Due to the institutional bifurc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se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operated separately, resulting in redundant administrative tasks and fragmented data flows for frontline practitioners. With the national initiative toward an integra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 the need for comprehensive system re-structuring has become increasingly salient.

To investigate this issue,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with administrative personnel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resulting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e ANT concepts—translation, obligatory passage points (OPPs), black-boxing, and the dynamics of alliance and exclusion. The findings reveal that kindergarten systems operate through multiple disconnected platforms, with certain systems functioning as OPPs that restrict user agency and lead to translation failures and informal workarounds. In contrast, the daycare system, while unified, exhibited structural rigidity, lack

of interoperability, and exclusion of non-standard institution types. Rather than interpreting these issues as mere technical shortcomings,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m as coordination failures within socio-technical networks. It argues that successful system integration requires user-centered translation mechanisms, flexible and exception-tolerant architectur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s. By re-contextualiz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early childhood administration through the lens of ANT, this study offer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ights into how human and technological actors can be effectively coordinated in public service design.

5세션
2부

영유아교사 '몸'의 '횡단-신체성'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transverse-corporeality' of the 'bod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박수연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Park Su Yeon (Full-time researcher,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본고는 영유아교사 몸을 횡단신체성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취약성이 가로질러 생성되는 몸; 성찰적 자기 만짐을 통해 세계를 읽고, 쓰고, 말하는 몸; 영유아교육기관이 체현되고 땅에 뿌리내려 얽힌 몸으로 드러났다. 횡단신체성으로 영유아교사의 몸을 탐구하는 것은 교사의 행위성을 다중성으로 바라보고, 교육과정 담론과 정책 등으로 인해 수동성으로 담보되어 있던 교사 몸의 물질화를 새로운 의미로 생성해 낼 수 있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aper aimed to explore the bod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s a transversal corporea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a body in which vulnerability is created across; a body that reads, writes, and speaks the world through reflective self-touch; a body that embod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and is rooted and entangled in the ground. Exploring the bod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s a transversal corporeality allowed us to view the agency of teachers as multiplicity, and to create new meanings for the materialization of teachers' bodies, which had been secured as passivity by curriculum discourse and policies.

유치원 교사 인플루언서의 경험과 의미 탐색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and Experience of Kindergarten Teacher Influencers

김윤지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연구소)

Kim, Yunji (Research Institut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로 활동하는 유치원 교사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팔로워가 10,000명 이상이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 분야의 SNS를 운영해오고 있는 현직 유치원 교사 5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와 개인 면담을 실시하고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SNS에 공유된 콘텐츠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면담 내용을 전사한 현장 텍스트를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절차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가 '인플루언서'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디지털 시대 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탐색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experiences of kindergarten teachers who actively work as influencers. To achieve this, five current kindergarten teachers who have over 10,000 followers and have continuously operated 'education' related SNS for more than three years will be purposively sampled and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In-depth interviews will be conducted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data will be collected from June to July 2025. Additionally, content shared on their SNS will be collected to aid understanding. The collected data will be analyzed using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following the procedures of 'open coding,' 'categorization,' and 'category verification' of transcribed interview texts. Through this process, I intend to delve into the experiences of kindergarten teachers living as 'influencers,'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meaning, and ultimately provide meaningful foundational data for exploring the identity and role of teachers in the digital age.

유아~디지털 현상의 얽힘에 대한 의미 탐색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entanglement of young children~digital phenomenon

김소연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Kim Soye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초록

본 연구는 유아와 디지털 현상의 얽힘을 신유물론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디지털의 행위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디지털 현상에서의 얽힘을 포착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공립 단설 미래유치원의 파랑반의 일부로 생활하며, 2023년 4월~12월까지 총 40회의 참여관찰을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전사, 범주화, 의미화의 과정을 거치는 질적연구의 일반적 분석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디지털은 서로의 행위유도성에 주목하며 초대~응답~회절하며 '알아차림의 기예'를 길러갔다. 둘째, 유아~디지털은 반복 속 차이에 주목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서로를 의미 지으며 함께-되어가고 있었다. 셋째, 대화와 규칙이라는 배치 속에서 관계와 의미를 재구성하며 새롭게-되어가고 있었다. 종합하면, 유아~디지털은 고정된 주체와 도구의 관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얽혀 함께-되어가고, 끊임없이 새롭게-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디지털 관계를 함께-되기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 공동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알아차림, 얽힌 페다고지로의 탈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ntanglement of young children~digital phenomenon, focusing on the agency of young children~digital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centered on new materialism. Through this, the purpose is to capture the entanglement in young children~digital phenomenon and examine its meaning. To this end, the researcher lived as part of the Blue Class of future kindergarten and conducted a total of 40 participant observations from April to December 2023.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general analysis process of qualitative research that goes through the processes of transcription, categorization, and semanticiz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young children~digital paid attention to each other's agency and cultivated the 'art of noticing' through invitation~response~diffraction. Second, young children~digital paid attention to differences in repetition, constantly asked questions, and made meaning of each other and becoming- together. Third, they were reconstructing relationships and meanings in the arrangement of conversation and rules and becoming-new. In summary, we were able to see that the young children~digital relationship is not a fixed subject-tool relationship, but rather an active intertwining and becoming- together, and constantly becoming-new.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shift the perspective of viewing the young children~digital relationship as a process of becoming-together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to recognize common ethical responsibility, and to pursue an entangled pedagogy.

전흥석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Heung Seok Jeon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멸종위기종 보호,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외래종 확산 방지, 로드킬 저감,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등 다양한 생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생동물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카메라 트랩, 드론, 열화상 센서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지 및 행동 분석 모델과 결합하여 특정 종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행동 패턴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경고·분산·차단 등의 제어 조치를 자동화한다. 특히,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형·기후 조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은 자연 생태계 보전과 인간-야생동물 갈등 완화,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wildlife management technologies that leverage artificial intelligence to address a wide range of ecological and societal issue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prevention of crop damage caused by harmful wildlife, control of invasive species, reduction of roadkill incidents, and mitigation of livestock disease transmission. To achieve this, various sensor data—such as camera traps, drones, and thermal imaging sensors—are collected and integrated with deep learning-based object detection and behavioral analysis models. This enables real-time tracking of specific species and prediction of their behavioral patterns, while also automating responses such as warnings, dispersal, or blocking actions when necessary. In collabo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partners, the applicability of these technologies is being tested across diverse terrains and climatic conditions. The approach is recognized as an innovative case contributing to the preservation of natural ecosystems, the mitigation of human-wildlife conflict, and ultimately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조선왕조실록』 일식 기록의 주기·표현·정합성에 관한 AI 융합연구

AI convergence research on the period, expression,
and consistency of solar eclipse record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박지원 (충북대학교 충북Pro메이커센터)

Jiwon Par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Pro Maker Center)

초록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1392-1910)에 기록된 194건의 일식 기사를 대상으로,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조선 시대의 일식 관측 기록에 주기성이 존재하는가? 둘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식에 대한 서술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이러한 기록들은 현대의 천문학적 계산 결과와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지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Lomb-Scargle 변환 및 베이저안 음이항 회귀를 통한 주기 분석, 고전한문 특화 언어모델 KoHisBERT를 활용한 동적 토픽 모델링, NASA의 『Five Millennium Canon of Solar Eclipses』 데이터와의 교차 비교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18.03년(Saros), 36.0년(Half-Saros), 54.1년(Exeligmos) 주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서술어는 시대별로 유교적 의례 중심 → 자연현상화 → 서양 천문학적 기술어 중심으로 변천하였다. NASA 기준과 ± 1 일 이내로 일치하는 기록 비율은 약 86.8%로 나타났으며, 전쟁기 및 말기 행정 혼란기에 기록 누락과 허위 보고가 집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의 천문관측 체계가 가지는 정밀성과 제도적 진화를 조명함과 동시에, 인문학 자료에 대한 AI 기반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of 194 solar eclipse articles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focusing on the following three key questions. First, is there a periodicity in the records of solar eclipse observa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Second, how did the description of solar eclipses change over time? Third, to what extent are these records consistent with modern astronomical calculation results? To this end, we performed periodic analysis using the Lomb-Scargle transform and Bayesian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dynamic topic modeling using KoHisBERT, a classical Chinese-specific language model, and cross-comparison with NASA's Five Millennium Canon of Solar Eclipses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18.03-year (Saros), 36.0-year (Half-Saros), and 54.1-year (Exeligmos) cyc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escriptors changed from Confucian ritual-centered to natural phenomenon-centered to Western astronomical descriptors over time. The percentage of records that matched NASA standards within ± 1 day was approximately 86.8%, and it was confirmed that record omissions and false reports were concentrated during the war and the final administrative chao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eds light on the precision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Joseon's astronomical observation system, while also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I-based analysis of humanities data.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창업 및 고성장 의도에 미치는 조건부 부정적 효과

Contingent Negative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on Entrepreneurial Entry and Growth Ambitions

이중원 (충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Jungwon Lee (Post-Doc Researcher, Basic Science Research Institu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초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은 고용 증대를 위해 널리 시행되며, 기업가정신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국가의 ALMP 지출과 개인의 창업 활동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부정적 관계, 즉 '활성화 역설'을 탐구한다. 제도적 논리와 자원 조율 이론을 통합하여, ALMP 지출이 초기 단계 창업 활동(TEA) 및 고성장 창업 의도(HGI)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했다. 23개국 137,766명의 데이터를 다층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ALMP 지출이 높을수록 개인의 TEA, 그리고 특히 HGI 확률이 낮아졌다. 둘째, ALMP와 TEA 간의 부정적 관계는 수동적 사회 정책 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유의미하게 약화되었다. 셋째, 국가 실업률은 ALMP의 영향을 상반되게 조절했다. 고실업 상황에서 ALMP의 TEA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약화되었지만, HGI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오히려 증폭되었다.

Abstract of manuscript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s) are widely implemented to boost employment, with an assumed positive spillover to entrepreneurship.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is assumption by investigating the "Activation Paradox"—the potentially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LMP spending and individual entrepreneurial outcomes. Integrating institutional logics and resource orchestration theories, we analyze how ALMP expenditure is associated with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 and high-growth entrepreneurial intentions (HGI). Using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s on data from 137,766 individuals across 23 countries (GEM, CPDS, WDI), the study reveals three key findings. First, higher national ALMP spending is linked to lower probabilities of both TEA and, more substantially, HGI, providing evidence for the Activation Paradox. Second, this negative ALMP-TEA association is significantly attenuated by higher national spending on passive social policies, which provide a safety net for aspiring entrepreneurs. Third, national unemployment rates critically moderate ALMP's impact divergently: in high-unemployment contexts, the policy's negative link with TEA weakens, while its negative association with HGI is significantly amplified. These findings challenge conventional wisdom and provide a more nuanced framework for designing policies that support high-impact entrepreneurship.

충북Pro메이커센터 소개



충북Pro메이커센터
Chungbuk Pro Maker Center

충북Pro메이커센터는 충청북도의 유일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센터로,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현실화, 창업교육, 기술개발 및 연구, 공유오피스 입주 공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제조창업지원기관**입니다.

시제품(MVP) 제작
(Minimum Viable Product)

-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스스로 구현하고 제작해 볼 수 있는 **시제품 제작 전문 엔지니어 역량 보유**
- 1:1 제조디자인 컨설팅을 기반으로 맞춤형 제조 전략 수립
- 시제품 제작 설계 3D 모델링, 3D 모델링 등 초기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제조 창업 전문 지원

창업컨설팅과 판로개척 성장지원

- AI 활용 시장조사, 창업교육, 투자연계 등 다양한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량 강화
- 국내외 판로개척, 영산 파트너사 발굴을 위한 해외 프로그래밍 추진

공유오피스 입주 공간 제공

- 최적의 업무 환경과 저렴한 비용을 통해 사용자들을 위한 공유오피스 입주 공간 제공
- 지역 내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모이는 **점(점)**으로써 네트워크 구축

충북Pro메이커센터 발전 현황

센터 이용 실적



이용자수(24): 6,068명
시제품 제작 수(24): 12,335건
지원기업 투자유체(24): 30억원
지원기업 매출(24): 42억원

MOU 협력 구축

총 169개 업무 협력 체결 (글로벌 22개, 국내 147개)

창업유관기관, 창업교육기관, 액셀러레이터, 대학, 영인업체 등 창업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예비 창업 교육


- **2023 혁신창업소풍**
 - 525개 기업 온라인교육
 - 52명 온라인교육
 - 10명 투자교육
 - 2명 실재적 투자 시행
- **2024 창업 Promaker 50**
 - 1단계: 온라인 창업 교육, 시제품 개발, 재료비 지원 (20명 수료)
 - 2단계: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방법 강의 (9명 수료)
 - 3단계: 모의 IR 데모데이 참여 지원 (6명 수료)

"충북 제조 창업 생태계의 전략 거점으로서, 전국의 우수 스타트업이 충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충북Pro메이커센터 주요 운영 사업


2025년 베트남 판로개척 프로그램

- 일시: 05. 12. (월) ~ 05. 15. (목)
- 내용: 베트남 판로개척 및 제품 수출을 원하는 4개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창업 지원기관 방문 및 전문가 상담, 수출 심화 미팅 등 진행
- 성과
 - 바이오헬스메디칼(비)와아진과 50만달러 규모 유동제조판매 합작 MOU 체결
 - 셀튼: 비현서비스와 10만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 협력 MOU 체결



2025년 말레이시아 판로개척 프로그램


- 일시: 09. 22. (월) ~ 09. 25. (목)
- 내용: 충북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사와 등을 위한 말레이시아 파트너사 발굴 도모
- (사전 진행) 기업 현황 진단 및 온라인 사전미팅을 통한 말레이시아 진출 전략 수립, IR 퍼지믹 컨설팅
- (현지 프로그램) 말레이시아 시장 탐색, IR 퍼지믹 및 11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
- (후속 지원) 현지 매칭 파트너와의 유속 미팅 지원



25년도 충북Pro메이커센터 주요 운영 사업


2025년 독일 진출 신규베이팅 프로그램

- 일시: 08. 25. (월) ~ 08. 31. (일)
- 내용: 유럽권(독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유럽권 진출 지원
- 독일 자일렌트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담기관, KIST EUROPE 연구소 방문
- EU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제품 상용화 및 시장 진입 전략 등 진출 전략 강의
- VC 네트워크의 그룹 멘토링 및 IR 발표자료 제작



2025년 시제품 고도화 신규베이팅

- 일시: 11. 26. (금)
- 내용: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충북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7만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고도화 혹은 시제품 실증 지원



황병대, 오세민, 신예지, 송영민, 박찬민, 황우석, 박용수 (충청대학교 반도체전자과 한백전자)
(Chung Cheong University Hanbaek Electronics Co., Ltd*)

초록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의 급속한 발전은 스마트 스피커, 비접촉식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성 인식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을 이끌고 있다.

본 연구는 음성 명령으로 제어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라즈베리 파이 Pico 2W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기반 음성인식 API와 연동하여 음성 명령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파싱하여 오디오 앰프 및 기타 주변 장치를 제어한다. 구체적으로, 본 시스템은 음성 명령을 통해 오디오 재생(재생, 정지, 볼륨 조절, 트랙 변경), 서보 모터를 이용한 스피커 방향 제어, 그리고 NeoPixel LED를 활용한 오디오 조명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소음 환경에서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특히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 높은 명령어 인식 정확도와 빠른 반응 속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위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며,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홈 및 IoT 제어 시스템의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rapid advancements in AI(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oT(Internet of Things) have led to the widespread adoption of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in various applications, including smart speakers and contactless devices.

This study present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voice-controlled audio system. The proposed system utilizes a Raspberry Pi Pico 2W, which interfaces with a cloud-based speech recognition API to convert voice commands into text. These parsed commands are then used to control an audio amplifier and other peripheral components. Specifically, the system enables voice-activated control over audio playback (play, pause, volume, track change), speaker direction via a servo motor, and integrated audio lighting via NeoPixel LEDs. Through rigorous testing in various noise environments, the system demonstrated high command recognition accuracy and responsive performance, particularly in quiet indoor setting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voice user interfaces for smart devices and provides a foundational technology that can be extended to various smart home and IoT control systems, enhancing user convenience and accessibility.

음성인식 컨베이어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a voice recognition conveyor system

조경민, 김보성, 황영섭, 박재호, 박찬민, 황우석, 박용수 (충청대학교 반도체전자과 한백전자)
(Chung Cheong University Hanbaek Electronics Co., Ltd*)

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을 연구한다. 이 시스템은 라즈베리파이 5 및 라즈베리파이 피코 2W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마이크로파이썬을 사용하여 제어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 특히, Google Speech-to-Text API를 활용하여 음성 명령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MQTT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의 액추에이터(상태등, 컨베이어 벨트, 서보모터)를 제어한다. 조용한 실내 환경에서 100%의 음성인식 성공률과 1.2초의 평균 반응 속도를 보였으며, 일반 실내 소음 환경에서는 90%의 성공률과 1.4초의 반응 속도를 기록했다.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본 시스템이 음성 조작의 편의성과 인식 정확성,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함을 확인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인간-기계 상호작용 시스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research developed a conveyor system utilizing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a core compon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ystem's hardware was built upon Raspberry Pi 5 and Raspberry Pi Pico 2W, with control software implemented using MicroPython. Specifically, the Google Speech-to-Text API was used to convert voice commands into text, which were then transmitted via the MQTT protocol to control the conveyor system's actuators (status lights, conveyor belt, and servo motors). The system demonstrated a 100% voice recognition success rate and an average response time of 1.2 seconds in a quiet indoor environment, and a 90% success rate with a 1.4-second response time in a general indoor noise environment. User tests confirmed that the system offers convenient voice operation, accurate recognition, and fast response times. This highlights the potential for an intelligent human-machine interaction system to significantly enhance worker efficiency and safety in industrial settings.

음성인식 스마트홈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Voice-Controlled Smart Home System

최관훈, 권혁주, 김형우, 박찬민, 황우석, 박용수 (충청대학교 반도체전자과 한백전자)
(Chung Cheong University Hanbaek Electronics Co., Ltd*)

초록

본 연구는 IoT와 음성인식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홈 시스템을 연구한다. 시스템 하드웨어는 라즈베리파이 5 및 라즈베리파이 피코 2W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하여 다양한 액추에이

터와 센서(조명, 환기팬, 출입문, 가스차단기, 커튼, 무드등)를 제어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특히, 음성인식은 Google Speech-to-Text API를 활용하여 자연어 음성 명령을 텍스트로 변환하며, 변환된 명령은 MQTT 프로토콜을 통해 스마트홈 액추에이터를 제어한다.

실험 결과, 본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홈 환경을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여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음성 제어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중심적이고 지능적인 주거 공간으로 나아가는 스마트홈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smart home system that integrates IoT and voice recognition technologies.

The system's hardware is built upon Raspberry Pi 5 and Raspberry Pi Pico 2W, enabling the control and monitoring of various actuators and sensors through user voice commands.

Specifically, the system utilizes the Google Speech-to-Text API to convert natural language voice commands into text, which are then transmitted via the MQTT protocol to control smart home actuators (e.g., lights, ventilation fans, doors, gas breakers, curtains, mood lights).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is system allows users to intuitively control their home environment and monitor diverse data in real-time, significantly enhancing residential convenience and safety.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potential of voice-controlled interfaces in advancing smart home technology towards more user-centric and intelligent living spaces.

5세션 4부

디지털 기능을 접목한 창작 시계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Fabrication of a Creative Clock Incorporating Digital Functions

김승환, 전호진, 김승원, 김성권, 송한정 (인제대학교 반도체·전자공학부)
(Department of Semiconductor and Electronic Engineering, Inje University)

초록

본 논문은 감정 상태를 모션 센싱과 얼굴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설계된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반의 인터랙티브 디지털 시계 (시계 별칭: MOMENTO)를 제안하며 그 기능적 로직과 구조적 코드에 대해 분석한다. 감정 디스플레이 시스템(4개의 LED 매트릭스 모듈 사용)과 RTC 및 로터리 인코더 입력이 통합된 타이머 시스템이라는 두 개의 주요 하위 시스템이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이 문서는 센서 기반 얼굴 전환, 디스플레이 동기화, 시간 기반 이벤트 처리 등의 핵심 기능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제공한다. 코드 수준의 정밀한 분석과 더불어, 본 논문의 인터랙티브 디지털 시계 (시계 별칭: MOMENTO)가 상업적 제품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잠재력도 함께 고찰한다. 모듈화된 설계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디지털 시계는 교육용 도구, 치료 보조기기, 감성 UX 하드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센서 기반 감정 표현을 통한 인간-기계 상호작용 통합은 감성 컴퓨팅을 일상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기술이 점점 더 감성 지능 및 체화된 상호작용과 교차하고 있는 최근의 시대에 제안하는 디지

텔 시계 (MOMENTO)는 미래 인간-AI 공존의 전향적인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블루투스 또는 Wi-Fi와 같은 연결 기능이 추가된다면, 제안하는 디지털 시계(MOMENTO)는 스마트홈 생태계, 헬스케어 네트워크, 창작 예술 플랫폼에서 핵심 인터페이스 노드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aper analyzes the functional logic and structural code of the MOMENTO device, a microcontroller-based interactive product designed to visually express emotional states through motion sensing and facial animation. Two primary subsystems—an emotion display system using a 4-module LED matrix and a timer system integrated with RTC and rotary encoder inputs—are detailed herein. This document provides a technical breakdown of core features such as sensor-based face transitions, display synchronization, and time-based event handling.

In addition to a rigorous code-level analysis, the paper explores the broader potential of MOMENTO as a commercial product. With its modular design and intuitive user interface, MOMENTO is well-positioned for adoption in educational tools, therapeutic devices, and emotional UX hardware. Its integration of human-machine interaction through sensor-driven emotion display offers a scalable framework for embedding affective computing in everyday environments. As technology increasingly intersects wi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bodied interaction, MOMENTO serves as a forward-thinking model for future human-AI symbiosis. With added connectivity features such as Bluetooth or Wi-Fi, MOMENTO could evolve into a key interface node within smart home ecosystems, healthcare networks, and creative arts platforms.

5세션 4부

아두이노와 LED를 이용한 불꽃놀이의 시각화

A Visualization of Fireworks Using Arduino-Controlled LEDs

김민경, 최성진, 김승원, 김성권, 송한정 (인제대학교 반도체전자공학부)

(Department of Semiconductor and Electronic Engineering, Inje University)

초록

본 프로젝트는 아두이노와 총 106개의 LED를 활용하여 불꽃놀이의 다층적인 시각적 복잡성을 재현한 임베디드 조명 시스템을 제안한다. 원형 배열, 별 모양 LED 군집, 달 형태의 LED 구조를 포함하여, 하드웨어 효율성과 시각적 역동성을 결합함으로써 몰입도 높은 조명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점등 순서는 고정된 지연 함수에 의존하지 않고, millis()기반의 비차단 타이밍 알고리즘을 통해 제어된다. 이 알고리즘은 중심 점화, 순차 확산, 무작위 점멸, 전체 발광 등의 동기화된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LED는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디지털 핀에 연결되며, 각 그룹에는 저항을 삽입하여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하였다. LED의 공간 배치, 전류 분산, 핀 효율성 등도 세심하게 고려되었다.

반복적인 테스트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시스템은 안정적인 작동과 높은 시각적 효과를 달성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한 마이크로컨트롤러 로직으로도 풍부하고 층위적인 조명 동작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디지털 아트, 공공 설치물, STEAM 기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oject presents an embedded lighting system that recreates the layered visual complexity of fireworks using Arduino and 106 LEDs. Designed with concentric circular layers, decorative star clusters, and a moon-shaped LED array, the system combines hardware efficiency with visual dynamics to deliver a compelling light-based simulation.

Instead of relying on fixed delays, the lighting sequence is driven by a non-blocking timing algorithm that enables synchronized effects such as central ignition, sequential expansion, random flicker, and full illumination. The LEDs are grouped and connected through digital pins, each stabilized by resistors to ensure reliable performance. Attention was given to spatial LED placement, current distribution, and efficient pin use through grouped wiring.

Through iterative testing and problem-solving, the system achieved stable operation and strong visual appeal. This work shows how basic microcontroller logic can generate rich, layered lighting behavior and points to future use in digital art, public installations, and STEAM-based education.

5세션
4부

머신러닝 기반 반도체 제조 공정의 공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예측제어 시스템 연구

Research on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ve control system for air quality monitoring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최준호, 홍석호, 임준형, 김지민, 김성권, 송호진 (인제대학교)

(Department of AI Software, School of Nano Fusion, Inje University, Injomes*)

초록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공기질 저하는 제품 불량률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기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 중단 가능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여 약 80%의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정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정밀 제조 산업에 확장 가능한 예측 기반 공정 제어 기법의 기초를 제시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reduction in the incidence of airborne particles during the fabrication of semiconductors has been identified as a primary factor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in yiel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lgorithm that can analyze environmental data collected by IoT sensors and identify abnormal conditions, thereby enhancing the system's capability to detect such issues.

The development of a machine learning model based on real-time data has yielded a 80% success rate, signifying its potential to enhanc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model. The

present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advancement of both semiconductor and precision manufacturing industries, offering 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hese sectors.

5세션
4부

FET Gate 기반 공진 스위칭 회로 테스트 및 고전압 정현파 플라즈마 생성

Testing FET Gate-based Resonant Switching Circuit and Generating High Voltage Sinephonic Plasma

감동윤, 김승환, 윤영동, 김근호, 김성권 이재찬 (인제대학교 나노융합공학부)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 Nano Convergence Engineering, Inje University, KMG Co. Ltd*)

초록

본 연구는 FET 게이트의 스위칭 회로와 LC 공진 회로를 연계하여, 저전력으로 구동되는 저가형 고효율 플라즈마 발생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그 가능성을 탐구하였습니다.

FET의 스위칭 및 전압 제어를 통해 ON/OFF 펄스를 유도하고, 수십 kHz 대역에서 위상 정렬을 달성함으로써 출력 에너지의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PET 기판의 유전 특성($\epsilon_r \approx 3.5 \sim 4.0$)을 고려한 **Capacitive 구조($C = \epsilon_0 \epsilon_r A/d$)를 기반으로, 기판 두께($\sim 100 \mu\text{m}$), 금속 도막 두께, 전극 간 거리 등의 설계 인자를 조정하여 펄스 응답 특성과 공진 전압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소형 공진 시스템이나 IoT 기반 정밀 센서 응용에 적합합니다.

또한, 본 회로는 출력단에 고전압 트랜스 및 정류 회로를 연계함으로써 수 kV급의 고전압 펄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방전부에는 공정용 대기압 플라즈마 전극 또는 마이크로 챔버 구조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플라즈마는 정밀 RF 제어 및 전기적 안정성 확보 이후, 공정 챔버 기반 실험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더불어, MEMS 가공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 전극 어레이를 결합하면 플라즈마의 미세 분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계 방출 및 표면장 제어 기반 방전 셀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플라즈마 균일성 및 마이크로 스케일 반응 제어까지도 실현 가능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linked the switching circuit of the FET gate with the LC resonance circuit to create a low-power, low-cost, high-efficiency plasma generation prototype and explore its possibilities.

The switching and voltage control of the FET induces ON/OFF pulses and maximizes the transfer efficiency of the output energy by achieving phase alignment in the tens of kHz band.

In particular, based on the Capacitive structure ($C = \epsilon_0 \epsilon_r A/d$) considering the dielectric properties of PET substrates ($\epsilon_r \approx 3.5$ to 4.0), we were able to control pulse response characteristics and resonant voltage by adjusting design factors such as substrate thickness ($\sim 100 \mu\text{m}$), metal coating thickness, and distance between electrodes. This structure is suitable for small resonant systems or IoT-based precision sensor applications.

In addition, this circuit can generate high voltage pulses of several kV levels by connecting high voltage trans and rectifying circuits to the output terminal, and a process atmospheric pressure plasma electrode or microchamber structure can be introduced into the discharge unit. Based on this, plasma can be expanded to a process chamber-based experimental system

after precision RF control and electrical stability are secured.

In addition, by combining microelectrode arrays using MEMS processing technology, the fine distribution of plasma can be precisely controlled. Furthermore, by implementing a discharge cell structure based on electric field emission and surface field control, scalability that can be realized even for plasma uniformity and microscale reaction control can be secured.

**5세션
4부**

미래 AI 디지털 미술 교재·교구 설계 방향
Design Directions for Future AI-Based Digital Art Textbooks and Teaching Tools"

최 철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CHOI, Chul (Department of Fine Arts Education)

초록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에게 미술교육은 단순한 연필, 물감, 흙 등 ‘그리기·색칠하기’를 넘어선다. 본 연구는 미래 AI 디지털 미술 교재·교구의 제작 개발 방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미술교과는 창의성,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의 융합을 입장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개인 맞춤형 학습 과정을 제공이 가능한가. AI는 학생의 수준과 관심사를 분석해 적절한 시각 예술 과제를 제시하고, 실시간 피드백으로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가. 둘째,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인터랙티브·몰입형 콘텐츠로 감성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가. 셋째, 미술교과는 타교과에 어떤 방법으로 융합할 수 있는가. 이를 통해 다양한 영역과의 교차로에서 학생이 통찰과 창의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가. 넷째, 문화 다양성과 비판적 시각 확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담을 것인가. 다섯째, 미래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떤 자세와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는 결국 AI 기반 디지털 미술 교재·교구는 감성과 사유, 직관과 논리, 표현과 성찰이 만나는 통합적 교육의 캔버스가 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단지 도구를 익히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색, 자신만의 감동, 그들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미술교육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릴 때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For students living in the 21st century, art education extends far beyond simple activities such as drawing with pencils, painting with colors, or molding with clay.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future AI-based digital art textbooks and teaching tools. Starting from the perspective that today's art education must integrate creativity, visual literacy, and digital literacy, the research presents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is it possible to provide personalized learning pathways? Can AI analyze students' levels and interests to propose appropriate visual arts tasks and offer real-time feedback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ir work? Second, how can interactive and immersive content be used to heighten students' emotional engagement and immersion? Third, how can art education be integrated with other subjects? Through this integration, can students acquire insight and creative experiences at the intersection of various disciplines? Fourth, how can content be designed to support cultural diversity and the expansion of critical perspectives? Fifth, what should be the teacher's role and attitude in future classrooms utilizing AI-based digital art textbooks and tools?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AI-powered digital art textbooks and teaching tools should become a comprehensive educational canvas where emotion meets reasoning, intuition meets logic, and expression meets reflection. Future generations must go beyond merely learning tools; they must be guided to create their own colors, their own emotions, and their own messages, and to share them meaningfully with the world. Now is the time to draw a new blueprint for art education that embraces this vision.

5세선
4부

반도체 레이아웃 기반 패브릭 패턴디자인을 활용한 STEAM 융합 교육 프로그램 연구

Research on STEAM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using semiconductor layout-based fabric pattern design

이은영 (해피콜아르떼)

Eunyoung Lee (Happyggolarte)

초록

본 연구는 반도체 회로의 시각적 구조를 패브릭 패턴 디자인을 활용하여, 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STEAM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성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적 패턴은 예술적 디자인 소재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레이아웃의 기하학적 구성 요소를 단순화하고 반복적 패턴으로 재구성하여, 과학기술 개념을 시각적·촉각적 감각 활동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예술, 수학의 융합적 사고를 증진하며,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패브릭에 직접 패턴을 구현하고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표현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반도체 회로 기반 패브릭 패턴 디자인은 과학기술 교육과 예술교육의 효과적인 융합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미래 진로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교육 효과 검증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연령과 교육 환경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확장이 요구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 STEAM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targeting young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tilizing fabric pattern design to visualize the visual structure of semiconductor circuits. Although semiconductors, a key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 field that is difficult to approach in the educational field due to their complex and abstract characteristics, their visual patterns have high potential as artistic design materials. In this study, we designed a program that converts the concep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o visual and tactile sensory activities by simplifying and reconstructing the geometric components of semiconductor layouts into repetitive patterns. The program focused on promoting convergent thinking in science, technology, art, and mathematics, and inducing learners' interest and immersion. In addition, we implemented patterns directly on the fabric and sought to improve learners' self-directed expression and problem-solving abilit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expected that

semiconductor circuit-based fabric pattern design can function as an effective convergence model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and art education, and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learners' holistic growth and future career exploration. In the future, field application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verification studies of this program are necessary, and customized content development and expansion through digital technology integration for various ages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are required.

5세션 4부

IIC 개방단락 테스트 IC Open/Short Test

박용수 (충청대학교 반도체전자과)

(Department of Semiconductor Electronics, Chung Cheong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라즈베리 파이 Pico 2W와 Op-amp 및 BJT 기반 정전류원 회로를 활용하여 IC 핀의 개방 및 단락 불량을 검출하는 새로운 저비용 테스트 방법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이 접근 방식의 핵심은 IC 핀 내부에 내장된 보호 다이오드의 고유 특성을 활용하는 전류인가전압측정(IFVM) 방식이다. 우리는 정교하게 설계된 전류 싱킹 및 소싱 정전류원 회로를 통해 VDD 다이오드 및 VSS 다이오드 테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다양한 고속 CMOS (HC) 시리즈 IC에 대한 실험 결과, 정상, 개방, 단락 상태의 핀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전압 응답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립된 판정 기준이 IC 불량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효과적임을 명확히 입증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ATE(Automatic Test Equipment)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연구 개발 및 교육 환경에서 IC 불량 테스트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proposes and implements a novel, low-cost method for detecting open and short circuit defects in IC(Integrated Circuit) pins, leveraging the capabilities of a Raspberry Pi Pico 2W and an Op-amp and BJT-based constant current source circuit. The core of this approach is the IFVM(Current Forcing Voltage Measurement) technique, which capitalizes on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the protection diodes embedded within IC pins. We demonstrate the successful execution of both VDD (D1) and VSS (D2) diode tests through meticulously designed current sinking and sourcing constant current source circuits. Experimental validation, conducted on various High-speed CMOS series ICs, consistently revealed distinctly differentiated voltage responses for pins in normal, open, and short-circuited states. These results unequivocally confirm the efficacy of our established judgment criteria in accurately identifying IC defects. The proposed method offers a compelling alternative to high-cost ATE(Automatic Test Equipment) by providing a significantly more accessible and economical solution for IC defect testing, particularly beneficial for small-scale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s, as well as educational environments

디지털 전환은 어디로 가는가? 충북의 현황 및 과제

Where Is Digital Transformation Headed?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 Focus on Cities and Industries -

조진희 (충북연구원)

Jinhee Jo

<2025년 세계인문사회·과학기술 연합학술대회>

디지털 전환은 어디로 가는가?

충북의 현황 및 과제

-도시와 산업 중심으로-

2025. 7. 3.

조진희 책임연구위원
ub7st@cri.re.kr

CRI 충북연구원
CHUNGCHUNG RESEARCH INSTITUTE

목 차

- 01 대전환의 시대
- 02 ICBM에서 새로운 플랫폼 시대로
- 03 정부 디지털 전환정책과 미래도시 이슈
- 04 마치며..

01 대전환의 시대

I. 대전환의 시대

I 가속화되는 기술혁신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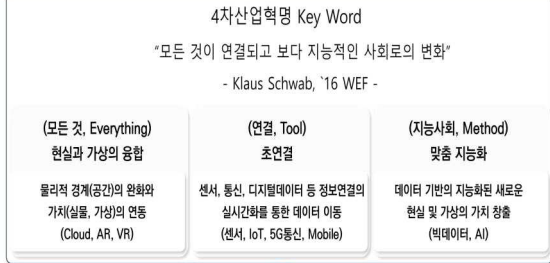
I 지능화 혁명 시대의 도래



4 / 32

I. 대전환의 시대

I 4차산업혁명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진입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빅데이터로 연결”+ “경제 및 산업 등 사회 전 분야
의 변화를 촉발하는 데이터 혁명”+ “멀티모달 기반 AIX 서비스 혁명”

5 / 32

I. 대전환의 시대

I 새로운 변화(Deep Shift) 동인, 디지털 혁신기술의 사회 수용성 확대



기술의 빠른 변화로 미래의 불확실성은 높아져 변화에 대한
‘정확한 탐색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사회시스템’이 더욱 중요한 시기

6 / 32

I. 대전환의 시대

I 대전환 키워드 간 융합 가속화 : 디지털 전환(AIX) X 인구증격(고령화) X 기후변화(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전환, 평균수명 증가 및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의 시대가 도래



7 / 32

02 ICBM에서 새로운 플랫폼 시대로

* ICBM : IoT, Cloud, Bigdata, Mobile

II. ICBM에서 새로운 플랫폼 시대로

I 우리나라 정보사회 및 지능정보사회 인프라 구축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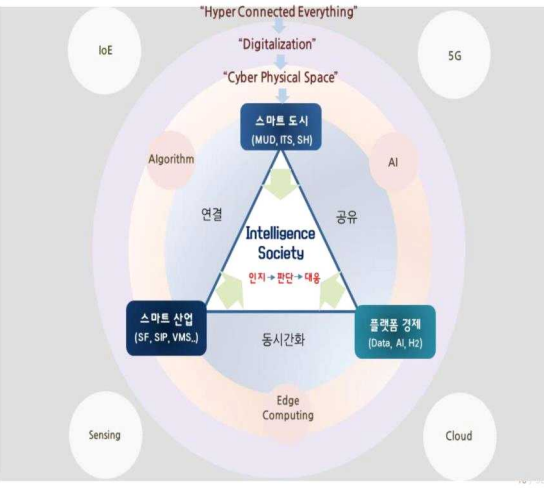


“정보 인프라에서 지능정보 인프라로 전환, 디지털 기술 기반 지능정보사회로 진화 가속화”

8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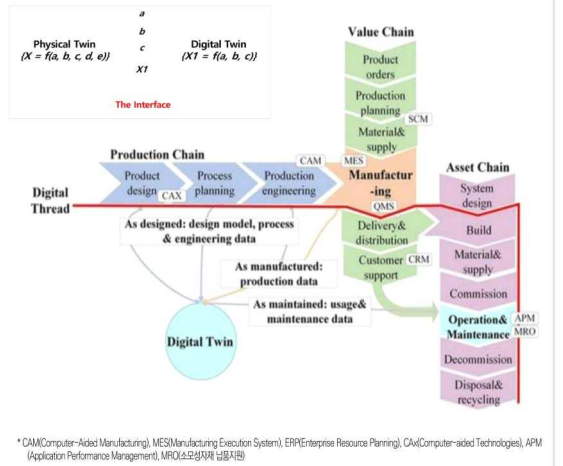
III. 정부 디지털 전환정책과 미래도시 이슈

I 디지털 대전환의 구조와 방향 : 센서 - 통신 - 데이터 - AI - 지능화 서비스



III. 정부 디지털 전환정책과 미래도시 이슈

I 물리(Physic)-가상(Virtual) 공간의 연결 현실화 대비 : Digital Thread, CPS



*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AX(Computer-aided Technologies), APM (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MRO(소유자/유지) (남원지음)

17 / 52

III. 정부 디지털 전환정책과 미래도시 이슈

I 전통산업에서 스마트산업으로의 전환 : 데이터, 디지털, 초정밀, 서비스



18 / 52

III. 정부 디지털 전환정책과 미래도시 이슈

I 국가적 표준의 틀 속에서 지역 데이터 생태계 Framework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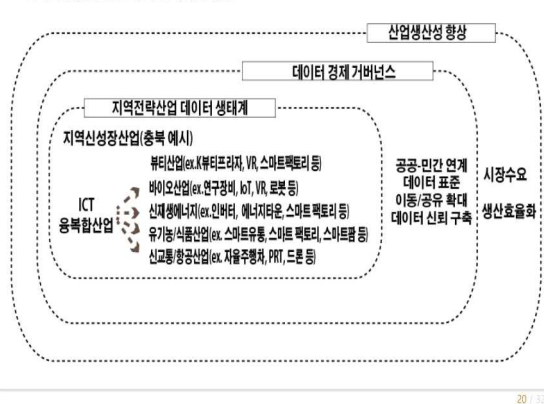


19 / 52

III. 정부 디지털 전환정책과 미래도시 이슈

I 데이터 경제사회 적응을 위한 공급망 단위 디지털 협업 인프라 구축

- 지역 신성장산업 등 지역특화도가 높은 산업을 견인할 지역전략산업 데이터 생태계 조성
- 공공-민간 연계, 데이터 표준, 이동/공유, 데이터 신뢰 확대를 위한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구축
- 지역 신성장산업 공급망 중심 생산성 향상 도모



20 / 52

04 마치며..

Ⅳ. 마치며 : “디지털 도시계획 전략가와 설계자가 요구되는 시대”

1.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상보다 빠르다.
2. 도시는 이러한 사회변화를 받아주는 그릇 이어야 한다.
3. 이제, 도시구성의 3대 요소(시민, 활동, 시설)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4. 지능형도시(Intelligent City) 패러다임은 디지털 도시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5. 미래 도시계획은 도시이슈 해결을 위한 도시데이터 전략, 스마트인프라 조성, 디지털 플랫폼 등 디지털 도시계획 노하우를 갖추어야 한다.
6. 도시이슈(산업쇠퇴, 인구변화, 노후시설, 경관/안전 등)에 대한 물리적 대응의 한계에 직면, 디지털 인프라로 극복하려는 시도 즉, ‘디지털 어반 르네상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2 / 53

감 사 합 니 다

5세션
5부

탄소중립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AI 융합전략 Energy-AI Integration Strategies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이소영 (충북연구원)
Soyoung Lee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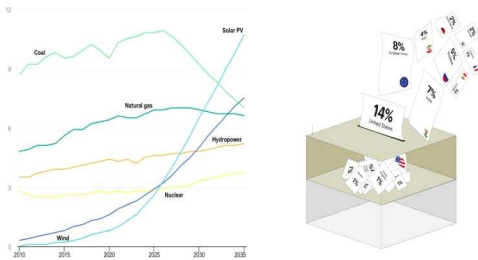
탄소중립시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AI 융합전략

이소영 연구위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 ▶ EU, 미국, 한국 등 주요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
-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 축소 및 에너지 기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 ▶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고 분산형 에너지를 확대하는 전략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자리잡음
- ▶ 에너지 정책변화의 불확실성 상생 산업 육성과 관련 부문별 참여자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
- ▶ 세계 에너지변화의 전환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



〈글로벌 전력생산 전망(2010-2035)〉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정치적 불확실성〉

출처: 세계 에너지 전망 2024 (World Energy Outlook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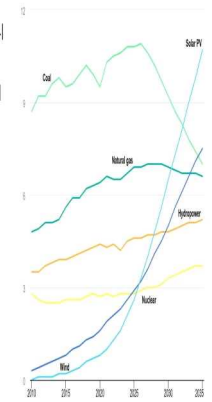
출처: 세계 에너지 전망 2024 (World Energy Outlook 2024)

글로벌 에너지 믹스 재편

- 화석연료 발전 방식은 점차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추세
- 에너지 효율개선과 청정에너지 기술의 비용 하락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 증가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 기존 에너지원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 수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
- AI 시장 증가 및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전력 시스템 조정 개선이 필요



< 청정에너지 가격 하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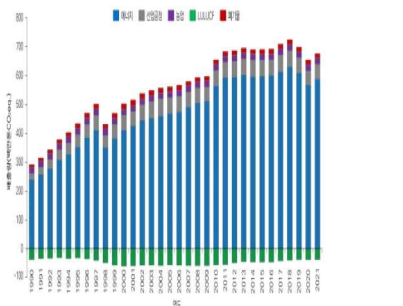


<글로벌 전력생산 전망(2010-2035)>

출처: 세계 에너지 전망 2024 (World Energy Outlook 2024)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추진.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
- 예너지 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체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예너지 소비가 늘어남은 현상을 고려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21) :>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충청북도 에너지 부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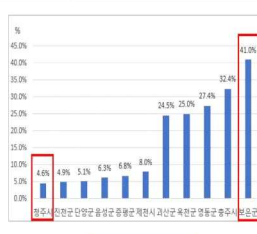
- ✓ 대부분의 광역도시의 예까지 소비구조는 우리나라 중흥에까지 소비평화의 실현을 위한 가장 선유소비가 가장 많으나 중흥보다는 소비가 높은 경향
- ✓ 지형적 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충북은 중앙지방권 전향평화의 경제와 급속한 전향소비량으로 인해 전향지정도 낮음
- ✓ 소비가 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수단의 예까지 전환이 반드시 필요이며 특히 자동차는 예에 따라 정량과 관련 산업수출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

[illegible]

< 시도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2022) >

충청북도 에너지 부문 현황

- | | |
|-------|--|
| 본산전원 | 충북의 본산전원지원 총5,363개
태양광 발전설비5,355개, 바이오가스3개, MW전력 1개, 연료전지 2개, 수력발전 3개 |
| 발전량 | 2022년 발전량 2,785,854MWh (전국생산량 대비 5.4%)
= 충북 전력소비량의 9.5% |
| 전력자립률 | 도 전력자립률 2023년 10.8% ▶ 2023년 전국14위 |



충북 11개 시군 전력자립률



향후 저망

충북의 전력수요 2050년
42,131GWh
2022년 이후 43.2% 증가 예상
연평균 전력증가율 : '22~'30년(2.1%)

평균 전력증가율 : '22~'30년(2.1%)
'30~'40년(1.1%)

부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기후변화 대응 2030준비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수단으로 **분산에너지**가 확대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산에너지가 빠르게 확산,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여 전력계통 안정성과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
- 「**분산에너지**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24년 6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AI 시대 충북의 분산에너지 혁신 방안

환경적 파급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1,847.6t

CO₂eq/년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AI 융복합 DX 스테이션 운영시스템 실증 사업

실증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디지털트윈 기술로 산업단지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능인센티브 확보

✓ 충청북도의 친환경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AI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법

단기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

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에너지 효율화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 극대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AI 기반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에너지 AI 솔루션, 데이터 분석, 유지보수) 성장과 관련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을 통한 지역 분산에너지 통합 및 거래 활성화

✓ 지역 산업 맞춤형 AI 에너지 솔루션

6세션

교육

제1부. 자유패널

제2부. 디지털 대전환시대 교양교육의 방향

제3부. 인문학과 교육

제4부.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과제

제5부. 동아시아 언어자료구축과 연구

오진석 (순천향대학교 특수아동교육연구소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

Jinseok Oh (Soonchunhyang Exceptional Children Institute, University of Soonchunhyang)

초록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 대학 신입생들이 형성하는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입생 108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NetMiner 4.0을 활용하여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등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산출하였다. 정신건강은 무망감과 우울감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고, QAP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연결망 중심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In-Closeness Centrality는 무망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In-Degree Centrality, In-Closeness Centrality, Eigenvector Centrality는 우울감과도 부적 상관을 보여,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회복력이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Out-Closeness Centrality는 우울감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외향적 연결성이 클수록 오히려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의 위치와 관계의 질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호적 중심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관계 유지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결망 기반 정신건강 분석의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이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 정책 수립 시 사회적 관계의 질적 요소를 반영한 정교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structure of social networks among late adolescents—specifically,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relates to mental health outcomes. A total of 108 students participa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surveys. Using NetMiner 4.0, four key centrality indicators were analyzed: In-Degree, In-Closeness, Out-Closeness, and Eigenvector centr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strength and mental health was assessed using QAP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Findings revealed that In-Closeness Centrality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hopelessness, while In-Degree, In-Closeness, and Eigenvector Centrality were all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suggesting that students more centrally positioned in their peer networks experience better emotional well-being. In contrast, Out-Closeness Centrality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with depression, implying that being highly outwardly connected may increase emotional burden due to surface-level relationship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dual role of centrality in peer networks, indicating that while certain forms of connectivity can be protective, others may exacerbate mental health challenges. The study underscores the value of incorporating social network analysis into mental health strategies and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policy and intervention development in adolescent mental health.

박정연 (경남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Kyung Hee University)

초록

디지털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새로운 기후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이중적 성격에 주목하여, 대학 교양교육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디지털-기후 리터러시(digital-climate literacy)’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교육적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과 기후위기 문제의 연결성을 ‘Lean ICT(디지털 절제)’ 개념과 과학기술학(STS)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더불어 The Shift Project의 『Lean ICT』(2019), 『Deploying Digital Sobriety』(2020) 보고서를 근거로 디지털 인프라의 생애주기—제조,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드러낸다.

본 논문은 디지털-기후 리터러시가 단순한 기술 활용 역량을 넘어, 기술이 함축하는 구조적 권력, 자원 불균형, 생태 정의의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리터러시는 교양교육이 기술 결정보다 그 맥락과 윤리를 중심에 둘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요구하며, ‘기술적 사고’를 넘어선 ‘기후 정의를 위한 비판적 사고 훈련’의 교육적 토대를 제안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Digital transformation is often heralded as a core technological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However, it is also emerging as a new driver of the crisis, due to its massive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this dual character of digital technologies and proposes the concept of digital-climate literacy as a critical framework for general education in universities. It aims to explore how this concept can be institutionally and pedagogically implemented.

To this end, this study raises awareness of the issues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echnological neutrality based on the concept of ‘Lean ICT (digital moderation)’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to examine the connection between digital technology and climate crisis issue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full life cycle—production, usage, and disposal—of digital infrastructures by drawing on two key reports by The Shift Project: Lean ICT (2019) and Deploying Digital Sobriety (2020). These reports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costs embedded in digital systems.

The paper argues that digital-climate literacy should go beyond the acquisition of technical skills. It must cultivate the civic capacity to critically assess the structural power dynamics, resource inequalities, and ecological injustices embedded in digital systems. This literacy demands a pedagogical shift in general education—from technology as solution to technology as situated practice—and proposes a foundation for critical thinking in service of climate justice, rather than technocratic problem-solving alone.

한정규 (동의대학교 디그니타스교양교육연구소)

Han Jeonggyu (DONG-EUI University)

초록

본 발표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학습자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교양교육의 새로운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차별적 민감성 모델(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DSM)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아, 학습자의 반응성 차이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교양수업의 구체적인 구현 원리를 탐색하였다. DSM은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도 학습자 간 반응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이론으로, 민감성이 높은 학습자가 긍정적 자극에 더 잘 반응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가 크다. 본 발표에서는 DSM의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고, 민감성 차이를 반영한 수업 설계 원칙(다중경로 과제, 공감형 피드백, 내러티브 중심 수업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적용 사례로 동의대학교의 「MBTI 성격유형과 인공지능로봇윤리」 교양교과목을 분석하여 DSM 기반 수업 설계의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 맞춤형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기반 인성 교육 설계와 DSM의 통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인공지능, 교양교육, 개인 맞춤형 학습, 차별적 민감성 모델, 반응성, DSM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aims to propose a new model for liberal arts education that reflects the diversity and individuality of learners in the age of AI transformation. Grounded in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DSM), the research explores principles for designing personalized liberal arts instruction based on learners' varying levels of responsiveness. DSM, a psychological theory, explains that individuals respond differently to the same environmental stimuli, with highly sensitive learners benefiting more from positive inputs. This presentation outlin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DSM and proposes instructional design strategies—such as multi-modal task options, narrative-based learning, and dual-mode feedback—that support differential responsiveness. A case analysis of the “MBTI Personality and AI Robot Ethics” course at Dong-Eui University illustrates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DSM in liberal arts education. The study concludes by advocating for inclusive, responsive, and personalized educational practices, and suggests the integration of AI-assisted character education with DSM-informed instructional frameworks.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Liberal Arts Education, Personalized Learning, 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 Responsiveness, DSM

정재리 (한국교원대학교)

Jaeri Jeong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이 연구는 미래세대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융합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활동은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교과에 걸쳐 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기술을 교과 수업에 통합하는 과정은 교사의 역량과 실천 의지에 크게 의존한다. 많은 교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수업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분석이 프로그래밍과 같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으로 부담감을 느끼며, 실제 수업 적용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장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코드(no-code)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활용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보다 쉽게 데이터 기술을 수업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교과 간 융합 수업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Abstract of manuscript

In this study, a teacher training program was developed to enhance teachers' competence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data-integrated lessons. Data-integrated lessons refer to instructional approaches that incorporate data analysis activities into subject-specific learning content, and have the potential to be applied not only within specific subjects but also across diverse disciplines in an integrative manner. However, the integration of data technologies into classroom instruction largely depends on teachers' competency and willingness to implement them. Although many teachers recognize the educational value of data-integrated instruction, they often hesitate to integrate it due to the perception that it requires technical expertise, such as programming.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developed a teacher training program utilizing no-code data mining tools. This program supports teachers in incorporating data technologies more easily into their lessons, thereby enhancing the feasibility of interdisciplinary instruction various subject areas.

최경식 (목원대학교)

Kyeongsik Choi (Mokwon University)

초록

이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인식과 모의 수업 자료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프롬프트 유형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사범대학의 예비 수학교사 15명을 대상으로 AI-TPACK 이론에 기반한 4차시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ChatGPT를 포함한 AI를 활용하여 모의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제출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자료를 분석하여 AI가 통합된 교수학습 실천의 유형을 파악하고, 참여자들이 사용한 프롬프트를 개정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수정 블룸 분류법)의 여섯 가지 범주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I 활용 교수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A) 변별을 위한 도구로서의 AI, (B) 내용 전달 도구로서의 AI, (C) 모델링을 안내하는 도구로서의 AI, (D)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AI이다. 또한 개정 블룸 분류법에 따른 프롬프트 수준은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를 보였다. A유형은 “기억하다(Remember)”, B유형은 “기억하다”와 “이해하다(Understand)”, C유형은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Apply)”, D유형은 “이해하다”에서 “창안하다(Create)”까지의 범위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AI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때, 개정 블룸 분류법에서 제시하는 보다 폭넓은 인지 과정의 범주를 아우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학습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categories of prompts used during the development of mock lesson materials. To this end, a four-session lecture series based on the AI-TPACK framework was conducted with 15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from a mid-sized city in South Korea. During the course, participants developed and submitted mock lesson materials utilizing AI, particularly ChatGPT. The researchers analyzed these materials to identify the types of AI-integrated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and examined the prompts used by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six categories of the Revised Bloom's Taxonomy. The analysis revealed four distinct types of AI use in teaching: (A) AI as a tool for differentiation, (B) AI as a content delivery tool, (C) AI as a guided modeling tool, and (D) AI as a tool to support teacher-student interaction. Additionally, the prompt categories according to the Revised Bloom's Taxonomy were as follows: Type A corresponded to “Remember,” Type B to “Remember” and “Understand,” Type C to “Remember,” “Understand,” and “Apply,” and Type D spanned from “Understand” to “Creat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en AI is utilized as a tool to facilitate teacher-student interaction, it can support a broader range of cognitive processes as described in the Revised Bloom's Taxonomy, thereby promoting more comprehensive learning outcomes.

정창권 (한국교육대학교)

Benjamin C.K. Ch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이 발표는 문학작품 『햄릿』을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반으로 모델링한 ‘햄릿 모델링 수업’의 사례를 통해, AI 시대에 인문학이 수행해야 할 교육적 역할을 조명한다. 학생들은 희곡의 각 장면을 부친 살해 증거와 복수기 회라는 두 축으로 수치화하고, 모듈별로 하나의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과 합의를 수행한다.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판단이 시스템 구조 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결과는 조건(임계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AI가 계산하되 인간이 설계해야 하는 영역임을 보여준다. 햄릿 모델링 수업은 정답이 없는 판단, 다양한 가치의 공존, 구조적 사고와 조건 설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체험하게 하며, 인문학과 공학의 창의적 융합 교육의 사례가 된다. 이 수업은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 조건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며, 인간 중심의 판단 영역을 인식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문학 교육을 넘어, 융합형 진로교육, 메타인지 교육, AI 시대의 시민성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humanities in the age of AI through the case of “Hamlet Modeling,” a system dynamics-based reinterpretation of Shakespeare’s tragedy. Students quantify Hamlet’s emotional responses and situational assessments in each scene using numeric values for revenge motivation and opportunity. They then engage in group discussion to reach consensus on a single value per scene. Simulation software is used to visualize the consequences of their decisions within a dynamic model structure. Notably, the simulation results vary depending on threshold conditions, which are determined not by the computer but by human judgment. The Hamlet Modeling class enables students to experience value conflicts, nonlinear causality, and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thinking and parameter design. This interdisciplinary learning model exemplifies a creative convergence between literature and engineering in AI-era education. Beyond literary analysis, the Hamlet Modeling experience invites students to design conditions, simulate scenarios, and reflect on the mor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ir choices. It positions itself as a meta-cognitive training platform and a model of humanities-informed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한국근대교육사연구센터)

YIM Dongkun (Center for Modern Korean Education Stud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 교육통계의 편제 변화와 대한민국 교육통계 체계의 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근현대 교육통계사의 변천 양상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교육통계의 분류 체계 변화가 식민지 교육정책과 해방 후 교육 재건 과정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여 한국 교육사 연구의 통계학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교육통계는 1906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시기별로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전에는 재조선 일본인 학령인구 조사가 중심이었으나, 1910년대부터는 일본인과 조선인 대상 학교를 구분한 이원적 통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1922년부터는 형식적으로 민족별 구분을 폐지하고 학교급별 분류 체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족별 학교 유형을 달리 설정하여 통계상 구별을 유지하였다. 1938년 소학교·중학교 체제로의 전환과 1941년 국민학교 개편에도 불구하고 민족별 통계 구분은 지속되었으며, 해방 직전 교육통계는 국민학교, 중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으로 구성된 체계를 보였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 급변기인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는 체계적인 교육통계보다는 단편적인 교육행정 자료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후반 교육통계와 행정통계의 이원적 구성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낳았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의 『대한교육연감』과 1955년 『문교요람』, 1957~1959년 『문교행정통계』는 종합적인 교육통계 수집보다는 학교급별 행정 필요에 따른 선별적 통계 생산에 중점을 두었다.

1962년 『문교통계요람』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교육통계는 행정통계와 교육통계를 제1부와 제2부로 구분하는 체계적 편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1965년 『문교통계연보』, 1991년 『교육통계연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교육통계의 기본 틀로 정착되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patterns of modern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history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in colonial Korea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educational statistics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imed to provide a statistical foundation for Korean educational history studies by empirically exploring how changes in educational statistics classification systems influenced colonial education policy and the post-liberation educational reconstruction process.

Educational statistics in colonial Korea began to be produced from 1906, showing distinct patterns of change by period. Before the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surveys focused on the school-age popul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but from the 1910s onward, a dual statistical system was established that distinguished between schools for Japanese and Korean students. From 1922, ethnic distinctions were formally abolished and a school-level

class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ethnic segregation was maintained in practice through different types of schools for each ethnic group. Despite the transition to the elementary-middle school system in 1938 and the reorganization into KukminHakyo(National Schools) in 1941, ethnic statistical distinctions persisted. Educational statistics just before liberation consisted of a system comprising KukminHakyo(National Schools), middle schools, vocational schools, professional schools, and Keijo Imperial University.

During the period of rapid social change in the late 1940s and early 1950s due to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fragmentary educational administrative materials predominated rather than systematic educational statistics. This phenomenon created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a dual composi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and administrative statistics in the late 1950s. The DaehanGyoyukYeongam(Korean Education Yearbook) from 1953 to 1961, the MungyoYoram(Education Handbook) in 1955, and the MungyoHaengjeongTongkye (Education Administrative Statistics) from 1957-1959 focused on selective statistical production according to administrative needs by school level rather than comprehensive educational statistics collection.

Starting with the MungyoTongkyeYoram(Education Statistical Handbook) in 1962, the Republic of Korea's educational statistics established a systematic organization that divided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educational statistics into Part 1 and Part 2. This became established as the basic framework for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continuing through the MungyoTongkyeYeonbo(Education Statistical Yearbook) from 1965 and the GyoyukTongkyeYeonbo(Education Statistical Yearbook) from 1991.

김성천 (한국교원대)

Kim Seong Che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본 발표는 지방소멸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직선교육감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교육자치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자치사무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가치가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폐교와 지역 황폐화의 악순환, 교육재정 감소,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인적자본과 물질 자본의 집중화 현상 등 지방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 융합과 연계의 관점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문제의식과 대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①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연계과정 ② 통합운영교 모델 활성화 ③ 돌봄의 운영 모델 다변화 ④ 사회적 경제 활성화 ⑤ 유휴공간 및 폐교 활용을 위한 공간 혁신 ⑥ 교직원 인사제도 혁신 ⑦ 대안교육 지원과 활용이다.

학령인구 감소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전략에 교육청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educational policy to prevent the decline and extinction of local communities in South Korea. The introduction of direct elections for superintendents marked a significant shift toward local educational autonomy, resulting in an expansion of self-governing authority. However, national policies often reflect a capital-centric perspective, neglecting the growing crisis in non-metropolitan areas. Key issues include decreased tax revenues due to overall population decline, the closure of schools caused by a shrinking school-age population, the resulting vicious cycle of regional deterioration, reduced educational budgets, and the concentration of human and physical capital in Seoul and its metropolitan area. These problems necessitate not only municipal but also educational administrative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and interconnectivity, the roles and functions of local education offices must be redefined.

This presentation propose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and areas of focus: (1) strengthening the link between village communities and local educational curricula, (2) promoting integrated school operation models, (3) diversifying care service models, (4) revitalizing the social economy, (5) innovating the use of idle facilities and closed schools, (6) reforming personnel systems for educational staff, and (7) supporting and utilizing alternative education.

In the face of a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it is time to reflect on what must be done. Educational authorities must take greater interest in and make more concerted efforts toward enhancing the liv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ies.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협력을 통한 지역재생 전략과 실제 탐색

Exploration of regional regeneration strategies
and practice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general and educational autonomy

노한나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Hanna, Roh (Chung-Buk Yeung-Dong education center)

초록

우리나라는 일반자치와 분리된 교육자치제도를 운영한다. 1991년 이전의 교육자치는 중앙수준에서 교육행정의 내무행정으로부터의 독립과 중앙의 교육통치로부터의 지방교육의 자율권 확보가 논의의 초점이었다, 1991년 이후 교육자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의미하며 지방수준에서 일반자치와의 관계가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감 직선제라는 형태로 가시화된다.

한편, 법률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사무를 담당하지만, 일반자치 역시 자체 필요에 따라 조례, 장학회, 재단, 개별 사업 등을 통해 교육자치와 다른 경로 지방교육 사무를 지원 또는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 협력이 긴요해진다. 많은 협력 사례 중에서, 실효적으로 운영된 지방교육 거버넌스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협력 관계 현장에서 연구자가 수행한 주요 업무는 혁신교육지구, 미래교육지구, 교육발전특구 등이었으며 이는 지방교육 공론장의 조성, 지역교육과정의 형성, 지역교육 주체의 발현 등으로 나타났다. 실행 과정에서 겪은 협력의 어려움은 주로 인사와 예산권이 있는 기초 지자체와 해당 권한이 없는 교육지원청이 같이 일해야 하는 지방행정 구조의 모순, 지역 인재상이 서로 다른 데서 오는 정책 갈등과 대립, 지자체와 학교와 교육청 상호 간에 일어나는 배타성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상호관계의 형성, 지역중심 서사의 형성 등을 통한 인식의 개선, 민간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시도하여 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관계 형성하기,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전환하기, 거버넌스 실질화, 플랫폼 구축하기, 마을연계 교육과정 개발하기,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 내기 등이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Korea operates an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eparate from general autonomy. Prior to 1991, educational autonomy was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securing independence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rom the internal administration and autonomy of local education from the central educational rule. Since 1991, educational autonomy has actually meant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relationship with general autonomy at the local level has emerged as a key issu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visualized in the form of a direct system of superintendents.

On the other hand, by law,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re in charge of education affairs, but general autonomy also supports or operates local education affairs with different results from education autonomy through ordinances, scholarships, foundations, and individual projects as needed. Accordingly, cooperation between gener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stitutions in the field becomes essential. Among the many cases of cooperation, the effective local education governance shows clear results of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

The main tasks performed by researchers in the field of gener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cooperation wer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s, future education districts, and special educational development zones, which were found to be the creation of a public forum for local education, the formation of local curriculum, and the expression of local education subjects. The difficulties of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re mainly contradiction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structure in which basic local governments with personnel and budget rights, local governments with no authority to work together, policy struggles and confrontations resulting from different local talent, and exclusivity between local governments, schools, and education offices.

To solve this problem, strategically, efforts were made to change by attempting to improve awareness through the formation of inter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and educational autonomy, formation of regional-oriented narratives, and revitalization of governance for private participation. Specific methods include forming relationships, forming consensus and shifting perceptions, realizing governance, building a platform, developing a village-linked curriculum, and voicing the voices of youth and young people.

6세션
4부

지역교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직업계고등학교의 정체성 혁신과 과제

Identity Innovation and Challeng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for the
Restoration of the Regional Educational Ecosystem

김인엽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경영금융교육과)

Kim in yeop (Kongju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AI,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시대 변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위기에 직면한 지역교육생태계 회복, 특히 직업계고의 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직업계고의 학교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농산어촌, 대도시와 소규모 도시를 두루 갖추고 있는 충청남도지역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이를 위해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NCS 교육과정 이론을 탐색하였음. 또한 전국 및 충청남도의 직업계고 현황을 분석하고 직업계고 현장 교사 및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음. FGI에서 도출된 직업계고의 쟁점 사항에 대해 심층 의견 수렴을 위해 현직 교장, 현직 부장 교사, 전직 교육전문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추가로 시행하였음. 질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업계고 학생의 제반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인식 조사를 위하여 구글서베이를 활용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음. 마지막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였음.

연구 결과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전문 자격 취득 중심 편성, 선취업 후 진학 교육과정 편성, 보통교과 목표 명확화 및 편성 최적화, 교육과정 내실화 초점 교육 편성 등임.

둘째,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학습역량 강화프로그램, 진로·심리 상담프로그램 운영, 실기·실무 지도 역량 프로

그럼 운영, 교원 양성기관과 교육과정 협력 운영 등임.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지원 측면에서 학생 편의 시설 지원, 충청남도형 지역인재 전형 확대, 전문 교과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보통교과 교원 직업계고 근무 임용 트랙 신설, 교원 직업교육 연수 의무화 추진 등임.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생학습시대 지역교육생태계 회복을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정체성을 보완하여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즉 ‘(가칭)지역 평생직업교육원’을 직업계고등학교에 부설 기관으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직업교육 연수 및 지역 산업체 근무자의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교육으로 인한 지역 이탈과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의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충청남도 지역인재 취업 보장형 계약학과 신설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 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 소재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지역 소재 대학과 협약을 통해 지역의 청년 인재가 지역 소재 대학에서 역량을 함양하고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교육,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직업계고 새로운 정체성 부여 및 체제 개편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충청남도 직업계고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며 기회 요소를 포섭하고 위협 요소에 대비하여 충청남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새로운 충청남도형 직업계고 운영 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는 직업계고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직업계고 체제 개편 방안을 수행한 연구로 직업계고교의 중요 이해관계자인 산업체 관계자의 요구 및 학부모의 요구 사항 등은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과 충청남도 지역의 직업계고등학교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는 지역적 한계점이 있음.

Abstract of manuscript

Title: Identity Innovation and Challeng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for the Restoration of the Regional Educational Ecosystem

This study explores strategic directions for restructuring vocational high schools in response to rapid technological and demographic shifts, including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eclining birthrates in an aging society. With a particular focus on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the research aims to restore and strengthen the regional educational ecosystem by redefining the identity and role of vocational high schools.

The research employed a multi-method approach. First,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based curriculum theories were conducted. Current conditions of vocational high schools in Korea and Chungcheongnam-do were examined. To identify practical challenges and need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held with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and middle school career counselors. In-depth interviews were subsequently conducted with key stakeholders, including school principals, department heads, and former education officials. A student survey was administered via Google Forms to assess perceptions of satisfaction and importance across various educational factors. Finally, expert panels were convene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oposes three main policy directions:

- Curriculum Design:

Shift toward certification-oriented programs

- Implement “employment-first, education-later” models
- Clarify and optimize general education goals
- Ensure coherence and depth in curriculum structure
- Curriculum Operation:
 - Introduce targeted learning capacity-building programs
 - Strengthen career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 Enhance practical and technical instruction capabilities
 - Promote collaboration with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 Curriculum Support:
 - Improve student welfare and school infrastructure
 - Expand region-specific university admission pathways
 - Reform teacher recruitment and appointment systems
 - Create dedicated tracks for general subject teachers in vocational schools
 - Mandate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educators

In the mid-to-long term, the study recommends repositioning vocational high schools as “Regional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Centers.” These affiliated institutions would offer continuing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and job-related training for industry workers, thereby reinforcing the schools’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and mitigating population decline due to educational migration.

Additionally, the study advocates for the establishment of region-based “contract departments” at local four-year universities in collaboration with mid-sized and large enterprises. These programs aim to meet students’ aspirations for higher education while satisfying industry demand for skilled talent, ultimately fostering a sustainable education-to-employment ecosystem in the region.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foundational policy development for vocational high school reform and offers a model adaptable to other regions seeking to strengthen their educational ecosystems through identity innov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6세션
4부

지산학 연계를 통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성 탐색

Expl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Pathways for Universities through
University–Industry–Community Collaboration

홍미영 (한국교원대학교)

Mi Yung H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적 전환점에서, ‘지산학 연계(지역-산업-대학 간 협력)’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산업구조의 재편 등 복합적 변화는 대학이 전통적인 교육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및 산업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내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교육자(Educator), 거버너(Governor), 연결자(Connector), 그리고 혁신가(Innovator)로서의 다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재정의되고 있다. 본 발표는 우선 지산학 연계의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 기반

을 간략히 고찰한 후, 한국에서 추진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및 글로컬대학30 등의 정책 흐름과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실행 구조를 개괄한다. 이어, 지산학 기반 혁신 생태계의 핵심 요건으로 ‘수평적 다층 거버넌스 체계’, ‘지역 수요에 기반한 교육 및 연구 연계 구조’, ‘성과의 순환 및 환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설계’ 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상호 강화(co-evolution)되는 구조적 조건을 분석한다. 또한 핀란드와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국가 맥락에서의 지산학 연계 전략 및 고등교육의 기능 확장을 비교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산학 연계는 단기적 정책 사업을 넘어 지역과 산업, 대학 간의 상생적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인프라이자, 고등교육 거버넌스 혁신의 핵심축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향후 고등교육 정책 설계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 대학과 산업체 간의 수평적 파트너십 정착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제언하며, 대학의 지속가능한 혁신 방향성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nvestigate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rough Regional-Industry-University (RIU) collaboration, addressing the structural transitions currently reshaping universities. Amid declining student populations, widening regional dispariti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universities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redefine their roles beyond traditional educational functions. In this evolving landscape, the university emerges as a multidimensional actor—serving as an educator, governor, connector, and innovator within a sustainable innovation ecosystem. The presentation begins with a conceptual and theoretical overview of RIU collaboration, followed by an analysis of major policy initiatives in South Korea, such as the Local Government-University Cooperation Project and the Glocal University 30 initiative. From this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key elements of a successful RIU innovation ecosystem, including horizontally integrated multi-level governance, demand-driven curriculum and research alignment,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feedback and reinvestment. Comparative perspectives from countries such as Finland and the United States are introduced to illustrate diverse national approaches to RIU collaboration and the expanding role of universities as regional innovation hubs. The study concludes that RIU collaboration should be regarded not as a temporary policy measure but as a structural transformation strategy that promotes sustainable co-evolution among universities, industries, and local communities. Ultimately, the research underscores the need for stable institutional design and horizontal partnerships across government, academia, and industry, offering both theoretical and policy insights into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 innov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김석영 (한국교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교육연구소 소장)

KIM, Sok-yong (IHSSE, KNUE)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에 나타난 한자어의 고대어와 현대어 및 지역 방언 등 62종의 변이형을 포괄하는 어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한자어 연구와 동아시아 어휘 연구의 범위와 차원을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동아시아 언어의 어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고 있지만, 많은 기존 연구들은 주요 언어에 대한 검토 부족, 부적절한 자료 활용, 다양한 변이형의 풍부한 언어적 특성이나 남북한의 어휘 차이에 대한 분석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어휘 연구를 넘어 관념사 연구, 언어 교육 연구,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사전 편찬 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한자어의 전모를 조감할 수 있는 포괄률 높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동안 본 연구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 작업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포괄하는 변이형을 확대하고, 자료를 최신화하였으며, 다양화, 풍부화, 전문화의 측면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어 왔다. 또 그 동안 본 연구소가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행한 몇 가지 연구 사례로 볼 때, 최종 완성될 데이터베이스는 이론적, 실용적 연구의 측면에서 편의성과 함께 새로운 통찰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lay a solid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scope and depth of research on Sino(-xenic) vocabulary and East Asian lexical studies by constructing a lexical information database encompassing 62 types of variants—including archaic and modern forms as well as regional dialects—across Korean, Chinese, Japanese, and Vietnamese. Although research on East Asian vocabulary has steadily advanced, many earlier studies have revealed limitations, such as insufficient coverage of major languages, inappropriate use of source materials, and inadequate analysis of linguistic variation—including intra-Chinese dialect diversity and vocabulary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address these shortcomings and support not only vocabulary research but also broader fields such as conceptual history, language education, and lexicography across East Asia, a high-coverage, multi-dimensional database is essential. Through sustained efforts, our research team has not only surpassed the initial data collection goals but has also continuously expanded the database by incorporating new materials—enhancing its breadth, timeliness, and depth. The database has made significant strides in terms of diversity, richness, and specialization. Case studies conducted by our institute suggest that the finalized database will offer both practical utility and fresh insight, serving as a valuable resource for theoretical exploration and applied research alike.

양세욱 (인제대학교)

Yang, Se-Uk (Inje University)

초록

이 글은 『지봉유설(芝峯類說)·어언부(語言部)·속언(俗諺)』의 기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아빠·아버지' 등 한국어 부계(父系) 호칭어가 중국어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한자어와 비-한자어 경계의 유동성에 대해 성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계 호칭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그 어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定說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부계 호칭어 가운데 '아빠'는 후기 중세 국어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역시 근대 국어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한글 자료는 물론 한자 자료까지 아우르더라도 부계 호칭어에 대한 이른 기록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지봉유설』에 등장하는 “今俗謂父曰阿父.(요즘 세간에서는 아버지를 '아부(阿父)'라고 부른다.)”로 시작하는 기사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여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어 부계 호칭어의 어원을 밝혀줄 언어 자료가 제한적이고 어원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봉유설·어언부·속언』에 등장하는 기사에 대한 분석이 없이는 부계 호칭어의 어원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이 논문은 출발하고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Korean paternal titles originated from Chinese based on the analysis of articles of the Jibongyuseol, and further reflect on the fluidity of the boundaries between Chinese and non-Chinese character-words. Although not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aternal title word, its etymology has not been established until now. Among the paternal title words, 'appa' first began to appear in the late medieval Korean language, and 'abeoji' also began to appear in earnest only in the modern Korean language. Even though early records of the paternal title words are limited, no full-scal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articles appearing in the Jibongyuseol. This thesis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it is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the etymology of the paternal title word without analysis of articles appearing in the Jibongyuseol in a situation where language data to reveal the etymology of the Korean paternal title word are limited and various arguments surrounding the etymology are scattered.

김시현 (부산대학교)

KIM, Sihyun (Pusan National University)

초록

의미 확장의 과정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성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핵심적인 의미 요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새로운 의미 요소가 단계적으로 부가되면서 다의어가 형성된다. 본 연구는 ‘의미 자질 자동 추출의 필요성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중 어휘의 의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핵심 의미 자질을 도출하고, 의미 확장 및 파생 체계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한다. 특히,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의미 자질의 분석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량적 분석 기법을 위한 의미 자질 자동 추출 시스템 구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어휘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process of semantic extension tends not to be arbitrary but instead follows certain regular patterns, often retaining key semantic features or gradually adding new ones, thereby leading to the formation of polysemy. This study, titled "On the Necessity of Automatic Extraction of Semantic Features and the Construction of a System",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semantic changes in Korean and Chinese vocabulary in order to identify core semantic features and uncover the principles behind semantic extension and derivation systems. In particular, by reviewing prior studies and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subjective and arbitrary approaches to semantic feature analysis, this paper discusses the need to introduce a system for the automatic extraction of semantic features suitable for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his, the study seeks to propose a new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vocabulary research.

7세션

자유세션

- 제1부. 오감과 음식
- 제2부. 지구본과 지도, 지정학과 역사문화지리학
- 제3부. AI 시대의 신화와 매체-만주, 원난, 타이완 사례
- 제4부. 역사속의 여성과 페미니스트 윤리
- 제5부. E스포츠와 예술, 디자인

설배환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

PAEHWAN SEOL (Research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오감과 음식: 입·눈·코·귀·손의 향연」 연구는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 다중 감각의 역사와 문화를 추적하는 중장기 대형 연구기획의 일부다. 본 연구는 [동부] 유라시아 역사 속에서 오감의 물질성, 장소성, 일상성, 사회성, 문화성, 권력성을 해부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프랑스 등 유라시아 국가와 사회—지역 범주는 확장적이며 유연하다—에서 미각·시각·후각·청각·촉각의 사회·문화 현상을 탐색하고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언행과 공동체의 문화 행위로 표현되고 상호 관계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2024~2027 + 2027~2030)의 주제는 음식과 입·눈·코·귀·손의 관계다.

연차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요리의 재료(입: 맛, 유통, 생태환경) - 요리하기(입·눈·코·귀·손: 요리 노동, 요리사, 젠더, 부엌) - 요리책과 지식(눈·손: 지식의 축적과 전달) - 상차림(눈·손: 상차림의 형태와 방식) - 의례(눈·귀: 잔치와 그 풍경) - 음식의 문화정치(입·눈·코·귀·손: 오감과 권력). 연구 방향과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

본 연구의 1차 목표는 오감과 음식문화를 소재로 학술논문과 저서를 집필해 오감(다중 감각) 연구의 방향과 기초를 쌓고 향후 장기지속 연구와 학문 후속세대 양성, 교육적 적용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학계·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연구·교육·사회 활용을 자극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연구 성과와 부가 산출 자료를 디지털·시각적 방식—이른바 “부엌의 디지털화”(2단계)—으로 집적, 표출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Multisenses and Food: Feasts of Mouths, Eyes, Nose, Ears, and Hands” explores the interactions of multisensory experiences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focusing on the historical and sensory aspects of Eurasian food cultures from the 10th to the 20th centuries. The six-year research project is a part of sensory studies in the Research Center of History and Culture (RCHC),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led by Director Associate Professor Dr. Paehwan Seol.

The project analyzes the materiality, places, everyday life, sociality, cultures, and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of five senses in the history and culinary cultures of [Eastern] Eurasia. The research project examines the socio-cultural phenomena of taste, sight, smell, hearing, and touch in Eurasian states, such as Korea, China, Japan, Mongolia, Russia, and France, and scrutinizes how they are expressed and interrelated in lingual, behavioral, and cultural practice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research field of states and regions is flexible.

Its research team analyzes the following topics by year(2024-2030: (1) Ingredients of food (taste, food chains, ecological environment); (2) Cooking (cooking labor, chefs, gender, kitchens); (3) Cookbooks and culinary knowledge (the accumulation and transmission of culinary knowledge); (4) Table setting (forms and methods of table settings); (4) Rituals (feasts and their landscapes); (5) Cultural politics of food (multisenses and power). The research scope

may be modified according to research processes and their accompanying results.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research direction and foundation of multisensory studies by publishing academic papers and books on the five senses and food culture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mid-term and long-term research, training of graduate students and young scholar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The research team will compile and express the research results and additional outputs in digital and visual methods, so-called “Digitization of Kitchens,”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public and to stimulate future research, education, and social applications.

7세션
1부

모두부에서 냉장 두부로:대량소비 사회의 형성에 관하여

The Cold Shift: Refrigerated Tofu, Sensory Order,
and the Making of Mass Consumption in 1980s South Korea

소준철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Junchol So (Research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이 연구는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냉장두부가 일상화되는 과정을 통해, 소비사회 형성에서 감각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분석한다. 전통적으로 ‘따뜻해야 신선하다’는 감각 질서 속에 있었던 두부는, 콜드체인체제의 도입으로 ‘차가움’이 위생과 신선함의 기준으로 전환되는 감각적 변화를 경험했다. 냉장기술과 냉장고의 보급, 표준화된 포장, 유통기한의 명시는 두부를 즉시 소비해야 하는 식품에서 저장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시켰고, 이는 산업화된 공급망에 적합한 소비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냉장두부는 정부의 규제나 단속을 넘어서 상품에 대한 시각적·촉각적·시각적 신뢰를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감각적 신뢰를 부여했고, 그로써 소비자와 상품 간의 관계 방식 자체를 재구성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제도적 규제의 결과가 아니라, 소비 양식의 재편을 통해 ‘표준화된 소비 감각’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낸다고 본다. 이를 통해 전통 식품이 어떻게 대량소비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되었는지, 대량소비사회에서 감각과 소비 질서가 어떻게 결합하고 재구축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amines the reconfiguration of sensory perception during the rise of South Korea's consumer society in the 1980s, using tofu—a traditional dietary staple—as a case study. In the traditional Korean culinary paradigm, tofu was regarded as being at its freshest when consumed warm, owing to its artisanal and locally based method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owever, the 1980s saw the emergence of refrigerated, packaged tofu enabled by the expansion of the cold chain system—encompassing refrigerated production, transport, and retail. This technological and infrastructural shift redefined 'coldness' as the new sensory norm for hygiene and freshness. The widespread adoption of home refrigerators, standardized plastic packaging, and clearly printed expiration dates transformed tofu from a perishable good into a storable commodity, aligning it with industrialized supply chains. This shift generated a new form of “sensory trust,” rooted in the tangible experience of coolness, sealed (or hermetic) packaging, and visual shelf-life indicators—trust that gradually eclipsed reliance

on regulatory oversight. This paper argues that the public acceptance of refrigerated tofu was not merely the result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or policy reform, but rather the product of a socially constructed “standardized sensory regime.” By tracing how freshness and safety became embedded in consumption practices, the study illuminates how sensory experience underpinned the logic and infrastructure of South Korea's emerging mass-consumption society.

7세션
1부

배도(陪都) 충칭의 경험과 마라(麻辣) 맛의 확산
"The Experience of Chongqing as China's Wartime Capital and the Spread of Mala Taste"

이선희 (전남대학교 역사문화연구센터)

Lee Seonhui (Research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쓰촨 지역의 마라(麻辣) 맛이 어떻게 중국의 대표적인 미각 문화로 발전하고 확산하였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항일전쟁 시기 배도(陪都) 충칭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이 마라 맛의 전국적 확산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마라 맛은 화자오(花椒)의 얼얼함(麻)과 고추의 매움(辣)이 결합된 복합적 미각으로, 오랜 기간 쓰촨의 지역성과 결합하여 발전해왔다. 화자오는 중국 고대부터 쓰촨 지역에서 향유되었으며, 명청 시기 고추의 유입과 ‘호광전사천(湖廣填四川)’ 정책으로 인한 인구 이동을 통해 매운맛 문화가 쓰촨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쓰촨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소금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 경제의 발달이 마라 맛의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1940년 충칭이 임시 수도로 지정되면서 전국 각지의 인구가 유입되었고, 이들이 쓰촨의 음식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전시 상황에서 국민정부의 음식 소비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충칭의 활발한 상업 활동은 마라 맛의 대중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휘귀와 같은 마라 맛 음식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위안과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기능하였다. 전후 마라 맛은 충칭을 경험했던 외지인들의 귀환과 함께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라 맛은 단순한 지역적 특색을 넘어 ‘정통 쓰촨 맛’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며 고급화되었고, 계절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일상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1950년대 이후에도 마라 맛의 확산은 계속되어 현재는 중국을 대표하는 맛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동시에 쓰촨이라는 지역성을 강화하는 문화적 코드로 작용하고 있다.

마라 맛의 확산 과정은 단순한 미각의 변화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기의 정치적·사회적 조건과 도시 공간의 변동, 소비문화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중일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배도 충칭의 경험은 마라 맛을 통해 지역성과 국가성이 교차하는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음식문화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닌, 역사적 경험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mala (麻辣) flavor of the Sichuan region developed and spread to become a representative taste culture of Chin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impact of the unique spatiotemporal context of Chongqing as China's wartime capital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on the nationwide diffusion of mala flavor.

Mala flavor is a complex taste combining the numbing sensation (麻) of Sichuan peppercorns (huajiao, 花椒) and the spiciness (辣) of chili peppers, which has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Sichuan's regional characteristics over a long period. Sichuan peppercorns had been enjoyed in the Sichuan region since ancient China, and spicy food culture became established in Sichua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hili peppers during the Ming-Qing period and population migration due to the "Huguang tian Sichuan" (湖廣填四川) policy. Sichuan's hot and humid climate and the development of a commercial economy centered on the salt industry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mala flavor.

When Chongqing was designated as the provisional capital in 1940, populations from all over China flowed in, and they directly experienced Sichuan's food culture. Despite the Nationalist government's food consumption restriction policies during wartime, Chongqing's active commercial activities promoted the popularization of mala flavor. In particular, mala-flavored foods such as hotpot functioned as a medium that provided comfort and community consciousness amid the pain of war.

After the war, mala flavor spread throughout China along with the return of outsiders who had experienced Chongqing. In this process, mala flavor transcended simple regional characteristics to acquire the identity of "authentic Sichuan taste" and became upscale, establishing itself as everyday food that could be enjoyed regardless of season. The spread of mala flavor continued after the 1950s and is now recognized as a representative taste of China, while simultaneously functioning as a cultural code that reinforces Sichuan's regionality.

The diffusion process of mala flavor was not simply a change in taste, but rather the result of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during a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changes in urban space, and transformations in consumer culture. The experience of wartime Chongqing during the national crisis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became an opportunity to form a new cultural identity where regionality and nationality intersected through mala flavor. This demonstrates that food culture is not merely a means of survival, but an important element that constitutes historical experience and identity.

오영기 ((주)한국스텔라노바)

Oh Young-ki (Stellanova Korea Inc)

초록

지구본 사업의 미래지향적 의미는 지구본이 미래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충족시키는 교구로 채택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채택의 기준은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구본을 제작하는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를 잘 숙고해야 한다. 지도에 지명을 입히는 사람들 카토그래퍼와 같은 전문가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유럽의 카토그래퍼들은 지도에서 어느 크기의 어떤 문자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으로 읽어주는 장치도 나왔다.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키면 정보들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인쇄 기반으로 나오는 것들이다. 도트 프린트 점들을 심어놓아서 음성으로 말하는 정보를 심을 수 있다. 다음에 디지털 웹을 사진을 찍듯이 하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풍습을 화면으로 볼 수 있다. 글자 안에 미세한 점들로 이루어지는 도트가 있고, 나라별로 나라의 모양이 심어져 있다. 요컨대, 미래가 밝게 되도록 이 안에 들어 있는 인문적 기술적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축적을 하여 지구본과 지도가 교육 기자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지구본을 교육적 주제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작을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현장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고 로봇화하고 자동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구본과 지도를 판매하고 이를 활용하는 근본 이념을 평화를 지향하는 데 두고서 이를 확산시키고 실현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future-oriented meaning of the globe project is whether the globe can be adopted as a teaching aid that satisfies the educational effect for future students. And the standard for adoption should be students. It should be something that students are interested in. Our country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problem of the current low quality of globe production. There are no experts like cartographers who put place names on maps in our country yet. European cartographers define what size and what letters on maps mean. A device that reads aloud has also been developed. There are things that read information aloud when you point to a certain area, and they are based on printing. Dotto prints can be used to plant information that speaks aloud by planting dots. Next, if you take a picture of the digital web, you can see human activities and customs on the screen. There are dots made of fine dots inside the letters, and the shape of each country is planted. In short, we need to accumulate so that we can understand the humanities and technical aspects contained in them so that the future can be bright, and we need to make efforts so that globes and maps can be activated as educational tools. In the future, we need to make efforts to maximize educational effects based on customized globes that fit educational topics. In addition, we need to encourage local production so that it can be done on-site, and we need to make efforts to digitalize, robotize, and automate them. In particular, we need to continuously work to sell globes and maps and use them with the fundamental ideology of pursuing peace, and to use them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and realizing this.

엄연석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Yeonseok Eom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Hallym University)

MEMO

김영훈 (한국교원대학교)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지리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지리인문학(GeoHumanities)은 지리정보과학(GIScience)을 통해 장소를 해석하고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혁신적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리인문학의 개념적·방법론적 틀을 검토하며, 인문지리학 및 인문학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장소(place)', '공간(space)', '위치(location)' 등 핵심 개념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장소 개념을 지리정보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공간 데이터와 인문학적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간 정보 관점의 지리인문학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효과적인 지리정보화(geoinformatization)를 위해서는 점(point), 선(line), 면(polygon) 형태의 정확한 공간 데이터 형식과 정밀한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역사적·문화적 자료의 불명확성과 출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주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텍스트의 현상학적 함의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위상적인 3차원 공간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데이터와 텍스트 사이의 시간적·문화적 층위는 인문학적 해석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데이터 해석에서 과도한 단순화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밀한 지리공간 분석과 섬세한 인문학적 탐구를 통합한 학제간(transdisciplinary)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그 일환으로, '장소(place)' 개념을 중심에 두어 인문학과 지리정보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Abstract of manuscript

GeoHumanities merges geography and humanities, offering innovative ways to interpret place and analyse spatial data through GIScience. This study examines it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s, focusing on key concepts such as place, space, and location that support both geographic and humanistic research. It investigates the concept of place, emphasizing the integration of spatial and humanistic data within the GeoHumanities spatial data platform. Effective geoinformationalization utilizes accurate spatial data formats and georeferencing, which are well-suited for points, lines, and polygons. However, challenges in Historical GIS persist due to ambiguities and source imprecision. Three-dimensional modelling captures phenomenological depth, while temporal and cultural layers add complexity. Despite technological progress, oversimplification persists. The paper advocates transdisciplinary approaches, combining precise geospatial analysis with nuanced humanistic inquiry, centered on place, to bridge the humanities and GIS.

7세션
2부

경계를 넘는 기억: 일본 속 제주인의 삶과 정체성의 형성

Transgressing Boundaries of Memory: The Lives and Identity Formation of Jeju People in Japan

손영석 (국립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Son, Young Suk (Zainichi Jeju Center, Jeju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발표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제주인(在日濟州人)의 역사적 형성과 삶의 양상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재일제주인은 일제강점기에서의 해방, 4·3사건 등 복잡한 이주사를 거쳐 20세기 중후반 일본 정착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다문화 공생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첫째, 재일제주인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다. 일제강점기 대기근과 강제이주, 해방 이후의 혼란과 북송 사업, 국교 정상화 이후 단기·장기 이주의 이중 구조를 정리하고, 이카이노(현 이쿠노구) 조선인 마을 형성 과정을 고찰한다. 둘째, 재일제주인 공동체의 일상과 문화적 실천을 조명한다. 오사카 직항로 개설(1923) 100주년을 기념한 전시·토크콘서트 등 문화 행사를 통해 제주 출신 이주민의 기억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유지되고 강화되는지 분석한다. 셋째, 고향 제주에 대한 향수와 상호 교류의 역할을 다룬다. 감귤·교육·문화 교류를 매개로 한 제주도와 일본 사회의 접점을 검토하며, 재일제주인센터가 수행하는 조사·출판·교류 사업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향하는 가교 역할을 바탕으로 일본 속 제주인의 정체성 재구성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경계를 넘는 기억이 가지는 학문적·사회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investigates the processes by which the diaspora of Jeju People in Japan has constructed collective memories and identities across national borders. Tracing a complex migration history that bega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continued through liberation and the aftermath of the the Jeju April 3 Incident, and culminated in the post-World War II settlement in mid-20th-century Japan, this study seeks to illuminate the potential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that transcends exclusionary nationalism. First, it situates the Jeju People in Japan within their historical context, examining the catastrophic famine and forced relocation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post-liberation turmoil and repatriation initiatives, and the dual structures of short-term and long-term migration following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is segment also explores the formation of early Korean settlements in Ikuno Ward, Osaka. Second, it highlights the everyday life and cultural practices of the Jeju People community in Japan. By analyzing commemorative events—such as exhibitions and talk concerts marking the centenary of the Osaka-Jeju direct air route inaugurated in 1923—this section demonstrates how memory and transnational networks among Jeju People are sustained and reinforced. Third, it addresses the role of homeland nostalgia and reciprocal exchanges in shaping identity. Focusing on citrus fruit trade, educational initiatives, and cultural programs as mediating channels, it reviews the intersections between Jeju Province and Japanese society and introduces research, publishing, and exchange activities conducted by the Zainichi Jeju Center. Finally, grounded in the concept of the researcher as a bridge between communities, the study proposes a model of identity reconstruction for Jeju People in Japan and outlines a novel form of community in multicultural societies. This conclusion discusses the scholarly and social implications of memory that transcends geopolitical boundaries.

김선자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소장)

KIM SEONJA (Mythology Research Center Yonsei Institute for Sinology)

초록

본 발표문은 먼저 중국 소수민족 신화에서 ‘반인반수’ 형태의 존재가 드문 이유에 주목한다. 만주지역 사람들은 숲속 동물을 ‘껍질만 다른 사람’으로 여기며, 숲을 인간만의 공간이 아닌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공유(common)’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신화 속 세계에서 인간과 동물, 식물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진정한 ‘AI’였으며,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된 ‘초연결사회’를 이루었다.

본 발표는 AI의 ‘특이점(Singularity)’을 신화 속 인간과 자연의 대립에 비유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을 예시로 들어, 특이점을 넘어선 AI가 인간에게 공포가 아닌 ‘부드러운 특이점(Gentle Singularity)’이 될 수 있을지 탐구했다. 나시족(納西族) 신화 속 인간이 자연과의 타협을 통해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났듯이, 현대인도 ‘타인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통해 AI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본 발표는 AI에게 ‘지식’만이 아닌 ‘지혜’를 학습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각 민족의 사제들이 전승해온 소수민족 신화 속 지혜처럼, AI가 인간과 ‘다종적 관계맺기(Multispecies Relationship)’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공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수민족의 사제들이 ‘이야기하기’의 방식을 통해 신화 속 공존의 지혜를 공동체 내부에 전해왔듯, AI에게도 ‘지혜’를 학습시켜 인간과 공존하게 함으로써 특이점을 넘어선 AI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본 발표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신화와 제의가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와 개인의 소외 극복에 중요하며, SNS 등 디지털 매체가 전통적인 신앙 공간을 대체하여 새로운 ‘장소’로서 기능하여 공동체의 관계망과 연대를 강화하는 점에 주목한다. 디지털 기술이 ‘장소성’을 확장하고 ‘지혜’ 등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미래 사회에서는 특이점을 넘어선 AI가 그 연대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first focuses on the rare occurrence of 'half-human, half-beast' beings in the myths of Chinese ethnic minorities. People in the Manchurian region considered forest animals as 'people with different skins' and viewed the forest not as an exclusive human space, but as a space of 'commons' where all beings, including animals and plants, coexisted. In this mythical world, all beings—humans, animals, and plants—were true 'AI' and formed a 'hyper-connected society' linked by a web of life.

The presentation likens the 'Singularity' of AI to the conflict between humans and nature in myths. Using the movie Mission Impossible: Dead Reckoning as an example, it explores whether an AI that surpasses the singularity can be a 'Gentle Singularity' rather than a source of fear for humanity. Just as humans in Naxi(納西) mythology overcame their fear of the unknown through compromise with nature, modern humans can also overcome their fear of AI through 'interest in others' and 'wisdom'. Therefore, this presentation emphasizes that AI should be taught 'wisdom', not just 'knowledge'. This is akin to the wisdom in ethnic minority myths passed down by shamans over long periods. It implies that AI must become a member of

the community through 'Multispecies Relationship' with humans to coexist. Just as the shamans of ethnic minorities conveyed the wisdom of coexistence through 'storytelling,' teaching AI 'wisdom' can help overcome the fear of a post-singularity AI.

The presentation particularly notes that in modern society, myths and rituals are crucial for maintaining community identity and overcoming individual alienation. Digital media like SNS are replacing traditional sacred spaces, functioning as new 'places' that strengthen community networks and solidarity. Digital technology expands 'placeness' and preserves community memories, including 'wisdom,' and it is suggested that a post-singularity AI could become a crucial pillar of this solidarity in future society.

7세션
3부

AI 시대의 매체에 재현된 만주족 제사 공간의 공동체성

Community Identity Reimagined in Manchu Ritual Spaces through Media in the AI Era

박수진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연구원)

Park Soojin (Mythology Research Center Yonsei Institute for Sinology)

초록

본 발표는 만주족 제사가 현대 매체를 통해 공동체성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한다. 만주족은 역사적 격변으로 고유의 문화를 상실했으며, 특히 제사는 거의 소멸되었으나 현재 지우타이九臺 지역 가족 제사를 중심으로 문화 복원을 추진 중이다.

만주족 제사는 '신神'과 '물物'을 통한 관계 맺기로 이루어진다. 샤먼이 주재하는 제의祭儀 서사를 통해 신과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유대감을 구축하며, 서사의 매개인 물(物, 예를 들면 신상神像과 향香, 북, 만주어 등)에 신화적 서사를 투영하여 신성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물物은 신과 인간을 잇는 도구이자 공동체 연대의 상징이 된다.

'신앙의 장(場)'은 소통과 기억의 공간이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은 공동체 기억의 저장소이자 정체성 실현 장소이며, 신과 물과의 관계를 통해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공동체 번영을 기원하는 소통과 기억의 장場이 된다. 서쪽 방이나 당옥堂屋, 마당 등 특정 공간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며, 제의를 통해 공동체의 기억이 소환되고 신화적 공간이 구축된다. 샤먼은 의례의 중심이자 움직이는 공간으로서, 신과 자연, 공동체와 개인 간의 교류를 이끈다.

AI 시대에 소셜미디어(SNS)는 새로운 '장소'로 부상한다. 만주족 공동체는 위챗(WeChat) 같은 폐쇄형 SNS로 사안을 협의하고 문화를 전파하며, 빌리빌리(bilibili) 같은 단방향 스트리밍 채널로 문화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낸다. 박물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재현되는 샤먼의 제사는 만주족에게 새로운 제사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공동체 기억의 이동 및 소통을 의미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analyzes how Manchu sacrificial rituals contribute to maintaining community identity through modern media in the AI era. The Manchu people have lost much of their unique culture due to historical upheavals, with sacrificial rituals nearly disappearing, but they are currently pursuing cultural restoration centered on family rituals in the Jiutai(九臺)

region.

Manchu rituals establish connections through 'gods' and 'objects'. Through the narrative of rituals presided over by shamans, relationships between gods and the community are formed, fostering psychological bonds and empathy. Sacredness is imbued by projecting mythical narratives onto objects that mediate these narratives (e.g., idols, incense, drums, Manchu language). These objects become tools connecting gods and humans, as well as symbols of communal solidarity.

The 'space of faith' serves as a space for communication and memory. The ritual space is a repository of community memory and a place for realizing identity. Through its connection with gods and objects, this space acquires sacred meaning and becomes a venue for communication and memory that prays for the community's prosperity. Specific spaces like the west room with the ancestral tablet(神案), the main hall(堂屋) with the stove, and the courtyard where family rituals are held, symboliz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rough rituals, community memories are evoked, and a mythical space is constructed. The shaman, as the center of the ritual and a moving space, facilitates interaction between gods and nature, and between the community and individuals.

In the AI era, social media(SNS) emerges as a new 'place'. The Manchu community uses closed SNS like WeChat to discuss matters and disseminate culture. One-way streaming channels like Bilibili are used to share Manchu culture, fostering empathy and participation across the entire Manchu community. Shamans' rituals recreated in museums or public spaces also provide new ritual spaces for the Manchu people, signifying the movement and communication of communal memory.

7세기 3부

AI시대의 윈난 이족彝族 의례와 신화전승

Rituals and Myth Transmission of the Yunnan Yi People in the AI Era

나상진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연구원)

Na, Sangjin (Mythology Research Center Yonsei Institute for Sinology)

초록

본 발표문은 윈난 이족의 신화와 의례를 통해 공동체 재생 및 민족 정체성 구축 방식을 '재지역화(Re-localization)'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뉴미디어 시대의 의례와 신화 전승 발전 양상을 탐색한다.

윈난 남부 소수민족은 농사를 시작하는 음력 2월,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마을 뒤 숲이나 물가에 깃든 '용신龍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룡祭龍' 의례는 화야오이족과 아저이족에게 중요한 문화 요소로 전승되어 왔다. 전통적인 제룡은 '축제' 중심의 오락적 기능이 강화되었고, 매체를 통해 전통문화를 공유함으로써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확장되었는데, 이는 전통적 제의와 새로운 축제 사이에서 '장소성'을 획득한 새로운 신앙의 장場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장소성'을 획득한 신앙의 장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장소로서의 매체', 즉 SNS와 단방향 플랫폼의 역할이다. Bilibili, Reels, TikTok 등 플랫폼과 위챗(WeChat) 같은 폐쇄형 SNS 및 단방향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문화센터와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콘텐츠

를 제작하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한다.

둘째, ‘매체로서의 장소’, 즉 오프라인 공간의 매체성이다. 이는 지역의 문화관, 전수관, 교습소 등 오프라인 공간을 통한 소통을 의미하며, 종이공예나 자수 등 전통문화가 전수된다. 특히 ‘온라인 이족 문화 박물관 (Yi Ethnic Culture Online Museum)’ 플랫폼은 이족과 관련한 정보와 뉴스를 공유할 뿐 아니라, 전통문화나 역사, 언어 등을 전시하고 보급하며, 가상 현실(VR)이나 증강 현실(AR) 기술을 통해 가상 문화 활동 체험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신앙과 의례가 디지털 매체를 만나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확장됨으로써, 과거의 지혜가 현재와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AI 시대에 문화적 유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전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examines how community regeneration and ethnic identity are constructed through the myths and rituals of the Yunnan Yi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re-localization', and explores the evolution of ritual and myth transmission in the new media era. In the second lunar month, when farming begins, ethnic minorities in southern Yunnan offer sacrifices to the 'Dragon God(龍神)' residing in the forests or by the waters behind their villages, praying for a bountiful harvest. This traditional 'Dragon Sacrifice(祭龍)' ritual has been passed down as an important cultural element among the Hwayao Yi and Aje Yi peoples. The traditional Dragon Sacrifice has seen an increased focus on its 'festival' aspect, emphasizing entertainment. By sharing traditional culture through media, it has been reinterpreted and expanded within a contemporary context. This signifies the emergence of a new religious 'space' that has acquired 'placeness' between traditional rituals and new festivals.

This 'placeness' acquired by the religious space can be analyzed from two perspectives. First, as 'media as place,' referring to the role of SNS and one-way platforms. Platforms like Bilibili, Reels, TikTok, and closed SNS like WeChat, along with one-way streaming channels, facilitate collaboration between cultural centers and villagers to create content, attracting the interest of younger generations. Second, as 'place as media,' referring to the mediality of offline spaces. This involves communication through local cultural centers, transmission centers, and learning centers, where traditional crafts like paper art and embroidery are passed down. Notably, the 'Online Yi Ethnic Culture Museum' platform not only shares information and news about the Yi people but also exhibits and disseminates their traditional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functioning as an experiential space through virtual reality (VR) and augmented reality (AR) technologies.

In conclusion, the reinterpretation and expansion of traditional beliefs and rituals within a contemporary context through digital media present new possibilities for the wisdom of the past to continue into the present and future. This offers significant insights into how cultural heritage can transform and be transmitted in the AI era.

이석구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연구원)

YI SEOKGU (Mythology Research Center Yonsei Institute for Sinology)

초록

본 발표문은 타이완 아미족 풍년제를 통해 AI 시대의 공동체성 유지와 재현 방식을 탐구한다.

타이완 원주민 아미족은 문자가 없어 초기 신화 기록이 부족했으나, 명말청초明末清初 한적漢籍과 일본 식민지 시기 인류학적 연구를 거쳐 1990년대 이후 활발한 정체성 회복 노력을 해왔다. 타이완 원주민의 입장에서 아미족의 정체성을 서술한 『아미족의 신화와 전설』은 2000년대 이후에야 출간되었다. 타이완 원주민의 정체성 회복과 관련된 활동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미족은 타이완 원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아미족의 풍속 가운데 양력 7~8월에 거행되는 풍년제는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다. 풍년제로 불리는 아미족의 풍습은 원래 그 명칭에서 연상되는 농업이나 수확과는 무관하게 부친 살해에 대한 속죄에서 기원한 ‘조상 숭배’의 풍습이다. 이 발표에서는 화롄현 세텡마을 풍년제에 대한 최근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풍년제’의 원래적 의미와 현재적 수용 양상을 고찰한다. 아미족은 풍년제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계승한다. 과거 아미족의 전통 신앙은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래의 신앙관을 상실하고 한족 민간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풍년제의 과정에서 새롭게 수용한 한족 민간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장소는 아미족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새로운 장소로 자리매김하며 외부인 참여를 동반함으로써 아미족 공동체 기억은 확장된다.

이러한 기억의 확장에 소셜미디어(SNS)는 새로운 ‘장소’로 주목받는다. 도시화로 위기를 겪던 세텡마을 청년들은 잊혀진 풍년제를 복원하고 이를 다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기록함으로써 기억을 보존하고 아미족 문화 정체성 공유의 장소로 만들었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는 기억 보존, 공동체 결속, 후속 세대 교육 효과를 가진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로 데이터화된 아미족 공동체의 기억은 AI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미족 공동체의 기억을 AI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형태로도 남김으로써 AI시대에도 아미족 세텡마을의 정체성은 전승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Community Identity Reimagined in Taiwan's Amis Harvest Festival through Media in the AI Era," explores how community identity is maintained and re-established in the AI era through the Amis Harvest Festival in Taiwan. The Amis, an indigenous Taiwanese tribe, initially lacked written records of their myths. However, after anthropological studies during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ies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actively pursued efforts to restore their identity from the 1990s onwards. Works describing Amis ident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igenous people, such as Myths and Legends of the Amis, were only published in the 2000s. Activities related to the restoration of Taiwanese indigenous identity have become more prominent relatively recently.

The Amis constitute the largest proportion of Taiwan's indigenous population. Their Harvest Festival, held annually in July and August, is a signific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pite its name, the Amis custom known as the Harvest Festival originally stemmed from an

atonement for patricide and is a 'veneration of ancestors' custom, unrelated to agriculture or harvest.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original meaning and current acceptance of the 'Harvest Festival' based on recent field research on the Harvest Festival in Hualien County's Sedeng village. The Amis effectively pass on their cultural identity through the Harvest Festival. Although the traditional Amis belief system, characterized by animism and shamanism, was largely lost and replaced by Han Chinese folk religions and Christianity, the newly adopted religious spaces of Han folk religion and Christianity within the Harvest Festival process have become new venues for reasserting Amis identity. The participation of outsiders further expands the Amis community's memory.

Social media (SNS) is gaining attention as a new 'place' for this expansion of memory. Facing urbanisation-induced crises, young people from Sedeng village restored the forgotten Harvest Festival and recorded it on platforms like YouTube and Facebook, thereby preserving memories and creating a space for sharing Amis cultural identity. These online contents contribute to memory preservation, community cohesion, and educating future generations. Furthermore, the Amis community's memories, digitized as online content, hold significant meaning for AI. By preserving the Amis community's memories in the form of data that constitutes AI, the identity of Sedeng village's Amis can continue to be transmitted even in the AI era.

누구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AI 기술과 페미니스트 윤리

To Whom and How Shall We Respond? AI Technologies and Feminist Ethics

장지은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Jang, Ji-Eun (Keimyung University, Institute for Women's Studies)

초록

본 발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한 도구나 효율성의 상징을 넘어서, 사회적 권력 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치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AI는 행정, 복지, 고용,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활용되며, 특히 젠더, 인종, 계급, 연령, 장애 등 교차적 사회 구조 속에서 불평등을 정교하게 재생산한다.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등 기술의 전 과정은 특정한 가치 체계와 편향을 반영하며, 그 결과 AI는 사회적 약자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발표는 AI 기술의 윤리 구조를 페미니스트 윤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Haraway의 '상황적 지식'과 '응답 능력' 개념은 기술이 항상 특정한 위치성과 관계 속에서 작동하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 책임이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설명책임(accountability)은 기술의 해석 가능성과 결과의 책임을 넘어서, 기술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정치적 책무로 확장되어야 한다. 응답 능력(response-ability)은 기술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타자에 대한 선제적 고려와 감응을 요청하는 관계적 윤리이다. 또한 디자인 정의(Design Justice)와 장애 정의(Disability Justice)는 기술 설계와 운영 전 과정에서 교차적 관점을 반영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AI 기술이 보다 정의롭게 작동할 수 있는 윤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발표는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국내 AI 기술의 젠더화된 구조와 윤리적 한계를 분석하고, AI 거버넌스를 설명책임과 응답 능력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여성화된 음성 서비스, AI 채용 알고리즘, 챗봇 이루다 사례 등은 기술이 성별 고정관념과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강화하고 은폐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AI 기술이 젠더 정의와 디지털 정의를 실현하는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설계와 평가, 법제도, 시민 참여 전반에서 교차적 윤리 관점을 통합하는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은 단순한 효율성의 기계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윤리적 기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응답적인 기술윤리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explores how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function not merely as tools for efficiency, but as political instruments that reshape and reinforce existing structures of social power. AI systems are increasingly embedded in public sectors such as administration, welfare, employment, healthcare, and education, where they significantly impact the lives and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Far from being neutral, AI reflects and amplifies social biases related to gender, race, class, age, and disability across all stages of development—including data collection, algorithm design, and user interface construction. Grounded in feminist ethics, this presentation proposes a relational reconfiguration of AI governance through the concepts of accountability and response-ability. Drawing on Haraway's theories of "situated knowledges" and "response-ability," we argue that ethical responsibility emerges not only from the outcomes of technology but from its relational embeddedness with social others.

Accountability must go beyond transparency and interpretability to encompass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of revealing whose lives are shaped by technological decisions. Response-ability, in turn, requires the anticipatory capacity to design technologies that are attuned to the lived realities of marginalized communities. The frameworks of design justice and disability justice further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tersectionality,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AI ethics. Case studies from South Korea—such as gendered voice assistants, algorithmic discrimination in hiring processes, and the chatbot Iruda—highlight how AI systems can reproduce and legitimize gendered norms and exclusions. In the Korean context, AI also intersects with issues of digital exclusion among the elderly and disabled, as well as the marginalization of women’s labor in an automated economy. This presentation ultimately argues that AI must be reoriented toward gender and digital justice through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intersectional impact assessments, participatory design structures, and feminist policy frameworks. Rather than reinforcing existing inequalities, AI should be developed as an ethical project committed to social justice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By integrating feminist ethics, design justice, and disability justice, this study aims to reimagine AI as a relational, responsive, and politically just technology.

7세션
4부

여성을 통해 본 여순 10·19사건
Uncovering the Yeosun October 19 Incident Through Women's

김미경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Kim-mi kyung (Institute of Humanities Reserch SCNU)

초록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사건은 지금까지 정치적·사회적 구조의 틀 안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민간인 피해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순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깊이 뒤흔든 전환점이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이후 사회적 낙인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경험은 여전히 학계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순사건 이후 77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를 견디며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정체성에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제도적 권력과 발언권에서 배제된 이 여성들은 생존 자체를 통해 기억을 증언해왔으며, 이는 ‘기억투쟁’이라는 실천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증언은 단순한 역사적 진실의 복원을 넘어,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적 치유를 향한 여정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여성을 침묵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기억의 주체로 조명함으로써, 여순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현대 한국사에서 배제되었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전히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Yeosun Incident, which occurred on October 19, 1948, has largely been studied within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al frameworks, with existing research primarily focusing on the event’s development and the investigation of civilian casualties. However, the Yeosun Incident

was not merely a historical episode; it marked a profound turning point that deeply disrupted individual lives. In particular, the experiences of women—direct victims who were later silenced under the weight of social stigma—remain significantly underexplored.

This study examines how the Yeosun Incident has shaped the lives and identities of women who have endured and survived its aftermath over the past 77 years. Deprived of institutional power and denied the right to speak, these women have engaged in a “memory struggle” through their acts of survival and testimony. Their narratives transcend the pursuit of historical truth; they represent a path toward identity restoration and collective healing. By focusing on women not as passive victims but as active agents of memory, this study seeks to reframe the Yeosun Incident and recover voices that have been marginalized in modern Korean history. This endeavor is not only an act of historical documentation but also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ongoing processes of healing and reconciliation for those still living with the trauma of the past. Lives

권혁정 (경성대 e스포츠연구소)

Kwon hyeok jeong (Center for eSports in Kyungseong Univ.)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워싱에 대한 비판을 통해 e스포츠윤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을 중심으로 해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천이성비판은 윤리성을 확보하고 이성적 존재자로서 비판적 탐구를 완성해 철학적 체계를 구성한다. 스포츠워싱에 대한 비판은 정언명령의 특성을 통해서 가능하며 존재자에 대한 실천법칙을 제시할 수 있다. 정언명령의 보편성, 필연성에 의해 스포츠워싱의 윤리적 문제를 해명하며 스포츠 그 자체로서 본질을 회복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이는 도덕법칙의 형식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스포츠윤리의 접근은 스포츠워싱에 e스포츠가 이용된 사례를 통해 비판한 결과 e스포츠가 스포츠워싱이 아닌 스포츠의 그 자체로 본질을 지켜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원리는 보편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또한 그들 국가가 필요요구로서 시도되었던 스포츠워싱은 필연성으로서 스포츠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토대로 실천원리가 되는 것이 인격성이다. 따라서 e스포츠윤리의 접근은 스포츠워싱에 동원된 e스포츠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윤리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인격성에 의해 가능하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cademic foundation for esports ethics through criticism of sports washing. To this end, we went through a process of explanation centered on Kant's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secures ethics and completes critical inquiry as a rational being, thereby forming a philosophical system. Criticism of sports washing is possibl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and can present practical laws for beings. The universality and necessity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clarifies the ethical problems of sportswashing and provides a path to recover the essence of sports itself. This means that it can be overcome in the form of moral laws. The approach to esports ethics can be defined by universality as a result of criticizing cases where esports were used for sportswashing, and the principle that esports are used to preserve the essence of sports itself rather than sportswashing. In addition, sportswashing, which was attempted as a necessity by those countries, failed to achieve the purpose of sports as a necessity. The practical principle that can explain this relationship is personality. Therefore, the approach of esports ethics can restore ethics through criticism of attempts to distort the essence of esports mobilized for sports washing, and this is possible through personality.

e스포츠에서의 죽음과 부활 : 시몽동의 개체화 이론을 통한 디지털 존재론과 윤리적 함의

Death and Resurrection in Esports:
A Digital Ontology Study through Simondon's Theory of Individuation

박성은 (경성대학교 e스포츠연구소)
Park, Seong-Eun (Kyung Sung Univ.)

초록

본 연구는 e스포츠 장르에서의 죽음 현상을 질베르 시몽동의 개체화 이론을 통해 연구하였다. 전통적인 생물학적 죽음과 다르게 e스포츠에서의 죽음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인 상태로, 게임의 전략적 흐름과 공동체적 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MOBA와 FPS 장르를 중심으로 시몽동의 준안정적 평형, 개체발생, 개체화/개별화/개인화, 연속/불연속, 정보의 체제, 군체와 개체의 상호작용 개념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e스포츠에서 죽음은 플레이어가 다양한 상(phase)을 경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체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죽음이 정보 생성의 계기가 되고, 팀을 '준-군체'로 변화시키며, 플레이어의 윤리적 감수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부활 메커니즘은 죽음의 불연속성을 전략적 연속성으로 변형시키며, '누구를 살릴 것인가'의 선택은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은 반복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격성'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반면, 일반 플레이어들은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체화 과정을 경험한다. 한편 트롤링과 사이버폭력과 같은 왜곡 현상들은 개체화 과정의 실패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시몽동의 내재성/외재성의 집단 역학 개념으로 분석할 때 팀이라는 준-군체의 내적 관계를 파괴하는 왜곡된 개체화의 형태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존재론적 조건을 철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게임 연구와 철학의 접점을 확장하고, 시몽동 철학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nalyzes the phenomenon of death in esports through Gilbert Simondon's theory of individuation. Unlike traditional biological death, death in esports is temporary and reversible, playing a crucial role in strategic gameplay and community formation. Applying Simondon's concepts of metastable equilibrium, individuation, continuity/discontinuity, information systems, and individual-colony interaction to MOBA and FPS genres, this research reveals that death in esports constitutes a new form of individuation process where players experience various phases. Key findings include: death serves as a catalyst for information generation and transforms teams into 'quasi-colonies'; revival mechanisms transform death's discontinuity into strategic continuity; professional gamers develop 'personality' through repeated death-revival cycles while casual players experience more diverse individuation processes; distorted phenomena like trolling and cyberbullying represent failures of individuation that destroy team relationships. This study expands the intersection between game studies and philosophy by exploring digital ontological conditions and demonstrating contemporary applications of Simondonian philosophy.

**'K-헤리티지' 육성 및 국제 홍보를 위한
한국 문화유산 전통춤의 표준화 정보 구축****A Study on the Standardized Inform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s a Cultural Heritage for the Promotion 'K-Heritage'**김지안 (상명대학교 무용예술전공 부교수), 박정주(Loughborough University 박사과정)
Jian Kim (Sangmyung University, Korea) & Jeongju Park(Loughborough University, UK)**초록**

이 연구는 한국 문화유산 전통춤의 국제 홍보를 위한 표준화 정보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해외 홍보와 대중적인 보급을 위한 전통춤 콘텐츠 발굴(K-헤리티지 육성)과 자료 정립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로, 자료의 정리는 전통춤 전문용어의 표준화, 전통춤에 관한 설명 체계를 한국어와 영어로 구축하는 과정(전문가협의와 교차검토)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무형유산 전통춤은 크게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었으며 궁중무용(향악정재, 당악정재)으로 처용무, 춘앵전, 무산향, 무고, 궁중검무, 박점무, 예도무, 보상무, 가인전목단, 그리고 포구락 등이 포함되었다. 민속무용 중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태평무, 승무, 그리고 살풀이춤 뿐 아니라 각 지역의 무형유산이나 명작무용으로 지정된 부채춤, 진도북춤, 장고춤, 입춤, 산조춤, 강강술래, 사랑가, 소고춤, 그리고 진쇠춤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연, 문화유산의 콘텐츠의 보급, 문화유산 국제교류를 위하여 전통춤에 관한 표준화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연구로, 후속적으로 더욱 보완하고 축적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s to establish standardized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promotion of traditional dance of Korean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discovering and establishing data on traditional dance contents for international promotion and public distribution by the Korea Heritage Agenc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 Heritage Agency,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Korea Heritage Service(KHS) established under Article 9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is project was carried out from July to October 2024, and consisted of standardization of jargon an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explanatory system for traditional dance in Korean and English (expert consultation and cross-review). Traditional dances for intangible heritage in Korea were largely divided into court dance and folk dance, and included court dance (hyangakjeongjae, Dangakjeongja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and folk dances designated as local intangible heritage.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build standardized information on traditional dance for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distribution of cultural heritage contents,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heritage.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화를 위한 디자인 기반 문화콘텐츠 연구

Design-Driven Cultural Content Research for the Preservation and
Valorization of Regional Cultural Heritage

김지혜 (동서대학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KIM JIHYE (Research Professor, Asia Design Center for Future, Dongseo University)

초록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는 아시아, 한국, 부산이라는 지역성을 특성화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과거 전통의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디자인실행을 통해 지역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에서는 서구에서 생산된 이론과 방법론이 아닌 아시아와 한국 문화예술 기반의 한국적 디자인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아시아디자인 문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해온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를 위한 디자인연구의 일환인 ‘지역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화를 위한 디지털전환(DX)과 디자인주도형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며,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제3호의 동래학춤 예능보유자 이성훈의 구술채록을 비롯하여 동래학춤 춤사위의 디지털데이터 취득 및 이를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자원화와 가치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이에 1년이 넘는 시간에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 심층 인터뷰의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춤 인생 60여 년의 서사와 예술 철학을 담은 채록집 <동래학춤 풍류속에 삶과 멋을 그리다>를 공유한다. 그리고 예능보유자 이성훈의 동래학춤 춤사위 동작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전통예술과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 전략을 제안한 연구 결과물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전통문화의 본질을 전승하는 동시에, 미래 디자인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문화자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전통과 현대, 예술과 디자인,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Asia Design Center for Future was established with the vision of addressing local and global challenges through design practice, grounded in the unique cultural and regional identity of Asia, Korea, and specifically Busan. Rather than remaining rooted in the perspective of tradition alone, the Center aims to propose new directions for the future.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 Korean design education system based on Asian and Korean cultural arts—in contrast to Western-centric theories and methodologies—the Center actively engages in research on Korean and Asian design cultures.

As part of its long-term interest in sustainable local culture, the Center has conducted the research project titled “Research on Digital Transformation(DX) for the Preservation and Value-added of Historical-Cultural Heritage

and the Development of Design-Driven Cultural Contents.” Within this initiative, the Center carried out oral history interviews with Mr. Lee Sung-hoon, the holder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3 of Busan Metropolitan City, Dongnae Crane Dance. In addition to

conducting six in-depth interviews over the course of a year, the Center also collected digital motion data of the dance's core movements and produced various media contents, thereby striving for the preservation, utilization, and value enhancement of intangible heritage.

This presentation shares the outcomes of this work, including the oral record publication “Dongnae Crane Dance: Painting a Life and Aesthetic in the Flow of Elegance”, which captures over 60 years of artistic life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dancer. Furthermore, the research documents and preserves the core movements of Dongnae Crane Dance using digital technologies, and develops contemporary media content based on this data. This content proposes a new communication strategy to bridge traditional arts with younger generations.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not only to transmit the essence of regional traditional culture, but also to reframe it as a cultural asset foundational to future design. It aspires to serve as a starting point that connects tradition and modernity, art and design, and the local with the global.

7세션
5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 지역에서 혼자 살아남기: 생성형 시와의 협업 경험을 중심으로 한 솔로프리너의 생존 전략

Local Solopreneurs' Survival Strategies with Generative AI in Platform Capitalism

박상혁, 이명관, 오승희(경상국립대학교 아름다운마을연구소)
Park Sanghyeo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지역적 맥락에서 솔로프리너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협력하여 구축한 생존 전략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진주 지역의 대학생 및 예비 창업자 39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테마별 귀납적 코딩을 통해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솔로프리너들은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업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프롬프트 설계 능력과 AI 리터러시의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참여자들은 플랫폼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린(Lean) 마인드셋을 함양하며, 빠른 실행과 피드백 기반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가치 지향적 사업 전략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AI 활용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산 및 구체화, 개인학습 및 감정 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율성과 창의성 향상을 경험하였으며, 메타인지적 사고와 문제해결 역량이 크게 발달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외부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의 정교화와 자신감 증대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솔로프리너십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며, 지역 기반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정책적 지원 방안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rvival strategies that local solopreneurs adopt through collaboration with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in the context of platform capitalism.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involving thematic inductive coding was conducted, based on written interviews with 39 university students and prospective entrepreneurs from Jinju, South Korea. Findings

revealed that local solopreneurs effectively leveraged generative AI to enhance critical business skills, such as problem-solving and execution capabilities. Notably, participants significantly boosted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improved prompt engineering skills and heightened AI literacy. Facing uncertainties inherent to the platform economy, these solopreneurs cultivated a lean mindset characterized by rapid execution and iterative improvement based on immediate feedback. Additionally, they developed value-oriented business strategies prioritizing community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Specifically, participants experienced tangible improvements in efficiency and creativity during the AI application process, including idea generation and refinement, personal learning, and emotional management. Furthermore, significant developments in metacognitive thinking and problem-solving competencies were reported. Participants also actively leveraged social networks to effectively incorporate external feedback, thereby refining their business ideas and enhancing self-confidenc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expansion of solopreneurship literature and offers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locally-tailored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s and supportive policy measures.

교육연구관 211호 앞

8세션

전시 & 체험존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 실증업체부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실습체험실 체험

2025 충북 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충북에듀테크소프트랩



EDUTECH SOFTLAB



에듀테크소프트랩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 분야는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과 융합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에듀테크소프트랩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현장에 적합한 기술과 솔루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듀테크소프트랩 사업

실용을 통해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교원 연구와 운영을 통해 에듀테크 기업과 교원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 성장과 공교육 혁신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증지원

- 기업-교원 매칭을 통한 공교육 현장 실증 지원
- 에듀테크 실증제품 공교육 현장 연계 지원

에듀테크 연구회 운영

- 에듀테크 실증 관련 연구
- 공교육 현장 활용 사례 발굴

에듀테크 활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에듀테크 연수 운영
- 기업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에듀테크 기업지원

- 지역 에듀테크 개발-상용화 지원
- 지역 판로 확대 지원

에듀테크 실증기업(한국원대학교)



에듀테크 실증기업((주)더좋은운동으로)

AI 체력측정기 제품 구성



에듀테크 실증기업((주)로지브라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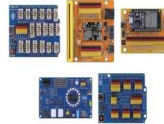
1. 코드모스 서비스 소개

SW 교육, AI 코스웨어
원스톱 서비스 '코드모스'



에듀테크 실증기업((주)에스에프에듀)

브릭셀 MCU 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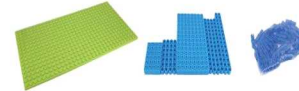
[주]에스에프에듀 브릭셀에서 직접 개발한 MCU입니다.
120가지가 넘는 입출력 장치에 연결 가능하고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ESP32, 피코 등이 있습니다.

브릭셀 모듈



[주]에스에프에듀 브릭셀에서 직접 개발한 120가지의 모듈형 센서가 있습니다.
크기 표준화, 인터페이스 표준화, 종류별 색상으로 분류 해서나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브릭셀 레고브릭6테크닉8보드



브릭셀 모듈과 레고 브릭을 조합하여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 실증기업((주)제프)

ZEP 소개

ZEP, 왜 대체 에듀테크 플랫폼일까요?



최대 150,000명 동시접속 가능

보다 효과적인 교육

유틸리티, 미디어, 퀴즈, 게임을 통해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즐거운 비대면 소통

따라가기, 놀아보기, 놀이기, 놀기,
점프 등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쉽고 가벼운 플랫폼

클릭 한 번으로 설치, 가입 없이도 가능합니다.

<https://zep.play/123456>



에듀테크 실증기업((주)테크비교육)

매일국어T



매일국어T는 소년원을 선택하고, 수업 목표에 따라 원하는 활동만 골라,
쉽고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참여형 국어 학습 플랫폼입니다.

9세션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 (HUSOP)

- 제1부. 인문사회통합성과확산센터1
- 제2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국제관계)
- 제3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재난)
- 제4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지역)
- 제5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공동체)

오가와 요시카즈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Yoshikazu Ogawa (Hiroshima University)

초록

최근일본에서는외국인 거주자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일본의외국인 거주자수는2014년212만1831명이었던것에비해2024년에는358만8956명으로보고되고있고(출입국재류관리청, 2024), 10년만에100만명이상증가한것을알수있다. 일본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시절에 이주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시설을 통해 유아와 그 부모에게 일본어 지도, 취학 지도, 상담 등을 제공하여 초등학교 진학 시 원활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중앙교육심의회초중등교육분과회, 2020 p.35). 유아기교육은평생에걸친인격형성의기초를만드는것으로(문부과학성HP), 이시기에외국과연결이있는 유아에게적절한교육지원을하는것은이후학교교육과평생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유아 교육시설에있어서는모든유아가다양성을인정할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본발표에서는일본의유치원교사를대상으로실시한다문화보육에관한설문조사결과를보고하고, 일본다문화보육의현황과과제를고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설문조사는2025년2월-4월에온라인으로진행되었으며, 유치원 교사134명의응답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유치원교사의근무지는인정어린이집(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일본의 복합형 기관)이73.1%, 유치원이16.4%, 어린이집이9.7%, 기타가0.7%였으며, 근무지설치주체는공립이7.5%, 사립이92.5%였다. 분석결과, 근무지에외국과연결이있는아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16.4%, 1-5명이라는응답이44.8%였으며, 답임으로서 외국과 연관된 아동을 맡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35.1%에달했다. 이러한경향으로볼때, 일본국내에서도지역이나시설에따라외국인유아를담당한경험유무에큰차이가있는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보육관련연수에대해서는'연수를실시하지않는다'는응답이절반이상을차지했다. 필요한행정적지원으로는'통역, 번역등언어지원'이가장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보육에관한연수 확대와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유아 및부모와의원활한소통을위한행정적지원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특히일본의유아교육에는독자적인특징이있으며, 일본에온지얼마되지않은유아나부모는모국의보육문화와의차이에혼란스러워할 수있다. 따라서 다문화보육을실천하기위해서는유치원교사가외국과일본의보육환경차이를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of manuscript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Japan has increased rapidly. In 2024,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was reported to be 3,588,956, compared to 2,121,831 in 2014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2024), indicating an increase of over 1 million people in 10 years. Additionally, the increase in children born in Japan and those who immigrated during childhood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Japanese language instruction,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to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rough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ies. This will help them transition smoothly to school life when they enter elementary school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2024). The Subcommittee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the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2020)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Japanese language instruction,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to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to facilitate a smooth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Early childhood education lays the groundwork for lifelong character developmen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website), and providing appropriate educational support to young children with foreign connections during this period positively influences subsequent schooling and lifelong learning.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ies to foster an environment that allows all young children to appreciate diversity.

This presentation reports on a survey of multicultural childcare conducted with Japanese kindergarten teachers and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multicultural childcare in Japan.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from February to April 2025, and responses from 134 kindergarten teacher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teachers worked at 73.1% of certified childcare centers, 16.4% of kindergartens, 9.7% of daycare centers, and 0.7% of other facilities. Of these teachers, 7.5% worked at public facilities and 92.5% worked at private faciliti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16.4% of respondents had no children with foreign connections at their workplace, while 44.8% had one to five such children. Thirty-five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no children with foreign connections in their clas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ven within Japan, there is significant variation in the number of children with experience caring for foreign infants and toddlers, depending on the region and preschool.

Regarding training in multicultural childcar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no training is provided. Regarding necessary administrative support, "language support, such a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was frequently cited. These trends suggest that training on multicultural childcare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facilitate communication with infants and their non-Japanese-speaking parents are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Japanese early childhood education has unique characteristics, so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who have just arrived in Japan may be confused by differences in childcare culture compared to their home country. When providing multicultural childcare, it is important for childcare provider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foreign and Japanese childcare environments.

조상식 (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

Cho, Sang Sik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for Comprehensive School Safety)

초록

I. 문제의 배경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및 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교육부, 2024). 다시 말해 이 정책은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통해 균등한 교육 서비스 및 영유아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보육과 교육의 근거 법령, 관계 부처, 교사 자격 및 양성 과정,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을 통합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저출생 위기의 극복이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 수의 급감을 막을 수 있다는 국가적 현안이 그 주요 배경이다(보건사회연구원, 2024). 둘째,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이다. 주지하듯이, 영유아는 주변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하는 시기이다. 이에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의 지원이 중요해진 것이다(정은주, 2025). 셋째, 장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로 인해 기간 간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권용준, 권정현, 김해숙, 2025). 두 기관이 별도로 행정 체계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시설에서나 교사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사교육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발생하였다.

유보통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적지 않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부가 정책적 의제로 설정하였지만, 정작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장애물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정책 자체가 안고 있는 많은 쟁점뿐만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방면에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를테면 교육부에 <유보통합을 위한 TF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통합과 관련된 모든 세부 과제를 기획하였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담당하는 유치원 공제 업무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공제사업도 통합의 세부 과제 중의 하나였다.

본 토론문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공제사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기관의 통합을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인 장단점을 다루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영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이와 관련하여 공제회 통합 문제도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공제회 통합의 문제도 그러한 더 큰 쟁점의 그늘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II. 유보통합의 문제

영유아 교육의 교육이론 및 교육사상의 근거는 분명하고, 이에 대한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문제는 제도로서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진영이 확연히 대립한다는 점이다.

우선, 찬성 쪽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권영준, 권정현, 김해숙, 2025). 첫째, 충분한 보육 기관 및 시설의 이용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맞춤형 돌봄 4시

간까지 이용 시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또한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 각 2시간씩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제고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근거는 현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0세 1:3에서 1:2로, 0~2세 보조교사 3학급에 1인에서 2학급당 1인으로, 3~5세 1:12에서 1:8로 개선할 수 있다는 통계치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2027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3~5세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용을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통합 교사 연수체계의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 교원이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영유아 정서 발달 지원, 기타 특별한 영유아 지원 등과 관련된 맞춤형 직무 연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김은희, 2023; 김은설, 2024).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으로 수요 맞춤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영아→유아와 유아→초등으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이 미흡하고 특수교육과의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2세와 5세를 이른바 ‘이음 연령’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소규모 기관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정서 및 심리 지원과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진영의 주장에 못지않게 반대하는 쪽에서의 주장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우선, 유보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각 단계 교원의 전문성이 저하하고 교원 자격 체계에서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기존의 자격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상호 간의 전문성에 대한 불인정 상황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교사가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업무량이 증대하고 전문성이 약화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을 것이다. 둘째,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책임 주체의 혼선 문제이다. 사실 통합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추진에서 합의된 의견은 여전히 없다. 요컨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주장이 있는 한편, 교육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팽팽한 실정이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여론에 비추어 정책 추진의 합의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넷째, 이 정책의 역사적 계보를 확인해 보면 정권 교체 등과 같은 정치적 변수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에 대한 불신을 가중할 것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III. 공제회 통합 문제

유보통합의 정책적 과제에는 당연히 공제회 관련 제도적 통합도 포함되어 있다(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 2025).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제회 소관 기관은 각각 <학교안전공제회>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며, 두 기관은 제도적으로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각 시·도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각 시·도 공제회 지원, 제공하는 제도로써 「학교안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요양·장해·간병·유족급여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어린이집안전공제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차이에 따라 가입 대상, 사업 범위, 재정 운영, 지도 감독 체계, 보상 체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공제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무 공제의 운영 방식에 있다.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은 법령에 공제급여의 종류 및 보상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 안전 공제사업은 법률에 공제사업 시행 근거만 두고 공제회에서 별도 약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법령과 약관에 따른 차이는 두 공제제도의 운영 및 사고 보상의 다양한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운영체계 각각의 장점은 분명하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법령 기반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약관 기반의 유연성과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점이 있다.

이 두 제도의 통합 모델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조, 운영 방식, 보상 체계 등에서 여러 차이점을 보이며 각각의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행 모델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존 모델을 유지하되, 상위조직인 통합 공제회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유보통합의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 학교안전 공제회 중심의 통합 모델이다. 이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영유아까지 포괄하는 방식이다. 법적 안정성과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영유아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셋째, 연령에 따른 이원화 통합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영·유아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초·중·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연령별 특화된 공제제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통합 관리의 행정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이원화 유지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모델이다. 이는 현재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으나, 이원화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유보통합에 따른 공제회 제도의 거버넌스 체제를 통합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두 기관의 오랜 제도적 분화, 발전 과정, 공제회 대상의 특수성, 사고 유형의 차이, 보상의 규모 및 범위의 차이, 거버넌스 체제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통합은 단순한 법적, 제도적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완전한 통합은 불가능하겠지만 제도의 효율성과 영유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준비와 민주적인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

Abstract of manuscript

I. Background of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Integration

Integrating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refers to a policy that aims to establish a new education and childcare system, allowing all infants and young children aged 0 to 5 to receive high-quality educational and care services regardless of the institution they attend (Ministry of Education, 2024). In other words, this policy seeks to secure equal educational services and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the unification of education and childcare. To achieve this, there is a task to integrat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government ministries, teacher qualifications and training programs, curricula, and facility standards related to education and childcare.

The background for promoting this polic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in points. First, overcoming the low birthrate crisis. The national issue lies in creating a trustworthy educational and childcare environment that parents can rely on, thereby preventing a rapid decline in the number of young childre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4). Second,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is well known, infants and young children actively learn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ir surroundings. Therefore, systematic support for education targeting preschool children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Jeong Eun-ju, 2025). Third, the growing gap caused by the long-term dual system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Operating under separate administrative systems, differences have arisen in terms of facilities and teacher qualifications. Additionally, increased financial burdens on parents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expansion of private tutoring for young children (Kwon Yong-jun, Kwon Jeong-hyun, Kim Hae-sook, 2025).

There is considerable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the policy to integrat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almost every government to date has set it as a policy agenda. However, in practice, the policy has faced numerous obstacles and controversies during its implementation process. This not only reflects the many issues inherent in the policy itself but also indicates conflicting interest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volved.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previous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lso made attempts to advance the integration policy. For insta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a dedicated Task Force (TF Team) for the integration, planning all detailed tasks related to the process. Among these, the integration of mutual aid associations—specifically, the kindergarten mutual aid operations managed by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and the daycare mutual aid operations managed by the Daycare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was one of the detailed tasks under consideration.

This discussion paper aims to examine the direction for promoting mutual aid operations for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the context of the integration policy, addressing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institutional consolidation as well a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related systems. To this end, the paper first briefly summarizes the main arguments from both supporters and opponents of the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integration policy. Subsequently, it will address the issue of mutual aid association integration, given that this problem clearly exists within the broader shadow of the larger policy debates.

II. Issues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 Integration

Th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ducational philosophies underly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clear and undisputed. However, the issue arises in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where proponents and opponents are sharply divided.

To begin with, the arguments in favor of integration can generally be summarized into five main points (Kwon Yong-jun, Kwon Jeong-hyun, Kim Hae-sook, 2025).

First, ensuring sufficient access to childcare institutions and facilities. For example, guaranteed usage time includes the basic operating hours of 8 hours plus an additional 4 hours of customized care. This implies an extension of the basic curriculum. Additionally, customized care services of 2 hours each for morning and evening care are also possible.

Second, improving the teacher-to-child ratio. This enhancement raises the quality of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young children while alleviating teachers' workload. Specifically, the improvement is based on statistics suggesting a change from the current 1:3 to 1:2 ratio for infants aged 0, from 1 assistant teacher per 3 classes to 1 per 2 classes for ages 0–2, and from 1:12 to 1:8 for children aged 3–5.

Third, realizing phased free education and childcare. Starting with 5-year-olds between 2025 and 2027, phased free education and childcare for ages 3 to 5 can be implemented. This would limit the costs of privat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o standar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fee levels.

Fourth, establishing an integrated teacher training system. All teachers would have access to tailored professional development related to curriculum implementation, child support, emotional development support, and other special needs for young children (Kim Eun-hee, 2023; Kim Eun-seol, 2024).

Fifth, strengthening demand-responsive education and childcare programs through integration. This addresses current deficiencies in systematic support for the transition stages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and from early childhood to elementary school, as well as gaps i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and special education services. Specifically, ages 2 and 5 are designated as so-called “transition ages,” allowing for well-structured education through small-scale institutions that provid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and integrated assistance for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Just as there are strong arguments supporting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he opposing side also presents grounded concerns.

First, it is argued that integration may actually diminish the professional expertise of teachers at each stage and cause confusion within the teacher qualification system. The concern is that when kindergarten and daycare teachers work within the same institution, the existing qualification framework may become muddled, and mutual recognition of professional expertise may be undermined. For instance, if teachers are expected to manage both education and care simultaneously, their workload may increase and their specialization may weaken, potentially leading to a shifting of responsibilities and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Second, critics raise concerns about increased budget burdens and ambiguity over which body is responsible. Although there are demands for a unified budget, no clear agreement has been reached. For example,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insists that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share the financial burden, local governments argue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ar the full cost—revealing a persistent deadlock.

Third, there is criticism that the current integration policy is being promoted unilaterally, excluding the voices of those in the field. As such, there is concern that the lack of consensus and field-level participation may weaken the legitimacy and momentum of policy implementation.

Fourth, many people question the sustainability of this policy in light of political variables such as changes in administration. This deepens the distrust surrounding its feasibility and long-term execution, raising serious doubts about the sta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II. The Problem of Mutual Aid Association Integration

Naturally, one of the key policy tasks of the kindergarten-daycare integration initiative includes the institutional integration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s (Dongguk University School Safety Research Institute, 2025). The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mutual aid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re the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and the Daycare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respectively. These two institutions are based on different legal frameworks and perform distinct functions.

The school safety insurance system is operated through loca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s established by the superintendents of each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he centra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upports and provides services to local associations based on the School Safety Act. It delivers compensation and support services such as medical care, disability benefits, long-term care, survivor benefits, and psychological therapy.

In contrast, the daycare safety insurance system is governed by the Infant Care Act. Due to these differing legal bases, the two systems vary significantly in terms of membership eligibility, scope of services, financial operation, supervision and management structures, and compensation mechanisms.

The most notable difference lies in the operation of mandatory insurance. In the school system, the types of insurance benefit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are stipulated by law. In contrast, while the daycare insurance system is legally permitted under the Infant Care Act, it operates based on internal regulations and terms set by the association itself. This legal-contractual distinction has resulted in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administration and compensation procedures between the two systems.

Each system possesses its own strengths. The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is distinguished by its legal stability and public accountability, whereas the Daycare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offers institutional flexibility and specialized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lthough integrating the two systems is a complex task, a variety of potential models can be proposed, as the two systems differ in structure, operational mechanisms, and compensation schemes—each with its own advantages and limitations.

First, maintaining the current model. This approach would keep the existing systems as they are but establish a unified upper-level organization to oversee both associations. While this ensures institutional stability, it falls short of realizing the substantive effects of integration.

Second, a school-centered integration model. In this scenario, the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would expand its coverage to include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is model has strengths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but it lacks the capacity to provide services tailored to the specific needs of early childhood.

Third, an age-based dual integration model.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e Daycare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would cover infants and toddlers, while the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would be responsible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ile this maintains age-specific specialization, it may comprom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integrated management.

Fourth, maintaining the dual system while expanding the role of the Daycare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This model preserves the current dual structure but enhances the role of the daycare association. It offers the benefit of strengthening services specialized for early childhood, but it risks continued inefficiencies due to the separation of systems.

As such, integrat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mutual aid system under the broader policy of kindergarten-daycare unification remains a significant challenge. Given the long-standing institutional divergence between the two associations, their differing paths of development, the particularities of their target populations, the distinct types of incidents covered, variations in the scale and scope of compensation, and differences in governance structures, it is clear that integration cannot be addressed solely as a legal or administrative matter. While complete unification may not be feasible, long-term planning and a democratic process of consensus-building will be necessary to enhance institutional efficiency and improve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윤종혁 (숙명여자대학교)

Yun, Jong-hyu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초록

일본의 다문화 보육정책에 대한 오가와 교수님의 발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사회, 그리고 다문화 정책을 보육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일본의 교육정책 측면에서 주목할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 혁신 정책으로서 미래 비전을 2040년으로 고려하고, 글로벌 미래 인공지능사회의 디지털교육혁신을 2050년으로 전제하는 지구촌 교육혁신 전략과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즉, 다문화 보육정책도 2040년과 2050년대 미래 일본사회를 생각하는 전략으로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일본의 재류외국인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358만 명(일본 인구의 약 3%)인 반면에,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258만 명(전체 인구의 5.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국인노동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204만 명임에 비하여, 한국은 같은 기간에 17만 명(비전문취업자 포함 40만 명 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기석(2024)의 분석에 따르면, 비숙련공 기준 임금은 일본(189~220만 원)보다 한국(242만 원)이 높은 편이다. 다만,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정기능제를 강조함으로써 산업연수생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력을 적극 도입하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역량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사전에 직업교육에 충분하게 투자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전략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본 사회에 정착하고 가족 정주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일본 사회 자체가 점차 다문화 수용정책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 교육적 배경 속에서 오가와 교수가 발표한 일본 내 다문화 보육을 준비하는 인정어린이원을 포함한 유아교육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유아교육 단계가 중요한 이유로는 일본 초등교육의 핵심 문제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문제'(초1학년 절벽), 즉 맞벌이 부부의 아동돌봄 문제와 초등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 외국인자녀의 경우는 이런 배경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발표문은 향후 다문화 사회로서 유아교육 단계부터 출발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사회진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외국인 다문화 집단에 대한 교육적 쟁점과 해결 과제를 잘 포착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가와 교수의 문제제기는 아주 바람직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좀 더 정교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연구 방법으로서 교사 면담과 설문조사 방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문화 외국인 자녀가 지역에 따라 집주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일본 내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도권과 나고야·아이치(愛知)현 등의 공단지역, 간사이(오사카) 지역 등인데, 이 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종사자가 조사 표본으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연구는 다문화 교육 집중지역과 전통적인 일본 학생 거주지역으로 비교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내용으로서 향후 한국과 일본 간의 다문화 교육 비교연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외국인노동자 집단에 대한 교육 비교연구가 상대적으로 검토할 연구과제가 많을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 영역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연구 활동과 그 이후 진로 상황 등을 공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오늘은 오가와 교수가 유아교육 단계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 발표하지만, 초등 및 중등교육 단계까지 확대

하여 양국의 다문화 교육 현황과 미래 교육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은 다문화 정책 측면에서 동포 교육 및 귀국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디아스포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한국은 100년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일본, 중국 및 유라시아, 해방 이후 미국과 브라질 등의 동포교육을 다문화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사한 역사적 맥락에서 브라질, 페루 등의 중남미 교민(日系人)에 대한 동포교육을 비교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한일 간의 교육 교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서 다문화교육 비교연구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발표자의 원고에서 주목할 내용은 다문화보육에 대한 정책적 출발점으로서 ‘기본적인 교사 연수’가 아직 초보 단계임을 규명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정적 지원으로서 ‘통역, 번역 등 언어 지원’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유아나 부모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과제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한 이국인 집단이 교류하는 방식이 다문화의 첫 단계일 것이다. 한국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유라시아권 국가 출신 아동에 대한 언어적 쟁점이 점차 어려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현재의 다문화 학생과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하고, 2040년 이후 새로운 다문화 기반의 미래 사회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글로벌 역량이 미흡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아프리카 대륙은 2013년부터 50년 이후 사회를 전제로 해서 독자적인 개발협력 전략(AU 2063 어젠다)을 구상한 바가 있다(AU, 2023). 다문화 교육정책은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하는 글로벌 시민의식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준비 과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of manuscript

Professor Ogawa's presentation on Japan's multicultural childcare policies warrants attention, as it reflects Japan's educational approach to addressing low birth rates, an aging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at the childcare level, much like Korea. This aligns with global educational innovation strategies, such as higher education reform policies envisioning a future up to 2040 and digital educational innovations for the global AI society projected for 2050. Thus, Japan's multicultural childcare policies can be understood as strategic preparations for Japanese society in the 2040s and 2050s.

As of 2024, Japan hosts approximately 3.58 million foreign residents, representing about 3% of its population, whereas Korea hosts 2.58 million, approximately 5.2% of its population. However, the foreign labor force in Japan in 2023 stood at 2.04 million, compared to Korea's significantly lower figure of 170,000 (400,000 including non-professional workers). According to Lee Ki-seok (2024), the wages for unskilled labor are higher in Korea (KRW 2.42 million) than in Japan (KRW 1.89-2.20 million). Nonetheless, Japan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a strategy of actively attracting foreign workers, emphasizing a Specific Skills system centered around industrial traine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Japan strategically invests in pre-employment vocational training to attract highly skilled foreign workers, thereby ensuring their stable settlement and family integration, progressively enha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gainst this educational backdrop, we can understand Professor Ogawa's discussion about the st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Japan, including accredited children's centers preparing for multicultural child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crucial because it proactively addresses the "first-grade elementary school issue," a critical challenge in Japanese primary education concerning child care for dual-income families and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Multicultural foreign children face even more significant issues within this context. This presentation effectively identifies educational issues and solutions pertinent to the multicultural population from early childhood through elementary, secondary, higher edu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lthough Professor Ogawa raises valuable points, there is room for further refinement in methodology and content. First, utilizing teacher interviews and surveys as research methods is positive. However, the varying residential patterns of multicultural foreign families across regions should be considered. Foreign residents in Japan are primarily concentrated in metropolitan areas, such as Tokyo, Nagoya, Aichi industrial zones, and Kansai (Osaka). Thus, differentiating research samples by geographical location could enhance the research's accuracy. Future studies might comparatively analyze regions densely populated with multicultural communities and traditional Japanese residential areas.

Second, the research scope could expand to comparative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between Korea and Japan. Both nations have considerable research opportunities concerning education for foreign labor groups. Joint research efforts could specifically investigate higher education environmen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subsequent career pathways. Although Professor Ogawa today focus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at the preschool level, expanding the analysis to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could offer comprehensive insights into current conditions and future policies.

Third, Korea and Japan could collaboratively pursue diverse diaspora studies related to ethnic education and return migration policies from a multicultural perspective. Korea has historically provided diaspora education to communities in Japan, China, Eurasia, and, post-libe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Brazil. Japan shares a similar historical context, facilitating comparative studies on diaspora education for Japanese descendants in Brazil and Peru. Such comparative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could significantly advance education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One notable point in Professor Ogawa's presentation is the recognition that "basic teacher training" for multicultural childcare remains at an early stage. It particularly emphasizes administrative support needs such as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to facilitate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Interaction between culturally diverse groups constitutes the initial stage of multicultural integration. In Korea, language barriers among children from Eurasian countr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challenging. Strategies are urgently required for multicultural students to settl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Korean society, envisioning a multicultural-based future society beyond 2040. Even Africa, recognizing its limited global competencies, initiated its independent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AU Agenda 2063) in 2013, planning fifty years ahead (AU, 2023). It is essential to acknowledge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mature within gradually nurtured global citizenship. I hope today's gathering serves as a meaningful first step toward this preparation.

비잉다(畢穎達) (중국 중산대학교)
Beibing Dai (Sun Yat-sen University)

초록

트럼프2기 행정부의 등장에 따라 미국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기치를 재차 높이 들고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외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전략과 원칙 하에 트럼프 정부는 압박과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동맹국들을 미국의 전략에 순응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국 전략억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 조율을 통해 러시아를 미국의 전략 구도 안으로 끌어들여,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정책 하에 미일동맹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군사 안보 측면에서 미일 양국이 군비를 계속 증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추세이다. 동북아 지역의 정세도 ‘신냉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모든 측면에서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러시아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세계 전략 구도의 균형 유지 및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등 요인을 고려할 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미 간의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기반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러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키지는 않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역내 다른 국가들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해서 냉전적 대중국 억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미국이 중국 억제에 본격적으로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유리한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평화’를 지향하는 태도를 일정 부분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대북 평화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있다. 셋째, 중국이 비동맹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신냉전 구도의 형성을 억제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전략적 공간이 열려 있다. 넷째, 북한도 대화협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평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그 진정성과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의 북한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화와 협상의 재개 과정에서 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대북 평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미국의 견제, 전임 정부의 정책 유산, 국내 정치적 제약 등 여러 장애 요인들에 부딪힐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는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한중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하는데, 전략적 신뢰의 회복과 강화가 관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한중 양국이 '종전선언'의 발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협상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한반도 평화 구축은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전략적 인내와 지속 가능한 협력의 구조를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2.0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once again raised the banner of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begun to pursue foreign policy based on the principle of “America First.” Under these strategies and principles, the Trump administration seeks to promote a China containment policy by using pressure and intimidation to bring its allies into alignment with U.S. strategic goals. At the same time, it aims to weaken China’s strategic position by drawing Russia into the U.S.-led strategic order through mediation in the Ukraine ceasefire process.

Under these polic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S.-Japan alliance has been further strengthened. In particular, both countries continue to expand their military capabilities in terms of defense and security, which can be understood as an effort to contain China. As a result,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intensifying. There is also a growing possibility that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will develop into a “new Cold War” structure.

However, Japan does not unconditionally follow the United States in all respects. It is particularly dissatisfied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unilateral policies. Accordingly, while cooperating with the U.S. to pursue a China containment policy, Japan adopts a pragmatic approach toward its China policy. In this context, the possibility of improved China-Japan relations cannot be ruled out. Meanwhile, Russia also seek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but considering factors such as maintaining balance in the global strategic order and uncertainties surrounding U.S. policies, it is difficult for Russia to shift toward actively containing China. Therefore,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Russia is likely to be maintained in the long term, which helps China secure its strategic foundation. Nevertheless, China does not develop its relationship with Russia into a formal alliance, as it does not want a “new Cold War” structure to take shape in Northeast Asia. To prevent such a new Cold War order, China’s efforts alone are insufficient; cooperation from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is also necessary.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continue vigorously pursuing a Cold War-style containment policy toward China. In particular, once the situations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stabilize to some extent, the U.S. is likely to intensify its efforts to contain China. As a result, uncertain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expected to deepen. Therefor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restar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t present, several favorable conditions can be identified that make the resum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possible. First, the Trump administration shows a certain

degree of commitment to a “peace”-oriented approach in its Korean Peninsula policy. Second, South Korea’s Lee Jae-myung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olicy framework focused on peaceful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ird, China’s maintenance of a non-alignment policy helps suppress the formation of a new Cold War structure, thereby opening strategic space for the resumption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ourth, North Korea does not exhibit a complete refusal to engage in dialogue and negotiations.

Nevertheless, as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tensifies, it remains difficult for both countries to actively cooperate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President Trump has made “peace” gestures toward North Korea, questions remain regarding their sincerity and sustainability. Notably, despite facing various difficulties, North Korea is currently in a relatively advantageous position compared to the past. Consequently, it is likely to demand higher concessions during any future resumption of dialogue and negotiations. While South Korea’s Lee Jae-myung administration emphasizes a peace-oriented policy toward the North, it is expected to face multiple obstacles in policy implementation, including constraint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legacie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domestic political challenges. Furthermore, although China has continuously expressed support for restart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t faces certain limitations in exerting actual influence.

As mentioned earlier, the resum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s a challenging task due to various practical constraints. Nevertheless, activ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essential for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o this end, the two countries must promptly seek practical measures for restoring and advancing their relationship, with the recovery and strengthening of strategic trust serving as a crucial starting point for normalization. On this foundation,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and China to jointly pursue peace negoti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eginning with a formal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However, sinc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long-term endeavor, strategic pati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cooperative framework must be simultaneously pursued.

9세션
2부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 구축의 가능성과 장애요인

Possibilities and Obstacles in Establishing
a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A South Korean Perspective

조정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Jungwon Cho (Korean Chinese Relations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초록

비잉다 교수의 발표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특성을 소개하고 트럼프 2기 첫 해인 2025년의 동북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들 간의 관계의 현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본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안보, 경제 분야의 민감한 이해관계

가 연계된 이슈들을 활용한 압박과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해서 동맹국들을 미국의 전략에 순응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시대의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및 정전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전략적 입지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본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이 모든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2025년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던 NATO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정상들과의 IP4 정상회담을 희망했지만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 김현예, “李·이시바 나토 안 가는데...”트럼프, 한·일·호주·뉴질랜드 회담 추진”, 중앙일보, 2025년 6월 23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881> (검색일: 2025.06.27)

, 일본의 직전 총리였던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에도 러시아 ‘사할린-2’ 가스전에 투자한 자국 기업들의 지분을 유지한 것은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일본 정부는 LNG 확보를 위해 사할린-2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LNG의 양은 일본의 같은 해의 전체 LNG 수입량의 8.8%이며 일본의 러시아 LNG 수입량의 대부분은 사할린-2 프로젝트 생산분이 차지하였다. 미쓰이물산은 사할린-2 프로젝트의 운영사인 사할린 에너지의 전체 지분의 12.5%를 보유하고 있고 미쓰비시는 사할린 에너지의 전체 지분의 10%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2024년에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LNG의 수입량은 일본의 같은 해 전체 LNG 수입량의 8.4%를 차지하였다.

김호준, “러, 日 미쓰이 이어 미쓰비시 ‘사할린-2’ 지분 유지 승인”, 연합뉴스, 2022년 9월 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1037400073> (검색일: 2025.06.11.)

“Sakhalin-2 gas shipments reach 10.2 mln tons in 2024”, TASS, April 1, 2025, <https://tass.com/economy/1937307> (검색일: 2025.06.09)

그리고 일본에게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일본의 대기업 중심 단체인 게이단렌과 중국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수소경제, 환경산업 등의 새로운 경제협력의 방향을 설정 및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러관계가 확대 및 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동맹의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2024년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밀착에 거리를 두고 있다. 비록 중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에서 무역, IT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과 일본, 한국, 호주 등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공급망에서의 연계가 이미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과의 동맹에 가담해서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서방 선진국들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동맹이 한국, 미국, 일본 중심의 해양 국가들의 동맹과 대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미국은 냉전적인 대 중국 억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소련과 달리 기초과학, 응용과학에서의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여러 산업에서의 경쟁력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위협하거나 추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의 안정이 실현되면 미국은 중국 억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밀착, 윤석열 정부에서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남북한 민족주의 통일노선 폐기와 남북대화의 단절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남북대화의 복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중시하는 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북한, 일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6자회담의 복원도 추진해 볼 만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이 단기간에 쉽게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한반도 정세의 이해관계가 있는 6개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종전선언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 및 실현할 수 있는 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6자 회담에서 참여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자경제협력사업들, 북한에 대한 원유 및 가스 공급, 북한의 국내 전력망과 발전소 개보수 및 신축, 식량 등의 원조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해서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은 한국 내부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는 입장과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 조건은 아니어도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한국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에 북한은 리비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후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이 붕괴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비핵화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6자 회담과 남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 간의 가능한 대화 채널들을 활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북한의 대외개방 및 국내 경제개발에 대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지원 방안과 북한의 비핵화 검증 및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에 대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In Professor Bingying Da's present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ere introduced, along with a clear explan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relations among major powers that could influence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n 2025, the first year of Trump's second term. As outlined in the pap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s implementing a strategic containment policy toward China by pressuring its allies to comply with U.S. strategy through issues linked to sensitive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Moreover, the United States under Trump is attempting to mediate a ceasefire or armistice negotiation in the Russia-Ukraine war, seeking to bring Russia to its side in order to weaken China's strategic position.

As described in the paper, although the U.S. is strengthening its alliance with Japan, Japan does not follow the U.S. unconditionally. For instance, during the NATO summit held in Amsterdam from June 24 to 25, 2025, President Trump proposed an IP4 summit with the leaders of South Korea,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However, Japanese Prime Minister Ishiba decided not to attend the summit with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Additionally, former Prime Minister Kishida maintained Japanese corporate shares in Russia's Sakhalin-2 gas project even after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These actions demonstrate Japan's efforts to maintain autonomy while upholding its alliance with the U.S.

China is Japan'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Japan's major business group Keidanren is pursuing new economic cooperation directions in hydrogen economy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through engagement with China. Therefore, Japan is unlikely to sacrifice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solely due to its alliance with the U.S.

Although China-Russia relations are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y are unlikely to develop into a formal alliance. In fact, after Russia and North Korea signed a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on June 19, 2024, China has maintained a certain distance from the deepening military-security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Despite facing significant pressure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both Trump administrations in areas like trade, IT, and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remains deeply interconnected with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S.,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through trade and supply chains. Thus, it would be difficult for China to jeopardize its economy by aligning with Russia and North Korea in an alliance. Consequently, a trilateral alliance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ountering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as feared by some experts, is unlikely.

As forecasted in the paper, the U.S. will likely continue a strong Cold War-style containment policy toward China. Unlike the Soviet Union after WWII, China's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both basic and applied sciences continue to improve, and its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eatens or even surpasses that of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the U.S. has strong incentives to step up its efforts to contain China. If stability is achieved in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 Middle East, the U.S. will likely place even greater focus on containing China.

The increasing military-securit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s abandonment of a pan-national unification line and severance of inter-Korean dialogue, may raise concerns in China over the in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o alleviate such concerns, it is necessary to restart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President Lee Jae-myung's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is more proactive than the Yoon administration in restoring inter-Korean dialogue and promoting peace on the peninsula. President Trump also emphasize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ould be advantageous in restarting the peace process.

To this end, restoring the Six-Party Talks involving South Korea, North Korea,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may be a worthwhile initiative. Although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a formal end-of-war declaration in a short period, these six countries should broaden their discussions to include a wide range of topics related to sustaining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nstance, they could explore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oil and gas supply to North Korea, refurbishment and construction of its power grids and plants, and food aid. Domestically, opinions in South Korea are divided: some believe denuclearization must precede an end-of-war declaration, while others do not view it as a precondition. Likewise, North Korea is unlikely to easily give up its nuclear arsenal, recalling the collapse of Gaddafi's regime in Libya and Ukraine's failure to prevent Russian aggression after denuclearization.

Thus, through available dialogue channels such as Six-Party Talks and inter-Korean summits, stakeholders must patiently and concretely discuss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s external engag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verification mechanisms for denuclearization, and security guarantees.

신상범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Sang-bum, Shin (Institute for Poverty Allevi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Yonsei)

초록

비잉다 교수님은 트럼프2기 미국의 대 동북아 정책과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력 가능성을 전망한다. 사회과학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비잉다 교수님은 적절한 근거가 뒷받침된 판단으로 좋은 학문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 역시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비잉다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결국 동북아 평화 및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핵심 변수는 한국 새정부 외교 정책의 방향과 전략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던 상관없이 점점 심해질 것이며 미국이 지금처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낸 다자주의적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점차 잦아질 것이다. 중국은 가만히만 있어도 국제관계에서(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것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 정책 역시 결국 최대한 양쪽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한국은 결국 극단적인 친중과 극단적인 친미 사이의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혀서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미 양국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공간 내에서 공간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논의보다는 학자로서 좀 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비잉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력과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필자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공부해 온 국제정치경제 영역에 초점을 두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트럼프1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모습은 미국 스스로가 구축한 브레튼 우즈 체제의 파괴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경제 갈등 과정에서 미국 스스로가 힘들게 만들어 온 GATT와 WTO 체제를 무시하고 훼손했다. 정확히 미국은 WTO의 어떤 절차를 어떻게 파괴했나? 이러한 파괴는 국제경제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제정치경제의 규범과 제도가 다른 국가에게는 여전히 중요하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가? 미국의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와 같은 법을 만약 중국이 만들고 이를 발동시킨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와 같은 주제들은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탐구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 한국의 국제정치경제 학자들과 중국의 국제정치경제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나 연구 방법,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가? 한중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공동으로 대화할 수 있는 학문적 코드가 있는가? 없거나 약하다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연구 협력이 가능한가? 미래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국제정치경제의 질서는 너무나 급격하게 훼손되었고(원래 약했지만 그나마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했던 원칙과 규칙이 와해되었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절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브레튼 우즈 체제가 파괴된다면 이와 유사한 체제를 우리가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가? 건설할 수 있는가? 이 과정에서 한중일3국이 협력할 수 있는가?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학부와 대학

원생들에게 이와 관련된 탐구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학원생과 중국의 대학원생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가? 한중일 학부 학생들이 문제해결활동을 실행하여 연구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학자로서 이러한 논의와 실행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연구와 교육을 통해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한중일3국의 국제정치학계는 학문적 훈련 방식, 방법론, 접근법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논의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통합된 내용과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현재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적 확장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한중일 국제정치학자들이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상대방의 방법과 훈련체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해 본다면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Professor Bi Yingda forecasts U.S.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and examines the prospects for peace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rump's second term. Although forecasting the future in the social sciences is notoriously challenging, Professor Bi Yingda develops a robust scholarly discourse based on well-substantiated reasoning, and the resulting policy implications are considerable. In this regard, his presentation is exceptionally timely and provides numerous insightful perspectives.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the key variable in easing tensions and fostering peace in Northeast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ultimately be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South Korea's new foreign policy. The strategic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xpected to intensify regardless of who become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is likely to continue undermining the very multilateral order it once helped to construct. Meanwhile, China's influence in international affairs—particularly in the economic realm—continues to grow, even without deliberate action, which may inadvertently appear threatening to other countries. In this context, South Korea's diplomatic strategy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likely be to maintain close relations with both powers as much as possible. Although this is no easy task, there appears to be no viable alternative. South Korea will need to broaden the spectrum between extreme pro-China and extreme pro-U.S. positions, thereby expanding the diplomatic space in which it can maneuver flexibly between the two. Despite the growing direct and indirect pressure from both countries, the only available strategy for South Korea may be to continue widening this strategic space and preserving its room for diplomatic flexibility.

Rather than engaging directly with the ongoing discussion, the author would like to raise a more fundamental ques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scholar. This issue is also closely connected to Professor Bi Yingda's remarks on long-term cooperation. Focusing o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which the author has personally studied with interest, a brief explanation follows. First, since Trump's first term, the United States has shown a tendency to dismantle the Bretton Woods system that it itself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its trade war and economic conflict with China, the U.S. ignored and undermined the GATT and WTO systems that it had painstakingly built. Precisely speaking, which procedures of the WTO has the

United States damaged and in what ways?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such disruptions for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Do the norms and institu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till hold meaningful value and merit preservation from the standpoint of other countries? If China were to establish a law similar to the U.S. Trade Expansion Act and invoke it, how would other nations respond?

These topics constitute critically important subjects of inquiry for scholar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owever, are we actively conducting such research? Can scholars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from Korea and China engage in meaningful dialogue regarding the necessity, methodology, and direction of this research? Is there an academic framework or shared language that allows political scientis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to collaborate? If such a framework is weak or nonexistent, w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it? What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might be feasible? While forecasting the future is important, the order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has already been severely undermined over the past several years—principles and rules that were originally weak but nonetheless formally existed have now collapsed—and conducting systematic research on this issue should be an urgent priority. Moreover, it is crucial to derive appropriate policy implications from such research. If the Bretton Woods system is destroyed, should we attempt to construct a similar new system? Is it possible? And can Korea, China, and Japan cooperate in this process?

Another important issue is whether we are adequately teaching these changes to our students and whether we are providi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ith relevant research topics. In this process, can Korean and Chinese graduate students collaborate on joint research? Can undergraduate studen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engage in problem-solving activities that produce research outcomes? As scholars, shouldn't we be able to engage sufficiently in these discussions and practices? It should also be possible to cooperate through actual research and education,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is process.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cademic communities in Korea, China, and Japan differ significantly in their academic training methods, methodologies, and approaches, which has often resulted in discussions remaining mostly formal and superficial. However, isn't it possible for us to develop an integrated curriculum and methodology for studying international relations?

Currently,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itutes is making considerable policy efforts to expand academic discipline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hen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make efforts to understand each other's methodologies and training systems and seek common ground in research and education, this serves as an important example at the leve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stitutes.

山泰幸 (간세이가쿠인대학재해부흥제도연구소)

YAMA, Yoshiyuki (Kwansei Gakuin University of Institute of Disaster Area Revitalization, Regrowth and Governance)

초록

발표자는 도쿄대학 지진연구소 객원교수, 교토대학 방재연구소 객원교수,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공동 연구 대표자 등으로서,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올해 출간된 연구 성과 ‘동아시아재해 인문학의 초대—기후변화·재난 다발 시대를 마주하는 인문학’의 개요를 소개함과 동시에, 인문학의 관점에서 재난 연구에 접근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재해(재난)’ 개념의 검토와 동아시아의 협업, 재난 유산과 기억의 계승·감정의 회복, 방재·부흥에서의 풍토 문제, 철학적 실천(대화의 장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논할 예정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presenter has long been engaged in organizing and advancing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s that involve numerous researchers from multiple disciplines—not only the humanities but also the natural sciences—serving as a Visiting Professor at the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Tokyo, Visiting Professor at the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Kyoto University, and as a co-principal investigator of a joint research project at 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Humanities, Kyoto University. In this presentation, he will introduce an overview of the research findings published this year, *An Invitation to East Asian Disaster Humanities: Facing the Era of Climate Change and Frequent Disasters*, while also discussing key concepts considered important for approaching disaster research from the humanities. Specifically, he will focus on examining the concept of “disaster (suffering),” collaborative research in East Asia, inheritance of disaster heritage and collective memory, recovery of emotions, issues of local culture in disaster prevention and reconstruction, and philosophical practice (creating spaces for dialogue).

강희숙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Kang, Hui-suk (Disaster Humanities, Chosun University)

초록

야마 요시유키 교수님은 오늘 발표에서 올해 3월 일본에서 간행된 『동아시아 재해인문학의 초대 -기후변화·재해 다발 시대에 마주하는 인문학』의 개요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재해(재난) 개념의 검토’,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와 협동과 교류’, ‘재해 유산과 기억의 계승, 감정의 회복’, ‘방재 부흥

과정에서의 풍토(風土) 문제, ‘철학적 실천(대화의 장 만들기)’ 등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소개하신 『동아시아 재해인문학에의 초대 -기후변화·재해 다발 시대에 마주하는 인문학』은 교토대학에서 수행한 인문학 공동연구의 성과로서 ‘동아시아 재해인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특징입니다.

대규모 재해에서부터 감염병, 인구 소멸 문제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 앞에서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각지에서 축적되어 온 재난 대응의 역사와 실천 지식, 엮어진 언어와 사상을 검토하고, 인문 지식을 현대에 활용하는 새로운 학문 영역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재난인문학’이란 다양한 재난 앞에서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2019년 5월 1일부터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 -재난인문학의 정립’이라는 아젠다로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사업단에서는 곧바로 소개서에 대한 번역 작업에 착수할 만큼 그 관심이 컸습니다. 다만, 서장(序章)과 맺음말(結論)을 포함하여 총 5부 10장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재해인문학에의 초대』에서의 ‘재해인문학’은 본 사업단의 아젠다에 기초한 ‘재난인문학’과는 약간의 간극이 엿보이기도 하는바, 추후 ‘재난인문학의 정립’이라는 아젠다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서 좀더 정밀하면서도 치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야마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질의 또는 논의를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수님께서 먼저 머리말 부분에서 ‘재해’ 또는 ‘재난’을 넓은 의미의 PDSs((Persistent Disruptive Stressors), 곧 지속적인 파괴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 자연재해 외에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재해(재난)’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령화’ 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단순한 사회적 위기가 아닌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사회가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재난으로서 ‘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일본 사회의 인식 또는 인식의 변화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둘째, ‘재해(재난)’ 개념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가 법률적으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구분하고 분류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에는 차이가 있어서 ‘자연재해’나 ‘인재’, ‘사회재난’ ‘복합재난’ 등의 네 가지 어휘가 개념적 차이를 지니며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총칭으로는 ‘재해’보다는 ‘재난’이 더 널리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강희숙 2020)¹⁾.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언어 현상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셋째, ‘재해인문학’ 또는 ‘재난인문학’의 핵심 주제라고 할 ‘재해문화’ 관련 논의에서는 “재해 대응을 위해 축적된 지식, 기술, 고안들을 총체적으로 ‘재해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이루어졌는바, 이에 대해서도 사회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진 재난의 기억공간 구축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재난문화를 비교 분석한 왕샤오쿠이(2013)²⁾에서는 ‘재난문화’를 “재해 다발 지역의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보유한 문화적 의미의 안전보장 전략으로, 지역 공동체가 공유한 가치, 규범, 신념, 지식, 기술, 전승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재난문화를 분석한 바 있는 천안(陳安) 교수의 경우,³⁾ 재난에 대한 사회적 해석, 역사적 기록 또는 문학과 예술 작품 등을 재난문화의 범주에 포함하

1) 강희숙(2020), 「재난 유형 관련 용어의 사용 추이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빅카인즈 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배달말』 67, 배달말학회, 1-32쪽.

2) 왕샤오쿠이(2013), 「재난문화의 중일 비교—지진 재난 기억공간 구축을 사례로—」, 『윤남사범대학교 학보』 45권 6호.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재해문화’ 또는 ‘재난문화’의 개념이나 범주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학계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넷째, 제3부 ‘현장과 함께하는 인문학의 협업 실천’에서는 이른바 ‘현장재난인문학’의 관점에서 연구자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려는 노력과 함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을 함께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논의를 하면서 외부 연구자와 지역민 간, 또는 연구자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재난 현장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 내에서의 현장재난인문학의 성과 또는 활동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bstract of manuscript

In your presentation today, you introduced the March publication from Japan, *Invitation to East Asian Disaster Humanities: Humanities in the Era of Frequent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Based on this text, you structured your discussion around five key themes:

1. Re-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disaster (津災/災難)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2. Reg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across East Asia
3. Inheritance of disaster heritage and memory, and the restoration of collective feeling
4. Issues of fūdo (風土/climate/locale) in disaster-resilience revival
5. Philosophical practice - creating spaces for dialogue

You noted that the book, a product of collaborative humanities research at Kyoto University, defines "disaster humanities" as follows:

"From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and epidemics to depopulation, humanities must explore what role they can play in the face of successive disasters, examine the historical and practical knowledge, the woven languages and mentalities of disaster response accumulated across East Asia, and open a new field of academic work applying this knowledge to the present."

Under this definition, disaster humanities begins by seeking the roles humanities can play in the face of various disasters. Our own Disaster Humanities Research Center, under the agenda "Memory, Narratives, and Healing of East Asian Disasters: Establishing Disaster Humanities," funded by HK+ since May 1, 2019, moved quickly to begin translating the introduction-testament to our deep interest.

Nevertheless, in *Invitation to East Asian Disaster Humanities*-spanning five parts and ten chapters from preface to conclusion-there appears to be a subtle gap between the concept of "disaster humanities" and our own agenda of "establishing disaster humanities." Therefore, in our shared goal of further refining and advancing the discipline, I intend to fulfill my role as discussant by posing a few targeted questions based on today's presentation.

3) 강희숙 외 4인 역(2023), 『중국의 재난문화』, 역락.

1. Recognition of Aging and Rural Depopulation as Disasters

First, you introduced PDSs-"persistent disruptive stressors"-broadly encompassing factors such as aging and depopulation resulting in the disappearance of local communities, which you classify as disasters. In contrast, Korean society does not yet recognize aging or rural depopulation as disasters. In light of this difference, I wonder how Japanese society currently perceives or frames these phenomena-as social issues, demographic changes, or genuine disasters? What shifts in perception are occurring in Japan that might provide a model for reframing such issues as disasters?

2. Terminological Differences: 災害 vs 災難

You discussed that, in Japan, the broader term 災難 (sainan) is more widely used, whereas Korea uses 災害 (saehae), even though society generally understands both. Korea legally distinguishes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disasters," while socially we use terms like "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and "complex disaster," though 災難 ("disaster" in general) is preferred in everyday language (e.g., see Kang Hee-sook, 2020).

In this context, do you see similar linguistic patterns and concept use across East Asian countries? Would it be beneficial to compare these terminologies in a coordinated study? I'd appreciate your insights on this issue.

3. Scope and Variability of "Disaster Culture" / "Disaster Humanities"

Your definition treats "disaster culture" as the accumulated knowledge, technologies, and inventions facilitating disaster response. However, scholars like Wang Xiaokui (2013) define disaster culture as:

"A region's shared knowledge, norms, beliefs, skills, and transmissible traditions used to ensure communal safety in disaster-prone areas."

Likewise, Chen An (2023) classifies social interpretations, historical records, and literary/artistic works dealing with disasters as part of "disaster culture."

Given this, I wonder how the Japanese humanities community defines and delineates "disaster culture" and "disaster humanities" in comparison to these views? Could you highlight major Japanese scholarly debates on the definition or scope of these terms?

4. Fieldwork-Based Disaster Humanities in Japan

In Part III ("Humanities in Collaboration with the Field"), you emphasize that 'field disaster humanities' relies on engagement with regional history, culture, community, and dialogue-oriented problem solving between external researchers and local populations. Could you share examples or case studies from Japan where this collaborative, field-based disaster-humanities approach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최봉준 (가톨릭대 인문사회연구소)

BongJun Choi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atholic University)

초록

이 발표는 『東アジア災害人文學への招待』(2025.03.28. 臨川書店)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발표자는 재해(災害)와 재난(災難)의 의미적 차이점, 재해문화와 방재문화, 재해 유산과 유적에 관한 발표자 자신의 견해를 먼저 제시하고, 책의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재해의 역사, 재해와 관련한 언어와 사상의 문제, 재난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협업의 사례의 순서로 되어 있다. 발표문에 소개되어 있는 목차를 통해 일본에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중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에서 재해가 연구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를 환경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였다. 한국사 영역에서 환경사는 그 후 『조선왕조실록』의 재해 관련 기사의 실증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중국과 일본의 기후 관계 자료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한편, 17세기 위기론 등 전세계적인 기후의 변화와 한국의 역사적 흐름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학과의 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회를 통한 종합적인 연구와 연구과제를 통한 프로젝트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발표문에 나오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학계와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발표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는 않지만), 동아시아나 전세계적 관점에서의 연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발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자연환경과 풍토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가지 만으로도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통적 자연환경 만큼이나 서로 다른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조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재해인문학의 성과와 과제, 경험은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조건 역시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한국사를 전공한 토론자의 입장에서 넉넉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인상적인 내용도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지 못한 입장에서 들었던 약간의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필자 선생님의 의도를 오해했을 수도 있고, 너무 지엽적인 것을 부풀려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용서를 바라며 부족한 질문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재해와 재난의 차이점과 그 의미

발표문에서는 한국에서는 주로 ‘재해(災害)’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재난(災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양자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풍토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학의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천재지이(天災地異)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변란(變亂)의 징조로 해석되는 한편, 천명에 따르지 않는 인간에 대하여 가해지는 하늘의 경고라 할 수 있었다. 이때 군주는 주술적인 행위 또는 국가적 의례를 통해 지금까지의 정치에 대해 반성하는 한편, 근신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이때 하늘의 징벌 또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현상은 오로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재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일식이나 월식, 성변(星變)과 같은 재이(災異)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재해보다는 재이와 관련된 자료가 양적으로는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재난보다는 재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사고와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또한 발표문에서 재해는 자연현상에 국한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재난은 인간의 관점에 가까운 용어라고 하였다. 발표자 선생님의 견해를 요약하면, 재해가 수동적 의미라고 한다면, 재난은 능동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재해가 과연 수동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홍수가 발생하면, 치수(治水)나 준설(浚渫)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기우제와 같은 국가적 의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때 고려와 조선왕조에서는 유학,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 국가적 테두리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사상을 동원하였다. 따라서 재해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재난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며, 굳이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거나 재해 대신 재난을 추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된다.

재난과 재해의 의미를 구분하신 이유와 각각의 의미의 차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PDSs

발표 PPT에서 제시한 PDSs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인간 사회에) 지속적으로 지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문에 나오는 교토 시라카와 토석류 관련 유적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반복되는 홍수의 결과로 만들어진 퇴적층에 관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연구 보고가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공통적인 자연재해의 위협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면,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PDSs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발표문에서 제시한 PDSs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면, 가뭄은 전근대사회는 물론 오늘날에도 매우 중대한 재해라 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가뭄은 전근대사회와 비교해볼 때 그 무게감이 다르다. 또한 지속적인 방재에 힘쓴 결과 천연두와 같이 거의 극복 단계에 이르게 된 감염병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PDSs는 한국, 일본,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각각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에 따라 종류와 범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PDSs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 범주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PDSs라는 개념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

3. 재해문화와 방재문화의 관계

발표문에서는 재해문화는 재해 대응을 위해 축적된 지식, 기술, 고안들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재해문화에 대한 접근은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과거의 재해 경험과 재해관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기술적 접근’과 방배와 피해 정도를 경감하기 위해 그 유용성을 따지는 ‘가치평가적’이 그것이다. 이 중 후자를 특별히 ‘방재문화’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보기에 따라 재해문화와 방재문화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두 재해나 재난을 막으려는 공통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해문화와 방재문화는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양자가 독립적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오랫동안 재해문화와 방재문화를 공유해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념 모두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기우제는 가뭄이 발생하였을 경우 거행하는데, 적절한 강우를 통해 농업생산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의례라 할 수 있다. 기우제가 일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비가 내렸다고 하는 오랫동안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난 행위라고

한다면, 재해문화에 해당한다. 또한 오랜 가뭄을 끝내려는 간절한 바람에서 나타난 의례적 행위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발표문에서 말하는 방재문화에 해당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재해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며, 방재문화에 해당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두 개념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was primarily based on the volume *Invitation to East Asian Disaster Humanities* (2025.03.28, Rinsen Shoten). The presenter first offered their own views on the semantic distinctions between “disaster” (災害) and “calamity” (災難), the concepts of disaster culture and disaster prevention culture, and heritage and relics related to disasters. The contents of the book were then introduced, structured as follows: the history of disasters, linguistic and ideological issues surrounding disasters, and examples of actual collaboration in disaster sites. The table of contents shared in the presentation suggests that the research is based primarily on Japanese studies with references to Chinese cases.

In Korean history, disasters have long been a subject of research, but an environmental history approach was not adopted until 1997. Since then, environmental history in the Korean historical field began with empirical analyses of disaster-related entrie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has now expanded to comparative studies with climate-related materials from China and Japan, as well as investigations into the global climatic shifts of the 17th century and their historical implications for Korea. Collaborative work with the natural sciences has also been undertaken, alongside comprehensive research and large-scale projects via academic associations. However, certain limitations remain. For instance, as also noted in the presentation, there has been a lack of active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academia and local communities.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Korean scholars have recently become more active in research initiatives that consider East Asia or the world at large. As pointed out in the presentation, Korea, Japan, and China—the three major East Asian nations—share similar natural environments and climates due to their geographical proximity. This alone provides ample conditions for joint research efforts. However, these countries also possess distinct cultural, geographical, and historical conditions, which must be fully considered even as their shared experiences and accomplishments in disaster humanities are acknowledged and exch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a scholar of Korean history, the content of this presentation was relatable and at times deeply impressive. I believe it will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in future research. Nevertheless, I would like to pose several questions that arose while reading the presentation, although I have not yet had the chance to read the book in full. I may have misunderstood the presenter’s intentions or amplified overly minor points in my questions—I ask for your forgiveness in advance and sincerely look forward to your insights in response.

1. On the Distinction and Meaning of Disaster (災害) and Calamity (災難)

The presentation noted that while Korea tends to use the term “disaster (災害),” Japan prefers

“calamity (災難),” though both are often used interchangeably. This was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the respective climates and natural environments of the two countries. Generally speaking, “disaster” refers to damage inflicted on humans by nature and may be interpreted as a sign of Heaven’s warning in the Confucian tradition of *tianren ganying* (天人感應). Natural calamities were seen as omens of forthcoming political upheaval or as divine warnings against human misconduct. In such instances, the ruler was expected to engage in ritual reflection or national ceremonies to express repentance and introspection.

Importantly, such celestial warnings were not limited to disasters causing direct human damage. Celestial and terrestrial anomalies (災異), such as solar/lunar eclipses and stellar irregularities (星變), were also included. In fact, historical records of these anomalies may even outnumber those of actual disasters. This may explain why the term “disaster (災害)” is more commonly used in Korea than “calamity (災難),” reflecting a particular historical and ideological perspective.

The presentation further argued that “disaster” pertains more to natural phenomena and carries a passive connotation, whereas “calamity” is more aligned with human perspectives and thus considered more active. To paraphrase the presenter: if “disaster” is passive, “calamity” is active. This raises the question: can “disaster” truly be regarded as passive? Historically, the occurrence of floods prompted active responses such as river maintenance or dredging, and governments often conducted rain-invoking rituals (祈雨祭). In both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all state-sanctioned religions and beliefs—Confucianism, Buddhism, Daoism, and folk religions—were mobilized to address such issues. In this sense, disasters also entailed specific responses and countermeasures, much like calamities. Thus, I wonder if there is truly a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nd whether we need to recommend using “calamity” over “disaster.”

I would appreciate it if the presenter could elaborate on the rationale for distinguishing these terms and provide more detail on their semantic differences.

2. On PDSs

The PPT presentation introduced the concept of “PDSs,” which could be translated into Korean as “persistent disturbing stressors to human society.” From the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record—including the stone debris flows of Kyoto’s Shirakawa area—it is evident that recurring floods and the resulting sediment layers have been well documented across the globe. This reflects the historical reality that humanity has long suffered from shared natural disasters.

That said, I wonder whether PDSs, as presented, might vary depending on historical context. For example, droughts have always been serious disasters, but their impact today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premodern times. Likewise, certain infectious diseases, like smallpox, have been nearly eradicated due to sustained disaster mitigation efforts. Even within East Asia, while some PDSs are common across Korea, Japan, and China, others may differ depending on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I would like to ask for a more precise explanation of what exactly is included under the term “PDSs,” what its scope and boundaries are, and what led to the conceptualization of this term in the first place.

3.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Culture and Disaster Prevention Culture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disaster culture” refers to the body of knowledge,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accumulated in response to disasters. This can be approached in two ways: (1) the technical collection and documentation of past disaster experiences and views; and (2) value-based assessments that evaluate the utility of such knowledge for disaster mitigation. The latter is referred to more specifically as “disaster prevention culture.”

From a certain perspective, both disaster culture and disaster prevention culture share much in common and aim toward the same goal of minimizing disaster impacts. Therefore, I wonder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are they distinct and independent, or are they deeply interconnected? Historically, humans have likely shared both cultures, and many practices could fall under both categories. For example, the rain-invoking ritual (祈雨祭) held during droughts is meant to ensure sufficient rainfall for agricultural productivity. If we consider this a practice born of long-standing experiential knowledge, it would qualify as part of disaster culture. If we instead focus on the urgent desire to end a drought and avert agricultural failure, it could also be seen as an act of disaster prevention.

Could the presenter please provide examples of practices that belong to disaster culture, and others that belong to disaster prevention culture? And further, could you elabor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ncepts?

대만 지역 대학 한국학 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 한국 한문학/고전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The Practice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Education in Taiwanese Universities
— Focusing on the Teaching of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nd Sino-Korean Literature

임유의 (林佑毅) (대만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LIN, YU Y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NCCU, Taiwan)

초록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한국학 연구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학이란 한국의 문화, 문학, 역사, 정치, 경제, 외교뿐 아니라 K-pop이나 한국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모두 포함한 연구 분야이다. 한국학 연구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해외 한국학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는 선행 연구에서 이미 많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문학, 특히 한국 한문학 및 고전문학 교육이 중화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 문학 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비중화권 학습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중화권 학습자들의 경우 이미 한자에 익숙하므로 고전문학에서의 한문학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문학을 포함한 한국 고전문학을 배우기 위해 한글을 공부하다 보니 한국어의 복잡한 문법과 어휘에 부담을 느껴 한국 문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학 교육의 목적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접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연구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면, 각 지역의 한국학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만 지역의 한국 한문학 및 고전문학 교육은 대만인의 한자 지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문학 교육을 위한 선생 지식으로 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한학교육 현황을 소개했다. 대만에서는 중국고전문학, 대만고전문학, 한국한문학, 일본한문학, 베트남한문학이 모두 ‘한학(漢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실시되는 한학 교육은 당연히 문언문(文言文)으로 쓰인 중국고전문학과 대만고전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006년 대만 교육부 교육강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국어 교재에는 40편의 문언문 작품이 수록되어야 했으나, 탈중국어화 정책의 영향으로 2019년에는 15편의 문언문 작품만 남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문사철 계열 학과와 비문사철 계열 학과 간의 한학 교육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국립정치대학교 중국문학과와 경우, 36학점 이상의 필수과목과 15학점 이상의 선택과목을 수강해야 하지만, 비문사철 학과의 경우에는 “대학 국문”이라는 교과목을 3~6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대학 국문”의 구체적인 교과 내용은 강의 담당 교원의 연구 분야에 따라 달라진다. 국립정치대학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개설된 162개의 강의는 중국 고전문학을, 34개의 강의는 대만 고전문학 또는 현대문학을, 24개의 강의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한국 한문학 및 고전문학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만에서는 국립정치대학교, 중국문화대학교 두 대학만이 한국어문학과를 두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정치대학교는 “東亞跨文化交流專題”(석사), “韓國古典文學研究”(석사), “韓國古文書入門”(석사/학부) 등 총 6개의 강의를 개설했고, 중국문화대학교는 “韓國文學專題研究”(석사), “韓國燕行錄研究”(석사), “韓國文學概論”(학부) 등 총 15개의 강의를 개설했다. 이 두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교나 교육 기관에서는 한국 한문학 또는 한국 고전문학을 주제로 한 강의를 개설한 적이 없다. 대만에서 한국 한문학 및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한국 한문학/고전문학 교원 부족, (2)제한된 강의 시간으로 인한 교육 내용의 소략화, (3)작품 강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에 따라 작품에 반영

된 시대적 배경이나 사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4)대만 지역의 역사·문화와 한국 고전문학 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학습 동기의 약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 방안과 교재를 개발해야만 하며, 이를 통해서야 비로소 한국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즉 한국을 알고, 이해하며, 나아가 연구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 교육 단계의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한국 한문학 및 고전문학의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대만 고등학교 학생 대상

대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 연계하여 한국의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동진(東晉)의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를 가르칠 때는 조선시대 안평대군의 꿈을 바탕으로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를 소개하거나, 당나라 두광정(杜光庭)의 「구염객전(虯髯客傳)」을 가르칠 때는 고려시대의 「동명왕편(東明王篇)」이나 가전체 작품을 소개하거나, 청나라 포송령(蒲松齡)의 「로산도사(勞山道士)」를 가르칠 때는 『삼국유사』에서 수록된 「양지사석(良志使錫)」과 같은 신이한 종교 이야기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한국 한문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2. 한국어과가 아닌 학과 학생 대상

대만과 한국의 교류에 관한 한문 자료를 활용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7세기초 반청복명을 위해 조선이 대만 정성공의 동향을 수집한 사례, (2)1667년 제주에 표착 95명과 관련된 대만인 사건(丁未漂人), (3)17~18세기 조선인의 대만 표착 사례(1729尹道成, 1796李邦翼), (4)19~20세기 일본 침략의 역사 비교(시모노세키 조약), (5)20세기초 개성상인의 대만 방문(1928 孔聖學 『香臺記覽』), (6)20세기초 독립운동가 조명하의 대만 내 항일 운동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어문학과 학생 대상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에게는 한문 자료와 한글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심화된 한문학 및 고전문학 교육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교육 주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1)대만 원주민 전설과 한국 설화의 관계(예:홍수 설화), (2)대만 전통 희곡 歌仔戲와 한국 판소리의 비교 연구, (3)시조의 한시 번역과 한시의 시조 번역 양상 비교 연구, (4)이두 자료 분석 및 번역(장계 문서), (5)근대 중국인의 대만 방문기와 사조선록 비교 연구, (6)대만의 항일 문학과 조선의 항일 문학 비교 연구 등이 있다.

이상으로 대만에서 한국 한문학 및 고전문학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대만 학습자의 한문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국어를 모르는 대만인의 한문 수준에 맞춰 한국 한문학을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문학 및 고전문학 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할 만한 몇 가지 작품을 소개해 봤다. 결국 대만 지역의 한국 한문학 및 고전문학 교육은 대만인의 한자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즉 “한국어를 잘해야 한국 한문학 및 고전문학을 배울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단순히 한국 한문학/고전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근현대 대만과 한국의 교류와 공통점을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With the global spread of the Korean Wave (Hallyu), international interest in Korea has grown significantly, and Korean Studie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academic field worldwide. Korean Studies encompasses a wide range of topics, including Korean culture, literature, history, politics, economy, diplomacy, as well as popular culture such as K-pop and Korean dramas. Questions regarding how Korean Studies can be promoted globally and how to

foster talent in this field have already been extensively discussed in previous research.

However, discussions on how to effectively teach Korean literature—particularly Sino-Korean literature and classical Korean literature—to learners in the Chinese-speaking world remain insufficient. In most cases, it is assumed that Korean language instruction must precede the teaching of Korean literature in overseas contexts. While this approach is understandable for learners outside the Sinophone sphere who are unfamiliar with Chinese character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learners in the Chinese-speaking world are already accustomed to classical Chinese, making it feasible to utilize original texts from Korean classical literature written in literary Chinese. In reality, many learners lose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as they struggle with the complex grammar and vocabulary of Korean, which they must first learn in order to study classical texts that include Sino-Korean literature. If the goal of Korean Studies education is to help foreign learners access, understand, and ultimately research Korea, then it is more desirable to develop customized teaching materials that take into account the background knowledge and linguistic abilities of learners in each region. In this regard, the teaching of Sino-Korean and classical Korean literature in Taiwan should be designed to actively leverage Taiwanese learners' familiarity with Chinese characters.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Hanxue (漢學, classical Sinology) education in Taiwanese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as foundational knowledge for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Taiwan, Hanxue encompasses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Taiwanese classical literature, Sino-Korean literature, Japanese Kanbun literature, and Vietnamese Han literature. However, Hanxue education in both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primarily focuses on Chinese and Taiwanese classical literature written in Literary Chinese (文言文). According to the 2006 curriculum guidelines issued by Taiwan's Ministry of Education, high school language textbooks were required to include 40 Literary Chinese text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de-Sinicization policy, however, this number was reduced to only 15 by 2019. At the university level,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anxue education between humanities majors (especially in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and non-humanities majors. For instance, at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Chinese literature are required to complete over 36 credits of core courses and more than 15 credits of elective courses. By contrast, students in non-humanities disciplines are only required to complete 3 to 6 credits in a course called "University Chinese." The content of this course varies depending on the instructor's academic background and research specialization. In the case of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162 courses offered over the past five years focused on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34 courses covered Taiwanese classical or modern literature, and 24 courses dealt with modern literature from Hong Kong, Singapore, and Malaysia.

When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Taiwan, it becomes evident that only two universities—National Chengchi University and Chinese Culture University—offer degree programs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ver the past three year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has offered a total of six courses, including "Special Topics in East Asian Intercultural Exchange" (Master's level), "Studies in Classical Korean Literature" (Master's), and "Introduction to Korean Classical Documents" (Master's/Undergraduate). Chinese Culture University has offered a total of 15 courses, such as "Special Topics in Korean Literature" (Master's), "Studies in the Records of

Korean Envoys to China” (Master’s), and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Undergraduate). Aside from these two universities, no othe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 Taiwan has offered courses specifically focused on Korean classical or Sino-Korean literature. Several key issues can be identified in the current Korean literature curriculum in Taiwan: (1) a shortage of qualified instructors in Korean classical and Sino-Korean literature; (2) limited instructional time, resulting in the oversimplification of course content; (3) the time-intensive nature of close textual reading, which often leaves little room for exploring the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ntext reflected in the works; and (4) a lack of connection between Taiwanese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s and Korean classical literature, which contributes to weakened student motiv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it is essential to develop instructional strategies and teaching materials that reflect the learners’ background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s. Only through such tailored approaches can Korean Studies education fulfill its ultimate goal—enabling learners to gain knowledge about Korea,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and eventually pursue research in the field.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explore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Sino-Korean and classical Korean literature that are appropriate for learners at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1. For Taiwanese High School Students

An effective approach to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Taiwanese high school students is to relate Korean texts to works already included in the national language textbooks. For example, when teaching Tao Yuanming’s (Tao Qian, Eastern Jin dynasty) “Peach Blossom Spring” (桃花源記), one may introduce the “Dream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夢遊桃源圖), a painting by An Gyeon based on Prince Anpyeong’s dream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n covering Du Guangting’s “Tale of the Guest with the Curling Beard” (虬髯客傳) from the Tang dynasty, educators may draw comparisons with Korean texts such as “Dongmyeongwangpyeon” (東明王篇) or other examples of gajeonche (仮傳體) literature from the Goryeo period. Likewise, while teaching Pu Songling’s “The Taoist Priest of Laoshan” (勞山道士) from the Qing dynasty, introducing fantastical religious tales such as “Yangji’s Miraculous Staff” (良志使錫) from the Samguk Yusa (三國遺事) can enhance students’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ino-literature.

2. For Students Outside Korean Language Departments

For students not majoring in Korean language, using classical Chinese texts related to historical exchanges between Taiwan and Korea can spark interest in Korea and its cultural history. For example, the following cases may serve as effective teaching materials: (1)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 Joseon dynasty monitored the activities of Zheng Chenggong (Koxinga) in Taiwan as part of its awareness of the regional dynamics during the anti-Qing, pro-Ming movement; (2) the 1667 case involving 95 Taiwanese shipwreck victims who drifted ashore in Jeju Island, known as the 丁未漂人 incident; (3) cases of Joseon individuals shipwrecked in Taiwan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including Yun Doseong (尹道成, 1729) and Yi Bangik (李邦翼, 1796); (4) comparative studies of Japanese imperial expansion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such as the Treaty of Shimonoseki; (5) records of Kaeseong merchants visiting Taiwan in the early 20th century, including Hyangtae Giram (香臺記覽, 1928) by Gong Seonghak (孔聖學); (6) the anti-Japanese activities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 Cho Myong-ha in

Taiwan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3. For Students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s

For students with proficiency in Korean, offering both classical Chinese and Korean texts allows for more comprehensive and advanced instruction in Korean classical and Sino-Korean literature. The following topics can be explored as part of the curriculum: (1) comparative studies of myths and legends between Taiwan and Korea—for example, flood myths; (2) comparative research on Taiwanese traditional opera (gezixi, 歌仔戲) and Korean pansori; (3) translation studies involving Korean sijo rendered into classical Chinese poetry, and vice versa; (4) analysis and translation of idu texts, such as janggyes (petitions or official documents); (5) comparative study of modern Chinese travelogues on Taiwan and Korean envoy records such as the Sajoseonrok (使朝鮮錄); (6) comparison of anti-Japanese literature from Taiwan and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examined effective strategies for teaching Korean classical and Sino-Korean literature in Taiwan, focusing on learners' proficiency in classical Chinese. It has also proposed methods for instructing Korean literature to Taiwanese learners with limited or no Korean language skills, while suggesting specific texts that can be used when teaching students who are proficient in Korean. Ultimately, Korea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n Taiwan should be designed to actively utilize the learners' existing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It is necessary to move beyond the assumption that one must be fluent in Korean to study Korean classical and Sino-Korean literature. Rather than simply introducing Korean literary texts, incorporating shared cultural and historical experiences between modern Taiwan and Korea into the curriculum can more effectively engage learners and enhance their motivation.

이경구 (한림대 한림과학원)

Lee Kyungku (Hallym Academy of Science, Hallym University)

초록

임유의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사(조선시대사)를 전공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에 있고, 한국사 공부 외에 동아시아 개념사 프로젝트 및 강원도의 지역인문학센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토론자로 선정된 듯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대만에서의 한국학 특히 한국 한문학 교육의 실제와 전망을 두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발표에 대한 질문 두 가지와, 발표에는 없지만 우리 세션에서 고민할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대만 고등학교의 한문 교재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ppt 9~11) 고전 텍스트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듯합니다.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은 한자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일까요? 한국에서는 한자/한문 교육이 위축되고 있고, 따라서 한문으로 된 한국 고전에 대한 교육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이나 중국에서 고전 교육의 추이를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2. 대만에서 한국고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고 흥미로운 교과를 개발하는 과정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로 대학 교육에서 한국의 한문학/고전문학 또는 한국어 위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인 한국학(한국어 전공 포함) 전공자의 추이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전근대 역사와 철학(동양철학)을 전공한 대만 연구자들의 활발한 성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 발표와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저희 세션의 주제가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위기'이고, 이 파트는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지역 문제는, 한국의 사정을 아시겠지만, 인구 문제와 수도권-지방의 격차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의 수도권 집중이 날로 심화되어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을 것'(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대학부터 폐교할 것)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대만에서의 인구와 지방 문제 그리고 지방 대학의 사정과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ank you, Professor Lim Yu-ui, for your insightful presentation.

First, allow me to briefly introduce myself. I specialize in Korean history, particularly the Joseon Dynasty period. I am currently based at Hallym University in Chuncheon, Gangwon Province. Alongside my work in Korean history, I have been involved in a project on conceptual history in East Asia as well as regional humanities programs in Gangwon-do. I believe this background may explain why I was invited as a discussant for today's session.

In your presentation, you offered a wide-ranging overview of Korean Studies in Taiwa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practice and future prospects of teaching Korean classical literature

written in literary Chinese. I would like to raise two questions related directly to your presentation, and one more broadly connected to the theme of this session.

1. In your slides (PPT 9-11), you introduced some examples from Taiwanese high school Chinese language textbooks.

From what I understood, classical texts seem to be gradually decreasing in prominence. If this is indeed the case, do you think this is a common phenomenon across countries within the Sinosphere or Chinese-character cultural sphere? In Korea, instruction in classical Chinese and literary Chinese has been in decline, which in turn makes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teach Korean classical texts written in literary Chinese. I would be interested to hear your thoughts on current trends in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in Taiwan or even in China, in relation to this broader context.

2. You shared that interest i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Taiwan is gradually increasing, and despite various challenges, educators have been exploring points of engagement and developing engaging curricula.

Most of your presentation focused on university-level education, especially in Korean literature written in literary Chinese or Korean classical literature, or through the medium of the Korean language. I would like to ask a follow-up question about the next step: what is the current trajectory of students majoring in Korean Studies, including Korean language? Personally, I have been observing a rise in meaningful scholarly output by Taiwanese researchers who specialize in Korea's premodern history and philosophy, including traditional East Asian thought.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briefly comment on this development.

3. This question is somewhat beyond the scope of your presentation, but closely tied to the overall theme of our session, "Korea's Crises through the Eyes of the World."

This particular panel deals with regional issues. As you may know, regional issues in Korea are deeply intertwined with the population crisis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concentration of young people in Seoul and its surrounding areas has become so severe that a dark joke has spread: "Universities will close in the order of when the cherry blossoms bloom" — that is, universities located further from the capital will be the first to shut down.

How are things in Taiwan in this regard? I would be very interested to hear your thoughts on population and regional issues in Taiwan, and particularly on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of local universities outside of major urban centers.

한의송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an, Eui-soong (Humanities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토론자는 임유의 선생님의 「대만 지역 대학 한국학 교육의 실제와 문제점」이란 발표문을 통해 K-컬처의 활황과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과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대만 지역 한국학 교육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래들어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한국학 교육의 관점에서 한문학, 고전문학 분야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상대적인 현황과 실상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부분이 임선생님 발표를 통해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측면에서 토론자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토론자인 관계로 임선생님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간단한 생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대만 대학에서 교수하는 강의 가운데 〈韓國古文書入門〉이라는 강좌가 눈에 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문집 소재 산문 문체 양식에 해당되는 敎令, 疏籀, 書簡 등과 실용문에 해당되는 置簿, 明文 등을 아울러 고문서로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강좌는 임선생님께서 강의하고 계신데, 이렇게 강좌를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고문서 강좌는 특수 영역에 해당되는 관계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관리학과〉 등과 같은 곳에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인데 이를 대만의 한국학 강좌에서 다룬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쭙본다.

2. 〈韓國文學專題研究〉, 〈韓國文學概論〉 등의 강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하나의 강좌 안에 통시 대적이면서 장르를 통괄하는 구성을 취하면서 한국적인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하려는 고심이 엿보인다. 하지만 엄청나게 광범위한 작품과 시대를 하나의 강좌로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소략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이해된다. 세부 작품의 선정은 어떤 기준을 염두한 것인지 궁금하고, 아울러 한국문학에 대한 강좌일지라도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라는 지점에서 결국 중국문화와의 비교 형태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여 강의하고 있는지(발표문에서 회화, 영상매체 활용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토론자는 임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다시금 연구자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 미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 교류는 단순히 외교의 차원으로 국한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 및 문화 부분에 대한 교류는 상호 이해와 연대의 차원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고, 이는 인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서로 간 이해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국립대 차원에서 한국학 관련 교류나 활성화에 대한 학생, 교원 교류 프로그램의 현황 또는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의지는 어떠한지 여쭙본다.

* 좋은 발표에 우문으로 누를 끼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현답으로 잘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rough Professor Lim Yoo-ui's presentation, "Th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Education in Taiwanese Universities," I had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 growing interest in Korea and Korean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Studies education in Taiwan, amidst the global boom of K-Culture. With the recent surge of global attention toward Korean Studies content, I had been particularly curious about how fields such as Sino-Korean literature and classical Korean literature are being treated in the context of Korean Studies education overseas. Professor Lim's presentation helped clarify some aspects of this issue. In that sense, today's presentation was extremely helpful to me as a discussant.

That said, in fulfilling my role as a discussant, I would like to offer a few questions based on some brief thoughts I had while reading Professor Lim's paper.

1. Among the courses taught at Taiwanese universities, one course titled "Introduction to Korean Classical Documents (韓國古文書入門)" caught my attention. Based on the syllabus details, I understand that this course integrates classical prose forms such as royal edicts, memorials, and letters (教令, 疏筭, 書簡), along with practical writings like registries and contracts (置簿, 明文), treating them collectively as historical documents. Since Professor Lim teaches this course, I'm curious to know the specific reasons for structuring the class this way. In Korea, classical document studies are generally considered a specialized area, typically offered at institutions lik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rough departments such as the Department of Archival Studies. So I wonder whether offering such a course in the context of Korean Studies in Taiwan might be too difficult or ambitious for students.

2. Looking at the course details of "Special Topics in Korean Literature (韓國文學專題研究)" and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韓國文學概論)", it seems that each course aims to present a diachronic and genre-inclusive perspective while selecting representative works that best convey Korean cultural identity. However, due to the expansive time periods and diverse genres, the structure inevitably appears rather broad and somewhat cursory. I would like to ask on what basis the specific literary works were selected. Furthermore, even though these are Korean literature courses, I presume that comparisons with Chinese literature are inescapable given the shared East Asian Sinographic cultural sphere. In this regard, I'd appreciate a more concrete explanation of how such comparative approaches are incorporated into the lectures (although the presentation briefly mentioned using visual media and in-class discussions).

3. While reading Professor Lim's presentation, I was once again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scholarly exchange. In an era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diplomatic affairs alone.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s should be emphasized as a means of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In particular, human resource exchange is a crucial way to achieve deeper intercultural understanding. In this context, I'd like to ask about the current status of institutional support or willingness at the national university level in Taiwan for Korean Studies-related exchanges and activation, such as student or faculty exchange programs.

I hope my questions haven't caused any undue burden or offense. I sincerely look forward to your thoughtful answers and a fruitful conclusion to this discussion.

해방 직후 재조일본인 송환과 귀환 동포 수용 문제로 증폭된 공동체의 균열 - 전후 인구이동의 역사적 함의와 시사점 -

Community Divisions Amplified by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settlers in colonial Korea and the
Reception of Returning Koreans just after Liberation in 1945
- Historical Implications and Lessons of Postwar Population Movements -

이연식 (소피아대학교)

YI, YEONSIK (Sophia University(Global Studies, EAF))

초록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다행히 그의 무모한 도전은 민주 시민들이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몇 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야만적인 폭거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 선거에서 약 절반가량의 국민이 그의 행동을 감싸거나, 굳이 비판하지 않으려는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이 기괴한 현상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또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촉발한 극단의 혐오와 갈라치기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논자에 따라 다양할 테지만, 필자는 해방 직후 조선에서 돌아가는 일본인과 해외에서, 혹은 북에서 남으로 유입된 조선인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식민지와 구 종주국 사이의 쌍방향 인구이동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지역을 막론하고 새로 유입된 집단에 대한 응급구호, 그리고 기존 민 집단과의 갈등 완화, 사회통합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뭔가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왜냐면 바로 그 해방공간은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던 적국민에 대한 극한의 혐오가 노골적으로 표출되었고, 새로 유입된 집단을 공동체의 새 구성원으로 끌어안기 위한 사회통합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부여된 특수한 시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본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먼저 국제난민(international refugee)과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의 수용, 그리고 사회통합이란 과제를 안게 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유럽에서 전개된 전후 인구이동의 주요 특징과 핵심 이슈를 보편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선에서 패전을 맞이한 일본인의 모국 귀환 과정, 해외에서 돌아온 일본인 귀환자에 대한 전후 일본 정부의 대응, 그리고 ‘전쟁 피해 균분’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내세운 ‘광의의 전쟁 피해자론’과 ‘평화이데올로기’의 사회통합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으로 유입된 귀환자와 월남민의 귀환 직후 생활실태, 구호 차원에서 전개된 구 일본인 가옥 및 요정의 공익적 활용(개방) 운동의 전개 과정, 미군정과 구호 당국이 그 대안으로서 추진한 전재민농장 및 가주택 건설사업의 실패 원인 등을 살폈다. 이를 통해 해방 직후 유입된 귀환자와 월남민을 새로운 이웃으로 포용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 건설에 실패한 결과, 사회 도처에 이미 심각한 균열을 안은 채로 갓 태어난 대한민국의 민낯을 재조명해 보고자 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impeached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s coup on December 3, 2024 shocked not only the Korean people but also the entire world, luckily his reckless attempt barely lasted a few hour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revoked his declaration. The more shocking fact, however, is that in the new presidential election on June 3, 2025, nearly half of the citizens

supported a candidate who either defended his barbaric outrages or refrained from criticizing his actions. What could be the reason behind this bizarre phenomenon? When and Where did the extreme hatred and divisiveness, which have triggered the current crisis in South Korea, originate from?

Although answers to this question might be various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scholars, for me who has studied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individuals leaving Korea after liberation of 1945, as well as Koreans returning from overseas or migrating from the North to the South, I sought to draw meaningful insights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liberation period. This era was marked by simultaneous population movements between the former colony and its imperial metropole due to the collapse of the empire. Each region struggled with the challenges of providing emergency relief for newly arriving groups and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se repatriat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so- called "refugees") and host society. This is because the liberation period was a unique time and space in which extreme hatred toward the nationals of former enemy country was openly expressed, and the arduous task of achieving social integration—embracing newly arrived groups as members of a new community—was imposed.

This presentation is structured into three parts. First, it examines the key characteristics and main issues of post-war population movements in Europe from a comparative histor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cases of Germany and France, which faced the challenges of accommodating international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s well as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Second, It also examines the repatriation process of Japanese nationals who experienced defeat in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s post-war response to returning expatriates from overseas, and the social integration effects of the "broad concept of war victims" and the "peace ideology," which were proposed as strategic responses to demands for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war damages from the repatriates. Lastly, it investigates the living conditions of returnees and refugees who migrated into South Korea, the social campaigns to open former Japanese owned houses, restaurant, red light inns as part of relief shelters, and the reasons behind the failure and outcomes of alternative projects promot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relief authorities, such as "refugee farms" for war victims and "Low-priced housing project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seeks to shed light on the stark reality of the newly born Republic of Korea, which began its journey burdened with serious fissures caused by its failure to embrace returnees and refugees as new neighbors and to build healthy and inclusive communities.

조영묵 (동국대 이주다문화연구소)

Young Mook Cho (Institute for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tudies, Dongguk University)

초록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아시아에 식민 지배의 종식을 고하고 다수의 신생 독립국을 탄생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대립 및 국경의 재설정은 아시아 전역에 발생한 인구이동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를 받던 동남아시아에서는 식민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거주하고 있었고, 일본 점령기를 겪으며 악화된 민족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동남아시아 신생 독립국의 과제였다. 다른 민족집단과 비교하여 월등한 경제력을 가진 중국계 화교화인의 경우, 동남아시아의 시민으로 잔류하거나 중국으로 귀환하는 문제를 놓고 결정이 필요했다.

해방과 신생국 탄생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대신 차별을 견디며 생존을 도모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고 원치 않는 이주를 해야만 했다. 20세기 중반 동남아시아 화교화인의 잔류문제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동시에 나타난 아시아의 인구이동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식민도시의 특징과 화교화인의 유입

항구는 식민도시의 종주도시(primate city)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서로 다른 집단이 생태적으로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토착민과 이주민이 수직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킹, 1999 : 48; 신진숙, 2010: 171에서 재인용). 식민지에 이한 도시화는 소수의 유럽인이 원주민과 구분되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지배 권력은 필리핀에서처럼 식민청사, 교회 등의 건축을 통해서 분명하게 시각화한다(Stockwell, 1998: 341). 정주도시의 형성에서 있어 소수의 유럽인의 유입도 중요했지만, 중국인의 유입은 동남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필리핀의 중심이 세부에서 마닐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교역의 파트너에서, 마닐라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주요 송출국이 되었다(Nguyen, 2022: 104).

앤소니 킹은 식민도시의 유형은 외부지향형 항구도시로 상품이 중심부로 유출되는 곳과, 정치, 행정, 군사 중심지가 구축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킹, 1999: 27). 그는 “식민화된 사회나 지역 내의 도시”를 식민도시(colonial city)라고 했으며 “사회, 지역과 입지, 식민화과정, 결과물로서의 도시”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식민도시는 이중도시, 공간적 격리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개방공간(open space)을 두어 일종의 방역선(cordon sanitaire)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근대성과 식민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일반론을 제기하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현재열·김나영, 2011). 식민항구도시는(colonial port city)는 원거리의 해양 교역 네트워크를 특징적으로 하고 외국인을 위한 배타적 공간이며, 다른 지역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곳으로 분류되는 대신, 경제나 정치에 있어서는 통제권을 갖는다. 또한 제국주의나 글로벌한 경제 생산 방식이나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역사적으로 유럽제국의 지역 수도로서 기능을 했다. 이러한 식민항구도시는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발달한 곳으로 일반적인 항구도시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이 다르며, 상업적, 재정적, 사회문화적 기능이 다르다.

홍석준(2004)은 항구도시 말라카의 시공간 체계가 현대성과 도시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각 종족집단의 문화정체성을 어떻게 재편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말라카의 지역사(local history), 도시성(urbanism), 민족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말라카를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형성된 배경과 이를 외래문화의 수용과 통합이라는 매커니즘 속에서 분석하였으며, 말라카를 '만남과 교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상 네트워크의 결절로 보았으며 육지의 도시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 공간이라고 보았다. 초기 무역 중심의 식민지는 1799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멸망으로 19세기에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원료와 식량의 축적, 그리고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중심의 식민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식민지 도시는 식민지와 식민 본국 사이를 연결하는 분배 지점으로 기능했고, 화물집산 도시를 후배지에 있는 광업 중심지 같은 자원 기지와 커피나 설탕 같은 현금작물 생산하는 지역과 연결하는 철도망을 발전시켰다.

식민도시는 중국과 교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항구 타운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페라나칸과 같은 문화를 형성하게 했다. 스마랑, 수라바야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역사를 보여 코스모폴리탄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소수의 유럽인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무역회사나 지역 리더 사이의 컨설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서, 메스티조가 이러한 통합의 중심이 된다. 서로 다른 종족간 결혼이 이러한 혼합의 이유가 되었다. 페낭은 18세기와 19세기 초반에 해협 중심지가 되었고 싱가포르가 부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며 동남아시아 화교화인의 인구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다.

페낭, 말라카, 싱가포르를 지배한 영국의 식민정책은 각 인종별로 거주지를 분산하는 것이었고, 중국인 이주민들의 경우 그 특유의 교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시 인프라를 구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서구문화와 현지의 열대문화를 수용하여 독특한 혼종문화를 형성하였다(김종호, 2019: 227).

III.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및 동남아시아 화교화인의 잔류문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갑작스레 항복했고,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복귀가 임박했다. 이때 민족주의 세력이 강한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혁명의 기운이 감돌았다.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선 격변하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복귀할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협상을 시도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소병국, 2020: 243).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제국민'이 아닌, 신생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정체성에 이미 눈을 뜨기 시작한 '구' 식민지 피지배인들의 극렬한 저항이 나타났다(김종호 2019: 237).

이전까지 제국의 틀 안에서 막대한 경제력을 쌓고 문화적 갈등 관계에 있던 화교화인은 새롭게 바뀐 세상에서 자신의 거주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짧게는 100년, 길게는 수백년동안 식민지 중개인으로 화교화인에 의해 차별과 착취를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던 원주민들의 불만은 쌓였고, 명백히 외부인이었던 동남아 화교화인들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1949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동남아 화교화인들의 풍부한 자본력을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지역기반(동남아시아, 푸젠, 광둥)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게 된다(김종호 2020: 196-201). 이러한 유인책은 일부 화교화인이 중국으로 귀국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서 개최된 제3세계 국가들간의 회의에서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가 해외 거주 화교화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김종호 2019: 241). 결국 대다수의 화교화인은 귀국을 포기하고 동남아시아에 잔류하여 그 나라의 국민으로 뿌리내리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동남아시아 각국의 독특한 화인 사회를 형성하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화교화인은 정치적으로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특유의 경제적 수완과 강력한 가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업, 무역,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비록 완전한 동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이들은 거주국의 정치·경제 지형에 적응하며 각국의 주요 소수민족 구성원이자 경제 주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IV. 차별과 배척의 대상: 동남아시아의 화교화인

‘민족’은 ‘상상의 정치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로 묶어 공동체로 상상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통해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쇄’라는 기술적 요인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같은 신문이나 소설을 읽으며 동료 의식을 형성하고 민족집단으로 발전했다(Anderson 1983: 15-16).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지 않으면 민족으로 형성될 수 없다. 그만큼 문화 공유는 민족집단을 형성하는 강력한 접착제이다(김동노 2012: 380). 경제력과 문화의 차이는 현지인과 화교화인을 철저하게 구분짓게 했다. 거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지만, 냉전이 라는 국제 정세와 각국의 민족주의는 화교화인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겪도록 만들었다.

복수의 민족집단으로 인해 국가의 과거를 형성한 다양한 문화적 관습은 거의 모든 시기에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민자들이 인구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국가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VanSledright 2008: 111). 냉전을 겪으며 화교화인은 공산주의자, 또는 적성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정치적, 사회적 억압을 견뎌야 했다. 동등한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화교화인은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거리를 두고, 가족과 동향인(同鄉人)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네트워크와 신용을 바탕으로 상업, 무역, 금융, 부동산 등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생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V. 맺음말

오늘날 동남아 화교화인은 거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지만, 여전히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은 경제적 성공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시금 거주국과 중국 사이에서 민감한 입장에 놓여있다. 성공한 경제 엘리트이자 동시에 잠재적 경제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지위는, 반동 회의 이후 수십 년간 이들이 겪어온 고난과 성공의 역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I. Introduction

The end of World War II marked a historical turning point in Asia, ending colonial rule and leading to the birth of many newly independent states. In Southeast Asia—long dominated by European imperial powers—multiethnic populations concentrated in colonial port cities faced the challenge of redefining national identities. Among these groups, the ethnic Chinese (Huaqiao and Huaren), known for their economic influence, faced a critical choice: remain in their host countries or return to China. This paper explores the population movements in Asia following WWII through the lens of the ethnic Chinese retention issue in Southeast Asia.

II. Colonial Cities and the Influx of Ethnic Chinese

Colonial port cities in Southeast Asia developed under European domination and were often shaped by segregation between indigenous populations and migrants. Ethnic Chinese played a pivotal role in trade and urban development, notably in cities like Manila, Malacca, and Penang. These cities became hubs of cultural hybridity and economic integration, yet also spaces of ethnic stratification. The colonial urban structure, with its “open spaces” and cordon sanitaire, reinforced social divisions while facilitating global economic networks, particularly in commerce and labor migration.

III. Postwar Transition and the Retention Dilemma

Japan's surrender in 1945 prompted both the return of Western colonial powers and rising nationalist resistance in Southeast Asia. For ethnic Chinese communities, long perceived as colonial intermediaries and economic elites, the postwar climate presented both threat and uncertainty. Some considered repatriation, especially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which encouraged ethnic Chinese abroad to return. However, during the Bandung Conference in 1955, Zhou Enlai declared that China would not support dual citizenship for overseas Chinese. This led most ethnic Chinese to remain and gradually integrate as citizens of their respective host countries.

IV.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Despite remaining, ethnic Chinese in Southeast Asia faced persistent suspicion and exclusion. Their superior economic standing and distinct cultural practices set them apart from native populations. Cold War tensions further complicated their status, as they were often viewed as communists or foreign agents. Consequently, they distanced themselves from politics and focused on building economic power through tight-knit family and regional networks in trade, finance, and real estate. Although culturally marginalized, they became key minority economic actors.

V. Conclusion

Today, ethnic Chinese communities in Southeast Asia have largely established national identities in their countries of residence. However, they continue to navigate a delicate position, especially amid rising U.S.-China tensions and China's expanding influence. Their dual identity—as successful economic elites and as potential geopolitical outliers—reflects a historical trajectory marked by both resilience and ambivalence.

10세션

세계지역연구 III(아시아)

- 제1부. 아시아태평양 해역과 한국
- 제2부. 한국내 일본관련 연구소의 연구성과와 전망
- 제3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1
- 제4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1
- 제5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2
- 제6부. 동아시아 냉전과 평화2

세계시장의 패권에 대한 마르크스의 통찰: 자본주의적 지리역사에 관한 새로운 관점

Unveiling Karl Marx's Insights on World Market Hegemony:
A New Perspective on Capitalist Geohistory

박지훈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Institute for Global &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초록

글로벌 패권, 특히 세계시장에서의 패권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되어 왔다. 마르크스도 이 주제를 다뤘지만 그의 분석은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글은 앙리 르페브르의 '주제적 독해방법'을 활용하여 세계시장과 그 속에서의 패권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그 과정에서 이 글은 다음을 밝힌다. 첫째, 마르크스는 십자군 전쟁 이후 유라시아 규모에서 세계시장이 형성되어 19세기 중반까지 세계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그는 세계시장 패권이 북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동한 과정을 추적했다. 셋째 그는 상업적 우위와 산업적 우위를 구분했으며 매뉴팩처 시대에는 상업적 우위가 그리고 기계제 대공업 이후에는 산업적 우위가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그는 자본주의 생산이 북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콘스탄티노플, 네덜란드, 플랑드르, 스페인 도시들로 퍼졌으나 최초의 부르주아 사회는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다섯째,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네덜란드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에 필수 조건이었다고 보았다. 여섯째, 마르크스는 또한 패권 쇠퇴기 금융 주도 축적을 인식했고, 태평양 시대와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위기를 예견했다. 이 맥락에서 이 글은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마르크스의 지리역사적 해석을 밝혀 이를 통해 다채로운 자본주의 분석틀에 고전 이론적 토대를 놓으려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theme of world hegemony is explored across disciplines from multiple perspectives. Marx addressed this theme, but his analysis remains obscure even to Marxists. Using a Lefebvrian reading, this article reveals Marx's view on world market hegemony. Marx argued that a world market emerged on a Eurasian scale post-Crusades and expanded globally by the mid-19th century. He traced shifts in world market hegemony from Northern Italian city-states, through the Netherlands, to England. Distinguishing commercial from industrial supremacy, Marx noted that while capitalist production originated in Northern Italy and spread through Constantinople, Dutch, Flemish, and Spanish cities before the Americas' discovery, the first bourgeois society formed in the late 16th-century Netherlands. Dutch Protestantism was seen as essential for Dutch capitalism's rise. Marx also recognized finance-led accumulation during hegemonic decline and anticipated the Pacific age and a U.S.-led global crisis. This article aims to refine Marxist hegemony theory within the framework of variegated capitalism and challenge prevailing readings of Marx's view on capitalism's history.

전지영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Jiyoung Jeon (Institute for Global &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도시 공간 내 형성된 에스닉타운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에스닉타운은 특정 이주민 집단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집약된 공간으로, 도시 내부에서 독특한 공간 구조와 기능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이쿠노 코리아타운, 광저우 코리아타운, 부산 차이나타운을 사례로 선정하여, 이들의 입지적 특성, 공간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각 도시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에스닉타운의 입지와 발전 양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들 공간이 도시 내에서 관광, 상업,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에스닉타운이 도시의 다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장소적 정체성과 도시 경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현상임을 강조하며, 동북아시아 도시의 공간 구조 이해와 도시계획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에스닉타운이 도시의 중요한 사회·문화콘텐츠로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thnic towns formed within urban spaces in Northeast Asia. Ethnic towns are spaces where the sociocultural identities of specific migrant groups are concentrated, and they develop unique spatial structures and functions within cities. This research examines four case studies—Yokohama Chinatown, Ikuno Koreatown, Guangzhou Koreatown, and Busan Chinatown—to analyze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In particular, it explores how the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of each city have influenced the location and development of these ethnic towns. The study finds that these areas function as hubs of tourism, commerce, and cultural exchange within their respective cities. It emphasizes that ethnic towns are not only multicultural spaces but also significant geographical phenomena that shape place identity and the urban landscape. Ultimately, this study offers meaningful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spatial structure of Northeast Asian cities and for urban planning. In the future, ethnic towns are expected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cities as vital socio-cultural assets.

서동주(서울대)

초록

본 연구소가 추구하는 새로운 일본연구의 관점은 ‘포스트(Post) 지역학적 일본연구’이다. 이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기점으로 ‘전후’ 일본의 시민사회와 국가에서 일어난 불가역적인 변동을 세계적인 변화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재해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출되었다. 본 연구소는 일본의 ‘생활세계(Life-World)’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 포스트 지역학적 일본연구는 기존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포스트지역학의 관점을 통해 생활세계 연구의 심화, 발전을 지향한다. 현대의 일본은 누적된 사회적 위기와 갈등에 대응하여 전후의 그 어떤 때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의 모색이 필수적이다. 포스트 지역학적 일본연구는 현대 일본에 대한 학제적, 실증적 연구와 더불어 복합적,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일본 사회에서 출현하고 있는 대항적 실천에도 주목한다. 위험사회라는 개념은 최근 지역분쟁의 확대에 따른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일본사회 내부의 변화가 어떻게 생활세계의 갈등과 모순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피는데 유효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현대 일본사회의 변용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공통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new perspective on Japanese Studies pursued by our institute is what we call "Japanese Studies for Post-Area Studies." This approach arises from a critical awareness of the need to reexamine and reinterpret the irreversible transformations that have occurred in postwar Japanese civil society and the state since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ithin the context of global change. Our institute has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on Japan's "Life-World." Japanese Studies for Post-Area Studies seeks to deepen and develop this research by incorporating the perspective of post-area studies while building on our existing achievements. Contemporary Japan is undergoing fundamental changes in all spheres—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more so than at any other time since the postwar era, in response to accumulated crises and social conflicts. In this context, exploring new forms of solidarity is essential. Japanese Studies for Post-Area Studies not only conducts interdisciplinary and empirical research on contemporary Japan, but also focuses on counter-practices emerging within Japanese society, which is currently facing complex and structural crises. The concept of a "risk society" serves as an effective keyword for examining how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order—driven by expanding regional conflicts—and internal transformations in Japanese society—exemplified by low birthrates and an aging population—manifest as contradictions and tensions in everyday life.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not only to trace the transformations of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but also to offer meaningful insights for Korean society, which faces many of the same challenges.

이영호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LEE YOUNGHO (Dongguk University Japanese Institute)

초록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1979년 9월 1일, 한국 최초로 설립된 일본학 관련 특성화 연구소이며,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재일디아스포라의 생태학적 문화지형과 글로벌리티>를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K-디아스포라 특성화 연구기관으로 기능했다.

본 연구소는 재일디아스포라 연구 아젠다를 구축하고 콜로키움, 초청강연, 시민인문강좌, K-디아스포라 자료실 등을 운영해 학계와 시민사회에 기여하였다. 교육적으로는 대학과 협의하여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고, 차세대연구자 육성에 주력하였다. 또한 한국문학번역원 용역사업을 통해 재일디아스포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국내의 K-디아스포라 기초자료 확보 및 학문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소는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K-디아스포라 관련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의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추후 과제로서는 연구범위의 확장, 다양한 학제분야 연구, 연구협력체계 구축, 국제학술지를 통한 발신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K-디아스포라 전문 연구기관·거점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Established on September 1, 1979,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is Korea's first research institute specializing in Japanese studies. Over the years, it has developed a distinctive academic identity through various research initiatives, notably the University-Centered Research Institute Support Project titled "Ecological Cultural Topography and Glocality of the Zainichi Diaspora." These projects have positioned the Institute as a pioneering center for K-Diaspora research.

A core focus of the Institute has been to construct a comprehensive research agenda on the Zainichi diaspora. It has actively engaged both academia and civil society through colloquia, invited lectures, public humanities programs, and the operation of a dedicated K-Diaspora archive. In parallel, the Institute has collaborated with the university to develop relevant academic curricula and has prioritized the cultivation of next-generation scholars.

Furthermore, through a commissioned project by the Korea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the Institute has collected and digitized a wide range of primary materials related to the Zainichi diaspora. This effort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building foundational resources and a sustainable academic infrastructure for K-Diaspora studies in Korea.

Through these multifaceted endeavors, the Institute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key node in the field. Moving forward, it aims to expand its research scope, strengthen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foster global research networks, and enhance international dissemination through scholarly publications. Ultimately, it aspires to become a leading hub for specialized and globally connected research on the K-Diaspora.

김효순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Kim Hyo Sun (Global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초록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은 주체적, 국제적 일본연구를 목표로 1999년 발족한 이래로 인문한국(HK)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KCI등재지『일본연구』와 Scopus등재지『跨境 : 日本語文学研究』, 다양한 종류의 일본학총서를 간행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일본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의 일본연구 토대구축의 대표적인 성과인 <경성일보 수록 문학자료 DB 구축>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경성일보 수록 문학자료 DB 구축>사업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기관지이자 일본어 일간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1906.9~1945.10)의 총 기사목록을 입력, 문학·문화 문학 기사에 경우 상세키워드 추출 입력, 기사 목록과 저자, 장르 등 키워드를 한국어로 번역, 한일 양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일제 강점기를 연구하는 인문·사회과학 제 학문분야의 연구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성일보』총기사목록 DB(https://www.krm.or.kr/krmi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4036&res=y)>와 <『경성일보』문학·문화 총서> (전13권)로 대표되는, 본 사업은 한국내 일본연구자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일본연구자들에게도 공개됨으로써, 국제적으로 일본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사업은 일본연구 후속세대와 한국의 인접학문 연구자들에게도 활용되어 주체적 일본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연구자료의 DB구축은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연구방법론과 융합하여 인문학 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Abstract of manuscript

Since its launch in 1999, Korea University's Global Japan Research Institute has grown into a world-class Japanese research institute, participating in various research projects, including the HK project, and publishing academic journal and various kinds of Japanese studies. In this presentation, we introduce the <Building DB of literary works and articles from THE KEIJO NIPPO> project, which is a representative achieveme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Japanese research by Korea University's Global Japanese Research Institute.

The project involved inputting the entire list of articles from THE KEIJO NIPPO, a Japanese daily newspaper and orga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xtracting and inputting detailed keywords for articles on literature and culture; translating the list of articles and keywords such as authors and genres into Korean; and processing them into a form that could be searched in both Korean and Japanese,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research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ields study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research results are <DB of literary works and articles from THE KEIJO NIPPO> and <Literature and Culture Series of THE KEIJO NIPPO> (13 vol.). This project was opened not only to Japanese researchers in Korea but also to Japanese researchers in Japan and around the

world, laying the foundation for leading Japanese research internationally. In addition, this project is being used by subsequent generations of Japanese research and researchers in neighboring studies in Korea, leading independent Japanese research.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a DB of such research data is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ities research by fusion with research methodology using digital technology.

중소우호동맹호호조약의 체결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미친 영향

-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중심으로 -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and
Its Impact on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박다정 (중국 화동사범대)

Park Dajung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초록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과 미국의 참전은 냉전 시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었다. 불과 1950년 1월 12일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낮다는 판단하에 한반도를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시키는 ‘에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공산주의 세력이 한국을 공격해올 경우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회피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일주일 내에 미 육해공군의 투입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결정하였다. 기존에 한반도를 직접 방어하지 않는 방침을 표명했던 미국이 어떻게 전쟁 발발과 동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을까? 본 연구는 1950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의 동맹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중소동맹의 수립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하였으며, 이후 아시아 각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군사개입을 통해 공산주의로부터 적극 방어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대전략의 전환에 따라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또한 이미 현저히 높아져 있었으며, 이는 이후 미국이 한국전쟁에 즉각적으로 참전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는 미국, 중국, 소련측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전쟁 발발 이전 시기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기존의 ‘불개입 정책’에서 ‘개입 정책’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에 중소동맹조약의 체결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n June 25, 1950, and the subsequent U.S. intervention constituted a critical turning point in America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Merely months earlier, on January 12, 1950, the United States had issued the so-called “Acheson Declaration,” excluding Korea from its Pacific defense perimeter on the grounds that the peninsula held limited strategic value. This effectively signaled that the U.S. would refrain from direct military intervention even in the event of a communist attack on South Korea. However, within a week of the war’s outbreak,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undertake a full-scale military intervention in Korea, deploying Army, Navy, and Air Force units. What explains this rapid and decisive shift from a previously declared policy of non-involve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e shift was closely tied to the failure of U.S. policy toward China—specifically, its attempt to prevent the formation of a Sino-Soviet alliance. With the signing of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in February 1950, Washington’s strategy in Asia underwent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e United States began to revise its regional policy in favor of actively defending key areas through military means in order to counter the spread of communism.

As a result, the likelihood of U.S.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d already increased significantly prior to the war's outbreak. This shift in grand strategy provides crucial context for understanding the immediacy and decisiveness of U.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Drawing on American, Chinese, and Soviet sourc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U.S. policy toward Korea was already undergoing a gradual transformation from a stance of non-intervention to one of engagement—with the formation of the Sino-Soviet alliance playing a key role in this shift.

10세션
3부

냉전시기 미·소의 '우주 경쟁(Space Race)'과 한반도의 내파(內波)

The US-Soviet 'Space Race' during the Cold War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예대열 (순천대)

Yea Daeyeol (Sunchon National University)

초록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Space Race)'은 냉전의 문화적 현상이었다. 우주를 향한 전진은 비단 미국과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 혹은 인민의 사기와 이미지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느 한 편이 로켓을 쏘아 올리면 그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환호와 열망을 드러냈다. 반면 반대편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평화적이고 기술적인 외양을 띠었지만, 사실상 군사적이고 심리적 차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학기술 전쟁'이자 '문화 전쟁'이었다.

남북한은 냉전체제 하 미국과 소련에 의해 '전선국가(Frontier State)'로서 위상을 부여받으며, 정치·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기술적 문명 대립의 전시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안에서 남북한은 직접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주 경쟁'을 중계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은 모두 강대국들의 과학기술을 선진 국가의 표상으로 간주하면서 탈식민 독립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남북한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국민과 인민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실현되고 있었다.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대결과 경쟁을 무화시키는 위력을 갖고 있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에 대한 시선은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초월시켰고, 우리 모두 '지구인'이라는 동료의식과 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우주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자 냉전과 분단 너머 평화로운 세계의 상징으로 상상되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Space R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as a cultural phenomenon of the Cold War. The push into space had a direct impact on the morale and image of not onl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but also the people or nations living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hen one side launched a rocket, people living in that regime cheered and aspired. On the other hand, people living in the opposing regime would be filled with fear and trepidation. The 'space r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had a peaceful and technological appearance, but it was actually a

‘science and technology war’ and a ‘culture war’ for military and psychological superiority.

Under the Cold War system, North and South Korea were given the status of ‘frontier states’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served as a battleground for civilizational confrontation not only on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but also on economic and technological issues. While the two Koreas could not launch rockets into space, they participated indirectly by broadcasting the ‘space race’ through various means. In the process, both North and South Korea viewed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great powers as a symbol of advanced nations and sought to use it as a foundation for their own growth as decolonized, independent nations.

However, regardless of the intentions of the governments, a new ‘imagination’ was being realized in the minds of the people and the people’s minds. The unknown space of outer space had the power to neutralize confrontation and competition in people’s imaginations. The view of the Earth from space transcended the conflicts of ideologies and systems, and gave us all a sense of solidarity and camaraderie as ‘Earthlings’. Space was imagined as a space of new possibilities that transcended ideologies and systems, and as a symbol of a peaceful world beyond the Cold War and divisions.

미중 대립시기 다시 본 앨버트 갤러틴의
1832년 자유무역에 관한 청원서

Albert Gallatin's Memorial on Free Trade in 1832 in the Context of Trump's Tariff Wars

하성호 (미국 알래스카주립대)

Ha Songho (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초록

이 발표문은 미국 재무장관(1801~1814)이었던 앨버트 갤러틴이 1832년 미 의회에 제출한 자유무역에 관한 청원서를 분석하는 글이다. Albert Gallatin, Memorial of the Committee Appointed by the 'Free Trade Convention,' held in Philadelphia, in September and October, 1831, to prepare and present a memorial to Congress, remonstrating against the existing tariff of duties(New York, WM. A. Mercein, 1832).

갤러틴은 청원서에서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를 부정하고 자유 무역을 주장하였다.

이 청원서를 분석한 학자들은 글 자체는 아주 높게 평가한다. 19세기 후반의 뛰어난 미국 역사학자였던 헨리 애덤스(Henry Adams)는 이 청원서가 당시 자유무역주의자들에게는 “교과서(text-book)” 같은 것이었다고 평가하였고, 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가장 유명한 관세사(History of Tariff) 연구자였던 타우시그(F. W. Taussig)는 “관세 문제에 관한 논의의 모범”이라고 극찬하였다. Henry Adams, The Life of Albert Gallatin(Philadelphia, J. B. Lippincott, 1880), 640; Raymond Walters, Jr., Albert Gallatin: Jeffersonian Financier and Diplomat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9), 361.

그러나 이 글은 지금은 미국사 교과서나 역사 전문서적에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글을 지금 다시 논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에서 제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으로 보호관세(protective tariff)를 부과하여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켜 미국의 경제를 강하게 하고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겠다는 정치·경제 체제를 추구하는데, 갤러틴의 청원서에 현재의 미국 정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이론과 자료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갤러틴은 보호무역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내수시장(Home Market)을 확대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갤러틴은 미국의 경제 발전은 자유 무역을 포함한 자유 경제 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특히 자유 무역이 서양의 근대 문명의 기초라고 역설하였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정책이 정책의 목적을 이루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만약 갤러틴이 지금 살아 있다면 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리라고 생각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Albert Gallatin, best known as the U.S. Treasury Secretary between 1801 and 1814, under Presidents Thomas Jefferson and James Madison, wrote a memorial to Congress in 1832 on behalf of the Free Trade Convention held the previous September in Philadelphia. Albert Gallatin, Memorial of the Committee Appointed by the 'Free Trade Convention,' held in Philadelphia, in September and October, 1831, to prepare and present a memorial to Congress, remonstrating against the existing tariff of duties(New York, WM. A. Mercein, 1832).

The memorial was a masterful document for the cause of free trade and against protective tariffs, and greatly influenced debates over the tariff issue since then.

However, the memorial, like its author, is very much forgotten. One evidence in this regard is the complete ignorance of Gallatin's memorial in standard history books that chronicle the Nullification Crisis of 1832-1833, even though the Nullification Ordinance was issued the same year as the memorial's publication and the crisis was precipitated over the Protective Tariff Acts of 1824, 1828, and 1832. Henry Adams, *The Life of Albert Gallatin*(Philadelphia, J. B. Lippincott, 1880), 640; Raymond Walters, Jr., *Albert Gallatin: Jeffersonian Financier and Diplomat*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9), 361.

Although much forgotten, Gallatin's memorial offers a way to appreciate the current U.S. President Donald Trump's protective tariffs of 2025. Gallatin pointed out that protective tariffs of 1824 and 1828 did not create additional jobs or extra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e in the American economy, concluding that protective tariffs did not produce the expected economic results.

Using Gallatin's method, we can also conclude that the 2025 Trump tariffs have not yet proved their efficacy. Executive Order 14257, which rolled out Trump's tariff policies, stated that protective tariffs were necessary to fix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It is too early to present any conclusive evidence to support this claim. In addition, the recent unemployment rates of the United States, monthly manufacturing output of the US, projected GDP growth, and inflation rates all point to insignificant changes to or negative performance of the US economy amid the Trump Tariffs.

In conclusion, Gallatin's memorial provides a valuable methodology for assessing Trump's tariffs of 2025.

초록

김정은 시대 북·중 관계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과 중국의 관계변화 특징을 파악한다. 연구 범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북·중 관계 관리기, 북·중 관계 갈등기, 북·중 관계 복원기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양국 외교 변화를 추적했다. 분석결과, 지역 및 국내 정세에 따라 양국 관계가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관리기에는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김정은 정권의 안정적 이양을 도왔다. 북한과 중국은 대표적 친중 인사 장성택의 처형, 북한의 핵실험 등 갈등 상황을 맞을 수 있었지만, 양국은 이 시기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갈등기에는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에도 위협적인 일로 인식되었다. 중국 내부에서도 대북정책 논쟁이 격화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양국 관계는 경색되었다. 복원기에는 북·미 회담을 앞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고 2019년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면서 양국의 전통적 동맹 관계가 복원되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중국을 연루의 위협에 처하게 했고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찬성을 통해 북한을 방기의 위협에 처

하게 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으로 중국에 편승과 방기의 위협을 주면서 약소국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시기 별 양국 관계는 국내 및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북·중 관계의 반복적인 갈등과 협력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Abstract of manuscript

It analyzes the changes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during the Kim Jong-un era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Kim Jong-un era.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to 10 years from 2012 to 2022, and the period of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the period of restor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e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o track diplomatic 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each peri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changed depending on the regional and domestic situation. During the management period, China served as North Korea's guardian and helped the stable transfer of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and China were able to face conflict situations such as the execution of Jang Song-taek, a representative pro-China figure, and North Korea's nuclear test, but the two countries tried to manage the conflict during this period.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conflict period,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despite China's coercion, was recognized as a threat to China, which borders it. Controversy over North Korea policy intensified even within China, and these factors str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restoration period, Chairman Kim Jong-un visited China in 2018, ahead of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President Xi Jinping visited North Korea in 2019, restoring the traditional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nuclear tests, North Korea put China at risk of involvement, and China put North Korea at risk of abandonment through the approval of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rough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was able to demonstrate the power of a weak country by threatening China with a piggyback ride and abandonmen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period changed according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se differences served as the main background for repeated conflicts and cooperation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권경택 (광주과학기술원)

Kwon Kyungtaek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초록

소련 불교를 상상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공산주의 체제와 종교가 양립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소련은 무신론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설립 초기부터 시도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반종교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종교 시설을 폐쇄하거나 파괴했으며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내면서 종교를 탄압했는데 동시베리아 일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불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정책과 달리, 소련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정책에서 종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는 불교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소련이 처음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의 태도 변화를 이끈 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였다. 1950년대 초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한 아시아 불교계의 주요 인사들은 미소 간의 군사적 긴장이 또 다른 식민지를 불러 올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론의 불교학자 구나팔라 말라라세케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불교계 지도자들은 1950년 세계불교도우의회를 설립하여 세계 평화에 대한 해결책을 부처의 가르침에서 찾고자 노력했다. 이는 1954년 중국과 인도 사이의 평화 공존에 관한 논의와 1955년 반동회의의 결의에서 불교의 오계가 기본 바탕이 되면서 구체화됐다.

이러한 아시아 불교계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소련은 평화 공존 정책을 통해 공산 진영에 대한 제3세계의 불신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진영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소련 당국은 3인으로 구성된 불교대표단을 남·동남아시아에 파견함으로써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세계 평화에 소련 역시 동참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고자 했다. 그들의 노력은 1956년 제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를 통해 소련 불교 대표단이 세계무대에 데뷔하면서 구체화됐다. 총회에서 대표단은 소련 헌법이 자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소련 내 대표적인 불교지역 부랴트-몽골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여전히 불교의 관습과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련 당국은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아시아 국가들과 친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관계가 진척되길 기대했다.

1960년대 들어 불교를 활용한 소련의 외교정책은 보다 실리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했다. 소련 내 불교지역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근대화를 이뤄냈는지 선전함으로써 포스트 식민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근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시아 불교 국가들에게 사회주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불교계의 주요 인사들을 주기적으로 부랴트공화국으로 초대하여 그곳의 공업, 교육, 문화 시설들을 둘러보게 했다.

Abstract of manuscript

When we imagine Soviet Buddhism, we can raise one question. Are the communist system and religion compatible? The Soviet Union, as is commonly known, attempted to create an atheist state from its earliest days. The Bolshevik regime, which seized power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of 1917, launched a massive anti-religious movement, shut down or destroyed religious facilities, sent prominent religious leaders to forced labor camps, and refused to

guarantee religious freedom to its citizens. Buddhism, which was influential throughout Eastern Siberia, was no exception. However, in contrast to this domestic situation, the Soviet Union actively utilized religion in foreign policy to expand its influence, and Buddhism played a role in policy toward Asian countries.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led the change of the USSR's initial disinterest toward this religion. Major Asian Buddhist figures, who experienced European colonization, had fears that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ould bring about another wave when the Cold War began in earnest in the early 1950s. To prevent this, Asian Buddhist leaders, led by Ceylon Buddhist scholar Gunapala Malalasekera, established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WFB) in 1950 to try to find a solution to world peace in Buddha's teachings. This effort was embodied as the basis for the discussion on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China and India in 1954 and the resolution of the Bandung Conference in 1955.

In response to these Asian Buddhist movements, the Soviet Union attempted to remove the third world's distrust of the communist bloc and ultimately attract it to the communist side through a policy of peaceful coexistence. By sending a three-member Buddhist delegation to South and Southeast Asia, the Soviet authorities sought to demonstrate that the Soviet Union was also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world peace that Asian countries sought. Their efforts were realized in 1956 when the Soviet Buddhist delegation made its debut on the world stage through the 4th conference of the WFB. The Soviet Union emphasized at the conference that the Soviet constitution guarantees people's religious freedom, and that Buddhists were no exception. In particular, the delegation emphasized that Buddhist practices and lifestyles were still maintained in Buryat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a representative Buddhist region within the USSR. Through this, it was hoped that the Soviet Union would move toward strengthening friendship with Asian countries where Buddhism has strong influence.

In the 1960s, the Soviet foreign policy using Buddhism changed to highlight a more practical aspect. By propagating how Buddhist regions within the Soviet Union achieved modernization under the socialist system, it was intended to show that socialism could be an alternative to Asian Buddhist countries that were struggling to modernize in the post-colonial era. To this end, major Asian Buddhist leaders were regularly invited to the Republic of Buryat to tour its industrial,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나리타 치히로 (일본 리츠메이칸대)

Chihiro Narita (Ritsumeikan University)

초록

이 글의 주제인 ‘부전(否戰)’은 진행 중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이 아니고, 전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비전(非戰)’도 아닌, 전쟁 그 자체를 거부/부정하기를 바라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오키나와 출신자에 공통되는 사념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전후 오키나와의 중부 지역에서 청년단 운동, 복귀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운동의 중심이 된 아리메 마사오(有銘政夫)(1931~2021) 및 함께 행동한 사람들의 궤적에 초점을 맞추며 당시 오키나와의 상황과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부전’이라는 사념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리메는 오키나와 전투의 체험자가 아니었지만, 일본의 위임 통치하에 있던 사이판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미·일 간의 지상전에 휘말려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다. 포로가 되어 수용소 생활을 한 후 1946년에 오키나와에 귀환했을 때는, 이미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했으며 아버지가 구입한 토지는 미군 기지로서 접수되어 있었다. 아리메는 그 전쟁 체험을 원점으로, 생애에 걸쳐 오키나와의 기지화와 미·일 양 정부에 의한 군사 협력의 강화에 저항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미군 기지가 많은 오키나와 중부에서 아리메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후 안전 보장의 중심지로 간주된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오키나와 현지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를 기지 주변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concept of “denial of war(否戰),” -the theme of this paper- is distinct from both anti-war sentiment, which opposes a specific conflict as it unfolds, and the renunciation of war, which denotes a commitment to non-participation in military action. Rather, it is understood as a worldview shaped by the lived experience of war -particularly among Okinawans- who seek to reject the very premise of war itself, transcending binary debates over the justification or necessity of engaging in armed conflict. This paper focuses on the activities of Masao Arime(1931-2021), who played a central role in various social movements such as the Youth Groups Movement and the Okinawa Reversion Movement in the central region of postwar Okinawa, to examine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idea of “denial of war,”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Okinawa at the time. Although Arime was not a survivor of Battle of Okinawa, he was born in Saipan, which was under Japanese mandate, and lost his father and younger brother in the ground war between Japan and the U.S. when he was a student at the National School of Japan. He was captured and spent a year in a prison camp, and when he returned to Okinawa in 1946, Okinawa was occupied by the U.S. military, and the land that his father had sent money to buy was seized as a U.S. military base. Based on his horrific war experience, Arime continued to resist the militarization of Okinawa and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cooperation by the Japanese and U.S. governments throughout his life. By focusing on the movement that developed around Arime in central Okinawa, where there are many U.S. military bases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reexamine the meaning of the U.S. military bases in Okinawa, which have been regarded as the cornerstone of postwar security, in the local context.

이수석 (고려대)

Lee Suseok (Korea University)

초록

그동안 역대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포용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대남정책을 전환시켜왔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다. 김정은은 2개국가론을 내세우면서 통일을 포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온 이유는 북한주민의 사상적 해이와 체제통제 능력의 와해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내부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한류가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모든 남북 관계를 단절해야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북한의 두 개국가론 등 통일정책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Previous governments have tried hard to embrace the North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but the North has not responded. It is because Pyongyang has different views on inter-Korean relations. The North has been changing its policy toward the South for a long time. It is just that the South Korean people did not understand it properly. Did Kim Jong Un give up reunification by citing the two-state theory? No, he did not. The reason Kim came up with the idea of "two hostile states" is to prevent North Koreans from being able to maintain their regime due to ideological hazard and breakdown of their ability to control the regim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language protection law (2020) and Pyongyang culture language protection law (2023) were enacted because the internal situation has become so serious. Under the Korean Wave, the regime can be maintained only when all inter-Korean relations are cut off. Changes in the North's unification policy, including the two-state theory, are only a temporary phenomenon.

사할린 한인과 재일조선인의 '조국', '본국', 그리고 '고향'의 각투

Contesting the Meanings of "Homeland," "Nation," and "Home" among Sakhalin Han-in and Zainichi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Han Hyein (Asia Peace and History Institute)

초록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한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해외 한인들의 삶과 정체성, 권리, 귀환 가능성, 그리고 기억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 역사적 단절의 사건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 식민지 동원의 결과로 형성된 해외 한인 집단인 사할린 한인과 재일조선인은, 해방 이후 분단체제 속에서 국가적 연속성과 단절, 민족과 국적, 기억과 정체성의 경계선 위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놓이게 되었다.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식민지의 잔재"로 환원할 수 없으며, 분단체제의 작동 방식, 국가의 기억 정치, 그리고 국경의 제도화가 만들어낸 현대적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이들은 귀환할 수 있는 '조국'도, 완전히 소속될 수 있는 '국가'도 가지지 못한 경계적 존재로서, 오늘날에도 국가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할린 한인과 재일조선인의 사례는 해외 한민족 공동체의 권리와 역사 기억이 분단체제 하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조정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근대적 법체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이산 여성의 문제는 남성의 경우와는 다른, 보다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이 속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인 '조국', '본국', 그리고 '고향'의 역사적 맥락을 남성과 여성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연속적인 역사 갈등의 요소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merely a geopolitical boundary but a historical rupture that deeply impacted the lives, identities, rights, possibilities of repatriation, and modes of memory among overseas Koreans. In particular, Sakhalin Koreans and Zainichi, who formed as diaspora communities through colonial mobilization under Japanese rule, came to occupy different positions at the boundaries of national continuity and rupture, ethnicity and nationality, memory and identity within the post-liberation division system.

Their issues cannot be reduced to mere "colonial remnants" but must be understood as modern problems shaped by the functioning of the division system, the politics of national memory,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borders. As liminal beings with no country to return to as a "homeland" and no state to fully belong to, they remain in the blind spots of state violence even today.

The cases of Sakhalin Han-in(韓人) and Zainichi serve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how the rights and historical memories of Korean diaspora communities have been systematically marginalized and politically adjusted under the regime of division. In particular, the experiences of separated women, who occupied especially vulnerable positions within the modern legal framework, reveal a more complex structure than those of men.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contexts of the core concepts that constitute these communities—"homeland," "nation," and "home"—by distinguishing between male and female experiences. It aims to examine how these concepts have functioned as elements of ongoing historical conflict.

『太白山脈』에 形象된 여순사건과 빨치산
활동(1948.10~1950.9)The Yeosun incident and Partisan Activities as depicted in "The Taebaek Mountains"
(October 1948 ~ September 1950)

임송자 (성균관대)

Yim Songja (Sungkyunkwan University)

초록

작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1948년 10월부터 1953년 9월경까지 약 5년 동안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활동상, 좌우 이데올로기, 소작인과 지주 간의 계급문제 등을 조명하고, 분단의 민족사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의 과제를 제시한 역사소설이다. 『태백산맥』의 두드러진 특징은 분단에서 전쟁, 전쟁에서 분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각된 빨치산을 정면에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빨치산 관련 문헌이 회의주의·패배주의에 함몰된 비극적인 존재로 빨치산을 형상화했던 것에서 벗어나 한 차원 진전된 시각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였으며, 또 “민족적 생존양식이며 민중적 삶의 한 형태”로 빨치산 문제에 접근하였다.

『태백산맥』에 대한 평가는 평론가나 관련 연구자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졌다. 학문적으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도 1990년대 중반 이래 꾸준히 나왔다.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① 『태백산맥』의 탈식민성을 다룬 연구, ② 『태백산맥』의 서사담론을 분석한 연구, ③ 『태백산맥』의 형상화 방식과 형상된 인물을 탐색한 연구, ④ 『태백산맥』 작가의 역사의식을 살펴본 연구, ⑤ 『태백산맥』의 공간과 장소를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⑥ 『태백산맥』에 나타난 여성문제를 다룬 연구 등이 있다.

하지만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태백산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백산맥』은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들과 올바르게 증언 해내지 못한 역사적 사실들을 소설로 입증”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계는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태백산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의무를 짊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태백산맥』을 문학의 영역으로만 제쳐두고 유보한 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데 소홀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태백산맥』에 형상(形象)된 여순사건과 빨치산의 역사를 분석하고,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여순사건과 빨치산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산맥』을 집필하던 1980년대 당시의 미약한 연구 실태로 인해 『태백산맥』에서 채워넣지 못한 내용상의 공백이나 사실에서 벗어난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므로, 역사학적 관점에서 『태백산맥』을 검토하면서 여순사건과 빨치산의 역사를 보다 확대된 시각에서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태백산맥』이 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여순사건과 빨치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Author Jo Jung-rae's "The Taebaek Mountains" is a historical novel that covers the lives and activities of various figures, left-right ideologies, class issues between tenants and landlords, etc.,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historical events of the Yeosun incident and the Korean War, from October 1948 to September 1953, and presents the task of unification to overcome the divided history of the nation. A notable characteristic of "The Taebaek Mountains" is that it deals head-on with the partisans that emerged in the process from division to war and from war to division. It breaks away from the conventional literature on the partisans, which

portrays them as tragic beings mired in skepticism and defeatism, and recognizes them as active and proactive subjects from a perspective that is one level more advanced, and approaches the issue of the partisans as “a national way of survival and a form of popular life.”

Evaluations of “The Taebaek Mountains” were first conducted by critics and related researchers. Studies attempting a concrete academic approach have also been consistently published since the mid-1990s. If we categorize these by topic, there are ① studies dealing with the postcolonial nature of “The Taebaek Mountains”, ② studies analyzing the narrative discourse of “The Taebaek Mountains”, ③ studies exploring the method of depiction and characters depicted in “The Taebaek Mountains”, ④ studies examining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author of “The Taebaek Mountains”, ⑤ studies analyzing the space and location of “The Taebaek Mountains”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and ⑥ studies dealing with women’s issues as they appear in “The Taebaek Mountains”.

Howev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has been almost no research that has specifically analyzed the “The Taebaek Mountain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ince the “The Taebaek Mountains” has been evaluated as a work that “proves through fiction the truths that history and social sciences have failed to uncover and the historical facts that have failed to be properly testified,” the historical community has a duty to critically review the “The Taebaek Mountain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but has neglected to conduct a full-scale study of the “The Taebaek Mountains” until now, relegating it to the realm of literatur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history of the Yeosun incident and the partisans depicted in “The Taebaek Mountains” based on these problematic issues, and to reexamine the history of the Yeosun incident and the partisans in their historical context. Due to the poor research status in the 1980s when “The Taebaek Mountains” was written, there are many gaps in the content or errors that deviate from the facts that were not filled 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aebaek Mountain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to newly elucidate the history of the Yeosun incident and the partisans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erefor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o date, this article will specifically examine the contents of “The Taebaek Mountains” and reexamine the history of the Yeosun incident and the partisans

초록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남한에서 (남)월북 작가·예술인들은 암암리에 거론 자체, 존재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중대 범죄자로 낙인찍혀 월북 작가의 본명·필명은 복자(伏字) 형태로만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문학작품은 ‘불온간행물’로 취급받았다. 1988년 7월 19일 해금 조치가 단행될 때까지 40여 년 동안 월북 문인들이 봉인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명동백작’으로 유명한 작가 이봉구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등단 무렵인 일제시대부터 명동의 다방과 주점, 거리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며 주변의 예술가들과 각별한 우정을 쌓아나갔고, 이 경험들을 실명(實名)으로 서사화했다. 이 소설들 속에서 오장환이나 김기림 등은 그저 ‘시인’으로 등장했고, 그들의 작품이 온전한 문학으로 인용되는 동시에 적확히 감상되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봉구가 활동했던 냉전의 시대에 그의 명동 소설들은 신변잡기적, 사소설적, 센티멘털리즘적 작품으로 폄하되곤 했다. 좌우와 남북을 넘어서 예술가들이 함께 민족적 도정을 모색하고 우정을 나누던 시대를 복권하려는 그의 시도들은 소설로 쓴 ‘문단측면사’가 아니라 탈냉전의 상상력으로 다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it has been taboo to mention writers who went to North Korea in South Korea. They were not allowed to use their real names or pseudonyms because they were branded serious criminals. Their literary works were treated as ‘subversive publications’. Until the ban was imposed on July 19, 1988, writers who went to North Korea were sealed.

However, the case of writer Lee Bong-gu, who is famous for ‘The Count of Myeong-dong’, was different.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he has built special friendships with artists in coffee shops, pubs, and streets in Myeong-dong, and has narrated these experiences under his real name. In these novels, Oh Jang-hwan and Kim Ki-rim appeared as just ‘poets’, and their works were accurately appreciated and interpreted while being cited as complete literature.

However, in the Cold War era, his novels were often denigrated as personal and sentimental works. He tried to restore the era when artists sought national paths and shared friendships together, beyond the left and the north and south. It is worth rereading as the imagination of the post-Cold War, not as a ‘side history of literature’.

10세션
6부

러시아문서보관소 자료로 본 1956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 직후 중·소와 북한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tervention and North Korea's Response Immediately after the Plenary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August 1956

이재훈 (조선대)

Lee Jaehoon (Chosun University)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문서보관소 소장 자료를 통해 1956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8월 전원회의 사건 직후 발생한 중소의 개입과 이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대응, 그리고 그 결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내 연구 성과들의 주장과 러시아 자료의 기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중소대표단의 방북 목적과 해당 목적의 달성 여부를 특히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러시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소대표단의 방북 목적은 8월 전원회의 결정 취소를 전제로 북한지도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 북한지도부와 반김일성 세력의 화해, 축출된 반김일성 세력 구성원들의 원상회복 등을 유도하는 것이었으며, 기존 국내 연구 성과들이 주장하는 김일성 축출과 새로운 지도자 옹립의 의도는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한편 중소대표단은 방북 후 있었던 북한지도부와 몇 차례 회동을 거치면서 애초의 목적에서 후퇴했으며, 결국 반 김일성 세력의 반당 행위, 과오, 실책을 인정하는 선에서의 8월 전원회의 결정 취소 결정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요컨대 9월 전원회의 결정은 북한지도부와 중소대표단 간에 8월 전원회의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전개된 갈등과 타협의 결과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intervention of China and the Soviet Union immediately after the August 1956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 response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it, and its results through materials from the Russian Archives. In this regard, I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urpose of the visit to North Korea by the joint Chinese-Soviet delegation, and whether the joint delegation achieved its original purpose of visiting North Korea, which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claims of existing domestic research results and the records of Russian materials.

According to Russian materials, the purpose of the visit to North Korea by the joint delegation immediately after the August Plenary Session was to induce trust and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reconcili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the anti-Kim Il-sung group, and the restoration of the ousted anti-Kim Il-sung group members, on the premi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August Plenary Session decision. The intention of ousting Kim Il-sung and enthroning a new leader, as claimed by existing domestic research results, was not the goal of the joint delegation.

Moreover, the joint delegation retreated from its original purpose after several meetings with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eventually had no choice but to be satisfied with the decision to cancel the August plenary session, which only acknowledged the anti-party actions, mistakes, and errors of the anti-Kim Il-sung group. In short, the decision of the September plenary session was the result of conflict and compromise between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nd the joint delegation over the legitimacy of the decision of the August plenary session.

11세션

문화와 종교사상

제1부. AI와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전 전략1

제2부. AI와 인구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자원의 보전 전략2

제3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4부. AI 시대 유학사상의 재조명

제5부. 동서종교철학과 사회문화

노성여 (동명대학교 창업학과 학과장,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단장)
Noh Seongyeo (Tongmyong University)

초록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구소멸 위기가 중첩되는 현시대에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경제의 침체뿐 아니라 지역문화의 단절과 정체성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실질적 개입과 혁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동명대학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단의 주관학과인 창업학과에서 운영 중인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제도 중 ‘로컬창업’ 과정을 중심으로 그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 운영 방식,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로컬창업’ 마이크로디그리는 ▲로컬콘텐츠 개론 ▲로컬콘텐츠 개발 및 실습 ▲로컬 공간 개발 및 실습 ▲로컬 상권 개발 및 실습 ▲로컬 창업 실습 등 총 5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지역 고유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개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지역사회와의 협력 실행을 핵심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로컬자원을 콘텐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실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본 발표는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통해 지역문화자원 기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동명대학교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단의 향후 교육과정 방향과 운영 모델에 대한 내외부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로컬의 이야기를 계승·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In an era marked by the convergence of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intensifying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the need for sustainable strategies to preserve and utilize regional cultural heritage is more critical than ever. Population reduction and aging are not merely demographic trends but complex societal issues that threaten local identities, economies, and cultural continuity. This study explores the implementation and outcomes of the ‘Local Startup’ micro-degree within Dongmyeong University's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which leads the Local Content Hub University Project. This micro-degree program comprises five specialized courses: Introduction to Local Content, Local Content Development and Practice, Local Space Development and Practice, Local Commercial District Development and Practice, and Local Startup Practice. Designed to cultivate practical competencies, the curriculum enables students to develop entrepreneurial ideas based on local historical, cultural, and artistic assets, integrate them with digital technologies, and implement them collaboratively with local communities. Through this immersive and practice-based education, students learn to rediscover the value of regional resources and translate them into creative content that drives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This presentation examines the curriculum structure, instructional methods, and notable case outcomes of the Local Micro-Degree Program. Moreover, it considers the strategic direction of Dongmyeong University's Local Content Hub initiative, incorporating feedback to

develop a sustainable and adaptable model. Ultimately, the study underscores the pivotal rol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connecting local narratives, maximizing regional cultural value, and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in the digital age.

11세션
1부

도심유헤공간을 활용한 로컬창업 교육 사례
A case of lo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utilizing underutilized urban spaces

김병국 (계명대학교 교수,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단장)
Kim Byoung Kug (KEIMYUNG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도심 유헤공간을 활용한 로컬 창업 교육 사례를 통해 지역 쇠퇴 상권의 활성화와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 대구 동성로에서 진행된 로컬창업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동성로는 한때 대구의 상업·문화 중심지였으나, 유동인구 감소와 공실률 증가 등으로 침체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지역 대학은 협력하여 도심 내 유헤공간을 청년 친화적 학습공간으로 전환, ‘도심캠퍼스’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명대학교는 로컬 창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계명대학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활용해 정규 로컬창업교과목 및 로컬창업비교과 프로그램을 도심캠퍼스에서 운영하였으며, 2024년 기준 총 286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16건의 로컬창업 아이디어 및 로컬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사례는 지역 문제 해결 및 자원 활용 로컬창업 교육과정 설계 운영, 도심공간을 활용한 현장 중심 수업 운영 등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RISE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형 로컬창업 교육 모델의 확산 가능성과 지역 소멸 및 청년 이탈을 방지하는 로컬창업교육 전략으로서의 잠재력을 제시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focuses on a case of lo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ducted in Dongseong-ro, Daegu, aimed at revitalizing declining urban commercial districts and improving youth settlement conditions through the utilization of idle urban spaces. Once the commercial and cultural hub of Daegu, Dongseong-ro has experienced accelerated decline due to reduced foot traffic and increasing vacancy rates. In response, the City of Daegu and local universities collaborated to transform vacant urban spaces into youth-friendly learning environments, establishing an “Urban Campus.” Based on this initiative, Keimyung University implemented a lo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Leveraging amendments to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university operated both accredited local entrepreneurship courses and non-curricular programs at the Urban Campus. As of 2024, a total of 286 students have participated, resulting in the development of 16 local startup ideas and business models. This case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local entrepreneurship curricula tailored to regional challenges and available resources, as well as for field-based education utilizing urban spaces. Furthermore, the initiative presents strong potential as a strategic model for preventing regional decline and youth outmigration, particularly through its linkage with the national RISE project and the expansion of a localiz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specific to Daegu.

크기·고도 기반 고인돌 위계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기반
위계성의 비교 연구:고창군 아산면 고인돌을 중심으로A Comparative Study of Hierarchical Significance Based on the Size and Elevation of Dolmens and
Network Centrality: Focusing on Dolmens in Ansan-myeon, Gochang County

김석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지식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Seok Kim (Research Institute for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초록

연구배경: 고인돌에 대한 기존의 고고학적·역사학적 접근은 주로 크기, 고도, 유형 등 물리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그로부터 고인돌의 정치사회적 중요성을 평가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을 보완하고자, 공간 네트워크 분석의 중심성 개념, 특히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도입하여, 고인돌 간의 관계적 위상을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대략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 정도로 추정되는 축조시기를 하나의 시간 단위로 묶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에 분포한 약 196기의 고인돌을 대상으로 반경 2.5km 이내를 연결 기준으로 한 무방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을 산출하고, 스피어만 상관분석, Kruskal-Wallis 검정, Dunn 검정 등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경유 빈도를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그 결과, 매개 중심성이 높은 고인돌은 대체로 크기가 크거나 고도가 높은 고인돌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네트워크상에서 이동 경로의 중간 경유지로 자주 등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전체 고인돌 경로 중 상위 10기의 매개 중심성 고인돌이 초거대 고인돌 및 고고도 고인돌로 향하는 최단 경로의 각각 77.5%와 87.9%에서 반드시 경유된다는 사실은 이들이 선사시대 공간구조에서 ‘관문 노드(gateway nodes)’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함의: 이러한 결과는 고인돌의 상징적 중요성(크기, 고도)과 구조적 중요성(중심성) 사이의 탈동조화 가능성을 보여주며, 고인돌이 단순한 정치·종교적 기념물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이동 네트워크 내 핵심 거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선사시대 공간의 계층성과 고인돌 기능의 분화에 대한 다층적 이해가 가능함을 제안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Background: Traditional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approaches to dolmen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such as size, elevation, and type—to assess their sociopolitical significance.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centrality in spatial network analysi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betweenness centrality, as a complementary approach to evaluate the relational significance of dolmens.

Methods: Assuming that the construction period of the dolmens—estimated to span from the 7th to 5th centuries BCE—can be treated as a single temporal unit, we analyzed approximately 196 dolmens distributed in Ansan-myeon, Gochang County, Jeollabuk-do. An undirected spatial network was constructed using a 2.5 km distance threshold to define connections.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were calculated, followed by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Spearman’s rank correlation, Kruskal-Wallis tests, and Dunn’s post-hoc tests. In addition, path counts were computed to assess how frequently each dolmen

appeared along the shortest paths in the network.

Results: Dolmens with high betweenness centrality generally did not overlap with the largest or highest-elevation dolmens. Rather, they frequently appeared as intermediary nodes along movement routes in the spatial network. Notably, the top 10 dolmens with the highest betweenness centrality were traversed in 77.5% and 87.9% of the shortest paths leading to the top 5% largest and highest-elevation dolmens, respectivel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ch dolmens may have functioned as “gateway nodes” within prehistoric spatial structures.

Implications: This study highlights a potential decoupling between symbolic significance (size, elevation) and structural importance (network centrality). It proposes that dolmens may have served not only as political or religious monuments but also as functional nodes within everyday movement networks. This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a multi-layered understanding of spatial hierarchy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prehistoric dolmen landscapes.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지식콘텐츠연구소 소장)
Youngee Noh (Konkuk University)

초록

이 연구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자원의 가치와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내 비지정 문화유산과 마을의 상징적 자산은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기억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문화연구원(CELEB)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문화예술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문화자원의 정보화, 아카이빙, 유통 및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충주, 아산, 고창, 대덕 등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지정 문화유산 총서 발간, 구술채록, 독립서점과 온천문화에 대한 기록화, 민속신앙 자료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민간자격증 제도 운영,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논문 발표 등 다채로운 실천활동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복지 실현의 실천 모델이자, 지역문화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향후 지역문화자원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기반 아카이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학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value of local cultural resources that are rapidly disappearing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to explore practical strategies for thei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Local intangible heritage and symbolic village assets, though vital to regional identity and collective memory, remain under-documented and at risk.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ELEB (Center for Local Evidence-Based Culture), this project developed a blockchain-based open-sharing platform for digitizing, archiving, and disseminating such cultural resources. Field research focused on multiple regions—Chungju, Asan, Gochang, and Daedeok—resulting in oral history collections, publications on non-designated heritage, documentation of independent bookstores and hot spring culture, and studies on local folk beliefs. The project also implemented professional certification programs, hosted academic seminars, and published scholarly articles to expand social engagement and awareness. By fostering community participation, the research presents a viable model for sustainable cultural welfare, offering both a digital infrastructure and a community-driven approach to archiving. It contributes a significant policy and academic foundation for building place-based cultural archives and for the public value creation of local heritage.

송은석 (동국대학교(와이즈))

Song, Unsok (Dongguk University(WISE))

초록

신라 불교신앙의 저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불국신앙(佛國信仰)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주로 정치적,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되었던 신라 불국신앙 연구에 새로운 미술문화적 관점을 더하여 보다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라 불국신앙의 시각적 결과물인 미술문화를 중심에 두고 정치적, 종교적 해석을 종합함으로써 신라 불국신앙의 실상에 좀더 가깝게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기록에 의존하여 신라 불국신앙의 대략적인 틀을 살펴보았으며, 유존한 미술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라 불국신앙 미술의 성격을 구명한 후, 종합적으로 신라 불국신앙의 전모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기록과 미술을 통하여 신라의 불국신앙은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가비라국의 왕족인 석가모니의 가계를 신라왕계에 대입한 것으로, 이때의 불국은 가비라국인 것이다. 둘째, 석가모니가 출가하고 성도한 이후 열반에 들 때까지 활동하였던 북인도의 사위성, 왕사성 등을 신라 왕경인 금성(金城)에 대입하여 불국으로 인식한 것이다. 석가모니의 성적(聖跡)이 신라에 있다는 인식이며, 황룡사 장육상, 연좌석, 석불사(석굴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석가모니불 이외의 여러 불보살들의 상주처(常住處)인 인도 전역을 불국으로 인식한 것으로, 신라 전국을 인도의 불보살 상주처와 동일한 곳으로 인식한 것이기도 하다. 인도 남부에 위치한 관음보살 상주처인 보타락가산이 양양의 낙산으로, 중국 오대산의 문수보살 성지가 평창 오대산으로 대입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인도를 벗어난 공간, 즉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소세계 전체를 불국으로 인식한 것이다. 경주의 낭산을 세계의 중심 산인 수미산으로 인식하고, 낭산 중턱에 있는 사천왕사를 수미산 주변의 사천왕천에 비정하는 등의 인식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amines the Belief in Silla as a Buddha-land, deeply rooted in the foundation of Silla's Buddhist beliefs, by dividing it into four categories. Moving beyond the predominantly political and religious perspectives in previous research on the Belief in Silla as a Buddha-land, this study incorporates a new art-historical perspective to restore a closer approximation of its original form. To achieve this, it focuses on the visual outcomes of the Belief in Silla as a Buddha-land, namely its art and culture, and synthesizes political and religious interpretations to more closely approach the original state of the Belief in Silla as a Buddha-land. By examining historical records to outline the general framework of the Belief in Silla as a Buddha-land and by directly and indirectly analyzing extant art and cultural artifacts, this study clar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 of the Belief in Silla as a Buddha-land and comprehensively reveals the entirety of the Belief in Silla as a Buddha-land.

Through historical records and art, the Belief in Silla as a Buddha-land i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First, the lineage of Śākyamuni Buddha, a royal of Kapilavastu, was equated with the Silla royal lineage. In this case, the Buddha-land is Kapilavastu. However, clear evidence of art depicting Kapilavastu in Silla has not been confirmed. Second, the sites in North India where Śākyamuni Buddha was active from his renunciation and enlightenment until his Nirvāṇa, such as

Śrāvastī and Rājagṛha, were identified with Gyeongju or Geumseong(金城), the capital of Silla, and recognized as the Buddha-land. This reflects the perception that the sacred traces of Śākyamuni Buddha existed in Silla, exemplified by the sixteen-foot tall Buddha statue of Hwangnyongsa Temple, stone meditation seat, and Seokbulsā. Third, the entirety of India, the abode of various Buddhas and Bodhisattvas other than Śākyamuni Buddha, was recognized as the Buddha-land, equating the entire Silla territory with the dwelling places of Buddhas and Bodhisattvas in India. Examples include the identification of Mount Potalaka, the abode of Avalokiteśvara Bodhisattva in southern India, with Naksan in Yangyang, and the transposition of Mount Wutaishan in China, the sacred site of Mañjuśrī Bodhisattva, to Mount Odaesan in Pyeongchang. Fourth, a space beyond India, the entire minor world system centered on Mount Sumeru, was recognized as the Buddha-land. This is evident in the perception of Mount Namsan in Gyeongju as Mount Sumeru, the central mountain of the world, and the alignment of Sacheonwangsa Temple on the mid-slope of Namsan with the Four Heavenly Kings' Heaven surrounding Mount Sumeru.

11세션 3부

경주 남산을 그리다: 무애와 포함의 공간 Envisioning Gyeongju Namsan: A Space of Non-Obstruction and Inclusiveness

정빈나 (한국외국어대학교)

Jeong BinNa (HUF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초록

경주 남산은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산 전체에 걸쳐 품고 있으며, 유교와 불교와 도가를 비롯해 서로 다른 사유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공간이다. 본문에서는 경주 남산에 담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포함(包含)’과 ‘무애(無碍)’로 정리하고, 이를 보여주는 인물로 통일신라 전반기의 원효, 통일신라 말기의 최치원, 조선의 김시습, 그리고 현대 한국의 고청 윤경렬을 소개한다. 최치원의 풍류, 원효대사의 화쟁, 김시습 선생의 신화(新話) 그리고 고청의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네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른 사상의 다양성이 하나로 일치하게 하는 지점을 찾는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누구에게라도 탁월한 보편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위 네 사람의 행적을 통해, 본문에서는 경주 남산이야말로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담은 공간인 동시에 ‘포함’과 ‘무애’로 요약되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드러내는 ‘글로벌’한 공간이며, 유네스코에서 추구하는 세계유산의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문화적인 다양성’을 모두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Gyeongju Namsan(Mt. Namsan) embrac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Silla throughout the entire mountain, serving as a space where elements often considered distinct—such as Confucianism, Buddhism, and Daoism—are unified into on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Gyeongju Namsan through the concepts of inclusiveness (包含) and non-obstruction (無碍), introducing key figures who exemplify these ideas: Wonhyo from the early Unified Silla period, Choi Chiwon from its later period, Kim Si-seup of the Joseon Dynasty, and GoCheong(古靑) Yun Gyeong-ryeol from modern Korea. From Choi Chiwon’s Pungnyu (風流 harmonious way of life), Wonhyo’s Hwajaeng (和爭 harmonization of

disputes), Kim Si-seup's <New Tales of Mount Geumo>, to Go Cheong's aesthetics, all four figures seek a point where diverse schools of thought can be unified. Their efforts have reached a level of excellence that can be recognized as possessing universal value. Through the lives and thoughts of these four individuals, this paper argues that Gyeongju Namsan is not only a repository of Korea's unique cultural heritage but also a "glocal" space that embodies unity in diversity, summarized by inclusiveness and non-obstruction. Furthermore, it presents Gyeongju Namsan as a site that fulfills both the criteria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Cultural Diversity" sought by UNESCO World Heritage.

11세권
3부

도산서원의 보편가치 - 치유의 인문학과 공간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The Universal Value of Dosan Seowon (陶山書院) : Focusing on the Humanities of Healing and Spatial Content

전성건 (국립경국대학교)

Jeon, Sung-kun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초록

도산서원은 201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과 그의 제자들이 성리학 교육을 증진시킨 교육기관이며 인류의 보편적 인간형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도산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향, 학생들을 위한 강학, 지식인들과의 교류, 개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창건 당시 모습 그대로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공간형 콘텐츠는 미디어로서의 공간 속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콘텐츠를 말한다. 도산서원 자체가 전시회와 축제 그리고 테마가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도산서원의 전사(前史)는 퇴계 이황이 설계하고 운영한 도산서당이다. 퇴계 이황이 도산서당을 마련한 목적은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이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한편, 마음을 자연의 질서에 합일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다단한 시대의 현대인에게 퇴계의 마음공부와 도산서원의 자연공간은 치유의 인문학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자 공간형 콘텐츠로서의 보편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Dosan Seowon was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19. It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where Toegye Yi Hwang (李滉, 1501-1570) and his disciples promoted Neo-Confucianism education, and it is a space established to create a universal human type for humanity. Dosan Seowon was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Site because it has inherited its original form as a space for ancestral rites, lectures for students, exchanges with intellectuals, and healing of individual minds. Spatial content refers to content distributed and consumed in a space as a media. Dosan Seowon itself is a space with exhibitions, festivals, and themes. However, the prehistory of Dosan Seowon is Dosan Seodang (陶山書堂) designed and operated by Toegye Yi Hwang. The purpose of Toegye Yi Hwang establishing Dosan Seodang was to preserve and cultivate and to relax. While reading and studying books, he also aimed to unite his mind with the natural order. For modern people living in a complex and difficult era where the future is difficult to predict, Toegye's study of the mind and the natural space of Dosan Seowon can be said to be a space prepared for the healing humanities and a space with universal value as spatial content.

박윤미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Park, Yun-mi (The Taedong Center for Eastern classics, Hallym University)

초록

『안동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교양서이다. 안동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특히 불교, 유교, 그리고 민속 신앙의 전통이 어우러진 중심지로서, 유네스코 유산의 3대 요소인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무형문화유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 책은 그중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봉정사,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을 보유한 천년 고찰 봉정사, 조선시대부터 6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 온 전통마을 하회마을, 퇴계 이황의 도학이 깃든 영남 사림의 중심 도산서원, 서원의 전형적인 배치 및 자연을 품은 강학 공간의 대명사 병산서원 등이 지닌 가치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두 명의 저자가 나눠서 집필하였지만, 공통적으로 각 유산의 어떤 점이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각 유산의 역사적 층위, 건축적 특성, 사상적 지향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각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중 두드러진 구체적 요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Andong'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is a general-interest book that introduces the UNESCO-designated heritage sites located in Andong, Gyeongsangbuk-do, to the wider public. Andong is a cultural center that embodies Korea's long-standing traditions, particularly in Buddhism, Confucianism, and indigenous folk beliefs. Notably, it is one of the few regions in Korea that possesses all three types of UNESCO heritage: World Heritage, Memory of the World,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book focuses on the four World Heritage Sites in Andong-Bongjeongsa Temple, Hahoe Village, Dosan Seowon, and Byeongsan Seowon. Bongjeongsa is a thousand-year-old Buddhist temple that houses the oldest wooden building in Korea; Hahoe Village is a traditional settlement that has maintained its historical continuity for over 600 years since the Joseon dynasty; Dosan Seowon represents the scholarly center of Yeongnam Confucianism, rooted in the philosophy of Yi Hwang (Toegye); and Byeongsan Seowon is renowned for its exemplary spatial composition of a Confucian academy harmonized with nature. The aim of this book is to introduce the value of these sites to the general public. Although the book is co-authored by two scholars, both approach the topic with a shared focus on identifying how each site meets the UNESCO World Heritage criter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Additionally, the book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each site's historical layer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In this presentation, I will offer an overview of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se sites, while highlighting several distinctive elements that exemplify their significance.

이용범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Lee, Yongbeom (Institute of Jeompiljae, Pusan National University)

초록

근대 전환기 서세동점의 물결 속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지(知)는 생존을 위한 변혁을 모색해야 했다. 근대 일본은 서구적 지식을 발빠르게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전통지를 재편성했다. 전통지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프레임 속에서 '지나(支那)'의 것으로 폄훼되며 한자, 한문 등 '국(國)'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한(漢)'의 속성을 부여받았다. 동아시아의 전통지는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며, 한학(漢學)이라는 명칭으로 타자성의 징표가 찍히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한학은 근대 대학제도와 결합을 통해 생존을 확보했다. 제국대학의 교수들은 한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면서도 근대 서구적 학문 방법론을 도입하여 학문적 영역을 개척해 나갔다. 일본의 '지나학'은 동아시아 한자권의 중심축을 뒤흔들었다. 고등교육이 크게 제한되었던 식민지 조선에서 '한학'은 서당이나 가학과 같은 전통적인 전수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1930년에 이르러서야 명륜학원이 설치되어 '한학'이 근대적 교육제도와 결합하기 시작했다. 식민지에서 '한학'의 제도화 과정에는 식민지 내부의 요구뿐만 아니라 일본제국 내 '지나학'을 장악한 한학자들의 개입이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초대 총장이었던 핫토리 우노키치도 한학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의 한학자들과 일본의 한학자들의 상호협력(collaboration)은 학문의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자, 그러한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자임하는 '사문의식(斯文意識, Shibun consciousness)'에 기반하고 있었다. 근대적 국민국가 이전, 주문왕(周文王)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계보 속에서 그들의 상호협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사문의식'은 국민국가적 사유가 자연화(naturalize)된 후속세대에게서는 점차 약해지게 되며, 마침내 국민국가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협력을 무화시키게 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ponse of kangaku 漢學, or traditional sinological study, to modernity in Japan and colonial Korea by focusing on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scholars of traditional sinology in Japan and colonized Korea. In the Japanese Empire, kangaku actively demonstrated that it could contribute to the nation-state and became a part of the modern educational system, including the Imperial University. The favorable atmosphere toward kangaku in the Japanese Empire also enabl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angaku in colonial Korea.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there was deeply influenced by the traditional network of Japanese sinologists. Traditional sinologists in Japan and colonial Korea were able to cooperate based on a shared "shibun (斯文 "This Culture of Ours") consciousness," a kind of consciousness of crisis that originated in the Analects. The shibun consciousness was rooted in the traditional literary world, where borders and contemporaneity were relatively ambiguous. Within the university system, kangaku gradually faced the pressure of specialization and elaboration of modern scholarship and the demands of the nation-state. Thus, successive generations of Korean and Japanese sinologists moved toward a new modern ideology that went beyond "shibun consciousness."

교우(敎友)와 네트워크(Network): 근대 전환기 강우 문인의 강학 공동체와 AI 시대의 지식 생산

Gyou (敎友) and Network: Confucian Learning Communities of Gangwoo Literary Persons in the
Transitional Modern Era and Knowledge Production in the Age of AI

정두호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근대 전환기 강우 지역 문인들이 형성한 강학 공동체의 지식 생산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생성형 AI와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의 지식 형성과 비교함으로써, 전통 유학의 교우(敎友) 개념이 현대 지식사회에 갖는 철학적·윤리적 함의를 탐색한다. 강우 노사학과 문인들의 상호 토론, 교정, 수양 중심의 학문 활동은 알고리즘 기반 비대면 협업 및 오픈소스 지식 공유와 유사하지만, 인간 간 도덕적 관계성과 자기성찰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는 정재규를 비롯한 강우 문인들의 강학 사례를 바탕으로 전통 유학 지식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조명하고, AI 시대에도 인간 중심의 지식 형성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공동체적 방향성과 철학적 토대를 제시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nalyzes the knowledge production methods of Confucian learning communities established by literary figures in the Gangwoo region during Korea's transitional modern era, and compares them with the digital, network-based knowledge structures of the AI era. Focusing on the concept of gyou (敎友)—ethical companionship in Confucianism—it explores the philosophical and ethical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knowledge societies. While the mutual discourse, correction, and self-cultivation practices of the Nosa School resemble today's algorithm-driven collaborations and open-source knowledge platforms, they differ fundamentally in their emphasis on moral relationality and reflexivity. Through case studies of ganghak (Confucian learning) activities led by Gangwoo literati such as Jeong Jae-gyu, this study reexamines the ethical foundation of traditional Confucian knowledge communities and proposes a philosophical model for sustainable, human-centered knowledge formation in the age of AI.

AI시대, 유학은 여전히 유효한가?

Is Confucianism Still Relevant in the Age of AI?

양선진 (충남대 유학연구소)

Yang, Sunjin (Department of Philosoph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문명의 발전 속에서 인간 소외와 불안이 심화되는 현상을 배경으

로, 동아시아 유학 사상 특히 왕양명의 철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간관을 탐색하고자 한다. 왕양명의 ‘양지(良知)’ 개념과 ‘극기복례(克己復禮)’의 수양론은 인간이 기술과 분리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우주와 감응하며 살아가는 전인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단순히 기계를 활용하는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AI와 상호진화(co-evolution)하며 자신의 인격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존재다. 본 연구는 인간과 AI의 결합이 초래하는 ‘하이브리드 정체성’, ‘도덕적 책임의 변화’, ‘포스트휴먼’ 담론 등을 유학의 생생한 인간 이해 및 철학상담의 치유적 접근을 통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존재론적 회복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기술 중심적 인간관을 넘어선 새로운 윤리학 정립과 인간다움의 현대적 재구성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주제어: 왕양명, 양지, 철학상담, 인간-기계 공존, 인간 소외, 포스트휴먼, 유학, 존재론적 회복

Abstract of manuscript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onvergence of huma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demands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essence and identity of human existence. This study explores a renewed understanding of the human being through East Asian Confucian philosophy, particularly the thought of Wang Yangming,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alienation and anxiety in the age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Wang's concept of liangzhi (innate moral knowledge) and his theory of self-cultivation (gewu zhizhi and keji fuli) highlight the human being as a holistic and moral agent who resonates with the cosmos rather than as a mechanistic or isolated entity. Rather than merely using AI as a tool, humans must engage in co-evolution with technology while maintaining their moral and personal integrit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hybrid identities, shifting moral responsibilities, and posthuman discourses emerging from human-AI integration. By drawing on Confucian humanism and philosophical counseling, it proposes a path toward ontological restoration and ethical renewal.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humanity and ethics beyond techno-centric paradigms.

Keywords: Wang Yangming, liangzhi, philosophical counseling, human-machine coexistence, alienation, posthumanism, Confucianism, ontological restoration

11세션
4부

AI 시대 유학 연구 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for Confucian Studies in the AI Era

손미애 (전북대학교 간재학연구소)

Son Miae (Academic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Institute of Ganjae Studie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초록

유학 연구는 경전을 중심으로 사상적 의미를 밝히고, 도덕적 인격 수양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AI의 발전은 유학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술 연구 환경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고전 문헌은 대부분 DB화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AI를 활용한 원전 번역이나 의미 분석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 발달은 유학 연구자의 방법론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 연구 방법론은 여전히 유의미하며,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가? 혹은 AI 기술은 유학 연구의 도구로 배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극 도입되어야 하는가?

AI의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도 무척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기술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유학을 ‘공부’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 두 방향에서 각기 다른 방법론적 성격을 검토한다. 그리고 유학의 새로운 방법론이 어떤 유의미성을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인간과 비인간을 함께 고려한 유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토대로, 전통 학문이 소외되지 않고 여전히 의미 있는 학문으로 존속될 수 있는 방향 또한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Confucian studies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interpreting classical texts to elucidate philosophical meanings while pursuing the practical goal of moral and ethical self-cultivation. Howeve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riggered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not only in Confucian research but in the broader landscape of academic inquiry. Most classical texts have now been digitized and made widely accessible through databases, and AI-assisted translation and semantic analysis have become viable tools at a practical level. Such technological developments appear to call for a methodological shift among Confucian scholars.

Should traditional research methods, which remain meaningful, be preserved as they are? Or should AI technologies be excluded from Confucian research? Alternatively, should they be actively integrated into research practices?

Before we can fully address the question of AI's role in research, it is crucial to reflect on how we define the human being. This is because our understanding of the human condition fundamentally shapes the purpose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e distinct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studying Confucianism as a form of ‘self-cultivation’ and as a form of ‘academic research.’ It further considers the potential significance of new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the AI era. By incorporating both human and non-human perspectives, this presentation seeks to propose a direction through which Confucianism can remain a meaningful and enduring field of study in the contemporary scholarly landscape.

11세션
4부

조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과 율곡의 이통기국설

Two Perspectives on Harmony and Yulgok's Theory of Universal Principle and Particularized Material Force

배제성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Bae Je Seong (Institute of Confucian Philosophy & Cul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유학, 특히 신유학이 도덕성과 조화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상이해 보이는 관점을 양립시키고 있다고 전제한다. 도덕성의 관점으로 볼 때 신유학은 객관적인 율바름 그 자체를 중시하며 상황적인 요인이나

어려움에 좌우되지 않은 것을 지향한다. 하지만 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신유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관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그 안에서 조화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는다. 일견 상이해 보이는 이 두 특징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도덕성과 관계적 조화를 지향하는 태도는 서로 별개이거나 충돌하기 보다는 서로 깊이 연결되는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조화 안에서의 도덕성’과 ‘조화를 향한 도덕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율곡 이이의 이통기국설의 함의를 제안하려 한다. 오늘날과 같은 사회문화적 급변기에는 변화되는 현실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현실감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양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논의는 이러한 관점과 태도를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ssumes that Confucianism, especially Neo-Confucianism, incorporates two seemingly contrasting perspectives on morality and harmony. From the standpoint of morality, Neo-Confucianism emphasizes objective rightness that remains unwavering regardless of situational factors or practical difficultie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harmony, it understands all beings, including humans, as fundamentally relational and seeks to realize harmony within those interconnections. These two perspectives, while seemingly divergent, are in fact deeply interconnected. That is, the moral pursuit of universal rightness and the orientation toward relational harmony form a complex and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rather than a conflicting one.

This study frames these perspectives as “morality within harmony” and “morality toward harmony,” and explores their implications through Yulgok Yi I’s Theory of Universal Principle and Particularized Material Force.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o-cultural environment, it is vital to balance a realistic sense of shifting conditions with a steadfast commitment to humanistic values. The discussion presented i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shaping such perspectives and attitudes.

11세전 4부

『이재난고』를 통해 살펴본 과장(科場) 풍경과 차별

박순철 (전북대 이재연구소)

초록

이재 황윤석(1729~1791)이 쓴 『이재난고(頤齋亂藁)』 57권에는 그가 1752년부터 1785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과거를 치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크게 과거시행의 소식과 갖가지 응시준비 상황, 한양으로 올라간 뒤 만난 사람, 과거시험장의 풍경, 과거 낙방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 과거시험장의 풍경과 과거시험을 통하여 그가 느끼고 파악한 차별의식을 집중으로 살폈다. 그 내용은 첫째, 과거시험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방법이다. 둘째, 좋은 사서를 대동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풍경의 기록이다. 셋째, 칠석제(七夕製)에서 장원으로 뽑혔다가 한 두 글자의 수정으로 취소된 내용이다. 넷째, 답안지 내용으로 합고(合考)에 오르려다가 취소당한 내용이다.

이재가 과거시험을 통해 느낀 차별은 크게는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과 이로 인한 과거시험에서의 차별 그리고 직접적인 과거시험의 경험을 통하여 느낀 차별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재는 우선 과거시험에서 호남출신이 한양과 경기지역의 별열집안의 자제와 다른 대우를 받는 불공정성과 차별을 논했다. 다음으로는 한양의 별열가문(閥閥家門)과 자신의 처지인 지방사족(地方士族)의 향유(鄉儒)로서의 경쟁에서 느낀 차별을 서술하였다. 셋째, 음직참봉의 피선(被選)에 대한 생각과 차별이다. 넷째, 음직제수(陰職除授)에 따른 이재의 처신이다. 넷째, 과거시험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이재난고』라는 거질(巨帙)의 일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관찬기록에서 빠진 사라진 사실을 복원하여 더욱 자세한 과장의 풍경과 과거를 중심으로 한 호남차별을 파악할 수 있다.

옥성득 (UCLA)

Sung Deuk Oak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초록

한국 개신교의 근대성은 이주성, 문명성, 변형성, 민족성, 혼종성이라는 다섯 가지 복합적인 특성들이 상호 작용하며 형성된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들 특성은 당대의 시대적 과제인 반봉건 근대화와 반외세 독립 국가 형성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밀접하게 맞물려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개신교는 교육, 의료, 사회 개혁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특히 민족 독립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개신교의 근대성은 내적 갈등과 외부적 압력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겪었다. 서구 제국주의와의 연관성, 전통문화와의 충돌, 보수화 경향 등은 한국 개신교가 직면했던 도전 과제들이었다. 이처럼 한국 개신교의 근대성은 단순한 진보의 역사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다층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과거의 근대성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양극화, 기후 변화, 세계화 등의 문제에 대해 개신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과거의 근대성 논의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 개신교의 근대성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한 역할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한국 개신교의 근대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modernity of Korean Protestantism was a dynamic process shaped by five interacting characteristics: migration, civilization, transformation, nationalism, and hybridity. These aspects were crucial to Korea's modernization, closely aligning with the era's challenges of anti-feudal modernization and establishing an independent nation against foreign powers. Protestantism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ocietal development through education, healthcare, and social reform, and was a key driver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this modernity also faced constant redefinition due to internal conflicts and external pressures. Connections to Western imperialism, clashes with traditional culture, and conservative tendencies were significant challenges. Thus, Korean Protestantism's modernity is not merely a history of progress but a multifaceted phenomenon deeply embedded in complex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s. Today, Korean Protestantism confronts new challenges, such as social polarization, climate change, and globalization, drawing on its modern legacy. Insights from past discussions on modernity are vital for determining its future role. Korean Protestantism's modernity offers crucial lessons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and future, illustrating religion's complex role in Korean society's development. A deeper understanding provides wisdom for addressing current issues and shaping the future.

미국 남장로 호남선교와 도시 근대화: 순천 선교부를 중심으로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Korea Mission and
Urban Modernization: Focusing on Suncheon Mission Compound

우승완 (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

woo seoungwa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초록

우리나라 도시들의 위상이 확립된 것은 개항기 이후이지만 개항지인 경우와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일제강점기 이후에서야 근대 도시로 발돋움한다. 순천 역시 지방의 다른 중소도시의 경우와 다름없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근대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1910년대 조성된 순천 선교부는 당시 순천읍성 규모의 약 92%에 이를 정도의 미국식 마을로 조성되었다. 순천 선교부 설립에 따른 선교사 마을의 형성은 근대 이후 최초의 대규모 주거 영역 확산이었다.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순천 최초의 근대 의료와 중등 교육 등은 1930년대 근대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즉 순천 선교부에 의한 기독교 문화 이입은 성벽 철거, 철도 개통 등과 더불어 나타나는 순천 도시 근대화의 상징이다.

순천 선교부는 순천지역 일대의 지역민에게 서구의 생활문화를 이식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선교 사업의 활성화는 근대기 순천을 교육과 의료기관의 거점도시가 되게 하고 일제강점기 순천의 2대 특색으로 나타난다.

Abstract of manuscript

It was after the late Joseon Dynasty that the status of Korean cities was established, but most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except for treaty ports and a few cities, only grew into modern cities after Japanese colonial era. Suncheon, like othe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province, begins to change into a modern city after Japanese colonial era.

Founded in the 1910s, Suncheon Mission Department was established as an American-style village with about 92% of the size of Suncheon-Eupseong Fortress at that time. The formation of a missionary village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uncheon Mission Station was the first large-scale expansion of residential areas since modern times. In addition to scale, Suncheon's first modern medical care and secondary education laid the foundation for a modern city in the 1930s.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 culture by the Suncheon Mission Station is a symbol of the modernization of Suncheon city, which appears along with the demolition of city wall and the opening of railroads.

The Suncheon Mission Station serves as an opportunity to transplant Western life culture to local residents in the Suncheon area. The revitalization of such missionary projects makes Suncheon a base city for education and medical institutions in the modern era, and appears as two urban characteristics of Suncheon, Japanese colonial era.

김영우 (인제대)

Kim, Young-woo (Inje University)

초록

『주역』은 괘와 효, 괘사와 효사 등 특별한 상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 방법과 해석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주역』 텍스트의 이러한 성격은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본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당혹감을 주기도 한다. 다산 정약용은 『주역전의대전』이 『주역』 해석의 모범으로 인정받던 시대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의 『주역사전』을 저술하였다. 『주역사전』은 다산이 창안한 물상, 호체, 괘변, 효변의 네 가지 해석 방법을 통해 『주역』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본 논문은 『주역사전』의 가치는 해석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 방법을 통한 다산의 새로운 해석 내용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산의 『주역』 해석은 기존의 해석들과 비교할 때 백성에 대한 통치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산은 『주역』의 괘효사는 주나라 문왕과 주공의 혜민(惠民), 애민(愛民) 사상이 반영된 새로운 창작물로 보았으며 그러한 내용을 새로운 해석 방법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해석은 『설괘전』의 물상에 근거하여 괘를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되며, 특히 진괘(震卦)를 군주 혹은 군자로 규정하고 이를 괘효사 해석에 적극 활용하였다. 다산은 자신의 『주역』 해석이 하늘의 도움을 얻어 완성한 것이라 고백하였으나 그 배경에는 백성을 섬기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aper argues that the value of the Zhouyi Sijeon lies not in its interpretive methods, but in the new interpretations themselves that Dasan achieved through these methods. Dasan's interpretation of the I Ching is distinguished by its emphasis on the ruler's responsibilities and roles towards the common people, a stark contrast to existing interpretations. Dasan viewed the trigram and line texts of the I Ching as new creations reflecting the benevolent and compassionate philosophies of King Wen of Zhou and the Duke of Zhou, and he sought to prove this through his new interpretive methods. This interpretation by Dasan is connected to the principle in the Shuogua Zhuan that trigrams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ir mul-sang (physical properties). Notably, he actively defined the Zhen trigram (震卦) as representing the monarch or noble person and utilized this in interpreting the trigram and line texts.

Dasan confessed that his I Ching interpretation was completed with the aid of Heaven, yet it ultimately reflects his underlying philosophy that serving the people is equivalent to serving Heaven.

18~20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의 한국역학: 관계, 생성, 주체에 관한 해석과 전망

Interpretations of the Yijing in Korean Scholarship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of Civilization :
Perspectives on Relations, Generations, and Subjectivity from the 18th to 20th Centuries

안승우 (성균관대)

Seung Woo AN (Sung Kyun Kwan University)

초록

인공지능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다. 소통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일상에서부터 경제·사회·교육 전반이 디지털에 기반한 시대로 전환되면서 인간 주체, 생명, 관계라는 철학적 화두를 체감하고 고민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에 인문학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2025년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지원사업(3년 사업)으로 선정된 <18~20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의 한국역학: 관계, 생성, 주체에 관한 해석과 전망> 사업단은 역학(易學) 연구자들의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과학기술 윤리 문제, 생태계 위기, 국제상의 정치 군사적 대립과 충돌, 경제적 위기, 민족적·종교적 갈등과 같은 거대 위기와 여러 복합적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근대적 사유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성 중심,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따라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상생과 연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과잉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위기, 재난, 갈등을 초래한 사유의 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유의 틀로서 역학적 사유의 가능성을 본 사업단의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이에 본 사업단에서는 18~20세기 한국에 주목했다. 18~20세기 한국은 새로운 보편으로서 밀려 들어오는 서구 문명을 마주했다. 전통적 화이(華夷)의 질서 체계가 해체되고 새롭게 유입된 서구 근대문명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질서와 인간관을 이해해야만 했다. 또한 서양의 수학, 과학 지식 등 자연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과도 마주해야 했다.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서구 근대문명, 그리고 그 문명이 기초한 서구 근대적 사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대응할 수 있었던 전통 인문학 가운데 역학철학이 있었다.

역학철학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거대 담론을 구축해 왔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유의 틀을 전개해 왔다. 역학철학은 18~20세기 서구 근대문명과 마주했던 조선 지식인들의 철학·종교, 자연·과학, 정치·사회적 대응을 포괄하는 지점이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충돌·이해→비판·수용→변혁·창신의 여정을 거쳤다. 새로운 보편으로 등장한 서구 근대문명에 충격을 받거나 한편으로는 이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서구 이론을 나름대로 접하거나 익히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대한 이론적 검증 끝에 이에 대해 비판하거나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주체적으로 변혁하거나 창신하는 여정 속에서 18~20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문명의 전환에 대한 주체적 사유·성찰·대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사업단의 18~20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의 한국 역학에 관한 공동 연구는 18~20세기 당대 지식인들의 역학철학에 기반한 주체적·성찰적·비판적·창의적 대응 양상을 통해 21세기 디지털 전환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를 마주한 인문학 연구자들이 의미 있는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의 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8~20세기 초까지의 조선의 사상가들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과 시대별 특징을 이론화할 수 있는 학자들의 역학을 범주별, 사유체계별로 연구하고 관계, 생성, 주체를 문명사적 전환기의 역학 사유를 살펴보는 사유의 틀이자 언어로서 다루고자 한다. 역학의 관계, 생성, 주체의 언어들은 관계적 존재로서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고 지속하면서도, 그 관계의 내용이 인과적·생태적·창조적 생성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이

해하고, 필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주체와 경계에 갇히지 않는 무한한 자아 확장의 주체에 관한 사유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본 사업단의 연구를 통해 도출될 18~20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역학철학의 온축된 고민의 결과물들은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요청되는 관계, 생성, 주체의 문제를 전망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y today stands at a civilizational turning point.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permeates everyday life—how we communicate, work, and learn—and reshapes the entire landscape of the economy, society, and education, we are increasingly called to reflect upon and confront philosophical questions concerning human subjectivity, life, and relationships.

What role, then, can the humanities play in this civilizational transition? What kind of contribution can they make? The research project titled "Korean *Yijing* Studies during the Civilizational Transition of the 18th to 20th Centuries: Interpretations and Prospects on Relationship, Generation, and Subjectivity," selected in 2025 as a three-year joint research gran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rises from this shared sense of urgency among scholars of *Yixue* (易學).

To address the complex and pressing crises of modern society—ethical dilemmas in science and technology, ecological collaps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economic instability, and ethnic and religious tensions—we must interrogate the underlying frameworks of modern thought. This includes questioning the dichotomous worldview shaped by reason-centered and anthropocentric perspectives, which have divided humans and nature, and emphasized neoliberal values such as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over coexistence and solidarity. The project aims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potential of *Yixue* thought as a new framework of thinking that responds to such crises.

To this end, the research team focuses on Korea from the 18th to 20th centuries—a time when the country confronted the influx of Western civilization, which claimed universality. This period witnessed the disintegration of the traditional Sino-centric order and the rise of a new global order rooted in modern Western civilization. Koreans had to understand not only these new ideas of humanity and society but also new methods of interpreting nature, introduced through Western mathematics and scientific knowledge.

Among Korea's traditional humanities, *Yixue* philosophy offered a unique framework for addressing these concerns. Throughout East Asian history, *Yixue* philosophy has provided a grand discourse on the human and the cosmos and has continuously evolved to meet the demands of its times. In particular, *Yixue* philosophy served as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philosophical, religious, scientific, and socio-political challenges that Korean intellectuals faced when encountering Western modernity.

As they engaged with this civilizational encounter, Korean intellectuals navigated a path from conflict and understanding to critique and acceptance, and finally toward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Shocked by or intrigued with the universalizing claims of Western modernity, they studied and assimilated Western theories, subjecting them to rigorous theoretical evaluation. Ultimately, they engaged in critical reflection and, in many cases, developed

creative and transformative responses. Through this process, we can observe their subject-centered philosophical reflections and civilizational responses.

This joint research project aims to present a meaningful intellectual experiment for contemporary humanities scholars facing a new digital civilizational shift in the 21st century. By examining how Korean intellectuals from the 18th to early 20th centuries creatively, critically, and reflectively responded to their own civilizational challenges through *Yixue* philosophy, the project seeks to lay the groundwork for contemporary discourse.

The project will analyze key thinkers from this period who can be theorized in terms of their *Yixue* thought, categorizing them by theme and system of thought. It approaches relationship, generation, and subjectivity as both a framework and language for interpreting *Yixue* thought in a time of civilizational transformation. The language of *Yixue*—its concepts of relational being, dynamic harmony, and balance—enables an understanding of how relationships unfold in causal, ecological, and creative ways. It also offers a vision of the human subject as both a necessary being and an agent of infinite self-expansion, unconfined by boundaries.

The research team expects that the distilled insights from the *Yixue* philosophy of 18th–20th century Korean thinkers will function as a critical framework for addressing the pressing issues of relationship, generation, and subjectivity in today’s era of civilizational upheaval.

12세션

사회와 심리

제2부. 치유와 전환의 인문학-감정, 이야기, 존재를 다시보다

제3부. AI시대 마음 챙기기1

제4부. AI 시대의 마음 챙기기2

최빛나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Choi Bitnara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Korean Studies)

초록

본 발표는 ‘호모 아토포스(Homo Atopos)’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감정과 장소, 치유와 실천의 접점을 탐색하는 인문학적 실험의 일환이다. 호모 아토포스는 장소 없는 존재, 다시 말해 전통적인 정체성이나 공동체의 경계에서 밀려난 비인간, 여성, 어린이, 이주자, 병든 몸 등의 주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들의 존재론적 조건과 정동적 감각은 기존의 서사와 제도 속에서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본 연구팀은 이와 같은 주변화된 존재들이 감정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발화하며, 새로운 윤리와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해 왔다.

이번 발표는 2단계 연구의 일환으로, 그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고통과 감정의 언어화, 침묵의 기억화, 관계의 재구성을 가능케 하는 인문치유의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픈 몸과 계급, 배제된 남성성, 가부장제적 공간, 단절된 모성, 말해지지 못한 노동과 역사적 폭력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감정은 단순한 개인의 정서가 아니라 사회적 균열의 징후이자 치유의 시작점임을 보여준다.

특히 본 발표가 포함된 세션 「치유와 전환의 인문학-감정, 이야기, 존재를 다시 보다」는 인문학, 심리학, 문학치료학이 ‘치유’라는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만나는 학제적 실험의 장이다. 이 자리를 통해 인문학이 다시 삶의 고통에 응답하는 학문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고, 감정의 언어와 공동체적 감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발표는 고통을 감지하고 말하게 하는 인문학의 윤리적 잠재력을 성찰하며, 치유의 언어를 학문과 삶의 경계에서 함께 모색하는 시론이 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emotion, place, healing, and practice through the lens of Homo Atopos, a conceptual framework referring to those who exist outside the bounds of traditional identity and spatial belonging. Homo Atopos designates displaced subjects—nonhumans, women, children, migrants, the sick—who remain unrepresented within dominant discourses, yet demand a renewed ethical and affective response. Our research team has examined how such marginalized figures articulate emotion and reshape communal ethics through alternative narratives.

As part of the second phase of our ongoing research, this presentation proposes a humanistic model of healing grounded in the emotional languages of pain, the memory of silence, and the reconstruction of relational spaces. Drawing from case studies on illness and class, excluded masculinities, patriarchal violence in domestic spaces, disrupted motherhood, and silenced histories, we argue that emotions are not merely personal but are structural and socially distributed—a crucial starting point for healing.

This presentation is part of the session "The Humanities of Healing and Transition: Rethinking Emotion, Narrative, and Being", which brings together scholars from the humanities, psychology, and narrative therapy. We aim to demonstrate how interdisciplinary engagement with suffering and care can regenerate the humanities as a field of affective

response and ethical responsibility. This presentation offer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experiment in humanistic healing, emphasizing the role of language, storytelling, and collective affect in confronting pain and imagining alternative forms of community.

**12세션
2부**

심리적 웰빙을 위한 통합 인문치유 접근
A Humanistic Therapeutic Approach to Psychological Well-Being

최주희, 최기홍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

Choi Juhee, Kee-Hong Choi (KU Mind Health Institute, Korea University)

초록

사회적 고립은 개인, 집단, 공동체, 그리고 더 넓은 사회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의 양적 및 질적 결핍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심리적 증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심리적 웰빙의 저하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해소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기반치료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중재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중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면 치료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 등에게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아울러,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을 완화하기 위한 인문학적 접근 역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근거기반 치료 내에서도 인문학적 요소를 통합할 수 있으며, 실제로 행동활성화 치료에서는 개인의 일상과 경험을 저널링하고, 가치기반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 우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서전적 기억 훈련을 통해 개인별 서사의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인문학적 요소가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정서적 교류, 나아가 사회적 연결을 증진함으로써 심리적 웰빙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발표에서는 근거기반 심리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회적 고립 해소 전략과 함께, 인문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향후 지역사회 및 복지 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Social isolation refers to a state in whi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ficiencies in social relationships emerge within the context of interactions at the individual, group, community, and broader societal levels. Such social isola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psychological symptoms and shows a strong correlation with diminished psychological well-being. Consequently, addressing social isol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in contemporary society. Recently, there has been a surge in research verifying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evidence-based interventions for alleviating social isol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given to interventions utilizing digital applications. Digital interventions, by reducing temporal and spatial barriers and allowing for individualized approaches, are emerging as effective alternatives for populations such as young adults who may experience psychological burdens with face-to-face therapy.

In addition, humanities-based approaches to mitigating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have

been continuously explored. Elements of the humanities can also be integrated within evidence-based treatments. In practice, behavioral activation therapy has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activities such as journaling one's daily life and experiences, and increasing engagement in value-based activities, in reducing depressive symptoms. Moreover, autobiographical memory training, which enhances the specificity of an individual's narrative,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orporation of humanities-based elements can foster personal reflection, emotional exchange, and social connection, thereby contributing to improve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alleviation of social isolation. This presentat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umanities-based approaches alongside a variety of strategies, including evidence-based psychotherapy and digital healthcare, and proposes their potential for practical application in community and social welfare settings.

12세션
2부

서사와 문학을 통한 자기 돌봄: 치유의 언어 찾기

하은하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문학치료연구센터)

초록

문학치료학은 문학 연구를 넘어 새로운 인간학을 지향한다. 인간 존재를 한 편의 작품으로 이해하고, 작품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삶의 심층에 자기서사를, 작품 이면에 작품서사를 설정하여 연구해 왔다. 특히 자기서사와 인생살이, 자기서사와 작품서사, 그리고 작품서사와 작품 간의 관계를 통해 개인이 문학을 매개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했다.

본 발표는 인생에서 겪는 충격적인 경험을 작품서사를 통해 어떻게 해석하고 납득하여 자기서사를 조정하고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대표 야담집인 『천예록』에 수록된 노인 변신 이야기를 분석했다. 『천예록』에는 홍어와 멧돼지로 변한 아버지가 등장하는 두 편의 노인 변신담이 실려 있다.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노인 변신 화소는 『천예록』에서 부모의 결단과 자녀의 고민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되었다. 이는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부모 자식 간의 서사이자 일상의 규범과 충돌하는 생애 말기 과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문학치료 서사 관점에서 볼 때, 『천예록』의 노인 변신담은 ‘존엄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작품은 조선 시대 규범에서 벗어난 부모의 선택에 대한 자녀의 순응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가 동물로 변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경험은 조선 시대 상례 제도에 비춰볼 때 충격적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로 해석하기 어려운 인생의 충격을 『천예록』의 작가 임방은 『태평광기』의 〈설위〉와 〈위징〉 작품서사를 매개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충격적인 경험을 자녀가 억압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두 작품을 통해 제시했다.

임방은 평결을 통해 노인의 변신이 특이하지만 노화의 한 모습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모의 선택을 따르는 것은 부모의 뜻을 봉양하는 ‘변례(變禮)’라는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는 임방 자신의 자기서사 변화를 제시함과 동시에 독자 또한 이를 전유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Literary therapy aims to transcend literary studies, aspiring to be a new humanistic discipline. Its core lies in understanding human existence as a work and explor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is work and the individual. Our research has posited a epic of self at the deep core of life and a epic of literary work behind the literary text. Through the relationships among epic of self and life experience, epic of self and epic of literary work, and epic of literary work and the literary text itself, we seek methods for individuals to objectively reflect on and transform themselves through literature.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how shocking life experiences can be interpreted and understood through the epic of literary work, thereby adjusting one's epic of self and redesigning life. To this end, we analyze the stories of elderly transformation recorded in Cheonyeok (天倪錄), a representative collection of anecdotal tales from the late 17th to early 18th centuries. Cheonyeok contains two tales of elderly transformation where fathers turn into a skate or a wild boar. The motif of elderly transformation, sporadically found in East Asian literary history, is reconfigured in Cheonyeok to emphasize the parents' decisive choice and the children's anguish. This transforms a transcendent and fantastical narrative into a story of parent-child relations and a conflict surrounding end-of-life challenges that clash with everyday norms.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therapy, the elderly transformation tales in Cheonyeok address the issue of 'dignified death.' These two works can be interpreted as embodying the children's acceptance of their parents' choices, which deviate from Joseon Dynasty norms. The experience of parents transforming into animals and returning to nature is shocking when viewed through the lens of Joseon funeral rites. The author of Cheonyeok, Im Bang, provided a path to newly understand these life shocks, which were difficult to interpret by Jujagarye (朱子家禮), by leveraging the work-narratives of

Through his colophon, Im Bang conveyed a new interpretative perspective: that the elderly transformation, though unusual, could be a manifestation of the aging process, and that following such parental choices constituted a 'Byeonrye (變禮)' - a transformed ritual of filial piety. This not only showcased Im Bang's own self-narrative transformation but also revealed a point where readers could appropriate this understanding for themselves.

양예지, 최기홍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

Yeji Yang, Kee-Hong Choi (KU Mind Health Institute, Korea University)

초록

자기 자비란, 자신의 고통에 감응하고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회피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그 고통을 털어주고 자신을 친절하게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자비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자기 자비는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수용전념치료 등 근거-기반의 심리치료에서도 치료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치료적 요소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취업 시장 불황 등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비의 세 가지 개념인 마음챙김, 자기 친절, 보편적 인간성의 증진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감소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감소 및 활력, 삶의 만족도 증진 등 정신 건강을 위한 예방책이자 개입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생태 순간 평가를 통하여 청년층 100명의 일주일 간 정서와 행동 패턴을 살펴보고 자기 자비가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자기 자비 수준은 낮은 사회불안, 외로움과 부적 관련이 있었으며 가치 기반 활동과 긍정 정서와는 정적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비가 청년층의 정신 건강에 대해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Self-compassion refers to being sensitive to one's own suffering, approaching it with an open and non-judgmental attitude, and cultivating a desire to alleviate the pain with kindness and care rather than avoiding or disconnecting from it. A growing body of research has demonstrated the positive effects of self-compassion on mental health, and it has been identified as a key therapeutic mechanism in evidence-base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In South Korea, an increasing number of young adults are experiencing mental health challenges due to factors such as social isolation and an unstable job market. In this context, the three core components of self-compassion—mindfulness, self-kindness, and common humanity—can serve not only as preventive measures but also a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to reduce social isolation and alleviate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while enhancing vita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young people. To investigate the role of self-compassion in the mental health of youth, we conducted an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EMA) study over one week with a sample of 100 young adults, examining their emotional and behavioral patterns. The result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self-compassion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anxiety and loneliness,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value-based activities and positive affect. Finally, we discuss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beneficial impact of self-compassion on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이유정 (조선대학교 언어융합연구소)

Lee Yujeong (Language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초록

수화노래는 청각 중심의 음성 언어와 시각 중심의 수어라는 두 이질적인 문화적·언어적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예술 형식이다. 그러나 ‘농문화’에 기반한 예술이 소리의 간섭 없이 오로지 시각적인 방식으로만 표현되는 양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화노래를 농문화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수화노래의 문화적 위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II장에서는 음악이 단순히 청각에만 의존하지 않는 양식임을 밝히고, 농사회에서 수화노래를 수용할 가능성을 검토였다. 농인들이 촉각, 시각, 진동 감각 등을 통해 음악을 즐길 수 있다 하더라도, 수화노래를 농문화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농문화의 핵심 요소인 한국수어가 고유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III장에서는 수화노래에서 한국수어가 훼손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수화노래에서 한국수어의 사용이 비(非)수어 사용자인 청인 관객의 관점에서 주로 고안되고 있다는 점을 ‘번역’의 문제로 접근하여 논의하였다. IV장에서는 핸드스피크와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통해 수화노래가 청인 문화 편향적 번역 현상을 극복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수화노래가 음성언어와 시각언어 간의 힘의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화노래 번역이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언어 체계와 문화적 맥락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논의하였다. 농인은 청인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수어를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농문화의 개념을 유연하게 확장하여 수화노래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Sign language songs are an art form that combines two distinct cultural and linguistic elements: the auditory-centered spoken language system and the visually-centered sign language. For Deaf individuals, art based on Deaf culture signifies a form that is expressed solely through visual means, without interference from sound. Therefore, opinions differ on whether sign language songs can be accepted as part of Deaf culture. This study discusses the cultural position of sign language songs as follows. In Section II, it reveals that music is not solely reliant on auditory senses and that Deaf people have long enjoyed music through tactile, visual, and vibrational senses. This exploration aim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sign language songs within Deaf society. On the otherhand, even though Deaf individuals can enjoy music through non-auditory senses, it is challenging to recognize sign language songs as part of Deaf culture due to concerns that the core of Korean Sign Language (KSL), essential to Deaf culture, may lose its uniqueness. Accordingly, Section III addresses cases where KSL is compromised in sign

language songs and discusses the issues surrounding “translation,” particularly how the use of KSL in sign language songs is often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non-signing, hearing audiences. Section IV examines the potential to overcome the cultural translation bias toward hearing culture in sign language songs through examples from Hand Speak and BT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sign language songs reflect the power imbalance between spoken and visual languages and that the translation of sign language songs is a complex process that must consider linguistic systems and cultural contexts. Deaf individuals occupy a position in a society dominated by hearing people where it is challenging to maintain their own culture. To preserve and promote sign languag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ranslation while also flexibly expanding the concept of Deaf culture to embrace new attempts, such as sign language songs.

다집단 분석을 통한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무망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40~50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The Impact of Family Social Support 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through Multi-Group Analysis: Mediating Effects of Drinking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Men in Their 40s and 50s

강선경, 허보연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Sunkyung Kang, Boyeun Huh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ogang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40~50대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무망감, 음주, 우울,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잠재변수들의 경로가 가족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중년 남성 55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첫째, 무망감, 음주, 우울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망감은 음주와 우울의 경로를 거쳐 순차적 매개 효과를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가족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보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자살생각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중년 남성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사회적 지지 중에서 정보적 지지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족 구성원 간 정보 교류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hopelessness, drinking,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aged men and the further explored whether the pathways of the latent variables are affected differently by the level of family social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based on 551 who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and show this: First, hopelessness, drinking, and depression increased suicidal ideation significantly. Second, hopelessness increased suicidal ideation through a path of drinking and depression through a sequential mediation effect.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suicidal ideation by the level of informational support in family. These results are interest in that they provided a specific exploration of information support among family social support should be taken to alleviate suicidal ideation.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programmes should be developed to help create a positive cycle of information exchange among family members.

기혼부부의 부부갈등을 둘러싼 미시적 성 평등 요인 탐색 : 남성, 여성 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mining micro-gender equity factors around marital conflict in married couples
: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models

서상형, 강선경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Sang Hyeong Seo, Sun Kyung Kang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ogang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기혼부부 622쌍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을 둘러싼 미시적 성 평등 요인으로 지목되는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 가사분담, 자녀돌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본인이 인식한 배우자의 자녀, 배우자 관계, 가사분담, 자녀돌봄을 상호평가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편 모델의 1단계 결과에서는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가사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부부갈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결과 남편이 인식한 아내의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는 부부갈등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내 모델의 1단계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 가사분담은 부부갈등을 낮추었다. 2단계 분석결과 아내가 인식한 남편의 자녀 돌봄은 부부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시적 성 평등 요인 중 남편이 인식한 그리고 아내가 인식한 남편의 자녀 돌봄에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부부갈등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으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study aims to compare the effects of children's relationship with spouse, household division, and child care on micro-gender equality factors surrounding marital conflict in 622 married couple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husbands' and wives' perceptions of their spouse's relationship with children, spousal relationship, household division and child care. The results of the first level, the husband's model showed that the better the relationship with children and spouse, and the fairer the perceived division of household the lower the level of marital conflict. second level of analysis, the husband's perceived relationship with his wife's children and spouse is associated with lower marital conflict. first level of the wives' model, relationships with children, spouse, and division of household were associated with lower marital conflict. second level of analysis, wives' perceived husband's care for children was found to increase marital conflict.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husband's perceived and wife's perceived care for children among the micro gender equality factor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marital conflict, services such as counselling and programmes to manage the stress caused by child care should be available.

김문희*(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교신저자: 김혜선**(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im MunHee* (Addiction & Trauma Recovery Institute of Kangwon National Univ)

Hye-Su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대학 신입 운동선수들이 입학 초기 대학생활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대처 경험에 대해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운동선수 1, 2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google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방형 설문을 제작한 후 URL을 배포하여 17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텍스트 기반 질적 자료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및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대학생활적응 과정에서 운동선수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운동’, ‘기숙사’, ‘적응’, ‘선배’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적응’은 가장 높은 연결중앙성을 보임으로써 다양한 문제 상황의 중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운동’ 키워드는 가장 높은 공출현빈도를 나타내어 대학생활 전반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된 주제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운동’, ‘친목’, ‘선배’, ‘동기’ 등의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 중 ‘운동’은 가장 높은 연결중앙성을 보였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에 필요한 요인으로서는 ‘적응력’, ‘교우관계’, ‘운동’, ‘선배’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중 대인관계 관련 키워드들은 공출현빈도가 높았지만 연결중앙성이 낮아, 특정 관계 상황에 국한된 상호작용이 많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운동선수들의 정서적·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자율성과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서 기반 코칭, 멘토링 시스템, 관계 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 다층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purports to explore the difficulties and coping experiences encountered by university freshman athletes during their initial college life adaptation process. For this study, first- and second-year university athletes from K University in Seoul were selected. An open-ended survey was created using the Google platform, and the URL was distributed to collect data from 171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techniques to structurally interpret the text-based qualitative data. First, the difficulties faced by athletes during their college life adaptation process were identified around key themes such as ‘exercise’, ‘dormitories’, ‘adaptation’, and ‘senior’. Among these, ‘adaptation’ exhibited the highest centrality in the network, functioning as the core hub of various challenges, while the keyword ‘exercise’ showed the highest co-occurrence frequency, making it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topic in the context of overall college life. Second, in terms of efforts to adapt to college life, the central themes included ‘exercise’, ‘socializing’, ‘senior’ and ‘peer’, with ‘exercise’ again demonstrating the highest centrality. Third, the factors deemed necessary for successful college life adaptation were ‘adaptability’, ‘peer relationships’, ‘exercise’ and ‘senior’. Among thes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related keywords had high co-occurrence frequencies but low centrality, suggesting that these interactions were often limited to specific

relational contex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 multi-layered intervention approach, including emotional-based coaching, mentoring systems, and relationship-building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enhance the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ies of university athletes and to restore their autonomy and agency.

12세권
4부

팀 종목 대학생 운동선수들의 외상 경험 유형 탐색

Exploring Types of Trauma Experiences among Collegiate Team-Sport Athletes

류지현*(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교신저자: 김혜선**(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ddiction & Trauma Recovery Institute of Kangwon National Univ)

Hye-Su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초록

팀 종목 운동선수들은 신체적 부상 외에도 경기 실패, 진로 고민, 지도자와의 갈등, 팀 내 경쟁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외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외상 경험은 경기력 저하, 정신건강 악화, 운동 정체성 혼란, 경력 이탈 등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팀 종목 선수들의 외상 경험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유형화한 질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팀 종목 대학생 선수들의 진술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이 겪는 외상 경험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분류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축구, 핸드볼, 럭비 등 팀 종목에 소속된 대학생 운동선수들을 41명 대상으로 운동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 및 사건 등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귀납적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여 1, 2, 3차 코딩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경험을 추출하고, 유사 경험을 묶어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팀 종목 대학생 선수들의 외상 경험은 총 5개의 상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빈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신체적 부상(44%), 심리·정서적 불안(36%), 경력·진로 스트레스(26%), 구조적 스트레스(26%), 대인관계 스트레스(10%)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 부상이나 경기 실패와 같은 직접적 외상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선수 선발, 팀 내 위계 질서, 지도자의 권위적 압박 등 구조적 환경이 선수들의 외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팀 종목 선수들의 외상 문제를 단순한 부상이나 개인의 심리 문제를 넘어, 선수들을 둘러싼 구조적이고 맥락적 환경과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스포츠 현장에서는 선수의 정신건강 관리와 진로 지원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개선, 제도적·사회적 지지망 확충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팀 종목, 대학생 운동선수, 외상 경험, 귀납적 내용 분석

Abstract of manuscript

Team-sport athletes endure complex, multidimensional trauma experiences beyond physical injury, including competitive failures, career-related anxiety, conflicts with coaches, and intra-team rivalry. Such trauma can lead to long-term adverse outcomes—performance decline, deterioration of mental health, disruption of athletic identity, and even premature career termination. Despite this, there is a dearth of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 that systematically categorizes team-sport athletes' trauma experiences based on actual case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nductively analyze the narratives of collegiate team-sport athletes in order to

identify and classify the types of trauma they experience. Data were collected via open-ended questionnaires asking 41 university athletes (from football, handball, rugby, etc.) to describe the most distressing experiences or incidents of their athletic careers. Using inductive content analysis, we conducted first-, second-, and third-order coding to extract meaningful experience units and then grouped similar units into categories. The analysis yielded five higher-order categories of trauma experiences, ranked by frequency: physical injury (44%), psychological-emotional distress (36%), career and future anxiety (26%), structural stressors within the sporting context (26%), and interpersonal stress (10%). Notably, beyond direct trauma such as injury or game failure, structural factors—unfair selection processes, rigid hierarchy within teams, and authoritarian coaching pressure—emerged as key intensifiers of athletes' trauma. These findings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trauma experienced by team-sport athletes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structural and contextu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rather than being solely a matter of injury or individual psychological issues. Future practice in sport settings should therefore adopt an integrated approach—encompassing mental health care, career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reform, and the expansion of institutional and social support networks—to comprehensively address athlete trauma.

Keywords: team sports, collegiate athletes, trauma experiences, inductive content analysis

12세션
4부

한국 전통 활쏘기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호흡 명상 게임 '활의 명수K' 개발 및 효과성 평가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Study of a Virtual Reality Breathing
Meditation Game Based on Traditional Korean Archery.

한해영*(강원대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교신저자: 박소영**(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제2저자: 김혜선***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ddiction & Trauma Recovery Institute of Kangwon National Univ)

Soyoung Park**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Hye-Su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초록

이 연구는 한국 전통의 정신수련법인 K-활쏘기와 가상현실(VR) 기술을 융합하여 VR호흡명상 게임 '활의 명수 K'를 개발하고 시청각적 몰입을 통한 단전호흡이 호흡조절 능력, 불안,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게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47명의 후기 청소년을 무작위로 실험군, 비교군, 대조군으로 배치하였으며, 실험군은 VR 헤드셋을 이용해 '활의 명수 K' 게임에 참여하였고, 비교군은 2D 모니터로 자연 풍경을 보면서 호흡명상을 체험하게 하였다. 실험군과 비교군 모두 2주 동안 4번의 세션에 참여하면서 호흡을 훈련하고 모니터링하였으며, 사전 및 사후 평가에서 상태 및 특성불안,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고, 실험군의 경우 사후 검사에서 사이버멀미와 게임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대조군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사전 및 사후 평가만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실험군 참가자들은 사이버 멀미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았으며, 플레이 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실험군은 게임 플레이 후 날숨의 길이가 크게 증가하여 호흡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셋째, 실험군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태불안과 특성

불안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K-활쏘기의 정신수련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몰입형 VR기술을 융합한 호흡명상 게임 ‘활의 명수 K’는 정서조절과 심리적 회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developed Bow Master K, a VR breathing meditation game that integrates K-archery, a traditional Korean mental training technique, with Danjeon breathing(a breathing technique focusing on the lower abdomen). The game uses immersive audio visual elements to enhance breathing control, reduce anxiety, and improve self-esteem. A total of 47 post-adolesc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 an experimental group, a comparison group, and a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layed Bow Master K using a VR headset, while the comparison group engaged in breathing meditation while watching natural scenery on a 2D monitor. Both groups participated in four sessions over two weeks to train their breathing. State and trait anxiety, along with self-esteem, were measured through pre- and post-evaluations. Additionally, simulator sickness and game satisfaction were assess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The control group received no intervention and only pre- and post-assessments were conducted.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experienced minimal simulator sickness and report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game play. Furthermore, this group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breathing control, reduced anxiety, and increased self-esteem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Bow Master K is suggested to be an effective tool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recovery.

13세션

이주, 교육, 사회

제1부. 이주 다문화 연구1

제2부. 이주 다문화 연구2

제3부. 행성 시대 돌봄 인문학

제4부. 다양한 형태의 융합교육

제5부.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

윤성근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선문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소)

Yun Seong Keun (Depart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ChatGPT, Gemini, Grok)이 동일한 키워드 ‘고려인’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인식하는지를 비교·분석하여, AI 이미지 생성의 편향성과 문화적 재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는 인간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라 인식되지만, 최신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학습 데이터와 독자적인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국 이주 고려인’, ‘Koryo-saram’, ‘K o p ë - c a p a m’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각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표현 방식을 문화융합(Cultural Fusion) 이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hatGPT는 고려인의 역사적·경제적 현실을 반영하며 이주 초기의 불안정성과 노동자 정체성을 어두운 색감과 경직된 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반면 Gemini와 Grok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문화적 동화와 희망 서사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제 이주의 역사적·경제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AI 모델별 학습 데이터 편중과 알고리즘 특성, 고려인 관련 집단 지성 데이터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이미지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AI 기반 소수집단 연구의 필요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how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models—ChatGPT, Gemini, and Grok—visualize and interpret the same keyword, “Koryo-saram,” in order to examine the biases and differences in cultural representation inherent in AI-generated images. While generative AI is generally perceived as more fair and objective than humans,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it can produce distorted and biased images of certain minority groups due to the nature of its training data and proprietary algorithms. To address this, the study set “Central Asian Koryo-saram,” “Korean immigrant Koryo-saram,” “Koryo-saram,” and “K o p ë - c a p a m” as core keywords and analyzed the socio-cultural context and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ted images based on Cultural Fusion theory. The analysis revealed that ChatGPT relatively accurately reflected the historical and economic realities of Koryo-saram by depicting the instability of early migration and the laborer identity through dark tones and rigid facial expressions. In contrast, Gemini and Grok tended to emphasize a bright and positive image, highlighting cultural assimilation and a hopeful narrative, but failed to fully reflect the historic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migration. These differences are interpreted as resulting from the training data bias, algorithm characteristics, and the lack of accumulated collective intelligence regarding Koryo-saram.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bias embedded in AI-generated images and suggests the necessity and potential for further AI-based minority group research.

최한 박사¹⁾, 남부현 교수^{1),2)+} 선문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소¹⁾,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²⁾
 Han Choi PhD¹⁾, Nam, Bu-Hyun Professor^{1),2)+} Sun Moon University Glocal Multicultural Research Center¹⁾,
 Sun Moon University Global Korean Language Educations²⁾

초록

고려인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으려는 이주의 역사는 국내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지형지도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공 데이터, 공공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웹 3.0시대에서 고려인 이주민 공동체의 생태계를 파악하고 디지털 지리정보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커뮤니티매핑의 의의와 유사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전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잡은 고려인 이주민 삶의 현실태 공간에서 생활시설, 사업장, 종교시설, 관련 민간 단체와 기관 등의 지리정보를 망라한 커뮤니티매핑 구축에 있어 고려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유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매핑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 권리를 행사하여 시민의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 커뮤니티매핑 구축 시 고려사항으로 ‘이주민 공동체와의 유대감 조성’, ‘실용화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서비스 언어 설정’, ‘디지털 접근성 및 디지털 문해력 강화’로 조사되었다. 커뮤니티매핑으로 구축된 생활지도 서비스는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과 이주 또는 체류 계획 및 준비 중인 고려인에게 지리정보의 알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동시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migration history of Koryo-saram in search of new livelihoods continues to be reproduced within South Korea. However, due to linguistic barriers, Koryo-saram communities are excluded from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cosystem of Koryo-saram migrant communities in the era of Web 3.0—characterized by public data and civic participation—by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community mapping and reviewing relevant case studies as a means to enhance the use of digital geographic information. Second, it seeks to identify key considerations in building community maps that comprehensively visualize the spatial realities of Koryo-saram migrants across South Korea, including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establishments, religious institutions, and relat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 analysis of analogous cases indicates that community mapping enables civic engagement by allowing resident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concerning local issues, thereby fostering a sense of citizenship and social inclusion. Major considerations in implementing community mapping for migrant communities include: fostering connections and trust with migrant groups; ensuring practical applica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mapping service; establishing appropriate service languages; and improving digital accessibility and literacy. Community maps developed through such participatory approaches are expected to guarantee Koryo-saram migrants—both current residents and those planning to migrate or temporarily stay in South Korea—the right to access geographic information and spatial equality. Additionally, these tools are anticipated to enhance their everyday convenience and facilitate their social integration.

고려인지원 NGO 활동가의 실천경험을 통한 공동체 공간구성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munity Space Formation Process through
the Practical Experiences of NGO Activists Supporting Koryoin Migrants

남부현, 박미숙 (선문대학교)

Buhyun Nam, Misuk Park (Sun Moon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고려인을 지원하는 NGO 활동가들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인 공동체의 공간 구성 과정과 그 발전 양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려인 지원 현장에서 활동 중인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을 실시하고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려인 공동체는 단순한 이주민 지원을 넘어 이주민 스스로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적 공간을 창출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보여준다. 고려인 공동체 공간은 네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되며 순환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첫째, ‘필요에 의해 찾아오는 공간’은 이주 초기 고려인들이 언어, 체류, 생계, 법적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찾으며 형성된다. 이 단계에서 공동체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법률 및 행정 상담, 취업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기반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함께하는 공간’은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협력과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형성된다. 모국어 유지, 전통문화 전승, 공동체 행사, 자조 모임 등을 통해 이주민 간 유대가 심화되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상호작용도 점차 활성화된다. 셋째, ‘자율적인 공간’ 단계에서는 이주민 내부의 리더십이 형성되며 자조조직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스스로 공동체 운영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넷째, ‘지속가능한 공간’은 공동체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성공적인 고려인 공동체 모델 구축을 위해 초기 생활 안정지원 체계 마련, 복합지원거점 모델 구축, 공동체 리더십 육성체계 구축, 정책연계형 공공협력체계의 제도화,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 조성 등 단계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정책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는 통합적 이론 모델을 제시하며, 이론적 확장성과 함께 실질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키워드: 고려인공동체, NGO활동가, 고려인지원, 실천경험, 공간구성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community space formation and its developmental dynamics based on the practical experiences of NGO activists who support Koryoin migrants in Korea. To this end, in-depth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NGO activists actively engaged in the field, and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Koryoin community, beyond simply receiving immigrant support, actively creates communal spaces through the voluntary practices and participation of its members.

The formation of community spaces follows four cyclical and progressive stages. First, the “space entered out of necessity” emerges as newly arrived Koryoin migrants voluntarily seek out the community to address urgent challenges such as language barriers, residency status, livelihood issues, and legal problems. At this stage, the community provides essential support services inclu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legal and administrative counseling, and employment support. Second, the “space of cooperation” is

formed as mutual cooperation and networks expand among community members. Through activities such as native language preservation, cultural heritage transmission, community events, and self-help groups, solidarity among migrants deepens, and interactions with local residents gradually increase. Third, in the “space of autonomy” stage, internal leadership develops among the migrants, and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transitions to a self-governing system based on self-help organizations and networks. Finally, the “sustainable space” is established as the community secures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builds cooperative governance with public institutions, ensuring long-term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practical and policy-oriented measures for building a successful Koryoin community model, including: establishing an initial living stabilization system, developing integrated support hubs, fostering community leadership, institutionalizing policy-linked public cooperation systems, and creating a foundation for co-prosperity with the local community. The study presents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that explain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mmigrant communities, offering both theoretical expansion and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Keywords: Koryoin Community, NGO Activists, Immigrant Support, Practical Experiences, Space Formation

13세션
1부

도시 귀환 이민 여성의 기업가 정신:
서울 귀환 고려인 여성을 중심으로

Entrepreneurship of Urban Return Migrant Women: Focusing on Koryo-saram Women in Seoul

손지혜 (선문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소)

초록

I.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 이주의 증가와 여성 이동성 확대에 따라 여성 이민자의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귀환 고려인 여성의 기업 활동 특성과 그 사회적 의미를 탐구한다.

II. 연구 질문

서울 귀환 고려인 여성의 기업 활동 특성은 무엇인가?

기업가 정신이 귀환 고려인 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과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귀환 고려인 여성 기업가의 성공 요인과 한계 요인은 무엇인가?

귀환 이전에 형성된 사회 자본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귀환 이주, 국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여성 기업가 정신, 사회 자본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사용한다.

IV. 연구 방법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에서 활동 중인 귀환 고려인 여성 5명을 선정하고 심층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V. 분석 결과

귀환 준비 단계: 복합적 동기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 경험

정착 과정: 언어 및 문화적 적응 어려움, 제도적 지원의 한계 존재

경제 활동 단계: 창업이 주요 생존 전략으로 활용됨. 다문화 경험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성공에 주요 요인이거나, 제도적·문화적 제약 존재

사회적 자본 활용: 결속형 사회자본 중심으로 초기 정착 지원, 교량형·연결형 사회자본 활용에는 한계

사회 통합 효과: 개인 자립, 가족 경제적 안정 및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통합 촉진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귀환 고려인 여성의 기업을 정신이 생존형 창업과 다문화 전략으로 나타났음을 밝혔으며, 결속형 사회자본이 초기 정착을 지지하지만, 한국 사회 내 연결형 및 교량형 사회자본 형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향후 귀환 이민 여성들이 주류 사회 네트워크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plores the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significance of return migrant women of Koryo-saram (ethnic Koreans from post-Soviet countries) residing in Seoul, within the context of increasing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feminization of mobility. It aims to understand how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these women facilitate their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The research questions addressed are: What are the specific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Koryo-saram returnee women in Seoul? How does entrepreneurship affect their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What are the success factors and limitations encountered by these female entrepreneurs? Lastly, how does social capital accumulated before their return migration influence their entrepreneurial endeavors?

Grounded in theoretical frameworks of return migration, feminiz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women's entrepreneurship, and social capital theory, th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Koryo-saram women entrepreneurs in Seoul.

The findings indicate that during their return preparation stage, participants faced complex motivations and significant informational gaps, creating considerable initial difficulties. The settlement process was challenged by linguistic and cultural adaptation barriers and limitations in institutional support. Entrepreneurial activities emerged primarily as survival strategies, where multicultural experiences and social networks were key success factors, yet institutional and cultural constraints remained significant barriers. Participants mainly utilized bonding social capital for initial settlement support, but encountered limitations in accessing bridging and linking forms of social capital. Entrepreneurship notably promoted social integration by facilitating individual independence, economic stability for families, and contributions to local

communities.

In conclusion, the study reveals that entrepreneurship among Koryo-saram returnee women predominantly reflects survival-oriented initiatives leveraging multicultural strategies. Although bonding social capital provided crucial initial settlement assistance, limited opportunities were available for creating bridging and linking social capital within Korean society. The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policy support and network-building initiatives to better connect return migrant women entrepreneurs to mainstream societal networks.

김진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Kim Jin Sun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초록

현대사회는 기후위기, 혐오와 갈등의 재생산, 삶의 불안정성과 소외, 민주주의의 위기 등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정보기술 기반의 문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는 기존 체계가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과 공존의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이는 단지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토대로 한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의 전환을 요청한다. 본 발표는 탐라문화연구원이 수행해온 ‘쿰다(CUM多)인문학’의 이론적 성과인 ‘공존-잡종의 존재론’을 기반으로, 이를 ‘이동성(mobility)’ 개념을 중심에 두고 확장한 후속 이론인 ‘쿰다-모빌리티 인문학’을 제안한다. 쿰다-모빌리티 인문학은 인간을 타자, 자연, 사물과 뒤섞여 살아가는 ‘잡종적 존재’로 정의하며, 이 존재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관계, 윤리, 규범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는 이주와 이동을 단지 공간의 이동이나 사회적 현상이 아닌, 존재론적 전회이자 인식론적 사건으로 사유하려는 시도다. 또한 포스트-휴머니즘과 신유물론이 제기한 평평한 존재론(flat ontology)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이 인간 중심의 도덕성과 인간역량(human capacities)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재정립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사유는 인간 주체의 해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자연-기계의 얽힘 속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인간성을 보다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나아가 쿰다-모빌리티 인문학은 과학주의와 경제주의라는 지배적 인식 틀을 넘어, 근대 이후 붕괴된 철학과 종교의 규범적 기능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다중위기 시대를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문학적 전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발표는 인간 중심의 존재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시에, 이동과 혼종, 얽힘의 윤리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인간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Contemporary society is confronted with a multilayered and intersecting set of crises—climate change, the resurgence of hate and conflict, social precarity, and the erosion of democratic structures. Despite the rapid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polycrises reveal that the current system can no longer guarantee human dignity or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This situation calls for a renewed philosophical inquiry and a fundamental rethinking of humanity. This presentation proposes “CUM多-Mobility Humanities,” a theoretical extension of “CUM多 Humanities” developed by the Tamna Cultural Research Institute, which previously articulated a theory of coexistence through the ontology of hybridity. By placing mobility at the center of philosophical inquiry, this expanded framework redefines the human as a hybrid entity constantly in motion—entangled with others, with nature, and with material infrastructures. Migration and movement are understood not merely as spatial or social phenomena, but as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events that reshape ethics and subjectivity. Moreover, this study critically engages with post-humanism and new materialism by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flat ontology and reexamining moral agency and human capacities within complex human-nonhuman entanglements. CUM多

-Mobility Humanities ultimately seeks to reconstruct a layered and relational understanding of the human, while offering a conceptual foundation for an ethical response to the era of polycrisis. This presentation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a humanistic turn as both diagnosis and remedy for contemporary civilizational challenges.

13세기
2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법·정책 소고

A Study on Laws and Policies in the Era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한광수, 염경훈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Han Gwang Soo, Youm Kyung Ho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초록

저출산과 고령화는 21세기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으며, 2024년 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심각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학적·사회적 변화 및 신자유주의적 환경 변화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저출산과 고령화가 서로 악순환을 형성한다. 기존 정책은 근시안적 접근에 머물러 있으며, 관련 법률과 부처가 산재되어 정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최고 수준의 사회적 위험으로 다시 정의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 사례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 정책이 공통적이나 재정 투입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독일과 스웨덴처럼 이민 정책을 통한 인구 유입 확대 등 구조적 접근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에 건강가정기본권 명시, 건강가정보험 신설, 다양한 노동 형태에 적합한 '2종 근로제도' 도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강화 및 독립적 실행 기관 개편 등 구조적·제도적 개혁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를 국가 존립 차원의 사회적 위험으로 재정의하고, 복잡성 관점에서 두 현상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해결책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Low birth rate and aging are the most critical social issues facing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South Korea recorded the world's lowest total fertility rate of 0.72 in 2023, and its rapid entry into a super-aged society by the end of 2024 highlights the severity of the problem. These phenomena are complexly intertwined with demographic and social changes, as well as socioeconomic shifts driven by neoliberalism, creating a vicious cycle between low birth rate and aging. Existing policies are often short-sighted, and scattered laws and responsible ministries lead to policy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low birth rate and aging as the highest level of social risk threatening the nation's existence and to consider fundamental and effective standards. Analysis of foreign cases shows that while 'work-life balance' policies are common, they have limitations with mere financial investment. Structural approaches, such as increasing population inflow through immigration policies in countries like Germany and Sweden, have proven more effective.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including explicitly stating the basic right to a healthy family in the Constitution, establishing a healthy family insurance system, introducing a 'two-type work system' suitable for diverse labor forms, and strengthening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and reorganizing its implementing body into an independent agency. By redefining low birth rate and aging as social risks at the national existence level and considering integrated solutions from a complexity perspective,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se practical social problems.

13세션
2부

제주 관련 콘텐츠에 나타난 이주 양상 : 드라마에 나타난 제주의 장소적 의미를 중심으로

The aspect of Migration in Jeju-Related Content:
- Focusing on the Spatial Meanings of Jeju in Contemporary Television Dramas -

김진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Kim Jinchul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JNU)

초록

제주에는 조선시대 유배지, 6·25 전쟁 시기의 피난지, 출가 해녀와 밀항을 통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이주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것은 제주가 이주를 통해 삶의 전환이 교차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속 인물의 서사에서도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난다. 이 연구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대장금》, 《웰컴 투 삼달리》, 《내 생애 봄날》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이주 유형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형성되는 ‘제주의 장소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드라마 속 이주 유형은 제도적 측면의 강압에 따른 ‘강제적 이주’, 사회 구조적 압력으로 인한 ‘구조적 이주’, 개인의 선택과 내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장금》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유배된 상황을 통해 제주를 고립과 단절의 공간으로 보여준다. 《웰컴 투 삼달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심리적 압박에 따른 구조적 이주의 상황을 통해 제주를 회피와 유랑의 공간으로 그려낸다. 《내 생애 봄날》에서는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인물들을 통해 제주를 성찰과 치유의 공간으로 제시한다.

드라마 속 세 가지 이주 유형의 인물들은 제주에서의 삶을 통해 미성숙한 자아에서 성숙한 자아로 성장하며, 사회적 죽음에서 부활하고, 사회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화해를 통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한다. 따라서 드라마 속에 표현된 이주 서사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여정’을 통해 제주를 존재론적 전환의 장소로 형상화하고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Jeju Island has historically functioned as a place of various migration, such as exile during the Joseon Dynasty, refuge during the Korean War, and economic migration destinations through illegal crossings. This historical level reveals Jeju as a space where life transitions intersect through migration. This historical context is creatively reinterpreted in the narratives of television dramas set in Jeju. This study focuses on the drama Daejanggeum, Welcome to Samdali, and The spring days of my life, analyzes the migration types experienced by the characters, and examines how Jeju's spatial meaning is structured through these narratives.

The migration of these drama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orced migration by institutional

coercion, structural migration due to social pressure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voluntary migration due to individual choice and internal motivation. In DaeJanggeum, Jeju is portrayed as a space of isolation and disconnection where the protagonist is expelled by state power. In Welcome to Samdali, reflecting the structural burden of social stigma, Jeju becomes a space for escape and wandering. On The spring day of my life, Jeju is depicted as a space of reflection and healing where characters seek new meaning and renewal of life after urban burnout and personal loss.

In all three types, characters go through changes in Jeju. They evolve from an immature self to a mature identity, experience a metaphorical resurrection in social death, and take a path of reconciliation through restored subjectivity. Ultimately, these migration narratives establish Jeju as the site of ontological change, where a search for the lost self takes place.

13세션
2부

재한 고려인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전환과 적응: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and Adaptation of Korean Adolescents in Korea: Focusing on School Life

박민희, 남부현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다문화·디아스포라전공, 선문대학교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박민희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 Multicultural & Diaspora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moon University)

남부현 (Sunmoon University Department of Global Korean Language Education)

초록

본 연구는 10명의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 학교생활 적응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은 어떠한지 탐색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집단 면담과 개별적 보충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총 32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11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도 적응의 어려움’, ‘심리·정서적 전환’, ‘학습 의지’, ‘도전과 선택’의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제도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참여 학생들은 각기 다른 출신국임에도 학교제도가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초중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도 바뀌고, 반도 바뀌고, 수업 시간까지 바뀌는 수업환경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었다.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각자의 방법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이 학습 동기로 연결되어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설계해가는 과정들이 보여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학으로 진학한 고려인 청소년들로 낯선 환경으로 이주 후 한국사회에 잘 적응한 모범적이 사례로 볼 수 있다. 초중고시절부터 대학진학까지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재한 고려인, 청소년, 학교생활, 사회문화적 전환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process of 10 Goryeo youth, focusing on their experience of adapting to school life in Korea, and to reveal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experience. As a result of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by conducting two group interviews and individual supplementary interviews, a total of 32 semantic units were

derived and divided into 11 categories and classified into four areas: "difficulty adapting to the system," "psychological and emotional transformation," "will to learn," and "challenge and choice." Participating students who had difficulty adapting to the system had a similar school system even though they were from different countries, but in Korea, as the grade went up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school changed, the peninsular changed, and the classroom environment was quite shocked. I understand the problems that arise as the environment changes with my head, but they still remain a scar on my heart. Nevertheless, they showed efforts to adapt, and there were processes of adapting to school life in their own way, and the processes of learning motivation led to college and designing life in a future-oriented manner were show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Goryeo youth who went to college, and it can be seen as an exemplary example of adapting well to Korean society after moving to an unfamiliar environment. The process of overcoming difficulties in school life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o college entrance is meaningful in that i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fragmentary research.

Keywords: Korean Koreans, teenagers, school life,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박정원 (경희대학교)

Jungwon Park (Kyung Hee University)

초록

행성돌봄인문학의 목표는 서로 돌보고 서로 의존하는 상생의 돌봄이 지구행성을 구성하는 생명의 기본조건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립(孤立)이 아닌 연립(聯立)의 이상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 인간 내의 차이가 차별이 아닌 연결과 포용으로 이어지는 돌봄 민주주의로의 전환, ② 인간-기술-자연을 결합하여 공진화를 지향하는 윤리적 행성기술 구상, ③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다양한 생명이 서로를 보살피고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론의 디자인을 지향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goal of planetary care humanities is to recognize that mutual care and interdependence are the fundamental conditions for life on Earth, and to envision a future grounded not in isolation but in co-existence and relational solidarity. Concretely, this entails:

- ① A shift toward a democracy of care, where differences within humanity lead not to discrimination but to connection and inclusion;
- ② The articulation of an ethical planetary technics that promotes co-evolu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humans, technology, and nature; and
- ③ The design of new relational frameworks that move beyond anthropocentrism, where diverse forms of life care for one another and coexist in mutual support.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Jae-Yin Kim (Center for Cross-Cultur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초록

현재 지구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여섯 번째 대멸종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 멸종, 불평등, 젠더, 빈곤 등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20세기 후반 고도기술 발전과 통합 세계자본주의 완성이 만나면서 모든 것이 이윤극대화로 집중되어 복합적 위기를 야기했다. 펠릭스 과타리는 이 상황을 인류가 '지구라는 우주선'에 탑승한 것으로 묘사하며, 문제를 마음·사회·환경 생태학으로 구분했다.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생존의 단위가 '유기체+환경'이라고 강조했으며, 환경을 파괴하는 유기체는 자신을

파괴한다고 통찰했다. 해결책으로 기존 돌봄의 한계를 넘어 '보편 돌봄'을 제안한다. 돌봄은 취약자 보조 차원을 넘어 모든 생명의 보편적 존재 방식이며, 이윤 논리에 저항하는 행성 위 삶의 근본 조건이다.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에서 호모쿠란스로 전환해야 한다. 행성 시대에는 자기돌봄과 타자돌봄이 분리되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되먹임 관계로 얽혀있다. 가치의 중심이 '이윤과 성장'에서 '돌봄과 지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Earth is currently facing the sixth mass extinction caused by human activities. Modern socie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risis, extinction, inequality, gender issues, and poverty are complexly intertwined, making it difficult to find singular solutions. The convergence of advance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completion of integrated global capitalism in the late 20th century concentrated everything toward profit maximization, triggering a complex crisis. Félix Guattari described this situation as humanity boarding "Spaceship Earth" and categorized the problems into mental, social, and environmental ecology. Gregory Bateson emphasized that the unit of survival is "organism + environment," and had the insight that an organism that destroys its environment destroys itself. As a solution, we propose "universal care" that transcend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care. Care goes beyond the dimension of assisting the vulnerable — it is the universal mode of existence for all life and the fundamental condition of life on the planet that resists profit logic. Humans must transition from Homo economicus to Homo curans. In the planetary age, self-care and care for others are not separate, and all beings are intertwined in feedback relationships. The center of value must shift from "profit and growth" to "care and sustainability."

13세션
3부

반려의 시간성과 상호의존의 윤리학

The Temporality of Companionship and the Ethics of Interdependence

이철주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Kyung Hee University)

초록

한국은 어느덧 전체 인구의 30%가량인 1,500만 명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언뜻 기존 인간-동물 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타자로서의 동물에 대한 성숙한 돌봄과 책임 의식이 전면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지표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방치되고 학대당하는 동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 숫자 역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기만 하는 특권적 '반려' 개념이 지닌 인간중심주의적 한계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더 세밀한 성찰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감정적 유대와 그 책임 의식에 주목하지만, 동시에 이 '반려' 관계 역시 지극히 인간중심주의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위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을 곧잘 망각하곤 한다. '반려동물'과의 상호의존적이고 고유한 인격적 관계가 인간중심주의적인 폭력성과 위계 의식을 일정 부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이 특권적 '반려' 행위가 곧바로 동물 일반 및 생태 전반에 대한 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은 '동물'이기 이전에 인격화된 가족이자 의인화된

존재이며, 이 인격적 틀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동물성’과 ‘타자성’은 대부분 문제가 되기도 전에 안전하게 걸러지기 때문이다. ‘반려동물’들이 ‘타자성’으로서의 ‘동물성’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드러낼 때 현실은 안타깝게도 파양이나 유기, 안락사 등 비극적 결말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해야 할 일은 ‘반려동물’의 무해함과 무구함을 예찬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인간의 죄의식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친밀하고도 밀도 높은 인격적 관계에조차 깊이 개입되어 있는 인간의 목소리를 낯설게 발견하고 다시 질문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상호의존의 윤리는 단순히 아름답고 좋고 숭고하며 무해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라는 공진화 관계 속에서 획득한 상호의존의 시간성은, 이를 매개하고 견딜 수 있는 사유의 견고한 내적 동력이 되어 준다.

Abstract of manuscript

South Korea has entered an era in which approximately 15 million people—roughly 30% of the total population—live with companion animals. At first glance, this appears to signal a shift in human-animal relationships and the rise of a more mature, responsible ethos of care toward nonhuman others. However, the persistent rise in cases of animal abandonment and abuse, as well a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embedded in the privileged concept of “companionship,” call for a more nuanced ethical reflection. While the notion of the “companion animal” emphasizes emotional bonds and moral responsibility between humans and animals, it often obscures the fact that such relationships remain firmly embedded within anthropocentric and capitalist systems. Although this privileged mode of care may foster a partial critique of species hierarchy and human-centered violence, it does not automatically extend to a broader ecological or ethical consideration of animals in general. Companion animals are frequently personified and treated as family members, yet this process filters out much of their otherness and animality. When their unpredictable “animality” emerges, the results often lead to abandonment, relinquishment, or euthanasia. The ethical task of the humanities, then, is not to romanticize the innocence or harmlessness of companion animals in order to alleviate human guilt, but rather to estrange the human voice deeply embedded within even the most affectionate human-animal relationships. The ethics of interdependence must be understood not as inherently benign or pure, but as contingent, messy, and structured by systems of co-evolution. In this sense, the temporality of “companionship” becomes a crucial ethical horizon—one that enables us to endure and transform the demands of shared life with nonhuman others.

유성열 (공주교육대학교)

You, Sungyeol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의 지역 간 정책적 다양성과 그 구조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7개 시도 중 초등학교 단위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정책적으로 운영 중인 10개 시도교육청의 공식 문서를 수집·분석하였다. 분석은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한 다섯 범주, 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운영 유형, 운영 방식, 행·재정 지원 체계,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공동교육과정은 시도별로 서로 다른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정책화되고 있었다. 둘째, 운영 구조에서는 협력 구조와 운영 체계의 이중성을 중심으로 지역 간 뚜렷한 유형화가 가능하였다. 셋째, 운영 방식은 시기, 시간, 매체, 내용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유연하게 구성되고 있었다. 넷째, 제도적 기반은 예산, 행정 조직, 교사 연수 등에서 제도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공동교육과정의 개념은 고정된 정의가 아닌 다층적 구성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의 교육 여건과 협력 가능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은 형식적 일치보다 실질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조직, 법령 등 총체적 지원 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y diversity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school joint curricula implemented at the elementary level across different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Korea. To achieve this, official policy documents from 10 out of 17 provincial offices—those that currently operate joint curricula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were collected and examin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five categories derived from prior literature: policy rationale and objectives, operational types, implementation method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ystems, and legal foundations. The findings reveal: (1) joint curricula are being institutionalized with distinct conceptual definitions and components in each province; (2) cooperation structures and implementation systems form a dual-layered operational framework that varies by region; (3) the curricula are flexibly organized across time, media, and content; and (4) considerable disparities exist i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budgeting, administrative staffing, and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need to understand joint curricula as multi-layered constructs, to tailor policy designs to local educational contexts, to prioritize practical flexibility over formal uniformity in implementation, and to strengthen the overall support system for policy sustainability. These discussions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localized educational policy design and offer foundational insights for the institutional stabilization of joint curriculum models.

작은 학교 살리기 맥락에서 본 초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Cluster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Elementary Schools within the Context of Reviving Small Schools

이찬희 (한국교원대학교)

Lee Chan-he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이 연구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맥락에서 초등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교육 체제 아래에서 1994년 두밀분교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폐교 반대 운동인 ‘작은 학교 지키기’ 사례를 검토하여, 학교를 지키고자 한 교육적 의도와 실천을 살펴보았다. 이어 2000년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한 교육과정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작은 학교 지키기’ 운동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 공동체의 지속, 지역성과 공공성 회복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이를 교육과정 차원에서 구체화한 실천이라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교과 중심의 분과 수업을 주제 중심의 교과 통합수업으로 전환하고, 40분 단위의 시간표를 80분 또는 120분 단위의 블록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체험 및 프로젝트형 수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학년 혼합 구성을 통한 세대 간 배움의 관계 형성,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하는 수업을 지향하였고, 학교 밖 지역 사회를 배움의 장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기반하여 현재 작은 학교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분위기 형성을 위해 학교 간 교육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연대의 맥락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교육과정 목표와 내용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협력과 연대의 경험을 추구하는 장이 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공동교육과정의 실행과 성찰 과정을 기록하여, 하나의 학교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학교와 지역에서도 교육과정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공유 가능한 실천 지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간 ‘연대하기’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와 교육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cluster curriculum in small elementary school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movement to protect, revive, and unite small schools in Korea. First, the study reviews the case of Dumil Branch School, where Korea's first school closure resistance movement "Protecting Small Schools" began in 1994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is movement emphasized students' right to learn, the continuity of educational communities, and the restoration of locality and publicness. Next, the study analyzes the case of Namhansan Elementary School, which represents a significant example of "Reviving Small Schools".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closure in 2000, the school implemented curriculum centered innovations: shifting from subject-based to integrated, theme based curriculum; restructuring the school timetable into 80 and 120 minute blocks; and and project based learning. Additional transformations included multi grade grouping, cooperative rather than competitive learning environments, and the expansion of learning spaces into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se cases, the study critically examines how current efforts to

implement cluster curriculum can be understood as a practice of “Uniting Small Schools”. First, fostering a collaborative climate requires shared educational values and philosophical alignment among schools. Second,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goals and content involve both teachers and students in participatory processes. Third, the curriculum should serve as a space for building and accumulating experiences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among schools. Fourth, documenting and archiving the processes of implementation and reflection is essential so that the accumulated practical knowledge can be shared and adapted beyond a single school or region, thereby encouraging broader educational transformation. Ultimate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cluster curriculum can serve as a vehicle for uniting small schools, supporting structural change in school education, and advancing the democratic values of educational communities.

13세
4부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발전 방향 탐색

Exploring Satisfaction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Out-of-School Science Class Programs

김용진 (경상국립대학교)

Kim, Yong-J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초록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은 학교 과학교육을 보완하는 중요한 비형식 과학교육 환경이다. 본 연구는 전국 32개 생활과학교실 운영 센터에 참여하는 학생 3,376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센터별 학생 3명씩(총 96명)의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생활과학교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M=3.67$, 4점 척도), 특히 '수업 준비 및 운영' 영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업 내용 영역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참여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 분석 결과, 학생들은 '실험/체험 활동'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였고 재미있고 즐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험프로그램 확대, 내용 난이도 조절, 시간 조정 필요, 교구와 재료 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과학교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1) 학생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2)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운영, 3)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4) 학교-생활과학교실 연계 모델 개발 및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비형식 과학교육, 만족도, 과학적 소양

Abstract of manuscript

Out-of-school science class programs serve as an important informal science education environment that complements formal school science education. This study surveyed 3,376 students participating in 32 such centers nationwide to assess their satisfaction and analyzed interview data from three students per center (a total of 96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overall student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was high ($M=3.67$ on a 4-point scale),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reported in the area of "class preparation and operation." In terms of class content, male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atisfaction than female students.

Satisfaction varied by grade level, with young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generally reporting higher satisfaction, and students who participated for longer periods reporting higher satisfaction. From the interviews, students identified "experiments/hands-on activities" as the program's greatest strength, describing it as fun and enjoyable. However, the need for expanding experimental programs, adjusting content difficulty, modifying schedules, and supplementing teaching materials and supplies was also no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or more effective operation of the programs: Development of customized programs considering students' levels and characteristics, Implementation of systematic training programs to enhance instructors' expertise, Establishment of a stable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chool-out-of-school science class linkage model.

Keywords: Out-of-School Science Class Program, Informal Science Education, Satisfaction, Scientific Literacy

13세권
4부

문화역사활동이론으로 살펴본 니카라과 교육 봉사활동의 변화와 발전

Changes and Developments in Nicaragua Educational
Volunteer Activities as Seen through Cultural Historical Activity Theory

한재영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초록

2016년도에 니카라과로 처음 봉사활동을 나간 후 거의 10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니카라과 봉사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되짚어 보고, 미래의 니카라과 봉사활동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니카라과 봉사활동을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두 차례 수행한 뒤, 2018년 니카라과에 전국적인 반정부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많이 실종되거나 사망했고, 항쟁 주도자는 국적 박탈 후 추방되었으며, 많은 비정부기구가 해산되고,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한 니카라과로는 봉사활동을 나갈 수 없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봉사활동이 전면 취소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온라인으로 봉사활동을 하였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도 온라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미국 P 교수는 2022년부터 추수감사절 때 니카라과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고, 저자는 2024년 추수감사절 봉사활동에 합류했다. CHAT의 6가지 요소(주체, 객체, 도구, 규칙, 커뮤니티, 역할 분담)에 따라 봉사활동이라는 활동 체계가 변화된 내용을 기술한다. 봉사활동의 주체는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며 욕망이 가려졌다. 객체도 확대되거나 융합되었다. 도구는 현지화되었으며, 규칙은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커뮤니티에서 현지 상황이 변하면서 어려움이 확대되었다. 역할 분담은 공유되거나 전파되었다. 활동 체계의 변화 유형을 찾아 분류하였고, 발전으로 이어진 갈등 요소를 확인했다. 해외 봉사활동에서 변해야 할 내용과 계속되어야 할 내용도 정리하였다.

Abstract of manuscript

It has been almost 10 years since I first went to Nicaragua for volunteer work in 2016. I would like to look back on how volunteer work in Nicaragua has changed in the meantime and

gain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volunteer work in Nicaragua. After conducting volunteer work in Nicaragua twice in 2016 and 2017, a nationwide anti-government pro-democracy uprising broke out in Nicaragua in 2018. Many people went missing or died, the leaders of the uprising were deported after being deprived of their citizenship, many NGOs were disbanded, and the dictatorship was strengthened. It was impossible to go to Nicaragua for volunteer work due to such social instability, and in 2020, overseas volunteer work was completely canceled due to COVID-19. However, in 2021 and 2022, I did volunteer work online, and the University of Illinois in the United States also started online volunteer work. Professor P from the US visited Nicaragua for volunteer work from 2022 on Thanksgiving, and the author joined the Thanksgiving volunteer work in 2024. This study describes the changes in the volunteer work activity system according to the six elements of CHAT (subject, object, tool, rule, community, and division of roles). The subject of volunteer work expanded and contracted, and the good was separated from the bad. The object also expanded or merged. The tool was localized, and the rule changed flexibly and positively. As the local situation changed in the community, difficulties increased. The division of roles was shared or spread. The types of changes in the activity system were found and classified, and the conflict factors that led to development were identified. The contents that should be changed and those that should be continued in overseas volunteer work were also organized.

중·고등학생의 내재적 정서 문제와 학업 무기력과의 병렬식 잠재 성장모형 분석

Problems and Academic Helplessnes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김진철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Kim Jinchul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2~고2의 4년 동안 내재화 정서 문제와 학업 무기력 간의 경로 구조와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에 표집된 중2~고2의 1,056명(남자 548, 51.9%; 여자 508명, 48.1%)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결측치는 완전 제거법(listwise deletion)을 적용하였고, Mplus 프로그램으로 병렬식 잠재 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화 정서 문제는 유의미한 변화 없으나 학업 무기력은 약간 증가하였다. 모두 초기값이 높을수록 변화율은 완만하였다. 둘째, 내재화 정서 문제 초기값은 학업 무기력 변화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학업 무기력 초기값은 내재화 정서 문제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두 변수 간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공분산은 유의하였다. 셋째, 구조 경로에 여학생은 내재화 정서 문제가 높았고, 남학생은 학업 무기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마트폰 의존은 두 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주고, 건강 인식은 건강 인식은 내재화 정서 문제와 학업 무기력의 초기값에 각각 부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내재화 정서 문제의 변화율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내재화 정서 문제와 학업 무기력의 변화율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학교 만족도는 두 변수의 초기값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내재화 정서 문제의 변화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논했다.

핵심어: 중·고등학생, 내재화 정서 문제, 학업 무기력, 병렬식 잠재 성장모형, 예측변수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longitudinal associations and developmental trajectories between internalizing emotional problems and academic helplessnes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from Grade 8 to Grade 11. Data were drawn from 1,056 students(51.9% boys, 48.1% girls) who participated in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2018). Using Mplus, a parallel latent growth model was conducted with listwise deletion for missing data.

Results showed that internalizing emotional problems remained stable, while academic helplessness slightly increased. Higher initial levels predicted slower rates of change. The initial level of internalizing problem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slope of academic helplessness, but not vice versa. Intercepts and slop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internalizing problems, and male students showed higher academic helplessness. Smartphone dependency influenced both intercepts and slopes of the two variables. Perceived health negatively affected initial levels and the slope of internalizing problems. Negative parenting predicted increases in both variables, while school satisfac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their initial levels and the slope of internalizing problems.

Implications for curriculum design and education policy are discussed.

Keywords: secondary school students, internalizing emotional problems, academic helplessness, parallel latent growth model, predictors

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Dong-Gab Lee (Peace Education Design Institute)

초록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로제 다둔(2006)은 “폭력을 다룬다는 것, 폭력에 대해 다룬다는 것을 교육의 본질이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성과 과잉 사법화 경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사법적인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 이에 이동갑(2025)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 대해 주장하면서 한국형 학교폭력 예방 모델인 『공감N성장』 모델을 소개하였다.

『공감N성장』모델은 학교폭력 발생 초기 관련 학생들의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자신이 입은 피해와 끼친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용서)와 함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이를 성장의 계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을 공감-용서-회복-성장이라고 부른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right of students to live safely and free from school violence within compulsory education institutions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and a cor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However, in environments where large groups of students interact daily, the complete absence of conflict is unrealistic. What is essential is fostering the ability to resolve conflicts through educational means. Roger Dadoun(2006) stated that "dealing with violence and addressing violence is the very essence of educatio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interpret even minor conflicts within schools as acts of violence, often responding with judicial measures. In contrast to this punitive approach, Lee Dong-gap (2025) proposed an educational model for resolving school violence, introducing the Korean model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known as "Empathy and Growth" (공감N성장). This model emphasizes early-stage emotional engagement among involved students, facilitating mutual empathy, sincere apologies, forgiveness, and the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Through this process, conflict is reframed as an opportunity for personal and relational growth—encapsulated in the cycle of empathy, forgiveness, restoration, and growth.

백성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Seoung-Hey Pai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은 근대의 지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근대에는 이공학과 인문사회학이 분리되면서 분과 학문이 발생하였으나, 현대에는 이분법적 사고가 해체되고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이 강조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근대 과학을 연 보일과 그의 과학적 실험에 반대한 정치사회학자 홉스의 논쟁을 통해 두 문화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과학과 기술, 공학의 발달과 과학의 사회학적 발전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근대적 이중성을 인식하고 탈근대인으로서 현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역량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진로교육의 문제를 살펴보고, 미래 인재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식을 융합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에서 학생의 생각을 도와주고 발전하도록 안내하는 반응적 교수법을 통해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사들의 교수 역량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Education for future talent must shift away from modern knowledge-centered education to understand contemporary postmodernism and transform into a new form of education. In the modern era, disciplinary divisions emerged as science and engineering were separated from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ut in contemporary times, binary thinking is being deconstructed with emphasis on individuality, autonomy, diversity, and populism. This presentation examines how the two cultures came to be divided through the debate between Boyle, who pioneered modern science, and Hobbes, a political sociologist who opposed his scientific experiments. It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that emerged from this process, as well as the sociological development of science.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competencies needed to live in the contemporary world as post-modern individuals while recognizing modern duality. In particular, it examines issues in career education and seeks to explore knowledge for future talent to live their liv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vergence education. It also discusses teachers' instructional competencies for nurturing future talent through responsive teaching methods that help and guide students' thinking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최성욱 (한국교원대학교)

Choi, Sung Woo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현대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말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그 의미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입시 중심의 경쟁과 출세 지향의 동기를 ‘교육열’로 미화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까? 본 발표는 ‘교육’에 대한 개념적 혼란과 그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진단하고, 관습적·용병학적·결과론적 교육관이라는 세 가지 대표적인 오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발표자는 진정한 교육의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교육의 수레바퀴’라는 장상호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틀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7가지 교육의 내재적 규칙—구제의 대상, 품차의 양해, 협동의 책무, 변형의 방향, 환경과의 교섭, 단계별 접속, 품차의 입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규칙은 학교사태에 적용할 경우 교사와 학습자의 품위 있는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인간다운 성장과 공존을 위한 학교교육의 윤리를 강조한다. 또한 물총새 어미의 사냥 교육 사례를 통해, 교육이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생명 전체의 자기 전승 행위임을 조명하며, 교육의 지평을 생태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이 발표는 교육을 학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가정, 사회, 직장, 심지어 자연 속에서도 재발견하려는 시도로, 청소년을 위한 교양교육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In modern society, the term ‘education’ is used frequently, yet its meaning is becoming increasingly opaque. In a reality where exam-oriented competition and success-driven motivations are glorified as ‘zeal for education’, what can we truly call education? This presentation aims to diagnose the conceptual confusion surrounding ‘education’ and the resulting social waste, and to critically examine three representative misconceptions: the conventional, instrumental, and outcome-centered views of education.

Building on this critique, the presenter proposes Jang Sang-ho’s conceptual framework of the “Wheel of Cooperative Education” as an alternative to restore the possibility of genuine education. This framework centers on seven intrinsic rules of education that emerge within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he subject of salvation, understanding of hierarchy, responsibility of cooperation, direction of transformation, negotiation with the environment, step-by-step connection, and validation of hierarchy. When applied to the school setting, each rule highlights dignified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and underscores the ethics of school education for humane growth and coexistence. Additionally, through the case of a kingfisher mother teaching her young how to hunt, this presentation illuminates education as an act of self-transmission inherent to all life forms, not a privilege unique to humans. It expands the horizon of education to an ecological dimension.

Ultimately, this presentation seeks to rediscover education not only within schools, but also in the home, society, workplace, and even nature, thereby offering a new possibility for liberal education for youth.

14세션

정치경제와 국가

- 제2부. 글로벌 정치와 경제
- 제3부. 한국사회의 위기와 계급
- 제4부. 서양정치철학과 K-민주주의
- 제5부. 국가위기와 극복방안

에너지 빈곤 완화에서 사회적 자본의 복합적 역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

Social Capital's Complex Role in Energy Poverty Alleviation: Evidence from South Africa

Alan Dixon Brown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이 연구는 전력 공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회적 자본과 에너지 빈곤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우리는 2020~2021년 남아프리카 삶의 질 조사(South Africa Quality of Life Survey) 6차 라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 단위의 다차원 에너지 빈곤 지수(MEPI)를 구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지수들에 대한 비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이후 일반화 구조방정식모형(GSEM)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각 구성 요소가 에너지 빈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MEPI 분석 결과, 전기 및 현대적 조리연료 접근성이 에너지 빈곤 완화에 핵심적이며, 에너지 빈곤 완화는 순차적 과정을 따른다는 점이 드러났다. GSEM 결과에서는 관계적 사회 자본과 사회적 참여가 에너지 빈곤을 완화하는 반면, 시민 참여는 오히려 에너지 빈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데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한계 또한 존재함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과정에 사회적 자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모든 측면이 에너지 빈곤 해소에 유익하지는 않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이웃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신뢰와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어: 신뢰, 사회적 참여, 시민 참여, 다차원 에너지 빈곤, 일반화 구조방정식모형(GSEM), 하우텡-남아프리카공화국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nergy poverty in South Africa, a country with a continuing electricity supply crisis. We use data from Round 6 of the South Africa Quality of Life Survey (2020-2021) to construct a household-level multiple energy poverty index (MEPI), a novel approach which addresses criticisms of existing indices. We then use a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GSEM) to explore how each component of social capital affects energy poverty. The MEPI revealed the central importance of electricity and modern cooking fuel access to energy poverty alleviation, as well as it being a sequential process. The GSEM results showed that relational social capital and social participation reduced energy poverty, while civic participation increased it. The results demonstrate both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social capital to reduce energy poverty. Policy should explicitly include measures to build social capital in the quest to eliminate energy poverty, while recognizing that not all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are beneficial for resolving energy poverty.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trust and a sense of belonging at the neighborhood and community level. Furthermore,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diverse social groups.

Keywords: Trust, Social Participation, Civic Participation, Multidimensional Energy Poverty,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Gauteng-South Africa

한국경제 소득분배 양상과 경제 불평등 구조

The Two-Class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김덕민 (경상국립대 SSK 연구단)

KIM, Deokmin (Researcher, SSK research clust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초록

이 연구는 한국경제 분위별 소득 자료에 기초하여 상이한 형태의 소득 분포를 보이는 두 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소득분배 양상과 경제 불평등 구조를 가시화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물리학자 야코벤코와 그의 동료들은 한 사회 내에서 상위 집단의 소득 분포는 파레토 분포를, 그 외 대다수 집단의 소득 분포는 볼츠만-깁스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일련의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두-계급 구조'라고 지칭했다. 우리는 한국의 소득분배 자료에 기초하여 야코벤코와 그의 동료들이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확인한 두-계급 구조가 한국 경제에도 존재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계급 구조의 복잡성을 논의하고 이러한 계급 구조와 능력주의에 대해서 논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dentifies the existence of two groups of people with different patterns of income distribution, which helps to visualize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the structure of economic inequality. In particular, the econophysicist Yakovenko and his colleagues have shown in a series of studies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of the top group within a society follows the Pareto distribution, while the income distribution of the majority of other groups follows the Boltzmann-Gibbs distribution, which they call a "two-class structure". Based on income data in the Korean economy, we confirm that the two-class structure identified by Yakovenko and his colleagues for the U.S. economy is also present in the Korean economy. We discuss the complexity of the two-class structure and discus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class structure and meritocracy.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초국적 관점 -한인 커뮤니티의 인식과 반응

May 18 Gwangju and Transnational Allianc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김미경 (경상국립대 SSK 연구단)

Mikyung Kim (Researcher, SSK research cluste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초록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초국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논문은 국민과 국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통상적인 분석 틀을 넘어서고자 하며, 5·18 사건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인식과 반응을 살펴본다. 이 논문의 주요 질문은 '미국 내 비정치화된 소수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광주 시민들을 지원하게 되었고, 나아가 고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가'이다.

본 논문은 초기 반응이 집단행동의 특성을 가졌으며, 이후 사회운동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환의 메커니즘은 윤한봉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고조된 민족 의식, 포용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운동의 단계적 탐색 등이었다.

1987년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의 확산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는 자신들의 운동의 향후 방향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과 분열을 겪기 시작했다. 1993년 윤한봉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면서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는 5·18 광주 유산을 계승하려는 조직들의 해체로 이어졌으며, 그 유산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re are very few works on the Gwangju democracy movement analyzed from a transnational perspective. This paper aims to go beyond the usual analytical frame which focuse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a nation-state and the people by examining the perceptions and responses of Korean-American community to the May 18 incident. The primary question is 'why and how the members of non-politicized ethnic community in the U.S. decided to assist the citizens of Gwangju and later to participate in democratization movement of the homeland.' This paper shows that the initial response had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action which later was transformed into social movement. The mechanisms of transformation were Han-bong Yoon's charismatic leadership, heightened ethnic consciousness, inclus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exploration of activism stages. With the spread of nation-wid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7,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began to experience internal conflict and division over the future directions of their activism. Yoon's permanent return to Korea in 1993 caused a cacophony leading to dissolution of organizations pushing the legacies of May 18 Gwangju into oblivion.

14세기
3부

한국현대사와 혁신세력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Innovative Forces

김진흠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Kim, Jinheum (Center of Asian Studies, KNU)

초록

이 연구는 진보당 및 혁신계 운동 관련 형사사건기록을 정리하여 '한국 민주화운동 사료 DB'를 구축해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운동 주체 측의 내부문건이나 구술증언 혹은 신문잡지 보도기사에 의존하여 사료적 기반이 매우 협소하였기 때문이다. 국가 수사 및 사법 기관에서 생산된 방대한 규모의 형사사건기록은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최대최고의 정보자료를 제공해주는 사료적 보고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가기록원에 수집되기 시작해서 최근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진보당 및 혁신계 운동 관련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탈초 작업, 해제 및 주석 작업, DB 구축 등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 민주화운동 연구의 사료적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켰다. 이 형사사건기록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지만 판독이 난해한 국한문 필사

문서로 작성되어 있어 연구에 활용하기가 매우 곤란했다. 필사문서의 탈초작업, 해제 및 주석작업, DB구축 등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 민주화운동 사료 DB'를 구축하고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학술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Korea Democratic Movement Historical Data DB' by organizing criminal case records related to the Progressive Party and innovation movement. Democratization and democratization movements of Korea are evaluated as exemplary cases beyond Asia, but their research has not reached a satisfactory level. This is because the research o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been very narrow depending on the movement's internal documents, oral statements, or newspaper and magazine reports. The vast amount of criminal case records produced by state investigation and judicial institutions is a historical report that provides the best information on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lthough this criminal case record is of very high historical value, it was very difficult to use in research because it was written as a difficult Korean-language transcription document to read. By conducting comprehensive research on criminal case records, such as removing transcription documents, releasing and annotating documents, and building a DB, academic access to criminal case records can be dramatically improved.

윤은주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Eun Joo Youn (The Institute of Chung-Ang Philosophic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초록

우리는 전 지구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대해야 하며, 불편부당하게 연대하기 위해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중은 공동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대해야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연대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편부당한 연대다.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불편부당한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로의 변혁을 위해 정치적 행위 주체인 대중은 집단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유기적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억압받는 자들의 페다고지'에서 유기적 지식인을 만드는 정치교육의 방법으로 소통과 대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We start from the recognition that we must unite to overcome the global crisis, and that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to achieve an impartial solidarity. A numerically superior mass of people can only be powerful if they unite for a common political purpose. Solidarity must progress in the direction of mutu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This is an impartial solidarity. If we freely converse and communicate in the public sphere, an impartial solidarity will be possible. In order to transform into a new society, the public as a subject of political action must become organic intellectuals who strengthen the political capacity of the group. We will look for a method of political education that creates organic intellectuals in Paulo Freire's 'Pedagogy of the Oppressed.' In Paulo Freire's 'Pedagogy of the Oppressed', we will examine the necessity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as a method of political education that creates organic intellectuals.

김분선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Bun-Sun Kim (The Institute of Chung-Ang Philosophic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연대의 조건을 이방인의 문제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특히, 이방인의 갈등에 내포된 정치적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화하려 한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데리다의 환대 개념을 파악한다. 데리다는 환대의 개념을 종교적 환대와 정치적 환대로 구분하면서 절대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가 서로 다

른 문제임을 규명한다. 또 데리다는 아테네 법에서 살필 수 있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의 개념을 소크라테스의 법정 증언을 통해 확인한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규정하면서 법 밖의 존재이자 이방의 존재로 자신을 위치시킨다. 이 연구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법 밖의 이방인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이로부터 이방인의 타자성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또 타자성이 단지 낯센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로부터 절대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의 차이점을 해명하고, 정치적 환대의 경우 따르는 조건적 환대의 조건이 무엇인지 밝힌다. 이로부터 정치적 환대의 조건이 유발할 문제를 권력과 정치, 경찰 치안의 문제들과 같은 현실적 토대 위에서 재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르게 구축할 현실적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볼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ditions of solidarity necessary for building a society of trust through the lens of the figure of the stranger. It specifically seeks to problematize the political issues inherent in the conflicts involving strangers. To approach this, the study examines Jacques Derrida's concept of hospitality. Derrida distinguishes between religious and political hospitality, clarifying that absolute hospitality and conditional hospitality involve fundamentally different issues. He further explores the notion of hospitality toward the stranger as found in Athenian law, particularly through Socrates' courtroom testimony. By identifying himself as a stranger, Socrates positions himself as one who stands both outside the law and beyond the familiar. This research analyzes why Socrates defines himself as a stranger beyond the law, aiming to uncover the nature of the stranger's alterity. It argues that alterity is not merely a reaction to unfamiliar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elucidates the distinction between absolute and conditional hospitality and specifies the conditions attached to political hospitality. Finally, it revisits the problems posed by these conditions in light of life-world structures such as power, politics, and policing, and explores possible alternative frameworks for their reconfiguration.

14세션
4부

듀이의 민주주의와 의사소통의 윤리

John Dewey's Democracy and the Ethics of Communication

김다솜 (중앙대학교)

Kim, Dasom (The Institute of Chung-Ang Philosophic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초록

푸코가 지적했듯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은 공론장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실재를 고려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듀이의 의사소통의 철학으로부터 재구성한 의사소통의 윤리는 하버마스처럼 하나의 이상적인 담론 상황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의사소통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문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의사소통 가능성을 허용한다. 하지만 듀이 역시 의사소통을 통해 공론장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소양과 자질을 민주주의 성공의 실천적 조건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주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행 공론장의 위기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심각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필자는 듀이의 의사소통의 윤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윤리의식 혹은 공론장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의식만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기도 한 정치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듀이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간주한 참여와 소통의 문제는 사회적 정의와 연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는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Abstract of manuscript

As Foucault pointed out, Habermas'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as fundamental limitations in accounting for the realities of power that intervene in or influence the public sphere. The ethics of communication reconstructed from Dewey's philosophy of communication, unlike Habermas's approach, does not presuppose an ideal speech situation. Instead, it regards communication as a means of problem-solving, thereby allowing for a variety of theoretical and strategic possibilities suited to specific problematic situations. However, Dewey too considers the competencies and dispositions of participants in public discourse to be practical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democracy. For this reason, he is not free from the criticism that the current crisis of the public sphere—where democratic citizens are failing to engage effectively—has become one of the causes of the crisis of democracy, and that this in turn seriously obstructs efforts to overcome it. I argue that in order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problems inherent in Dewey's ethics of communi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e ethical awareness or consciousness of democratic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public sphere, but also the political-economic conditions that are major causes of social polarization. In other words, the issues of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which Dewey regarded as core elements of democracy, are inseparably linked to the issues of social justice and solidarity. This will be the subject of future research.

14세션
4부

존 스튜어트 밀의 신뢰 개념 분석 - 『자유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John Stuart Mill's concept of trust in On Liberty

김은미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KIM EUN MI (The Institute of Chung-Ang Philosophic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초록

이 논문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관하여』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진보를 가능케 하는 핵심 조건으로서 '신뢰'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밀은 자신의 저서에서 신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표현과 토론의 자유, 개별성과 다양성의 존중, 진리 추구, 사회 발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뢰에 대한 함의를 드러낸다. 이 논문은 밀의 사상에서 추론할 수 있는 신뢰의 개념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개인 간의 '관용적 신뢰', 사회 발전을 지지하는 '사회 진보적 신뢰',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도모하는 '공리적 신뢰'. 이 세 가지 신뢰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이 논문은 자유와 진보의 긴장을 조율하는 밀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신뢰가 성숙한 개인과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임을 밝힌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aper aims to reconstruct the concept of trust as a fundamental condition that enables both individual liberty and social progress, based on John Stuart Mill's *On Liberty*. Although Mill does not explicitly refer to trust in his writings, his discuss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discussion, respect for individuality and diversity, the pursuit of truth, and social advancement imply a philosophical grounding in trust. This study identifies three forms of trust inferred from Mill's thought: tolerant trust between individuals, progressive trust that supports social development, and utilitarian trust that promotes harmony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By analyzing these three forms, the paper demonstrates that Mill's philosophy offers a meaningful framework for reconciling the tension between liberty and progress, and highlights the essential role of trust in cultivating mature individuals and building a harmonious society today.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부)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at Kyungnam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10년간 노인 보호관찰 사건은 1,708건에서 5,613건으로 227.8% 증가하였으며,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비율도 1.77%에서 5.81%로 급증하였다. 특히 교통사범과 사기·횡령사범의 증가율이 각각 417.1%, 408.0%에 달하며,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대도시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노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증가는 고령층의 빈곤, 사회적 고립, 치매 등 건강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기존 보호관찰 제도가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공통계 및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중심 특화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 연계모델 구축, 전문인력 배치,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노인 보호관찰이 단순한 통제를 넘어 재범 예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다차원적 보호관찰 정책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probation for elderly offenders in South Korea, which is undergoing a rapid demographic shift into a super-aged society. Over the past decade, elderly probation cases surged by 227.8%, with a sharp rise in traffic and economic offenses. This trend reflects broader structural problems such as poverty, cognitive decline, and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Despite these changes, the current probation system remains largely oriented toward younger offenders and lacks tailored approaches for aging individuals. Drawing on domestic statistics and comparative policy cases from countries like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proposes comprehensive strategies: developing rehabilitation programs tailored to elderly needs, integrating welfare and healthcare services, deploying specialized probation officers, and strengthening local community partnerships. These policy directions aim to reduce recidivism among elderly offenders and promote social reintegration, emphasizing a shift from control-based to support-based correctional models.

김도형 (텍사스주립대학교)

Dohyeong Kim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초록

이 발표는 발표자가 그동안 보건 및 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통계, 경제, 공간 및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개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공간-시간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 CCTV와 범죄 예방 한국 도시에서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가 범죄 감소에 기여하지만, 상업지구, 유동 인구, 평균 토지가격 등 환경 요인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GIS 및 공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설치 지점을 도출할 수 있다. (2) 응급 의료서비스(EMS) 배치 최적화 경남지역의 32만 건 이상의 응급 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해 수요 예측을 수행하고 EMS 차량을 시간대별로 최적 배치하여 응답 시간을 단축했다. 결과적으로 5분 및 10분 내 도착률이 개선되었다. (3) 코로나19 정책 평가 (Bayesian 공간-시간 분석) 텍사스 254개 카운티의 구글 모빌리티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택대기 정책이 이동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 공간 및 시간 구조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으며, Bayesian 접근법은 정책평가의 신뢰성과 현실성을 높인다. 이러한 분석들은 단지 보건뿐 아니라 치안, 재난 대응, 공공 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으며, 공간 데이터를 결합한 AI/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resentat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patiotemporal analysis through three case studies, based on the presenter's extensive experience in developing statistical, economic, spatial, and big data analytic tools to support policy decision-making using health and environmental data.

CCTV and Crime Prevention In Korean cities, CCTV cameras installed in public spaces contribute to crime reduction; however, their effectiveness varies depending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ommercial zones, floating population, and average land values. GIS and spatial analysis can be used to identify optimal locations for camera deployment.

Optimiz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Deployment Using data from over 320,000 emergency calls in Gyeongnam Province, machine learning was applied to forecast EMS demand and optimize the time-specific allocation of EMS vehicles, resulting in improved response rates within 5 and 10 minutes.

Evaluation of COVID-19 Policies (Bayesian Spatiotemporal Analysis) An analysis of Google mobility data from 254 counties in Texa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impact of stay-at-home policies on mobility. The study shows that failing to account for spatial and temporal structures can lead to overestimated policy effects, whereas a Bayesian approach enhances the reliability and realism of policy evaluations.

These analyses are not limited to public health but are also applicable to areas such as public safety, disaster response, and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They underscore the growing importance of integrating spatial data with AI and big data analytics.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Kang So Young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in Konkuk University)

초록

이 연구는 교제폭력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교제폭력 처벌 관련 입법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 최근 10년간 선고된 제1심 형사판결문 중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 ‘이별 폭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총 152건의 판결문을 수집·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피해자 중 여성은 93.3%로 남성보다 약 14배 높았고, 가해자의 60.5%는 전과가 있었다. 이 중 살인 전과도 확인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판결문의 53.3%는 피해자가 결별 의사를 밝히거나 관계 종료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44.7%는 하루 이내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피고인 1인당 평균 2개의 폭력행위를 동시다발적으로 행했고, 정서적 폭력과 강압적 통제는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역 1년 미만과 집행유예 2년이 함께 선고된 사례가 26.2%로 가장 많아,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범 방지에 우려가 제기된다.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제도적 기반의 미비는 실태 진단과 대응에 한계를 초래하며, 교제폭력이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판례 분석을 통해 최근 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성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관련 입법 논의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characteristics of dating violence through judgment analysis and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for future legislation to punish dating violence. A total of 152 stalking court decision cases between January 1, 2015 and March 1, 2025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93.3% of all victims were women, about 14 times more than men, and 60.5% of the perpetrators had a criminal record. Of these, 60.5% had a homicide conviction, highlighting the need to proactively intervene with high-risk individuals who are at high risk of reoffending. In 53.3% of the cases, the offense occurred after the victim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break up or end the relationship, and 44.7% of the offenses were committed within a day, suggesting the need for a rapid response system to protect victims. In addition, an average of two acts of violence were committed simultaneously per defendant, and emotional violence and coercive control are difficult to punish under current laws. However, 26.2% of the cases were sentenced to less than one year in imprisonment and two years of probation, which raises concerns about effective punishment and recidivism prevention.

The lack of a legal definit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dating violence limits the diagnosis and response to the problem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dating violence will develop into a serious crim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eds light on the recent realities and dangers of dating violence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law, and it is hoped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legislative discussions.

15세션

충북지역단체 자유세션1

- 제1부. 융합적 진로교육:정체성 해체와 융합교육
- 제2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충북도정 후마니타스 포럼)
- 제3부. AI 혁신으로 변화하는 충북: AX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제4-5부. 한국의 미래와 과학기술의 역할1·2(충북과학기술포럼)
- 제6부. AI 시대 문화와 고전교육(한인사협)

서재욱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Jaewook Suh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21세기 블루 이코노미 시대는 해양 분야에서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 교과과정과 해양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융합적 해양 진로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해양을 특정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과학, 수학, 정보, 공학, 인문, 예술 등 전 교과에 걸쳐 유의미한 학습 맥락이자 소재로 활용하는 융합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회 교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과 해양 금융을, 과학 교과에서는 해양 바이오 기술과 친환경 선박 기술을, 정보 교과에서는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선박의 AI 기술을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교과별 융합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융합적 접근은 학생들의 '해양 리터러시(Ocean Literacy)'를 보편적으로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해양 산업으로 이끄는 동시에,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효과적인 교육적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해양이라는 기회의 장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주요어: 해양 진로교육, 융합교육, 블루 이코노미, 해양 리터러시, 교과통합

Abstract of manuscript

While the 21st-century 'Blue Economy' demands a workforce with interdisciplinary competencies for the maritime sector, current school education remains fragmented and fails to meet this need.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ubject-integrated maritime career education' model to effectively bridge the gap between the existing curriculum and diverse maritime career paths.

This paper presents a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based convergence education framework that utilizes the ocean not as a standalone topic, but as a meaningful learning context and material across all school subjects. To illustrate this approach, the study explores concrete methods for subject integration. Examples include connecting the global supply chain and maritime finance in social studies; marine biotechnology and eco-friendly ship technologies in science; and AI applications for smart ports and autonomous vessels in technology and informatics.

The proposed model is presented as an effective educational strategy to universally enhance students' 'Ocean Literacy,' broaden the talent pipeline for the maritime industry, and foster the development of interdisciplinary thinking and problem-solving skills essential for the future. Ultimately, this study seeks to empower the next generation to proactively design their careers in the vast field of opportunities the ocean provides.

Keywords: Maritime Career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Blue Economy, Ocean Literacy, Curriculum Integration

융합적 사고로 진로를 디자인하다: 찾아가는 진로탐색교육

Designing Career Paths through Integrative Thinking:
A Case Study of School-Based Career Exploration Education

윤창호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연구원)

Yoon Chang Ho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직업 정보 중심의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기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융합적 사고 기반 진로교육의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한다. 발표자는 2021년부터 기획·운영해온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탐색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 구조와 참여 학생들의 변화,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질적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예술가, 과학자, 창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대학 예비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다. 수업은 ▲전문가 소개, ▲삶의 맥락 속 직업 이야기, ▲직업 체험 활동, ▲자기 성찰이라는 네 단계로 구성되며, 이후 팀별 탐구 프로젝트와 발표를 통해 통합적 사고 - 표현 - 성찰의 교육 과정을 실현한다. 특히 진로를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해하고 재구성하게 함으로써, 학생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진로 인식의 전환, 자존감 회복, 자기이해 증진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진로는 되고 싶은 내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진술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진로교육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융합적 사고는 진로교육에서 자기 존재 탐색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사고틀임이 확인되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실천과 연구를 통해,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진로교육은 교과 간 융합과 맥락 중심의 전달 방식을 통해 학생의 내면과 사회적 연결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예비교사-학교의 협력 구조는 진로교육의 실천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자기 삶을 말로 표현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교육은, 21세기 교육의 본질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한다.

핵심어 : 융합적 사고, 진로교육, 찾아가는 진로탐색교육, 전문가 협력 수업, 자기 성찰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introduces a practical case of career education based on integrative thinking that goes beyond conventional information-based career guidance, aiming to help students construct the direction and meaning of their lives proactively. The presentation focuses on the “Career Exploration Education That Visits Schools” program, which the author has planned and implemented since 2021. It shares the program’s instructional design, changes observed among participating students, and qualitative findings derived from expert interviews.

This program brings together artists, scientists, creators, and pre-service teachers to deliver integrated classe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instructional flow consists of four key stages: (1) introduction of experts, (2) sharing life-contextual career stories, (3) hands-on career-related experiences, and (4) guided self-reflection. Through subsequent group projects and presentations, students engage in a learning cycle that connects integrative thinking,

expression, and reflection. Notably, the program shifts students' understanding of career paths from objective information to personalized narratives, thereby empowering them to design their own lives.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showed positive transformations in career awareness, self-esteem, and self-understanding. Statements such as "Career is about becoming who I want to be" were frequently observed. In-depth interviews with career education experts further revealed that integrative thinking plays a vital role in enabling students to explore and construct their identity through career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resentation propo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future career education. First, career education should be reconceptualized as a process of identity construction through cross-disciplinary integration and context-rich storytelling. Second, collaborative structures involving professionals, pre-service teachers, and schools can enhance the practicality and sustainability of career programs. Finally, fostering students' ability to articulate and imagine their own life stories should be regarded as a core aim of 21st-century education.

Keywords : Convergence Thinking, Career Education, School-Based Career Exploration , Collaborative Instruction with Professionals, Self-Reflection

15세선 1부

플래너를 활용한 융합교육의 실제 The Reality of Convergence Education Using Planner

홍현수 (한국교원대학교)

Hong, Hyunso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최근 미래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학생주도성(Student Agency)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교육 현장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 학습플래너는 자기주도학습 도구로 활용되어왔으나, 학생주도성 발현을 위한 통합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학생주도성의 이론적 요소를 반영한 융합기반 플래너를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주도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실행연구(action research)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2021.7~2024.7)는 초등 1~중3 학생 대상 온라인 비대면 플래너 수업(512회, 9명 분석), 2차(2024.5~7)는 초4~중1 학생 7명 대상 대면 비교과 플래너 수업(12주), 3차(2024.10~11)는 고1~고2 학생 4명 대상 대면 방과후 수업(6주)으로 구성되었다. 융합기반 플래너는 시간·프로젝트 관리, 습관, 인간관계, 지식관리, 감사기록 등 학생주도성 요소를 도형과 직관적 장치로 설계하였다. 학생주도성 변화는 플래너 기록 분석, 면담, 설문(인천결대로자람학교 2차 설문 활용)으로 측정하였다. 1차 실행에서 학생별 플래너 기록 방식의 다양성과 자기주도적 태도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스스로', '자기주도', '재미있게' 등 긍정적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2차 실행에서는 협력적 주도성(co-agency)과 신뢰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3차 실행에서는 융합시간 경영 방식 등 단계적 플래너 접근이 학생주도성(설문점수 3.8→4.2) 및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등 긍정적 변화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융합기반 플래너는 학생의 발달단계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교육이 필요하며, 신뢰 관계와 충분한 시간, 학생의 욕구 발견이 학생주도성 발현의 핵심임을 확인하였다. 플래너는 학습

효율뿐 아니라 학생주도성 발현을 위한 기초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비제도권 학생 대상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

Key words: 학생주도성, 자기주도학습, 플래너, 실행연구, 융합교육

Abstract of manuscript

Recently, Student Agency has been emphasized as a core competency of future education, but there is a limit to systematically implementing it in the field of public education. Existing learning planners have been used as self-directed learning tools, but studies on the potential as integrated tools for the expression of student-directedness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nvergence-based planner that reflects the theoretical elements of student-ledness and apply it to the school field to explore the effect on the expression of student-ledness through action research. The study proceeded in three stages. The 1st (2021.7 to 2024.7) was composed of online non-face-to-face planner classes (512 times, analysis of 9 students) for 1st to 3rd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he 2nd (2024.5 to 7th (2024.5 to 7th) in elementary school and planner classes (12 weeks) for 7 students in 4th grade in middle school, and the 3rd (2024.10 to 11) was composed of face-to-face after-school classes (6 weeks) for 4 students in 1st and 2nd grade in high school. The convergence-based planner designed student-led elements such as time and project management, habits, human relationships, knowledge management, and audit records with figures and intuitive devices. Student-led change was measured by planner record analysis,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using the 2nd questionnaire at Jariam School as Incheon Resolution). In the first implementation, diversity in the planner recording method for each student and changes in self-directed attitudes were observed, and positive keywords such as 'self', 'self-directed', and 'funny' were derived as a result of word cloud analysis. In the second implementation, the importance of co-agency and trust relationship formation was confirmed. In the 3rd implementation, it was confirmed that a step-by-step planner approach such as convergence time management method contributed to positive changes such as student leadership (questionnaire score 3.8→4.2),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vergence-based planner requires step-by-step education that considers the student's developmental stage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at trust relationship, sufficient time, and discovery of student needs are the key to the expression of student-ledness. This suggests that the planner can be used not only as a learning efficiency but also as a basic tool for expressing student-ledness. In the future, research on expansion of non-institutional students such as alternative schools and homeschooling is needed.

Keywords: Student-led, self-directed learning, planner, action research, convergence education

정나진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Na-Jin Jeong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록

과학교육에서 모델링은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핵심 활동으로, 미국의 NGSS와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 모델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학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그림, 글, 수식을 활용한 정적 모델이 사용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적 모델에서는 모델의 본성 중 표상적 측면은 나타나지만 설명적 측면의 해석, 추론, 설명, 정량화 등은 충분히 구현되지 않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코딩을 활용한 동적 모델링이 제시되었고, 실제로 예비화학교사들의 모델의 본성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조차 테크놀로지 지식 부족으로 블록코딩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 현장 확산의 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생성형 AI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자연어 명령을 통해 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과학 모델을 생성할 수 있어, 테크놀로지 지식이 부족한 교사와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생성형 AI 활용 모델링은 과학 개념의 시각화와 시뮬레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실시간 수정을 통한 반복적 모델링 과정을 구현하며,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즉시 구현하여 과학적 탐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과학 모델링은 기존 정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테크놀로지 접근 장벽을 낮추어 모든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AI 활용 모델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과학교육 현장에서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과학교육, 모델링, 생성형 인공지능, 디지털 과학교육, 예비교사 교육

Abstract of manuscript

Modeling in science education is a core practice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natural phenomena, and both the U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and Korea's 2022 revised curriculum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igital modeling. However, current science education primarily relies on static models using pictures, texts, and formulas. 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while static models adequately represent representational aspects of the nature of models, they insufficiently implement explanatory aspects such as interpretation, reasoning, explanation, and quantification.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dynamic modeling using block coding has been proposed, and studies have confirmed positive changes in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models. However, even pre-service teachers face difficulties using block coding due to insufficient technological knowledge (TK), creating barriers to widespread adoption of technology-based modeling in educational settings.

Recent advances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ffer new solutions to these

challenges. Generative AI enables the creation of dynamic and interactive science models through natural language commands without requiring complex programming knowledge, making it accessible to teachers and students with limited technological expertise. AI-enhanced science modeling facilitates visualization and simulation of scientific concepts, enables iterative modeling processes through real-time modifications, and promotes scientific inquiry by allowing immediate implementation of students' creative ideas.

Therefore, generative AI-enhanced science modeling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tatic models and lower technological barriers, creating an inclusive science education environment accessible to all learners. This requires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for AI-enhanced modeling competencies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continued research on effective pedagogical methods for utilizing AI tools in science education settings.

Keywords: Science education, Model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science educatio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성보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Bo-Hyun Se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2025년 세계인문사회·과학기술 연합학술대회(2025.07.04)

호수는 충북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호수관광 정책을 위한 소고

성보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부교수
(전공: 관광개발 및 계획)

본 학술논문은 2025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2025년 세계인문사회·과학기술 연합학술대회(2025.07.04)



I. 들어가며

2025년 세계인문사회·과학기술 연합학술대회(2025.0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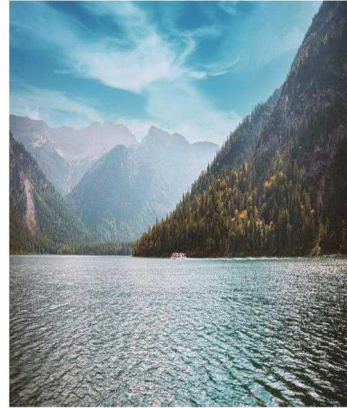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호수 활용 관심 증대

- 충청북도: 레이크피크 르네상스(2022)/문화체육관광부: 호수기암 광역권경관 기본구상 수립(2023)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충북지역공약(2025)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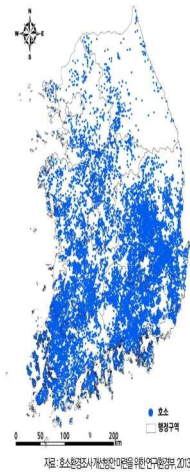


II. 호수 관광 추진이 던져준 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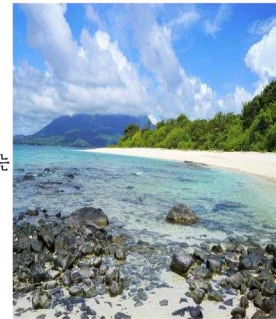
첫째, 인공호수라는 태생적 차이

- 우리나라의 호수는 2013년 기준 모두 1만 7,629개
- 이 중 99.3%인 1만 7,516개가 농업용 저수지



둘째, 문화·사람의 부재

- 관광은 순수 자연이 아닌 사람과 문화가 존재하는 개발된 관광지, 관광도시를 방문



둘째, 문화·사람의 부재

- 관광은 순수 자연이 아닌 사람과 문화가 존재하는 개발된 관광지, 관광도시를 방문



둘째, 문화·사람의 부재



자연호 = 사람 = 문화

인공호 ≠ 사람 ? 문화 ?



둘째, 문화·사람의 부재



셋째, 애정인가 애증인가

“보전”에 대한 인식 차이



※ 충북군도 인문·대형호 지역 경제력 손실·약진원으로 추정

셋째, 애정인가 애증인가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신개발 중심 → • 기존시가지 정비 중심
- 체계별 개편·뉴타운 개발 → • 현 거주지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시 되면서
도시정책에서도 주민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었다.

→ 점차 주민이 주도하는 정책 도입

주민 스스로 주민의식을 가질 때

주민주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현시점
충주호, 대청호
적용가능성?

충북도청 취미·다문화 2025년 3월20일 발표자료: 해·스톡과 참여인기(정확한 명칭과사)

넷째, 수몰된 문화



넷째, 수몰된 문화

- ※ **대청댐수몰지구유적발굴보고서 (1979), 충북대학교 박물관**
-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기 전에,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1977년~1978년에 걸쳐 50 일간 발굴조사를 한 청원 성을 구획기유적, 육전 언덕 고인돌유적, 청원 아득이 유적 등 세 유적과 문화재연구소가 1977년도에 조사한 금성사지(충주호유적)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
 - 청원 성을 구획기유적에서는 벽가 제로가 공개 발굴, 육전 언덕 고인돌유적에서는 고인돌 17개와 선돌 17개, 석조묘 17개, 석조묘 27개 등 선사시대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청원 아득이 유적에서는 청원강 상류는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의 청동기(AD 710~781)고간성적으로 판정이 있는 사찰로 보인다. 건물지나 위당 등 출토유물로 보아 중상면에는 고려시대 추정 제을, 당시의 학문수준, 전민민족의 불교학 부흥, 화정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핵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47개 유적이 조사된 충주댐 발굴조사의 1982~1985년의 크게 되고 있는 수준
 - 발굴유적 발굴 후 대청댐 보전 연구회에서 대전 문화동유적, 산단 전통유적과 청주 노산리유적(6개 지점)에서 출가·후기 구석기시대 유적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보전 받은 구석기인의 생활터에 물속에 잠겨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
 - “대청댐 완공 후 계절에 따라 수몰선의 높낮이 변화는 지형형상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 유적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유물들이 드러난다. 구석기시대의 편지, 누시편에 의해 간지 올려진 청동기시대의 한국신동(新銅器), 삼국시대의 토기조각, 고려·조선시대의 지가와 금속유물 등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면 여러 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적들이 물속에 잠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충청일보, 2020)



다섯째, 기후변화



충주호

대청호

다섯째, 기후변화



평창군

Ⅲ. 내수면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문화



• 조선 후기 최고의 명승지이자 여행지 '남한강'

- '남한강백길여행' 은 돈 많은 위정자뿐 아니라 선비들도 가고 싶어한 풍류기행 필수 코스(김양식,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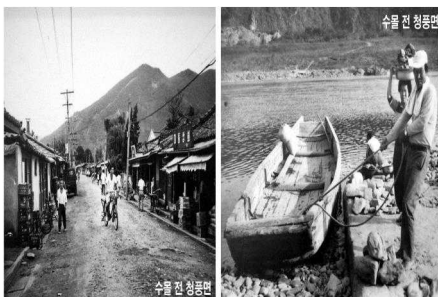
여행자	시기	여행 코스	여행기
김창흡	1688	덕소→영평 용문산→여주 신록사→충주 목계→탄금대→청풍 황강역→한백루→단양 옥순봉→구담→도담→사인암→하선암→단양군 관아→구담→한백루→재천→영월 의림지→경방사→목계	단구일기 (丹丘日記)
신경하	1773	영월 청령포→재천 의림지→충주 탄금대→청풍 황강→한백루→옥순봉→구담→장회 마을→삼선암→사인암→단양읍→도담→영춘→영월	서군기행 (西郡紀行)
현진호	1823	서울-광주→영평 용문산→여주 신록사→충주 목계→청풍 황강→한백루→옥순봉→구담→사인암→도담→재천 의림지→백담고개→충주 탄금대→기흥→원주→서울	도담행장기 (島潭行程記)
서응순	미상	단양→도담→석문→사인암→삼선암(상선/중선암/하선암)→구담→옥순봉→청풍 한백루→의림지	서군산수기 (西郡山水記)
이만부	미상	청풍 황강→한백루→옥순봉→구담→도담	서군산수기 (西郡山水記)

• 1930년대 목계나루 및 목계장터, 기록화 한강 물류의 중심 충주 '가흥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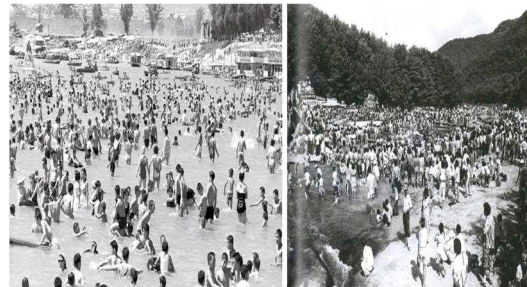
- 조선시대 한강의 핵심 기능은 **주운(舟運)**: 목계~한양



자료: 충청문화재단(한강기록화추진위원회(2007)), 충청문화재단을기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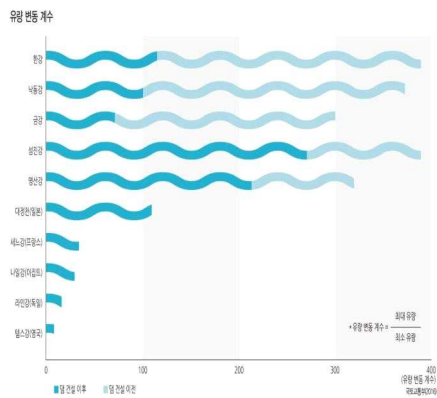


수물 전 청풍면
<https://blog.naver.com/dhy45/22395844473>



1972년 여흥(임영의 47기)

자료: 과산군지(과산군, 2017)



• 우리는 물과 친하다 할 수 있는가?



• 우리는 물과 친하다 할 수 있는가?



IV. 자연호수도시의 역사문화

• 스위스



유튜브 채널 조승연의 탐구생활 받아 <https://www.youtube.com/watch?v=E2M245C1Jg0&list=PL55>

• 스위스



• 일본 비와코(琵琶湖)



• 일본 비와코(琵琶湖)



• 일본 비와코(琵琶湖)

- 물의 정원 '하리에 마을'



• 일본 비와코(琵琶湖)

- 초밥의 기원 '후나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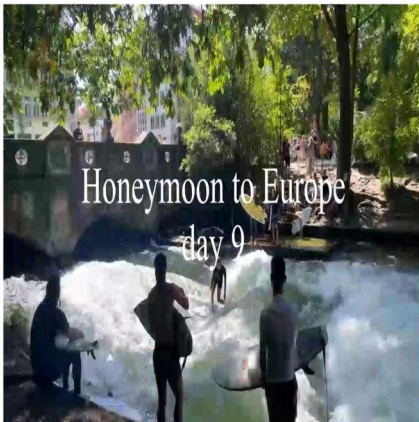
V. 마무리하며

1. 인공호가 지닌 한계와 가능성 모두 받아들여야.
2. 우리는 이미 호수에 집중해 왔다.
3. 단양 성공요인은 사람이며, 문화이다.
4. 하드웨어 보다는 사람에 투자하자.
5. 관계인구를 늘리는데 집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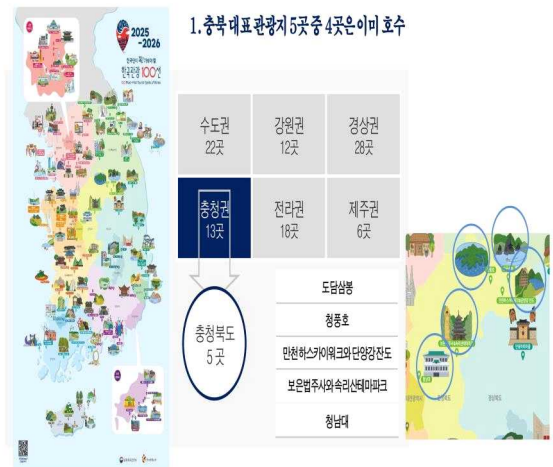
1. 인공호가 지닌 한계와 가능성 모두 받아들여야.



1. 인공호가 지닌 한계와 가능성 모두 받아들여야.



1. 충북 대표 관광지 5곳 중 4곳은 이미 호수



2. 충북 단양의 성공 요인은 사람이며, 문화이다.

- 관광 콕덱트 시티



- 관광 콕덱트 시티



사진: <https://www.mediapix.com/press/2023/07/04/007>

• 단양에게 관광은 선택이 아닌 생존



[고속철도 및 경부중부고속도로 노선]

물류 주요 축선

- 국가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에 벗어나 있음

단양이 관광산업에 집중해 온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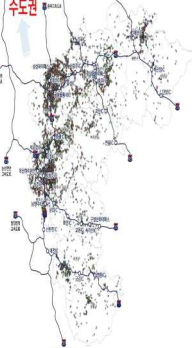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관광 100선(충북)

- | | |
|-------------|---|
| 2019 ~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 8경 • 괴산 산막이 옛길 • 청주 청남대 •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
| 2017 ~ 20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 8경 • 괴산 산막이 옛길 • 청주 청남대 |
| 2015 ~ 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 8경 • 괴산 산막이 옛길 • 보은 범주사 • 소백산 |

• 단양에게 관광은 선택이 아닌 생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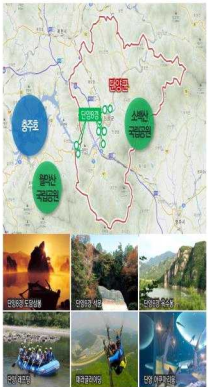


2018 기준 충청북도 시군 단위 GRDP



2020 기준 충청북도 주요산업 공간분포도

• 단양 관광자원 강점



자연 자원

- 소백산출발산 국립공원 등 산악자원
- 충주호 단양호 등 내수면 자원



다양한 체험활동

- 만천하스카이 워크와 질러린
-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 단양 아쿠아리움
- 고수동굴 등 지질자원
- 한드미 마을 등 농촌체험 마을
- 지질공원 지정 추진

• 단양 관광 기회요인 “바다는 양양, 내륙은 단양”



3. 오랜 시간에 투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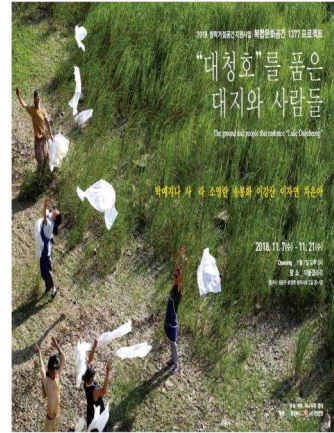


• 헤너의 부엌

- 제주 헤너의 해산물과 극장식 공연을 접목한 파인다이닝 상품(물+사람+문화)



3. 오랜 시간 사람에 투자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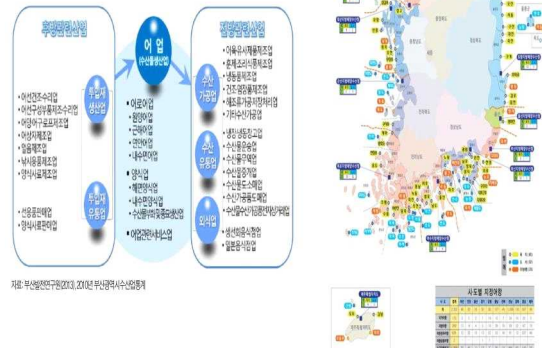
4. 관계인구증대

- 호수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관심을 갖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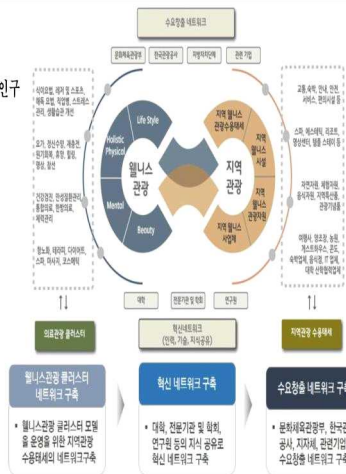
4. 관계인구증대

- 호수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관심을 갖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4. 관계인구증대

- 호수 헬니스 관광산업 관계인구



4. 관계인구증대

- 호수 생태 및 주민 상생발전 관계인구
- 관광객, 연구자,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국립호수생태자원관]



4. 관계인구증대

- 호수 생태 및 주민 상생발전 관계인구
- 관광객, 연구자,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표) 권역별 생물자원관 설립 계획 → 충청권 계획 미수립

구분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생물자원관	강원생물자원관
주요기능	- 담수 생물자원 조사연구 - 전사 교육	- 도서·연안 생물자원 조사연구 - 전사 교육	- 육상 생물자원 조사연구 - 전사 교육
소재지	경북 상주시 도남 2길 137	전남 목포시 달동 890번지	
사업기간	'09~'13(322억원)	'13~'19(474억원)	
규모	- 부지 123,592㎡ - 건축면적 23,459㎡	- 부지 93,628㎡ - 건축면적 10,296㎡	
주요시설	- 연구수장시설 - 전사교육시설 - 전시온실 등	- 연구수장시설 - 야외체험시설 등	
진행상황	준공 및 정상운영 중	준공 및 정상운영 중	강원 인제군 원주시 추진 중

자료: 2017 국가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추진계획(안) (2017.04)

5. 문화의 복원

-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발굴
- 옛 마을의 디지털 복원



사건 및 문화유산조사(태안, 2019년)



사건 및 문화유산조사(태안, 2019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조사선)조사선(2019.04)

AI 혁신으로 변화하는 충북: AX 혁신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Transforming Chungbuk through AI Innovation:
Establishing and Activating the AX Innovation Ecosystem

현태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단장)

(Chungbuk Innovati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초록

본 발표의 목적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충북 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충청북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중에서도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AX)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AI 기반 지역 산업 육성의 실질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사업은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생태계 조성, 전략산업의 AI 기반 전환, 앵커기업 육성,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핀란드 등과의 국제 협력, AI 기반 반도체·바이오 기반 R&BD 프로젝트 수행,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집적화, 디지털위크 개최 등이 포함된다. 본 사업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충북의 전략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력을 통해 충북 산업의 혁신적 AI 전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거점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태희 (순천향대학교)

Tae-Hee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과학기술과 함께 가는 의료의 미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산부인과

김 태 희

개인 맞춤형 의학의 도래



유전체 분석을 통한 환자별 맞춤 치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정밀 의학으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팬데믹 전후로 원격 의료가 급성장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원격 진료와 모니터링 도구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자가 건강 관리 솔루션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래의료에서의 노화 관리



유전자 편집

노화 관련 유전자 조절로
수명 연장 가능성 확대



인지기능 유지

뇌 자극 기술로 치매 예방
및 인지 능력 보존



재생 의학

줄기세포와 조직 공학으로
노화 조직 재생



돌봄 로봇

AI 돌봄 로봇으로 노인
자립 생활 지원

노화는 관리 가능한 의학적 상태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아닌 건강한 노화를 위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노화 관리 프로그램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추구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이끄는 미래의료와 수술

의료로봇 시장이 2029년 45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수술 패러다임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은 첨단 의료서비스를 새롭게 구현합니다.

남겨진 과제와 도전



세포 및 조직 공학의 발전



세포 기반 인공장기는 부작용 없는 이식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기 유래 세포로 맞춤형 장기를 생산하면 거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의 역할



인공지능은 수백만 개 화합물에서 유망 후보를 빠르게 선별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임상시험 설계와 환자 모집을 최적화합니다.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은 앞으로도 인류의 삶을 더욱豊豊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융합기술과 인공지능, 바이오 혁신은 우리의 일상을 확장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Reference

- 글로벌 의료시장 및 기술 동향
- MarketsandMarkets, "Medical Device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 Deloitte Insights, "2023 Global Health Care Outlook."
- AI 헬스케어 및 진단 소프트웨어
- Nature Medicine, "Deep learning for diagnosis in radiology." (2023)
- IBM Watson Health Whitepaper, 2022
- Aidoc: www.aidoc.com (기업 발표자료)
- 유전체 분석과 정밀의학
-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
- Genomics England, "100,000 Genomes Project" (2022) 유전체연구재단, "정밀의료와 유전체 분석의 미래" 보고서
- 의료로봇 및 스마트 수술
- Allied Market Research, "Surgical Robotics Market by 2029."
- 헬로디디, "AI로 수술도 자동화, 美 버클리 AI로봇 첫 통합 성공" (2024)
- 권동수, 로앤서지질 대표 인터뷰, 2023
- 원격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 WHO, "Global Strategy on Digital Health 2020-2025"
-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시행사업 결과보고서" (2022)
- KISA, "2023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이슈"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및 Neuralink
- Neuralink Press Kit & Clinical Trial Overview (2024)
- Stanford University BCI Lab, "Brain-to-Text Research" (2023)
- Nature Neuroscience, "Ethics of invasive neurotechnology."
- Nature Biotechnology, "3D Bioprinting of Organs" (2023)
- UNOS (미국이식네트워크), 2022 Annual Report
- Carmen K., "Genetically Modified Pigs for Human Transplants", Science, 2021
- 신약개발과 AI 활용
- DeepMind, AlphaFold 발표자료
- Insilico Medicine Reports, 2023
- McKinsey & Company, "AI in Biopharma R&D" (2022)
- 의료보험 및 인슈어테크 혁신
- 보험연구원, "헬스케어 기반 보험모델 전망"
- PwC Health, "Digital Health Insurance Innovation" (2023)
- 기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 미래전망 2040"
- 미래창조과학부,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 보고서"
- 오픈 소스 등 무료 AI를 활용한 자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는 발표 당일 정정 가능성과 오타교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세션
4-5부

하늘길로 열리는 충북 내륙 관광의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 (UAM)와 관광산업 혁신전략 The Future of Inland Tourism in Chungbuk, Opened by the Sky Route

원미란 (극동대학교)

Mi-Ran Won (Far East University)



UAM은
충북 관광을 연결하는
새로운 하늘길입니다.

도심항공교통
(UAM, Urban Air Mobility)

- 충북 관광의 현재와 과제
- 도심항공교통(UAM)의 개념과 가능성
- 충북형 관광 전략과 UAM 연계 모델
- 수용성 확보 및 제도 기반
- 결론 및 정책 제언

02

국립충북대학교

충북 관광의 현재와 구조적 과제

- 관광객은 많지만 체류는 짧다.
 - 최근 3년간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 (2023년 기준 3,078만 명)
 - 하지만 숙박률 -3.7%, 체류시간 1.4일 (전국 평균 1.6-1.8일)
 - 양적 성장은 있으나 질적 성장 정체
- 소비 전환의 어려움
 - 관광소비액 -3.8% 감소
 - 지반은 있으나 연결성 부족 → 소비 확산 저해
 - 대중교통 접근성 낮고, 자가용 없이는 불편
- 고밀형 관광 소비 구조
 - 신역 내륙 중심 지형 → 관광지 간 동선 단절
 - 단일 목적지 중심 →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필요

03

국립충북대학교

충북 관광,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기존 관광의 한계

- 단절된 관광지 → 목적지만 보고 소재 지각
- 자격을 중시 교통 → 대중교통 의존, 이동 불편
- 관광은 접근성과 연결성이 생명인데
- 충북은 이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함

전환의 열쇠 UAM

- 지상 환승 없이 하늘로 직접 연결
- 공항이 아닌 허브로 중심 이동
- 관광지에서 바로 접근 가능
- 시간·비용·소비 구조를 바꾸는 전략의 전환점

기존 관광 이동 구조

- 지상 → 공항 → 관광지
- 시간 소요, 불편, 환승 필요
- 소비가는 관광

UAM 기반 이동 구조

- 버티포트 → 관광지
- 직접 연결, 시간 절약, 체류 경험
- 여유는 관광

04

국립충북대학교

UAM 기반 충북 관광 4대 실행 전략

- 접근성 개선과 관광 흐름 혁신
 - 내륙형 관광의 고질적 문제인 접근성 부족 → UAM을 통해 보완
 - 도심 ↔ 관광지 간 신속 연결로 체류시간 소비 확장 가능
 - UAM 기반 버티포트를 활용한 광역 연결 (공항, 역, 관광지)
- 테마형 관광 노선 개발
 - 자연·문화·레저 등 테마형 관광공간 간 고밀 연계 필요
 - 레이크뷰 드라이브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노선 설계
 - 예, 수변 관광 + 항공관광 결합 노선
- 관광 콘텐츠 다변화 및 산업 연계
 - '이동'을 관광 콘텐츠로 전환 (여행여행 자체의 콘텐츠화)
 - 지역 축제, 숙박, 특산물 등과 연계한 복합 소비 유도
 - 예, 항공 포토존, 스카이라인 등 체험형 콘텐츠 기획
- 도민 수용성 및 제도 기반 확보
 - 실증 운영 및 시민 체험 기회 제공 (예, 단영, 청송 등)
 - 소용 안전 기준 정비, 합리적 요금 모델 제시
 - 주민, 항공사, 관련 산업 등 정책 참여 기반 형성 필요

05

국립충북대학교

지역별 관광 전략과 UAM 연계 전략

- 청주·오송
 - 교통거점 연계 / 공공형 UAM / MICE의료관광
 - 청주공항, 오송역 등 주요 교통거점 인프라와 연계
 - MICE 및 의료관광 중심의 버티포트 구축 가능
 -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및 공공형 UAM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 충주·제천·단양
 - 자연관광 특화 / 체류형 콘텐츠 / 항공체험
 - 청송호, 충주호, 단양, 소백산 등 자연 기반 관광지 밀집
 - UAM + 숙박 + 관광 체험 콘텐츠 상품 가능
 - 포토존, 항공 체험, 체류형 콘텐츠 구성에 용이
- 음성·진천·증평·괴산
 - 산업관광 / 청년창업 / 기술·교육 연계
 - 산업단지 및 청년창업 인프라 집중 지역
 - 스마트 산업 관광 및 기술·교육형 노선 설계
 - B2B 산업관광 + 교육 연계형 항공관광 추진 가능
- 보은·옥천·영동
 - 웰니스 관광 / 산림치유 / 조용한 하늘길
 - 수려한 절경, 위안 웰니스 자원 보유
 - 산림 치유형 관광 + 조용한 하늘길 제공
 - 항공 치유형 항공 체험 상품 구성에 적합

06

국립충북대학교

국내 정책 및 실증 동향


- 2023년 '도심항공교통법' 제정
→ 제도 기반 마련
- K-UAM 로드맵
실증(2025~) → 상용화(2030~)
- 그랜드출판지 실증 진행 중
전남·고령군 - 단계별 실증
세계최초 성공
- 인천공항-여의도 등
수도권 중심 실증 예정
하늘을 나는 택시

※ 충북의 시사점 : 수도권 외 지역 중 관광형 실증지로 적합, 내륙 산악지형 테스트 베드 가능, 청주공항 민간 활용도 계획 → 공항 기반형 거점 확보

07


국립충북대학교

충북의 관광형 UAM 실증 기회




1

수도권 외 지역 중
관광형 실증지로 적합




2

내륙 산악지형 +
기대 성능 환경 적용
테스트에 유리




3

청주공항 민간 활용로 계획 +
공항 기반형 실증 인프라 가능



4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정확도의 시너지 창출 가능



08
국립과학교육원

"충북은 실증에서 실현까지, 관광형 UAM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UAM

1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 충북의 757개 호수와 저수지, 산림 자원을 연계한 수변 관광 브랜드
- 주요 수변 자원 + 청풍호, 충주호, 대청호, 의림지, 조령호 등
- 산림 자원 + 속리산, 소백산, 팔악산과 연결 가능

2


UAM + 수상 교통 + 육상 교통
= 입체 관광 모델

- 하늘(UAM) + 물(유람선) + 육지(버스·자전거 등)
→ 경유형 관광 →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 예시 동선
청풍호 유람선 → 수상 버디포트 → UAM 탑승 → 단양 도담봉령

3

기대 효과

- 관광지 간 이동 극복 → 동선의 유기적 연결
- 관광지 간 직접 연결로 이동 시간 단축
- UAM 제형 관련 초·노선 설계 → 이동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스카이 관광 관광 실현
- 체류 시간·소비 증가 → 지역경제 파급



09
국립과학교육원

UAM 항공관광시대를 위한 과제

1

법·제도 정비

- 항공안전법 + 도시계획법 + 건축법 통합성 확보
- 버디포트 입지, 고도 비행경로 지정에 대한 지역별 유관성 협력체계 확보

2

도시계획과의 통합

- 국토 계획에 버디포트 입지와 기능을 반영
- 관광 불투명성·이송 등 복합 목적 구역 설계 필요

3

교통관리체계 연동

- UTM(저고도 통제 체계) 구축 → 안전한 공중 이동 지원
- PSU(관통선 운영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필요

4

민간 협력 기반 조성

- 지자체-관광공사-항공사-기술 기업 역할 분담 체계 마련
- 실증 → 운영 전환 위한 민간 인센티브 제도화

5

주민 수용성 확보 전략

- 다양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 소음 안전 교육 등 우려 해소
- 체형 관련즈 공유, 지역 일자리 확충으로 UAM이 애용진

10
국립과학교육원

"UAM은 기술을 넘어, 제도 + 인프라 + 시민 수용성이 결합된 종합 경제사업, '충북은 이를 통해 설계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모두 갖춘 지역입니다.'"

충북 관광 혁신 전략과 UAM 연계 모델

1

수변·산악 중심 관광지와 연계

2

광역별 순환노선 개발

3

체험형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4

민·관 협력 모델 구축

→

제한 청풍호, 단양, 충주호, 속리산 등 UAM 우선 노선 지정

→

청주공항-오송-북부 남부권 관광지 순환형 노선 구성

→

스카이뷰, 항공 포토존, VR-UAM 탑승 체험 등 관광상품화


→

지자체-관광공사-운행사 협력 체계 마련 및 공동운영

11
국립과학교육원


"충북은 관광지의 연결성, 자원의 밀집도, 정책 연계성을 기반으로 UAM 관광의 최적 실현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늘길로 여는 충청북도 관광의 미래




종합 요약

- 충북은 내륙형 지형과 교통제한으로 인해 기존 관광 방식만으로는 체류율·경제효과 확대에 한계
- 도심항공도심비리(UAM)는 관광의 시간과 공간을 재설계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충북형 전략 요약

- K-UAM 개념 기반 로드맵 정렬
- VertiHub - Port - Stop 3단계 버디포트 전략
-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정책 통합
- 광역 노선(Time Radius) 중심 입체관광 모델 구축
- 경제성 분석 + 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통합 설계



충북의 지리적 가능성

- 내륙 중에서도 수변·산림 자원이 밀집된 지역 구조
- 수도권 접근성 + 관광 인프라 연계성이 이미 확보된 상태

12
국립과학교육원

"충북은 최초의 '내륙형 UAM 관광 선도지역'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 거점입니다."

김길후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바이오의약학과)
Gil-Hu Kim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시와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

2025.07.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바이오의약학과

김길후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농업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기후 변화, 인구 감소,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임.



현재 농업의 위기

- 기후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해 증가
-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인력 부족
-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악화
- 전통적 농업 방식의 한계 불착
- 식량 안보 위협 증가

디지털 전환의 해결책

- 정밀 농업을 통한 자원 효율성 극대화
- AI 기반 예측으로 재배 대비 능력 향상
-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비용 절감
-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가능

농민을 위한 혁신의 두 날개

농업의 디지털 혁명은 AI의 강력한 성능과 농민의 필요에 맞춘 적정기술의 조화로 이루어짐. 이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농업에 실현될 수 있음.



강력한 엔진, AI

-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밀한 의사결정 지원
- 마신러닝 기반 작물 생육 예측 모델 개발
- 자동화된 관개 및 시비 시스템 구축
-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효율적인 농작업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가능

따뜻한 날개, 적정기술

-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설계
- 저비용, 고효율의 기술 솔루션 제공
- 현지 조건에 맞는 맞춤형 기술 개발
- 기존 농업 현식과의 조화로운 통합
- 유지보수가 쉽고 내구성 있는 장비 설계

농민 중심의 기술 개발

- 농민의 실제 니즈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
- 농민 참여형 기술 개발 프로세스 도입
- 사용성 테스트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 농민 교육 및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
- 피드백 루프를 통한 기술의 진화

강력한 엔진, AI - 보는 기술

AI 기술은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하여 농작물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 이를 통해 농부들은 작물 관리에 있어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AI의 '매의 눈': 초정밀 관찰

-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미세한 변화 감지
- 분광 분석을 통한 작물 스트레스 조기 발견
- 병해충의 초기 징후를 정확히 식별
- 생육 상태의 일일 변화를 추적 및 기록
-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근적외선 영역 분석

AI 비전 분석: 색으로 보는 건강

- NDVI(정규화식생지수) 분석으로 작물 활력도 측정
- 엽록소 함량에 따른 영양 상태 색상 매핑
- 수분 스트레스 지수를 통한 관수 필요성 판단
- 병해충 감염 부위를 색상 차이로 식별
- 수확 적기를 색상 변화로 정확히 예측

실시간 센서 데이터: 즉각적 대응

- 토양 수분, 온도, pH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 일개초 과다 시 즉각적인 알람 시스템 가동
- 기상 변화에 따른 자동 환경 제어 실행
- 작물별 최적 생육 조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IoT 기기간 연동으로 종합적인 농장 관리

드론 활용 광역 모니터링

- 넓은 농지를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스캔
- 고도별 다각도 이미징으로 입체적 분석 가능
- GPS 기반 정확한 위치 정보와 데이터 매핑
- 주기적인 비행으로 시계열 데이터 확보
- 농작물 생육 속도 자동 생성 및 업데이트

따뜻한 날개, 적정기술

적정기술은 첨단 기술을 농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해석하는 '따뜻한 기술'임. 이는 단순히 기술의 성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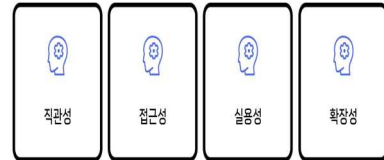
적정기술은 사회와 같은 첨단 기술의 힘을 농업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역할을 함.

1. 현장중심
 - 농민의 실제 필요에 집중
 - 현장 문제 직접 관찰 및 해결
 - 농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2. 단순함
 - 복잡한 기술을 직관적으로 변환
 - 사용법이 간단하고 명확
 - 고령 농민도 쉽게 사용 가능
3. 저비용
 - 적은 초기 투자로 도입 가능
 - 유지보수 비용 최소화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
4. 지속가능성
 - 환경 친화적 기술 선택
 - 장기적 사용 가능성 고려
 - 지역 자원 활용 극대화



농민을 위한 디지털 적정기술

디지털 적정기술은 첨단 AI 기술을 농민의 실제 필요와 능력에 맞게 조정. 이는 단순히 기술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재해석'하는 것임. 이를 통해 농민들은 복잡한 기술적 지식 없이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 복잡한 내 대신 단순한 아이콘 사용
- 음성 명령 기능 탑재
- 큰 글씨와 고대비 색상 활용
- 개인 피드백 반영한 지속적 개선
- 한 번의 터치로 작동하는 원터치 시스템
-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
-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능 구현
- 다양한 언어 지원으로 정보 격차 해소
- 고품 농업을 위한 특별 버전 개발
- 실시간 병해충 진단 및 대역별 제공
- 일기예보와 연동된 농작업 알람 관리
- 시장 가격 정보를 활용한 출하 시기 조언
- 농기계 고장 시 원격 진단 가능
- 기본 기능부터 시작해 점진적 기능 확대
- 농가 규모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른 농업 기기와와의 연동 가능성
- 지역 특성에 맞는 모듈 추가 가능
- 사용자 숙련도 에 따른 단계별 기능 제공

핵심 원칙: 농민의 '원활한 사용'

디지털 농업 기술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의 첨단성이 아닌, 농민들이 얼마나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원활한 사용'이라는 원칙은 기술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이는 농민들이 기술의 숙련적인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인 사용자이자 혁신의 주체가 되게 함.

농민이 '주인'이 되는 기술

농민이 기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 이는 단순히 사용법을 아는 것을 넘어, 기술이 왜 필요하고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깊이 이해하는 것을 포함. 농민들이 기술의 주도권을 거둘 때, 진정한 디지털 농업 혁명이 가능.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 강조, 고장 시 농민 스스로 해결 가능한 기술,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사용
-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농가에 기술 접근성 보장
- 간단한 유지보수로 농민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

지역실천 사례 (사)나눔과 기술의 손모탁 박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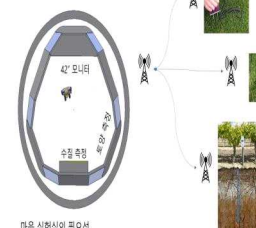
목표봇

기술나눔: 동형 온실

설치장소: 경주시 성서석물원

마을 실험실이 마을의 토양수분률 저동으로 측정한다

- 시골인도넷 서버가 내장되어 있어서 마을의 신재생 에너지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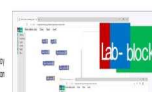


마을 실험실의 필요성

- **수질문제**: 하천에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대형 축사가 마을에 둘러싸여 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킴. 마을사람들과 분장 발생. 각종 원인으로 관공사에 업무부담이 가중됨.
- **토양문제**: 농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해 뿌리면 과잉의 염류가 지천으로 흘러가서 강물이 부영양화를 초래하여 녹조가 발생함.
- **국지기후문제**: 산이 저수지, 강을 같은 지형의 따라 마을마다 기후가 다른데 기상정보에는 이러한 국지기상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마을가상대가 있다면 국지기상정보를 기록하여 장기간 수집하면 농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특히 수자원 관리를 대형 저수지 인근에는 연개가 자주 발생하여 농사 환경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장기 기상정보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

마을 주민이 스스로 측정을 자동화 가능

- 블록코딩 기법으로 측정자동화 절차를 편집할 수 있어서
- 마을 주민이 소규모 훈련만으로도 측정결과를 형식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디지털 농업, 농민이 주도하자

디지털 농업 혁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

1.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기후 위기, 노동력 부족, 비용 상승 등 복합적 위기 극복의 열쇠
 2. AI와 적정기술의 조화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 첨단 AI 기술과 농민에 맞는 적정기술의 균형있는 접목 필요
 3. 농민 중심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 농민의 필요와 경험을 반영한 기술만이 현장에서 빛을 발할 것
 4.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가 윈-윈하는 농업의 미래 구현
- 농민이 주도하는 디지털 농업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갑시다.

15세션
4-5부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 Blockchain Technology and Future

권영식 (국민대학교)

Young-Sik Kwon (Kookmi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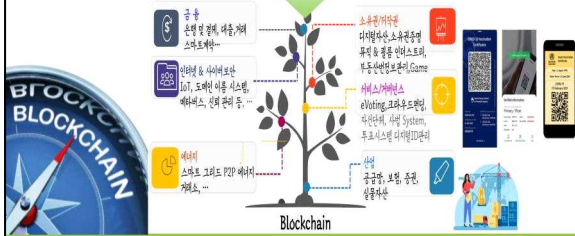


1. 블록체인 기술 소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분야

- 금융(은행, 보험), 게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의료, 사이버 보안, 스마트 계약, NFT, IoT, 운송, 공급망 관리 및 정부 등의 기타 실행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도 포함,

■ 분산화 및 데이터 보안을 제공하는 최신 Internet Web 3.0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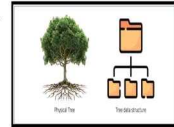


BLOCKCHAIN TECHNOLOGY & FUTURE 2025.

1. 블록체인 기술 소개

1.1 블록체인의 태생.

-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 중 상당수는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개발됨.
- 컴퓨터 과학자 **할리 머클**의 이름을 딴 **머클 나무(Merkle Tree)**.
- 1979년 박사과정에서 머클은 '나무 인증'으로 알려진 비밀 유지, 인증 및 공개 키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 머클 트리는 개별 기록을 검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



- 1982년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블리드 시스템을 제안**.

- 1983년에 '추적이 불가능한 결제'를 위한 **온닉 서명(Blind Signature)** 기술을 개발
- 1989년에는 디지털화폐 회사인 **DigiCash**를 설립, 암호화, 개인 키 및 공개 키, 블라인드 서명 기술을 적용 디지털화된 달러에 고유한 해시 값을 붙인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eCash'를 출시.

- 1991년 **스튜어트 하버(Stuart Haber)**와 **스토머타(W. Scott Stornetta)**:
■ 디지털 레코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동 발명.
- 1991년에는 서명된 정보 확인이 디지털 서명 문서의 전자 대당으로 사용되어, 보관된 문서 중 어떤 것도 변경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

"이러한 과정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이정표를 거쳐 발전"

BLOCKCHAIN TECHNOLOGY & FUTURE 2025.

1. 블록체인 기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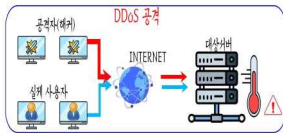
1.2 Blockchain Technology(DLT)

■ 분산화 및 원장 기술의 유용성

DLT 참가자의 원장 원본 확인 방법.

한가지 예:
헤더라 해시그래프(Hedera Hashgraph)이름

- Hedera Hashgraph)는 고속, 고안전성,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 원장 기술(DLT) 플랫폼.
- 헤더라는 비동기 비잔틴 결함 허용 오버(aBFT) 합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며, 보안의 표준을 달성.
- 실시간 합의를 보장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내성 맞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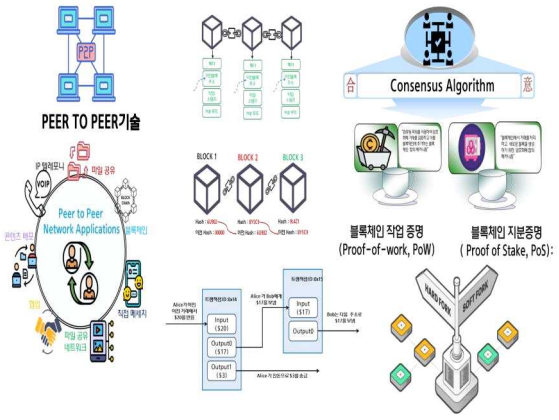
분산 원장 기술의 유용성



BLOCKCHAIN TECHNOLOGY & FUTURE 2025.

1. 블록체인 기술 소개

1.2 Blockchain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 FUTURE 2025.

3. Evolving Blockchain Digital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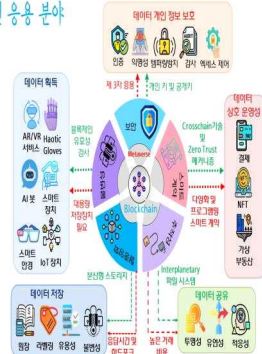
3.2 Metaverse In Blockchain

블록체인에서 메타버스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환경에서 파괴적인 힘이며,
잠재적인 응용 분야

- 블록체인은 검증 및 추적에 필요한 복잡한 거래의 인증 및 추적을 용이

-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고,
- 규정 준수 비용을 낮추고,
-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를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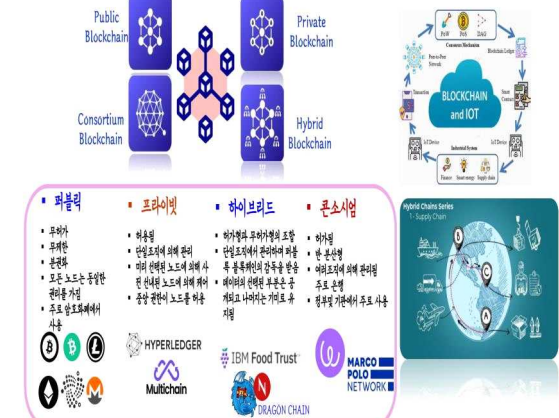
- 블록체인 기술은 계약 관리 및 제품 감사.
- 소유권 및 증거의 투표 플랫폼을 관리, 사용



BLOCKCHAIN TECHNOLOGY & FUTUR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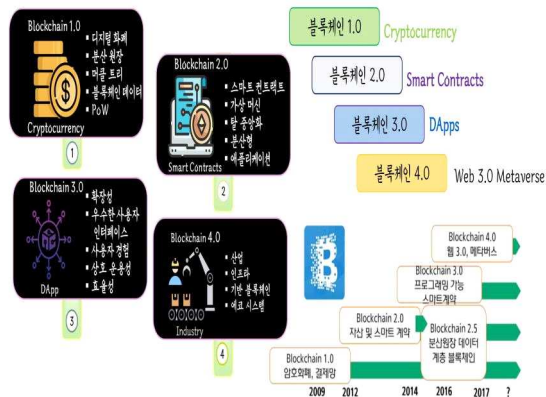
1. 블록체인 기술 소개

1.4 Blockchain 분류



BLOCKCHAIN TECHNOLOGY & FUTUR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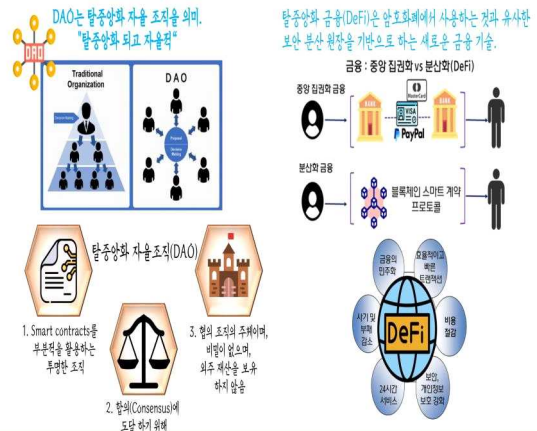
2. Blockchain Evolution



BLOCKCHAIN TECHNOLOGY & FUTURE 2025.

3. Evolving Blockchain Digital Economy

3.1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 Decentralized Finance(DeFi)



BLOCKCHAIN TECHNOLOGY & FUTURE 2025.

3. Evolving Blockchain Digital Economy

3.3 Security Token Offering (STO) & Real World Assets

❖ Security Token Offering (STO)



STO는 회사가 자산 소유권을 나타내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배포하는 서비스로
STO는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으며 기존 증권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

- STO는 주식 및 채권과 같은 기존 증권과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 증권형 토큰 오퍼링은 증권형 토큰으로 알려진 토큰화된 디지털 증권을 증권형 토큰 플랫폼이나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공모의 일종

❖ Real World Assets

- 블록체인에서 실물 자산(RWA)은 통화, 상품, 주식, 채권과 같은 물리적이고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
- 토큰화는 부동산, 예술품, 상품, 심지어 지적 재산과 같은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안전하게 저장, 전송,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



BLOCKCHAIN TECHNOLOGY & FUTURE 2025.

오종현 (전남대학교 사학과)

Oh, Jong hyun (The Department of History studies history 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역사학은 여타 연구 분야의 방법론과 연구활동에 대한 채용과 적용을 통하여 발전해왔다. 인간의 삶이 다양한 색채를 내듯이 이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 것이다. 20세기 말부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역사학은 다양한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역사자료의 공유와 확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사연구 방법론상에 있어서 확장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향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료복원 및 역사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역사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글쓰기를 통해 사유를 발전시키는 기존의 방식이 도전받게 된 것이다. 이는 생성형 AI가 교육평가에 있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과 유사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제로 실행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는 역사교육의 확장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적용을 위해 진행되었다. 과제의 진행은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였다. 일련의 활동 중 눈에 띄는 점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생성형 AI가 지닌 불안요소인 할루시네이션에 따른 부정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실제 역사와 자신들의 관점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여야 했다. 참여학생은 비교적 높은 흥미도를 보였으며 향후 생성형 AI 및 주요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효과 및 역량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일련의 교육활동은 몇 가지 고민점을 노출하였다. 먼저 정체성의 문제이다. 일련의 교육활동은 역사교육과 디지털교육 간의 모호성을 내재한다. 두 번째로 교육 격차이다. 디지털 교육은 교육환경 및 경험에 따라 비대칭적이고, 비균질적이다. 학생들 간의 디지털 격차가 클 경우 공정한 평가의 가능 여부가 실재적으로 존재한다. 세 번째로 교육자의 역량이다.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교수자의 활동이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종국적으로 높은 피로도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History has developed through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methodologies and research activities in other research fields. Just as human life has various colors, there have been various approaches to approaching it. Since the end of the 20th century,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istory has begun to accept various technological changes. This has not only led to the issue of sharing and disseminating historical data, but also to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 and expansion of historical research methodology.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is expected to be actively utilized in the restor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and history education in the future.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generative AI, history education has faced new challenges. The existing method of

understanding historical events and developing reasoning through writing has been challenged. This can be said to be a similar problem to the ripple effect that generative AI has had in educational evaluation.

This study deals with a case of organizing and actually implementing an educational program based on generative AI. This was conducted to expand history education and apply it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imes. The task progressed by simultaneously utilizing generative AI and multiple programs that applied digital technology, and the students created their own content and submitted it as a video. A notable aspect of the series of activities is that the student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ntent they created. The students were aware of the inaccuracy due to hallucination, which is a source of anxiety in generative AI, and therefore had to compare actual history with their own perspectives. The participating students showed relatively high interest and showed that in the future, generative AI and major digital programs can be utilized to expand educational effects and capabilities.

In addition, a series of educational activities have exposed several concerns. First, there is the issue of identity. A series of educational activities inherently contain ambiguity between history education and digital education. Second, there is the educational gap. Digital education is asymmetrical and heterogeneous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experience. If the digital gap between students is large, there is a real question of whether fair evaluation is possible. Third, there is the capacity of educators. Digital technology is rapidly developing and changing. Considering that professors' activities within universities are not limited to education, this suggests that it can ultimately lead to high fatigue.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GPT)을 비롯한 AI 기술의 확산은 사람들의 정보 이해, 판단, 창의적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AI가 제시하는 답을 ‘활용’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선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깊이 있고 탁월한 사유 능력은 양적인 지식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성찰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길러지는 역량이다. 고전은 인간, 사회, 윤리,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단일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복잡성과 역사적 거리감을 통해 독자에게 해석과 성찰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고전적 사유는 깊이 있는 통찰력에서 나오는 창의력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AI가 제안하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옳고 바람직한 선택을 내리는 비판적 판단력과 윤리적 책임감의 기반이 된다. 고전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며, 인간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가치적 기준을 제공한다.

한편, 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고전 교육의 보조 도구로서 중요한 가능성을 지닌다. AI는 어렵고 복잡한 고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기 때문에 비록 내용 오류가 적지 않더라도 접근 자체를 가능하게 도울 수 있다. 또한 학습자와 다양한 대화를 통해 다중적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고전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도록 도

을 수 있다. 이처럼 고전과 AI의 접목은 고전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 해석자, 성찰적 판단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리하면 AI 시대의 교육은 기술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의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고전 읽기와 AI를 활용한 철학적 대화가 위치할 수 있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rapid prolif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including generative AI such as GPT, is fundamentally transforming how people comprehend information, make decisions, and engage in creative thinking. However,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merely utilizing answers suggested by AI and being able to understand, critique, and choose among them. Profound and insightful human reasoning is not achieved through quantitative knowledge alone but is cultivated through deep reflection and critical thinking.

Classical texts raise essential questions about humanity, society, ethics, and existence. Through their interpretive complexity and historical distance, they compel readers to reflect and engage in thoughtful interpretation. Such classical reasoning is not only a source of deep insight and creativity but also forms the foundation for critical judgment and ethical responsibility—qualities essential for discerning and choosing wisely among the myriad possibilities presented by AI. Classics teach us how to think with humanity at the center and offer value-based criteria for the harmonious coexistence of humans and technology.

Meanwhile, generative AI such as GPT offers significant potential as a supplementary tool in classical education. By simplifying the difficult and complex content of classical texts, AI—despite its occasional inaccuracies—can lower the entry barrier for learners. Moreover, it can support deeper understanding by engaging learners in diverse dialogues and presenting multiple interpretations. The integration of AI and classical texts not only aids comprehension but also helps learners grow into active interpreters and reflective thinkers.

In conclusion, education in the age of AI must go beyond technical proficiency to foster the wisdom and insight required to use such technologies rightly and creatively. At the heart of this reimagined educational paradigm lies the reading of classical texts and philosophical dialogue facilitated by AI.

신라불교의 수행 윤리로서의 효순 개념과 그 현대적 의의

-원효의 『범망경보살계본사기』와 태현의 『범망경고적기』를 중심으로-

The Concept of Filial Piety and Obedience (Hyo-sun) as a Practice-Based Ethical Ideal in Silla Buddhism and Its Contemporary Significance:

Focusing on Wonhyo's Beommang-gyeong Bosalgye Bon Sagi and Taehyeon's Beommang-gyeong Gojeokgi

이해임 (상산고 철학교사, 한림대 유네스코 사업
LEEHAEM (Sang-SanHighschool)

초록

이 연구는 유교와 불교의 효순 개념이 각기 독자적인 사유 체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윤리 및 사회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먼저, 남북조 시대 불교의 『범망경』이 유교적 효 윤리를 수용하여 불교 계율 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신라불교의 원효와 태현이 어떻게 수행 윤리로 발전시켰는지를 고찰하였다. 원효는 효순을 계율의 전수와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보편적 수행 윤리로 확장하였고, 태현은 혈연적 효를 넘어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는 승의적 효로 심화시켰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교와 불교의 효순 개념이 단순한 전통 윤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윤리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교육과 연계한 ‘GLOCAL 효순 프로젝트’를 정책적 모델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전통 윤리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을 열고, 윤리 교육, 사회 복지, 디지털 윤리 실천을 통합하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사회적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효순, 통섭, 『범망경』, 원효, 태현, 수행 윤리, GLOCAL 프로젝트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onfucian and Buddhist concepts of Hyo(filial piety) and Sun(obedience) have been independently shaped and transformed within their respective philosophical frameworks, and explores their potential application in contemporary ethics and social policy. It first analyzes how the Fanwang jing 梵網經 integrated Confucian filial ethics into the Buddhist disciplinary system in China. It then investigates how this integration was further developed into a practical ethic of Buddhist practice by Silla monks Wonhyo and Taehyeon. Wonhyo expanded the concept of filial piety and obedience beyond familial duty, framing it as a universal practice of precept transmission and observance. Taehyeon deepened this by advocating for transcendent filial piety(Seungui Hyo) and obedience, which emphasizes compassion and equality toward all beings beyond blood relations. Building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concept of Hyo-Sun can evolve from a traditional familial ethic into a foundation for social solidarity and communal ethics. To this end, the study presents the “GLOCAL Hyo-Sun Project” as a policy model aligned with UNESCO’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4) for lifelong learning. This research offers academic and social significance by opening new possibilities for reinterpreting East Asian traditional ethics in the modern context and proposing integrated approaches to ethical education, social welfare, and digital ethics practice.

Keywords: Filial Piety and Obedience, Consilience, Fanwang jing 梵網經, Wonhyo, Taehyeon, Ethical Practice, GLOCAL Project

아시아 대중문화와 한류의 상호 이해에 기반한 인문학 교육

Liberal Arts Education based on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Asian Popular Culture and the Korean Wave

조리라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Asian Cultural Studies Research Institute, Gachon University)

초록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 ① 한류에 대한 이해가 경제적 타산과 자국중심주의적 사고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고 학생들이 한류를 한국인만의 것이 아닌 인류문화 자산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 ② 한류에 대해 세계사적 관점에서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자문화와 타문화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의 인류문화를 이끌어갈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 ③ 연계전공 신설과 교양교육의 강화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한류와 아시아(비서구) 대중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적 안목을 배양한다.

2) 연구의 필요성

- ① 학생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인문학 교육
- ② 아시아 대중문화 교육의 체계화
- ③ 인문학적 관점에 기반한 대중문화의 융복합 연구
- ④ 한류와 아시아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 ⑤ 대중문화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상호 이해 증진

2. 연구 방법

- 1) 아시아 대중문화 연구회 개최
- 2)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 3)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4) 등재학술지 논문 발표
- 5) 아시아문화 연계전공 과목 개설, 교양 과목 보완 및 비교과 개발

3. 실적

1) 학술대회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 ① 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의 대중음악, 과거에서 미래로 등)
- ② 전문가초청강연회 개최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전략, 일본 전통극과 현대 대중문화의 접점 등)

2) 기타 학술 활동

- ① 연구소 총서 발간
- ② 등재학술지 발간
- ③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라디오, 대학 특강 등)

3) 융합전공 운영

- ① 재학생 21명 (융합전공 16명, 융합부전공 5명)
- ② 졸업생 18명 (융합전공 14명, 융합부전공 4명)
 - 졸업생 일부는 해외 지역 전문 크리에이티, 콘텐츠 플랫폼 업체, 미디어 기업 등으로 진출

Abstract of manuscript

1.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Research

1) Purpose of the Research

- ① Promote understanding of Hallyu as part of global cultural heritage, beyond economic and ethnocentric views.
- ② Encourage deep reflection on Hallyu from a world history perspective to foster harmonious coexistence of cultures.
- ③ Raise awareness for preserving and expanding Hallyu and Asian popular culture through 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2) Necessity of the Research

- ① Humanities education that aligns with students' interests.
- ② Systematization of Asian popular culture education.
- ③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popular culture from a humanities perspective.
- ④ Enhancement of awareness of Hallyu and Asian popular culture.
- ⑤ Promotion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Asian regions through popular culture.

2. Research Methods

- 1) Holding Asian Popular Culture Research Seminars.
- 2) Ho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 3) Organizing expert guest lectures.
- 4) Publishing papers in indexed academic journals.
- 5) Offering courses in Asian cultural interdisciplinary minors, supplementing liberal arts subjects, and developing extracurricular programs.

3. Achievements

1) Academic Conferences and Expert Guest Lectures

- ① Hosting academic conferences
- ② Hosting expert guest lectures

2) Other Academic Activities

- ① Publication of institute series
- ② Publication of indexed academic journals
- ③ Dissemination of research results through media

3) Interdisciplinary Minor Program

- ① 21 enrolled students
- ② 18 graduates

16세션

충북지역단체 자유세션2

제1-2부.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한국과충 충북지역연합회)

제3부. 자유패널

제5부. 한국지역 연구의 현황과 과제(유럽과 아프리카)

차세대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한 의생명 연구현황 : 3 차원 CT 영상획득과 미세방사선치료 연구를 중심으로

이은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흉부외과)

초록

의학분야에서 방사선은 영상촬영 (radiography) 또는 질병치료(radiotherapy)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원이나 방사광 (synchrotron radiation)의 활용은 미미하였음. 그러나 미세 방사광의 물리적 특성이 더 깊이 연구되고, 대형 가속기시설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약 30년전부터 영상촬영, 치료 및 임상적 응용분야에서 방사광을 이용한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부각되기 시작함.

세계 여러 대형 가속기 연구소는 물리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의사와 의공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 그룹의 연구를 통해 의생명 연구 및 임상적 응용에 필요한 방사광 가속기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유럽가속기연구소의 의생명 롱빔라인인 BM18은 high resolution synchrotron radiation imaging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기관의 상세한 3D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Human Organ Atlas Project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체 구조와 질병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 있음. 일본의 SPring-8의 의생명 롱빔라인인 BL20B2에서는 폐 조직의 고해상도 영상획득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의 폐 손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탈리아 가속기 연구소 (ELETTRA)와 호주가속기 연구소의 IMBL 은 유방암의 조기검진사업에 방사광을 이용한 3차원 단층촬영상의 유용성 검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들은 의생명 과학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질병의 이해와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 국내에서도 차세대 가속기사업을 통해 의생명연구에 있어 방사광 가속기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해외 우수연구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연구수준향상과 실험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제 2차 양자혁명

김기웅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충북양자연구센터)

초록

양자정보과학은 21세기 기술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 세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첩과 얽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 2차 양자혁명의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과 같은 양자기술은 금융, 헬스케어, 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혁신을 가능케 하며,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뿐 아니라 지역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줍니다.

양자과학은 새롭고 어려운 진리의 발견이 아닙니다. 고전적인 물리학이 다루던 현상을 그대로, 단순히 새로운 포맷리즘으로 설명해보는 관점의 변화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같습니다. 과거 천동설은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성 역행과 같은 관찰을 지동설로 설명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행성의 움직임이라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는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크게 차이가 없었지요. 하지만 지동설이라고하는 바른 관점으로 우주를 바라봄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행성뿐만 아닌 태양계 밖 별들의 움직임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자컴퓨터가 개발되면 큰 규모의 어려운 문제를 합리적인 시간내에 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동설이 그 전에는 다루지도 못했던 태양계 밖 별의 움직임을 설명했듯이, 양자컴퓨팅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법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강연에서는 양자정보과학의 기본 개념과 핵심 기술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기술이 각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한편, 지역의 거대 첨단 연구시설인 오창 방사광 가속기와 의 결합으로, 기초과학에 머물러 있는 양자정보과학을 산업화까지 발전시키는 양자연구개발 로드맵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지역 산업이 양자 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6세션
1-2부

말씀이 작품이 되어: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어

이재성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초록

최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코딩, 음악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생산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이러한 생성형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언어의 효율성이 생성 결과의 품질을 좌우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개발된 거대언어모델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거대언어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살펴본다.

말씀이 작품이 되어: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어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이재성 교수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초록

최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코딩, 음악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생산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이러한 생성형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언어의 효율성이 생성 결과의 품질을 좌우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영어를 중심으로 개발된 거대언어모델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거대언어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살펴본다.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목차

■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어

■ 언어 모델

■ 한국어 학습 데이터

■ 한국어 토큰화

■ 맺음말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3



ChatGPT 세무 상담 예

청주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해?

청주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주택지, 일반 매매 기준)를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세금과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세

- 세율: 6억 원 이하이므로 1.1% (취득세 1.0%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0.1%) <https://www.411.go.kr>
- 금액 계산:

$$500,000,000 \times 0.011 = 5,500,000 \text{ 원}$$

2. 등록면허세 + 교육세 등 기타세금

- 취득세 이외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이 추가로 붙습니다.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4



ChatGPT 그림 그리기 예

망망 대해에 돛단배가 떠있는 모습을 그려줘.

Q 이미지 생성됨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5



ChatGPT 프로그램 작성 예

숫자 데이터를 입력받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원을 짜줘

다음은 숫자 데이터를 입력받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
python                                     @ 복사  @ 편집

import math

def get_numbers():
    raw_input = input("숫자들을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세요: ")
    numbers = list(map(float, raw_input.strip().split()))
    return numbers

def calculate_mean(numbers):
    return sum(numbers) / len(numbers)

def calculate_std_dev(numbers, mean):
    variance = sum((x - mean) ** 2 for x in numbers) / len(numbers)
```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6



다양한 생성형 AI 프로그램들

■ 텍스트 생성

- ChatGPT (OpenAI), Claude (Anthropic), Gemini (Google)

■ 음악 생성

- Suno AI, Riffusion, AIVA MusicGen (Meta)

■ 코드 생성

- GitHub Copilot, Jules (Google Gemini component)

■ 동영상 생성 편집

- Veo 3 (Google DeepMind), Canva Magic Studio, Midjourney Video Generator, Runway, Synthesia, Filmora, Sora, Descript, Capsule, Pika Labs 등

■ 3D 모델링, 과학 시뮬레이션, 음성 합성, 광고 생성 등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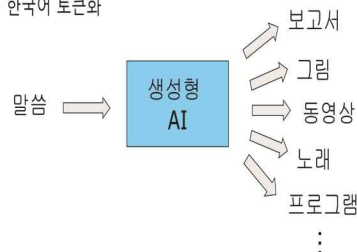
말씀이 작품이 되다

■ 언어를 통해 생성형 AI 작동시켜 작품 생성

■ 생성형 AI에게 효율적 명령을 할 수 있는 언어 모델 필요

■ 한국어에 적합한 거대 언어 모델은 필요한가?

- 한국어 학습 데이터
- 한국어 토큰화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8

목차

■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어

■ 언어 모델

■ 한국어 학습 데이터

■ 한국어 토큰화

■ 맺음말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9

언어 모델

■ 언어모델

- 앞 단어(들)를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

말씀이 → 언어모델 → 작품이

말씀이 작품이 → 언어모델 → 되어

말씀이 작품이 되어 → 언어모델 → 우리에게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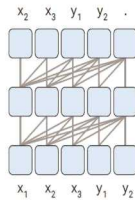
GPT 모델

■ GPT: Generative Pre-Training

- 단방향 Transformer decoder 언어 모델
- auto regressive

■ 생성 방법

1. $\text{argmax}_{x_2} p(x_2 | x_1)$
2. $\text{argmax}_{x_3} p(x_3 | x_1 x_2)$
3. $\text{argmax}_{y_1} p(y_1 | x_1 x_2 x_3)$
4. $\text{argmax}_{y_2} p(y_2 | x_1 x_2 x_3 y_1)$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11

Context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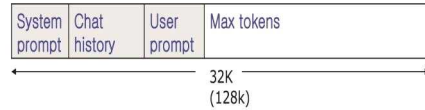
■ GPT context window size

- GPT-3.5 turbo: 4K
- GPT-4: 8K, GPT-4 turbo: 32K (기본 모드), 128k

■ 구성

- System prompt: 시스템의 안내
- Chat history: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 기록
- User prompt: 사용자 질문
- Max tokens(답변): 새로 출력할 부분의 칸

■ 입출력 크기 제한, 문맥 제한으로 LLM 성과와 밀접 관련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12

프롬프트 공학

■ 프롬프트 - 언어의 효율적 생성을 위한 전제 조건

- 프롬프트(질문)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다른 답변
- 아는 것이 힘 -> 질문 잘하는 것이 힘
- 경복궁 설명 예:
 - 1. 역사학자 관점 설명

경복궁은 조선 시대에 건립된 궁궐로, 조선 왕조의 궁궐 중에서 가장 크고 완벽한 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 조선 제3대 왕 태종(이성계)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덕궁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으나, 후에 세종대왕 때 개칭시키면서 경복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사대부(士大夫) 중앙정치 기구가 소재하고 있었으며, 왕실 궁전의 중심에 있는 국보인

2. 관광객 입장에서 설명

경복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왕궁 중 하나이며,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궁궐 내부에는 예쁘게 조성된 정원과 아름다운 평화의 전당 등의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양식도 아름답고, 특히 유명한 토박이들의 관행과 역사소설에서 등장한 장면들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궁궐 내부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팔각정이나 경회루, 고종탑 등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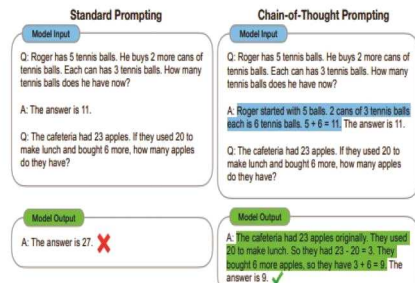


13

프롬프트 공학

■ CoT (Chain of Thought) (Wei et al., 2022)

- 단계적 설명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추론 성능향상
- 답변시 추론 과정을 설명하도록 했을 때 정답 제시율 향상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14



목차

■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어

■ 언어 모델

■ 한국어 학습 데이터

■ 한국어 토큰화

■ 맺음말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15



사전 학습

■ GPT 사전 학습 (pre-training)

- 대규모 원시 텍스트(raw text)를 이용하여 학습 (self-supervised learning)
- 다음 단어 예측 방법으로 학습
- 성능에 중요한 파라미터 초기값 결정
- 사전 학습 후 다른 세부 작업을 통해 정밀 조정 학습으로 성능 향상

■ 학습 데이터 양과 사전 학습

- 학습 데이터가 많을 수록 사전 학습이 효과적 - 스케일 법칙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16



GPT와 HyperCLOVA의 학습 데이터

■ GPT-3

- 크기: 약 570GB (Giga Byte)
- 언어: 영어 93%, 한국어 0.02% 미만

■ GPT-4

- 미공개
- 다양한 언어에 대해 성능 향상

■ HyperCLOVA

- 크기: 약 560B (Billion tokens)
- 한국어 중심 데이터, 한국어 중심 토큰나이저

■ HyperCLOVA X

-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코드를 균등한 비율로 학습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17



한국어 언어 모델 비교 - 다국어 고려

ChatGPT 4o

독도 세우에 대해 설명해줘

독도 세우는 대한민국 동해의 독도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도화새우(학명: *Pandalus hypsinotus*)**를 지칭하는 별칭입니다. '독도 새우'라는 이름은 이 새우가 독도 주변에서 어획된다는 점과, 한일 간 영유권 분쟁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HyperCLOVA X

● 독도 세우에 대해 설명해줘

독도 새우는 독도 주변 연안에서 서식하는 갑각류 3종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 새우들은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와 러시아, 제주도 근해에서도 발견됩니다. 독도 새우에 포함된 주요 새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화새우: 가장 큰 종류로, 복숭아꽃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일본어로는 '보아미에비', 일상적으로는 '보탄에비'(모란새우)라고도 불립니다. 주황색 바탕에 붉은색 가로무늬가 특징입니다.
2. 불랑가시붉은새우 (꽃새우): 울릉도에서는 꽃새우로 불리지만, 이는 다른 종의 이름입니다. 실제 꽃새우는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18



한국어 언어 모델 비교 - 다국어 고려

ChatGPT 4o

BYOB에 대해 설명해줘

"BYOB"는 영어 표현으로, "Bring Your Own Bottle" 또는 "Bring Your Own Booze/Beer"의 약자입니다. 주로 파티, 식사 모임, 행사 등에 초대받았을 때 술이나 음료를 각자 지참해 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HyperCLOVA X

● BYOB에 대해 설명해줘

BYOB는 대한민국의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앨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Freak Out (Streaming Ver.) - 2020년 7월 24일 발매
- Square (Streaming Ver.) - 2020년 6월 29일 발매
- Lone (Streaming Ver.) - 2020년 2월 17일 발매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19



영어와 한국어 질문의 차이

■ 한국어 질문과 답변, 영어 질문과 답변의 차이

- 한국어 답변의 정확도가 더 낮다.
- 한국어 답변이 보다 감성적

■ 예: (ChatGPT 4o로 생성)

*KR 한국어 질문:

"자연어처리에서 상징적 접근 방식과 신경망 접근 방식을 비교해줘."

*US 영어 질문:

"Compare symbolic and neural approache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20

영어와 한국어 질문의 차이

한국어 응답 (요약)

자연어처리에서 상징적 접근 방식은 규칙 기반으로 문장을 분석하며, 언어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문 분석 규칙이나 문법 규칙을 사람이 직접 정의합니다. 반면 신경망 접근 방식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언어 패턴을 학습하며,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 모델이 주로 사용됩니다. 상징적 방식은 해석이 명확하지만 확장성과 유연성이 부족하고, 신경망 방식은 유연하지만 해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중심
- 예시 없음, 발전 흐름 없음
- “혼합 접근 방식”이 나 대표 시스템 언급 없음

영어 응답 (요약)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mbolic approaches rely on hand-crafted rules and linguistic knowledge. These methods include grammar parsers, rule-based translation systems, and logic-based representations. Neural approaches, on the other hand, learn patterns from data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especially deep learning. They include models like RNNs, LSTMs, and Transformers. While symbolic systems are interpretable and precise, they lack scalability. Neural models generalize well and handle ambiguity better, but they are often black boxes. Recently, hybrid approaches that combine the strengths of both are gaining attention. 2025 중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 예시 포함 (LSTM, Transformer 등)
- 장단점 비교 + “hybrid approach” 트렌드 언급
- 기술 발전 흐름 간략히 제시



영어와 한국어 질문의 차이

■ 답변 차이의 원인

- 학습데이터의 차이 (크기 및 내용)
- 영어 중심의 토큰 구성
- 후처리 학습(fine tuning: RLHF)
 - 한국 문화에 맞는 답변 선호

■ 한국어 자료는 풍부한가?

-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 다양한 분야의 정보
- 전문 분야의 한국어 문서들은 충분한가?

2025 중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목차

■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어

■ 언어 모델

■ 한국어 학습 데이터

■ 한국어 토큰화

■ 맺음말

2025 중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토큰화

■ 토큰

- 언어 모델(트랜스포머)의 실제 입력 단위
- 입출력시 토큰은 단어에서 변환되거나 단어로 변환됨
- 트랜스포머의 입력 및 출력 크기는 토큰수로 제한 (단어수가 아님)

■ 토큰화

- 단어를 통계에 기반하여 부분 단어(토큰)로 분리
- 중요 빈도 단어를 더 큰 부분 단어로 분할하여 토큰화
- 최소한의 토큰으로 문자열 표시
- 미등록어 처리 가능
 - 예: lovely, friendly, beautiful -> love, friend, beautiful, ly 로 토큰화
 - 미등록어 beautifully는 beautiful+ly로 분리하여 토큰화 가능

2025 중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토큰화

■ 토큰화 예

- 영어 일반 단어 사전: $|V| \approx 50$ 만
- GPT-3.5 와 GPT-4: $|V| \approx 10$ 만

■ 대표적 토큰화 방법

- Byte Pair Encoding
- Word Piece Encoding
- Sentence Piece Encoding

2025 중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Byte Pair Encoding (BPE)

■ Byte Pair Encoding

- 사전을 이용해 문자열을 최소 길이로 압축
- 사전 크기는 증가하지만 전체 데이터는 압축 (문자열 >> |사전|)

■ Byte Pair Encoding 방법

1. 각 단어의 빈도를 세어 표로 작성
2. unigram을 어휘 사전에 저장
3. 단어의 각 글자를 bigram으로 형성후 빈도 계산
4. **최고 빈도의 bigram을 어휘 사전에 저장**
5. 각 단어에 있는 그 bigram을 한 단위(새로운 한 글자)로 대체
6. 1로 가서 반복하되 일정 어휘 사전의 크기가 되면 정지

2025 중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ChatGPT에서의 한국어 토큰화 문제점

- 데이터가 많을수록 긴 단어 형태로 토큰화 됨
- 비중이 매우 작은 한국어는 한글 음절(unigram)로 과도하게 분리되어 토큰화되는 경향
- 과도한 토큰 분할로 많은 Context 공간 낭비
- 한국어 형태소 단위 구분 없이 분리하여 비효율적
 - 잘못된 토큰 분리
 - 향교가 있다 => 향 /교가/ 있다
 - 동의어 토큰 무시
 - 더운 날씨다 => 더운/날씨/다
 - 날씨가 덥다 => 날씨/가/덥다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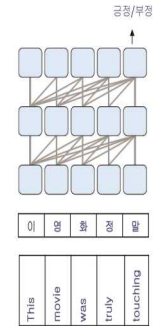


과도한 토큰 분할의 문제점

■ 긍정/부정 감성 분석

이 영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 토큰 분할: [이, 영, 화, 정, 말, 감, 동, 적, 이, 었, 습, 니, 다]
 "감동적"이 분리되어 의미 파악 어려움

This movie was truly touching.
 → 토큰 분할: ["This", "movie", "was", "truly", "touching"]
 "touching"이 인식되어 감성 분석 성공



- 의미 단위가 쪼개져 의미 파악 실패
- 과도한 토큰 분할로 최대 문맥 크기 초과

제한된 토큰 문맥의 한계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목차

-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어
- 언어 모델
- 한국어 학습 데이터
- 한국어 토큰화
- 맺음말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맺음말

- 언어를 이용한 생성형 AI 활용 시대 도래
- 영어 중심의 ChatGPT에서 한국어 문제점
 - 한국어 학습 데이터 부족
 - 한국어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과도한 토큰 분할
 - 문맥 정보 및 토큰 의미 상실 가능
- 한국어 특성에 맞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려면
 - 한국어 중심의 토큰화(tokenizer) 개발이 필수
 - 한국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
 - 대량으로 좋은 품질의 한국어 데이터 구축 필요

2025 충북 세계 인문사회 학술대회 - 2025. 7. 4.



임광국 (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

Yim Gwangguk (dongguk univ.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rehensive school-safety)

초록

본 정책연구는 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가 주관하여 수행한 것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측불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미래적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학교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① 학교안전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 ②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학교안전시설 생태계 구축, ③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1단계 2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가 수행되었다. 첫째, 학교안전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 영역에서는 「체험형 안전교육 실태 및 교육 효과성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체험형 안전교육의 실증적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둘째, 디지털 기반 학교안전시설 생태계 구축 영역에서는 「학교 및 학교시설 재난·안전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제정 방안 연구」와 「대학안전관리계획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위기대응 매뉴얼과 대학 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학교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영역에서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공제사업 추진방향 연구」를 통해 중장기 학교안전사고예방 계획 수립과 더불어 유보통합에 따른 공제제도 통합 방향을 제시하였다. 1단계 3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동일한 영역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① 학교안전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 교육자료 개발」, 「교육기관 산업재해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연구」 ② 디지털 기반 학교안전시설 생태계 구축: 「통학 유형별 안전 확보 방안 연구」 ③ 학교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학교안전 전담조직 운영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학교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학교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policy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rehensive School-Safety at Dongguk University,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 sustainable policy framework for building a comprehensive school safety ecosystem in response to the growing future uncertainties stemming from the unpredictability of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The research focused on the following three key domains: ① Establishing an educational foundation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school safety education, ② Building a digital-based school safety facility ecosystem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driven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③ Reforming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related to school safety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future educational landscape. In the second year of Phase 1, the following sub-projects were implemented: First, in the domain of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school safety education, the project titled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Experiential Safety Education”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hands-on safety programs and proposed directions for policy improvement. Second, in the domain of digital-based school safety facility ecosystem construction, two projects “Development of a Standard Manual for Disaster and Accident Response in Schools and School Facilities” and “Analysis and Improvement of University Safety Management Plans” were carried out to develop practical response manuals and model safety plan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ird, in the domain of reforming school safety-related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the study titled “Formulation of the 4th Basic Plan for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the project on “Integration of Mutual Aid Systems for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in Response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Reform” proposed long-term strategies for national school safety planning and system integration under the framework of early childhood unification. In the third year of Phase 1, the following sub-projects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same domain structure: ① Educational foundation for sustainable school safety education: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Prevention of Personal Mobility(PM) Accidents, Analysis of Occupational Accidents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trategies for Recurrence Prevention

② Digital-based school safety facility ecosystem construction: Study on Safety Assurance Strategies According to Student Commuting Types ③ Reform of school safety-related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Assessment and Improvement Plan for School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Revision of School Safety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s. This study ultimately aims to enhance the practical safety capabilities of school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future-oriented, sustainable school safety ecosystem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rapidly evolving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이충희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

Lee Chunghee (Institute for Euro African Studies)

초록

최근 국제사회는 소다자주의 협력관계로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아프리카는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외교·경제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책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에 기초하여 국내 아프리카 연구지원 현황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지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아프리카 지역연구는 소외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연구재단지원사업에 지원한 다수가 개인연구군으로 집계되어 연구 주제 및 동향이 특정분과에 편중되었다. 그리고 지원사업 종료(중단)으로 연구의 연속성 미흡 및 중복 현상이 발생되어 연구체계를 심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이 집단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지향하고, 다년 장기적 지원을 통해 연구체계를 심화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형과제 개발을 제언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currently restructuring toward minilateral cooperation, Africa as a representative of the Global South, is emerging as a strategic partner for major countries.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expand its diplomatic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 in order to strengthen its diplomatic capabilities. Following the 2024 Korea-Africa Summit, Republic of Korea needs to develop policies, and it needs to provide research support for promoting regional study on Africa.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African studies in Korea based 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NRF)'s research projects, and suggested directions that can aid in improving the projects. As a result, African studies in Korea can be considered as a neglected area, and that the majority of applicants for the projects of NRF are classified as individual researchers, resulting in a bias towards specific sub-fields in terms of research topics and trends. Furthermore, the termination (suspension) of the projects has led to a lack of continuity and an increase in redundancy, making it difficult to deepen the research struc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RF should promote large-scale projects that aim to cultivate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and create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that can deepen the research system through long-term support over several years.

정유진 (Mount St. Mary's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해외 대학부설 지역연구소의 발전 과정, 조직 구조, 연구 주제, 재정 구조를 비교 분석하며, 전 세계 지역연구의 현황과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북미, 유럽, 아시아의 주요 기관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러한 연구소들이 집중적으로 설립된 지역과 이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주제 및 지역을 분석하고, 연구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원 확보 전략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지역연구소들이 학문적 기여를 넘어 공공외교와 정책적 실천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조명한다. 특히, 지역연구소 설립의 역사적 배경, 연구소 운영을 뒷받침하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변화하는 국제 학문·정치 환경 속에서의 대응 전략에 주목한다.

또한, 본 발표는 최근 지역연구소의 운영 트렌드와 혁신 전략을 논의하며, 단일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초국가적·글로벌 이슈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지역연구의 범위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을 다룬다. 민간 재단과 공공외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 조달 방식을 통해 융합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주요 연구소의 우수 사례와 제도적 혁신을 소개하며, 지역연구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학계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지역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며, 전략적 협력과 자원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bstract of manuscript

This study explores the global landscape of university-affiliated area studies institutes, providing a comprehensive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development trajectories, organizational structures, research agendas, and funding mechanisms. Drawing on data collected from leading institutions across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 this paper investigates where such institutes are concentrated, what themes and regions they prioritize, and how they mobilize resources to sustain their activities. In doing so, it highlights the ways in which these institutes contribute not only to advancing scholarly knowledge but also to shaping public diplomacy and policy engagement.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historical context that shaped the establishment of area studies institutes, the transnational networks that underpin their operations, and their evolving strategies in response to changing global academic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e presentation further discusses recent trends and innovative practices among area studies institutes, including their efforts to redefine the scope of regional studies by moving beyond national boundaries to address transregional and global issues. It examines how these institutes leverage diverse funding sources, including private foundations and public diplomacy programs, to support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research. By offering examples of best practices and institutional innovation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scholars and policymakers seeking to enhance the impact and sustainability of area studies. The findings contribute to ongoing debates about the role of area studies in a rapidly shifting global order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ollaboration and resource diversification.

이원영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Lee Won Young (Institute in Hanyang University)

초록

1990년대 말 한국 대중문화가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을 때에는 주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말부터 PSY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면서 K-Pop이 세계로 뻗어 나갔으며,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하였으며, K-Beauty, K-Food 등 한국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속에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K-문화의 세계화 현상은 K-문화가 갖고 있는 글로벌 보편성 때문인가 아니면 K-문화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인가?

대중문화는 해당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내재화된 가치와 규범 등이 표현된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신자유주의) 자유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시간적으로는 전통·근대·탈근대의, 공간적으로는 토착·외래·세계의 중첩과 충돌을 겪었으며, 이는 ‘문화적 혼종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문화적 혼종성’은 한국 사회의 ‘비동시적 동시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K-문화의 특수성이 글로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K-문화의 수용에 있어 글로벌한 보편적 수용과 더불어 특정한 사회 혹은 지역에서의 수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사회 구조와 역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와 대중들의 일상으로 나타나는 특정 사회 혹은 지역의 특성과 K-문화가 조응한 결과이다. 따라서 K-문화의 세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 연구와 문화 연구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K-문화의 세계화, 한국 사회 패러다임 변화, K-문화의 글로벌 보편성, K-문화의 한국적 특수성, 문화적 혼종성.

Abstract of manuscript

At the end of 1990's, when Korean Popular Culture was named as the 'Hally', mainly it was enjoyed in China, Japan and East South Asia. But at the end of 2000's, when PSY's Gangnam Style topped the Billboard Charts, K-Pop started to reach around the world. After that time the Korean movie 'Parasite' won the Academy Award, 'Squid Game' became the most-watched Netflix TV series. Now the Korean culture including K-Beauty and K-Food is loved by global public beyond the Asia region. Then what is the reason of the K-Culture's globalization? Is that because of the global universality of the K-Culture or the Korean specificity of the K-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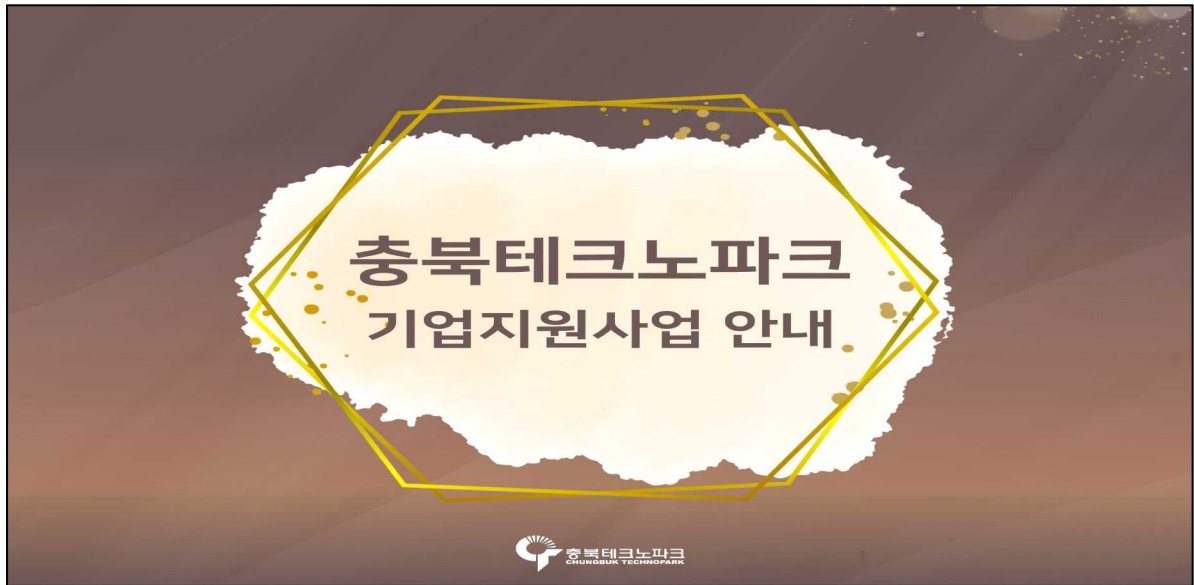
We express the socially embedded value and norm in the changed of the society through the public culture. The paradigm shift of the Korean society was appeared from the industrialization to the democratization and the liberalization of the neo-liberalism. Through the process, the overlap and the collusion of the traditional-modern-post modern character and the native-foreign-global character was materialized. It resulted to the cultural hybridity. The Korean cultural hybridity includes the 'simultaneity of non-simultaneity', and through it, the specificity of the K-Culture can get the global universality. However some K-Contents was popular with the special state or the region. It was the outcome of the K-Culture's harmony

with the specificity of the state or the region expressed by the social relation and the usual life of the public based on the social structure and the history of the special society or the region. Thus we need the consilience between the culture research and the region research.

key words : the globalization of the K-Culture, the paradigm shift of the Korean society, the global universality of the K-Culture, the Korean specificity of the K-Culture, the hybridity of the culture

기업지원사업 안내자료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안내



대표산업 확인서 발급(한국은행 자금연계)

충북대표산업 영위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 건정성 강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 지원규모 |

- 최대 0.9% 이자 할인(이자 할인 범위는 기업신용도 등 여건에 따라 상이함)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충북 내 소재 기업 중 충북대표산업 표준분류코드(KSIC) 해당
-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지능형첨단부품, 차세대차전자소재셀, 반도체 첨단패키징
- 상세 코드는 충북TP 컨택센터 공지 확인
- (지원내용) 충북TP를 통해 [충북대표산업 영위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대출 시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이자할인)

| 공고일정 / 지원방법 |

- 상시지원
-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http://contact.cbtp.or.kr>) 온라인 신청

2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컨택센터

기업지원단

- 기업육성팀
- 권마진 선임연구원
- 043-270-2213

충북 기술닥터 기업애로상담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 전문가POOL(기술닥터)을 활용한 기업현장 중심의 1:1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회 기업애로상담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충북 소재 중견·중소기업으로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KSIC코드 확인)
- 지원내용: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기술닥터가 현장 방문하여 1:1 맞춤형 기술애로지원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
- 단기애로상담: 인사·노무·장비·기술·수출 등 단기적인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칭 지원
- 심화애로상담: 단기애로상담진행 후, 추가적인 중장기적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집필지원: 단기애로상담 1회 이상 추진 후, 과제기획 등 원고 집필지원

애로상담 신청서 제출

기업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충북TP

기술닥터 매칭

충북TP

단기 기업 애로해결

기술닥터 (최대 4회)

추가 애로 상담 신청

기업

심화 기업 애로해결

기술닥터 (추가 4회)

[공고일정 /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5. 5. 12(월) ~ 2025. 10. 31(금)
-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http://contact.cbtp.or.kr>) 온라인 신청

기업지원단

- 기업육성팀
- 유지인 주임연구원
- 043-270-2217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컨택센터

산업기술보호 지원사업(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4

[지원규모]

- 기업당 방문형 진단 및 교육 2백만원 이내 지원(10개社)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충북지역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산업기술보호 방문형 교육(컨설팅)
- 기업진단 및 보안 컨설팅
- 방문 교육(실무자 교육)
- 보안닥터 전문가 8회 이내 지원



[공고일정 / 지원방법]

- 공고일정: 4월 2주 ~ 상시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방법: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http://contact.cbtp.or.kr>) 온라인 신청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컨택센터

기업지원단

- 기업육성팀
- 김수연 선임연구원
- 043-270-2216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E-mail

배터리 제조 지원

5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작업명	Specification	
	50Ah급 파우치 (오상)	5Ah급 파우치 (단원 분봉)
Mixer	Capacity: 50L(Binder: 100L(PH))	Capacity: 50L(PH): 5L(PH)
Coater	Width: 220~300mm, Dry Zone: 2m x 420mm	Width: 300mm, Dry Zone: 3m x 220mm
Roll Press	Pressure: 10~180gpa	Pressure: 2.8bar/cm
Notching	Blank Size: 96x315x5.5mm Blank Size: 96x318x5.5mm	Blank Size: 75x90x5mm Blank Size: 77x92x5mm
Stacking	2-Stacking Blank: 31~33sheets Blank: 32~34sheets	2-Stacking Blank: 13sheets Blank: 14sheets
Packaging	Welding, Forming, Assembly, B/Filling	Welding, Forming, Assembly, B/Filling
Formation	192Ah, Voltage 0~9V, Current 500/2000(A, Chamber: 0~80°C)	120Ah, Voltage 0~9V, Current 100/5(A, Chamber: 0~80°C)
Degass	Vacuum Degree: Max. -98gpa	Vacuum Degree: Max. -99gpa

[공고일정 / 지원방법]

- 지원방법:
 - 50Ah급 문의: 차세대전지팀 / 신동윤 전임 / dyshin@cbtp.or.kr
 - 5 Ah급 문의: 차세대전지팀 / 박노신 전임 / pnnsin@cbtp.or.kr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E-mail

차세대에너지

- 차세대전지팀
- 김영구 책임연구원
- 043-270-2412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E-mail

배터리 시험 지원

6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장비	Specification	지원장비	Specification
충격시험	시험편적: 1,000 x 1,000 mm 충격량: 800kg 규격: KSCE2133-2, 62660-2, 62281, 60068-2	상승/하강 시험	시험편적: 801 mm 시험량: 1,000kg 규격: KSCE2133-2, 62660-2, 62281, 60068-2
충동시험	시험편적: 600 x 600 x 600 mm 충격량: 10~700mm 충격속도: 0.5, 1kg 규격: KSCE2133-2, 62660-2, 62281	분진시험	시험편적: 1,500 x 2,000 x 2,000 mm 시험량: 1,000kg 규격: KSCE2133-2, 62660-2, 62281
낙하시험	시험편적: 2,700 x 8,000 mm 시험량: 1,500kg 시험속도: 20~8,000 mm 규격: KSCE2133-2, 62660-2, 62281	충방전시험	720Ah/1A/5V ~ 1Ah/800A/1000V
압박충격시험	시험편적: 3,000 x 2,000 x 1,000 mm 시험량: 1,000kg 규격: KSCE2133-2, 62660-2, 62281	운송도 방출시험	시험편적: 3,200 x 2,000 x 2,000 mm 충격도: -20~95°C, 10~95%RH 규격: KSCE2133-2, 62660-2, 62281
진동시험	시험편적: 2,000 x 2,000 mm 시험량: 2,000kg 규격: KSCE2133-2, 62281, UN 38.3	부식시험	시험편적: 1,000 x 2,000 x 1,000 mm 시험량: 1,000kg 충격도: -20~40°C, 30~95%RH 규격: KSCE2133-2, 62660-2, 62281

[공고일정 / 지원방법]

- 지원방법: 차세대전지팀 / 박해철 책임 / hcpark@cbtp.or.kr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E-mail

차세대에너지

- 차세대전지팀
- 박해철 책임연구원
- 043-270-2411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E-mail

바이오센터 공동활용장비 보유현황 [오창/오송]

7

[오창센터 주요장비, 식품, 화장품 원료생산 및 분석장비]

- 발효기 시스템**
제조사 / 용량: 바이오 / 100L
모델명: F800-100
장비 설명: 바이오, 식품, 화장품 원료 생산에 사용
장비 설명: 바이오, 식품, 화장품 원료 생산에 사용
- 공정 분석 장비**
제조사 / 용량: GEA Process / 100L
모델명: SC-100-100
장비 설명: 공정 분석 장비
- 3D 프린터**
제조사 / 용량: Formlabs / 100L
모델명: Form 3
장비 설명: 3D 프린터
- 분석 장비**
제조사 / 용량: Agilent / 100L
모델명: Agilent 1260
장비 설명: 분석 장비
- 분석 장비**
제조사 / 용량: Agilent / 100L
모델명: Agilent 1260
장비 설명: 분석 장비
- 분석 장비**
제조사 / 용량: Agilent / 100L
모델명: Agilent 1260
장비 설명: 분석 장비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E-mail

차세대에너지

- 차세대전지팀
- 박해철 책임연구원
- 043-270-2411

기술

컨설팅

사업화

수출

인력

장비활용

자금투자

E-mail

398

8

| 중평센터 주요장비-융합소재개발 장비

8

9

9

1

기술

사업회

사업회하반기치여물센터
남양주지점어머센터

11

기술

사업화

사업화

여물센터

여물센터

기술

사업회

사업회

한방치유물센터

어물센터

13

13

입주안내

대상기업

- 반도체IT, 바이오, 차세대에너지, 수송기계부품, 한방천연물 관련 기업 등

임대용도

- 본사 및 연구소, 도시형 공장 등

시설지원

- 각 센터별 보유 장비 활용 및 신뢰성 평가 등 지원
- 부대시설 : 회의실, 세미나실, 구내식당, 카페 등

| 입주기간 |

- 최초 3년 + 연장 2년 + 연장 2년

| 임대료 및 보증금 |

- 임대료: 건물별 차등 1㎡당 5,200원~7,500원, 클린룸 12,900원 (부가세 별도)
- 보증금: 월 임대료(부가세 포함)의 12개월분
- 본부관 80㎡ 기준: 임대료 약 55만원, 보증금 약 660만원 (관리비 별도)

| 문의처 |

- 경영지원본부 통합안전관리팀 정우태 책임연구원 ☎ 043-270-2054

충북테크노파크 인프라 현황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의 **중심** 에서
새로운 **충북** 을 건설하는 ”

CBTP와 함께라면 성공이 보입니다.

2025년 충북세계인문사회학술대회

AI 시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2025년 7월 3일 인쇄

2025년 7월 3일 발행

발행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발행처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n308호(삼성동, 미켈란 107)

이 발표논문집은 202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NRF-2025024468)